

延州玄氏大同譜



始祖尊影

延州玄氏九修大同譜 目錄

始祖尊影

延州玄氏 宗旗 徽章

墓全景祠宇齋室墓碑

墓山圖墓所地圖

目次

1.병신구수 전자대동보 서---	대종회장 玄 裕 秀-----	6
2.경진보서(庚辰譜序)-----		8
3.祝 刊 辭-----		13
4.凡 例-----		15
5.정묘보서(丁卯譜序)-----		16
6.기미보서(己未譜序)-----		19
7.갑진보서(甲辰譜序)-----		22
8.신축보서(辛丑譜序)-----		25
9.갑자보서(甲子譜序)-----		29
10.정유보서(丁酉譜序)-----		32
11.임술보서(壬戌譜序)-----		35
12.정묘보문목(丁卯譜問目)-----		42
13.연주성주회원여지승람(延州星州檜原輿地勝覽)-----		47
14.시랑공사적(侍郎公事蹟)-----		50
15.심묘사적(尋墓事蹟)-----		53
16.경헌공신도비명 명서(景憲公神道碑銘 并書)-----		61
17.경헌공 묘표(景憲公墓表)-----		68
18.상서공사적(尙書公事蹟)-----		74
19.구현기로회 좌목소서(九賢耆老會 座目 小序)-----		81

20.영변남악사우 봉안축문(寧邊南嶽祠宇 奉安祝文)	83
21.상서공심묘사실기(尙書公尋墓事實記)	91
22.상서공묘갈명(尙書公墓碣銘 并序)	104
23.광성군사적(廣城君事蹟)	114
24.회원군사적(檜原君事蹟)	115
25.도원수공실기(都元帥公實記)	116
26.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120
27.판서공신도비명 병서(判書公神道碑銘 并序)	123
28.판서공묘갈명(判書公墓碣銘)	133
29.영모사창건기(永慕祠創建記)	143
30.부정공사적(副正公事蹟)	146
31.사평공제단비명 병서(司評公祭壇碑銘 并序)	147
32.판윤공사적(判尹公事蹟)	151
33.찬성공사적(贊成公事蹟)	154
34.찬성공신도비명 병서(贊成公神道碑銘 并序)	162
35.병사공사적(兵使公事蹟)	172
36.병사공묘갈명 병서(兵使公墓碣銘 并序)	176
37.묵은선생묘갈명(묵사공)병서(默隱先生墓碣銘(牧使公)병서)	177
38.판관공사적(判官公事蹟)	182
39.판관공묘갈명 병서(判官公墓碣銘 并序)	184
40.현감공묘갈명 병서(縣監公墓碣銘 并序)	194
41.남송사창건사적비(楠松祠創建事蹟碑)	200
42.참봉공묘갈명 병서(叅奉公墓碣銘 并序)	204
43.희암선생유고서(希庵先生遺稿序)	209
44.희암공묘갈명 병서(希庵公墓碣銘 并序)	212
45.남촌공행장(南村公行狀)	219

46.백암선생행장(白庵先生行狀)	235
47.관봉선생기사(冠峯先生記事)	239
48.탄옹공실기(灘翁公實記)	242
49.죽림정공묘지명명서(竹林亭公墓誌銘并序)	244
50.송암공기사(松巖公記事)	250
51.효자공묘표(孝子公墓表)	252
52.무송공행장(撫松公行狀)	255
53.첨지공행적(僉知公行蹟)	265
54.중랑장공파사적(中郎將公派事蹟)	267
55.발문(跋文)	276
56.보유(補遺)	279
57.항열자예정표(行列字豫定表)	282
58.대종회임원명단(大宗會任員名單)	293
59.대동보편찬위원회임원명단(大同譜編纂委員會)	295
60.성금출연자명단(誠金出捐者名單)	296
61.9수 전자대동보 편집 후기	현진동 297
62.자손록(子孫錄)	

1.병신9수 전자 대동보서

때는 1953년 6.25전쟁이 끝나기도 전 대구에 주소를 두신 종중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북에서 피난 오신 종원 들이나 남에서도 뿔뿔이 흩어져있는 종원 들을 수습하여 그 생활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궁금했기에 흩어진 종원들을 모아 안부라도 묻고 죽지않고 살아있음에 기쁨의 잔치를 열어 자축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합의로 추진한 것이 오늘의 대종회(大宗會)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연주 현 씨 대종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종친회는 초대회장에 현석호 어른을 추대하여 출범하였고 2대 현이복 회장, 3대 현승종(전 국무총리)회장, 4대 현수근 회장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명의 종원의 누락도 없이 한 족보책자에 다 수록함으로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고 싶은 일념으로 매진 또 매진 하였으나 아직도 지방향리에 거주하는 몇몇 분들은 연주로 통일된 본관조차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또 한편 한자(漢字)를 배우지 않은 젊은이들은 읽을 수도 없는 한자로 된 족보책을 진열용 장서로 냉대하면서 젊은 후손들이 쉽게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해 오기에 그에 대처한 것이 이번에 발간하게 된 전자족보입니다. 또 일본의 침략에 의한 피해는 우리 역사의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 족보의 왜곡까지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족보에서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그릇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 펴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해당가문의 회장님이나 간부님들의 양보와 협조가 있어 순조롭게 완성되어진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종원 들은 다들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집안 사람들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은 급하거나 불의를 보면 응징해야 직성이 플리는 성격인데 각자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양으로 자제하시고 장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자기의 생을 풍요롭게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9수보 편찬계획안을 상정, 결의하고 회장단 협의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추진 받은 후 외주 용역사 선정 등 절차를 거쳐 동년 8월부터 편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기초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보편찬 작업을 하신 편찬위원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와 각 지역 종친회 회장 및 임원 그리고 수단위원의 협력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수보 전자족보는 “보다 보기 좋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9수보의 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을 위한 분석과 예단을 준비해서 최첨단의 족보를 통해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종친회를 통하여 친족 간의 우애도 돈독히 하며 이번 편찬에 빠져 있는 종원 여러분은 추가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역사의 빛나는 연주현문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홉 번째 제작하는 전자족보의 발간 인사를 마칩니다.

대종회장 현유수(玄裕洙 :전객령공파 27세손) 근서

2.경진보서(庚辰譜序)

八수대동보서(庚辰八修大同譜序)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종족(宗族)의 족보 여덟 번째 수보(修譜)를 펴 낸다. 이에 우리 현문(玄門) 모두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地平)에 서는 듯한 큰 희망의 감회에 젖는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뿌리내린 우리 종족(宗族)의 유래(由來)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 명신록(高麗名臣錄) 및 영변군지(寧邊郡誌) 고사란(古事欄)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시조공(始祖公)께서 방년 십구세(芳年十九歲)의 약관 때 중국 거란의 흉노(匈奴)가 국경을 침범하자 공(公)께서는 바로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흉노를 토벌(討伐)하여 평정(平征)하시니 고려 의종(毅宗)께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명신거족(名臣巨族)가문과 성혼하게 하고 연산부사(延山府使)로 제수(除授)하셨다.

그 후 중국 금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고려지원군 대장(高麗支援軍大將)으로 출정(出征)하여 대승(大勝)을 거두고 귀국하셨다. 또 고려 명종 사년(高麗 明宗四年)서기一一七四年부터 六년에 걸쳐(지금으로부터 八二六~八二七년전) 시조(始祖)께서는 자(子)형제와 같이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하여 큰 공훈을 세워서 그 원훈(元勳)으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어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졌다. 그 후 자(子)형제도 높은 관직에 봉해져 현씨가문(玄氏家門)을 명문대가(名門大家)로 이루어 온 것이 우리 뿌리의 대강이

다.

[영변(寧邊)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소월(素月)의 명시[진달래 꽃]의 고장 평안북도 영
변(寧邊)의 옛 이름이 연주(延州)로서 바로 우리 시조 시랑
공께서 현씨가 문을 연 유서 깊은 곳이다. 그 명문(名門)의
사적(事蹟)을 보현사(保玄寺:현씨가문의 보책(譜冊) 기록을
보관한 사찰로 현씨 가문이 발전될 것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절)에 보존하였으나 명(明)나라 성화 연간(成化年間)에 불행
하게도 이 절이 소실(燒失)되어 버려 그 안에 있던 사적(史
蹟)도 소실되었고 다시 중건(重建)하면서 그 이름을 보현사
(普賢寺)로 개칭하였다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
다. 그간 한 시조(始祖)이면서도 출증하신 증시조(中始祖)들
의 관직(官職)이나 작위에 따라 본관(本貫)을 성산(星山), 창
원(昌原), 순천(順天),등으로 분파하여 족보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二五三년전(서기 一七四七
년)에 정묘보(丁卯譜) 증보초판(增補初版)에서 합본한 것인데
현재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고증(考證)에 따라 연주 현씨 대종회, 총회 의결(延州
玄氏大宗會, 總會議決)로 단일 본을 쓰기로 하고 임술 七수
보(壬戌 七修譜:서기 一九八二년)에 연주현씨대동보(延州玄氏
大同譜)를 편찬하였다. 그로부터 十八년이 지났다. 한 세대의
교체를 대략 三〇년으로 보면 十八년의 세월은 길지 않은 듯
이 보이나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시간의 개념은 과거의 몇
십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대치시킬 정도로 바뀌고 있다. 여
기에 二〇〇〇년 경진 八修大譜의 편찬 의미가 크다 하겠다.
새로운 천년의 우리 대동보 증보(大同譜 增補)편찬의 의미는

시간 개념보다 더욱 넓고 깊은 뜻, 즉 종족끼리 단합하고 좋은 풍속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족보를 증보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그간 누차의 증보판 서문에서 명쾌히 밝혔기에 중언(重言)할 필요는 없겠으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진 현하 二十一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그에 알맞게 대처해야 할 시점임을 느끼게 된다.

이에 우리는 一九九四년 五월 연주현씨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八수대동보(八修大同譜) 수정증보 편찬을 결의하고, 그 후 두 해에 걸쳐 편찬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八수보(八修譜)에는 새로이 묘와 비(墓와 碑), 신도비(神道碑), 재실(齋室)들을 현대식 천연색 사진으로 실기로 하고 묘지 위치는 지형도(地形圖)를 사용하여 출판키로 하였다.

그간 수보 편찬에 전념하신 위원장이하 임원의 노고와 각종 회 수단위원(收單委員)의 협력을 진심으로 치하함과 아울러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북한에 잔류(殘留)하는 종족(宗族)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이번의 수보(修譜)에도 거의 제외될 수 밖에 없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정보기술 혁명과 자본의 경합이 불러온 엄청난 변화는 세계 질서를 바야흐로 지구촌(地球村)으로 내몰고 있다. 마치 민족이니, 혈족이니 하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지구촌화 시대에서도 만대(萬代)까지 민족이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크게는 민족, 작게는 씨족의 정체성(正體性)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과 정신세계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것

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고루(固陋)한 세습(世襲)에의 퇴행(退行)이 아니고 오히려 물질문명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도덕과 윤리의 부재, 오만과 방종 등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 소중한 정신과 철학을 우리 조상들의 사적(事蹟), 실록(實錄), 신도비(神道碑), 족보(族譜)등에서 찾을 수 있으니 현문(玄門) 일족(一族)된 후손(後孫)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의 [열]과 생활신조에서 드러난 네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유유(悠悠)함]의 덕목이다. 푸른 하늘에 자유로이 흘러가는 흰 구름처럼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조상들의 삶의 태도는 [유유]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갖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을 갖되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명예를 갖되 명예의 포로가 되지 않고, 지위를 갖되 지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유유]의 덕일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덕목으로 제 일차적으로 갖춰야 할 우리 민족의 기본정신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당당(堂堂)함]의 덕목이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대장부론(大丈夫論)을 피력하였다. 부귀 앞에서도 정신이 타락하지 않고, 가난의 고행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권력이나 무력으로 협박을 하여도 굴복하지 않는 늠름한 사나이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함이 맹자의 소론(所論)이다. 우리는 만세반석(萬世盤石)과 같은 꿋꿋한 의지와 상록수와 같은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인생의 정도와 대로를 뚝뚝하게 확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제로 응비하는 우리 조상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조상이 바라는 후손들의 영웅(英勇)한 모습일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 있는바와 같이 우리 시조 시랑공(侍郎公)의 사적은 이와 같은 당당함을 우리 후손에게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로 기릴 조상들의 덕목은 [호호(浩浩)함]이다. 마음이 넓고 활달한 것이 호호함이다. 호호는 대인(大人)의 마음이요 달인(達人)의 기상이다. 온갖 더러운 하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그 혼탁함을 잘 정화시켜 오염되지 않듯이 우리는 역대 조상들이 지녔던 바다와 같은 넓은 포용력(包容力)과 광활한 정신을 배우고 길러야 한다. 우리 시조께서 약관 十九세 때에 흉노(匈奴)가 국경을 침범하였을 때 의병을 일으켜 격퇴하신 사실(史實)은 우리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호호한 정신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담담(淡淡)함]의 덕목이다. 담담이란 맑고 조용한 마음이다. 그것은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아서 사물을 밝고 밝고 분명하게 비춰준다. 우리가 어지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맑은 물이 바위를 흐르고 밝은 달이 하늘에 빛나듯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정정하고 밝아야 하니 그것이 바로 담담한 마음이라 하겠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현문(玄門) 대대로 이어져 온 덕목으로 역대의 연주현씨 세보(世譜)서문이나 사적, 세덕록(世德錄)등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우리 후손들은 이상의 열거한 조상의 정신을 효칙(效則)하여 수신(修身)하고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족보를 편찬하면서 우리 현문(玄門)을 빠짐없이 수단(收單)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훌륭한 조상의 덕을 오늘에 다시 되살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정보기술 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파괴되어 가는 인간성과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조들의 생활관(生活觀)에 기초하여 연주현씨 대종회(延州玄氏 大宗會)를 중심으로 각 시도(市道)에 조직되어 있는 각 지역 종친회(宗親會)를 통하여 종친 간에 더욱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후손의 무궁한 번영한 인재(人才)양성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두터우시고 넓으신 선조님의 음덕(蔭德)과 혜택이 우리 후손들에게 두루 미쳐 새천년의 빛으로 찬연히 빛나리라 믿으며 이 글을 서문(序文)에 부친다

西紀 二〇〇〇년 경진(庚辰) 十二月 일

侍郎公 二十六世孫 國家有功者 大宗會顧問 泰鎮 敬序

3. 祝刊辭

傳之以心으로 三統, 三不朽가 移孝思忠으로 化家爲國이요 衛道衛國으로 治教休明하니 有斐東方에는 家乘國史 따라 그 弘益의 風化가 粲粲有倫하였다. 猗歟盛哉라, 이때 家乘은 곧 君子의 盾이요 國史는 이 東方의 文이니 이로써 吾東 君子國에는 文質이 彬彬함을 由來로 저 不死之國의 仁者壽와 禮儀東方의 文明모를 함께 누려왔다. 이 같은 家乘과 國史 兩面實際에 바로 氏, 宗族間에는 譜錄등의 統緒가 連綿하였으니 이는 곧 家族이 民族으로 만날 수 있는 그 棟樑이라, 한 마디로 海東의 族譜는 由緒깊은 史乘一貫의 그 所重한 中庸文化에 該當한다. 그렇기에 譜學의 文脈은 여기서 家乘으로는

根本主義로 그 뜻이 生生하고 國史로는 大同主義로 連結 그 脈絡이 크게 淵淵하다. 延州玄氏는 邦內著姓이니 始祖이신 侍郎公以下 그 先世의 統緒가 실로 立言, 立德, 立功의 三不朽로 有斐連綿하였다. 즉 멀리 將軍公, 尙書公, 昆季의 宗祊生民에 두루 펼친 큰 功德은 無以議爲요 鮮明에서도 저 判官公의 義舉殉國과 白庵, 彝庵, 兩公의 奮起樹立등은 참으로 正大한 爲國法統이며 希庵公의 謝簪遜世나 冠峰, 不能高, 兩公의 淵源正學은 그대로 高潔한 斯文의 衛世道統이라, 특히 英廟朝時 丁卯譜役에서 이미 陶庵 李絳 南塘 韓元震先生과 같은 大方의 質正을 통해 博采宗議로 그 本貫을 延州씨로 統一歸正하였으니 이는 그대로 邦內에서도 純正한 그 一家體統이라. 이로써 延州玄氏 名門에는 오늘도 저 體(父).道(師).法(君)의 三統이 이처럼 不離不雜으로 一貫有斐로우니 懿歟美哉라. 大宗會長 玄勝鍾 前總理는 그 學德이 孔碩이요 斯文에도 有斐君子라 平素에 尊慕롭던중 庚辰 歲暮日에 宗議와 資料를 함께 모아 不佞에게 八修大同譜의 弁文을 求하는지라 實로 萬不勘當이나 於誼에 不可辭요 특히 辛丑譜時 吾先 勉庵 先生의 序文 世誼가 더욱 追慕로다. 이곳 大成 明倫의 首善之地에서 삼가 弁卷에 述하노니 오늘의 陵夷世道속에서도 先世의 垂訓따라 그 世德風化를 傳之以心으로 再三 밝히며 祝하는 바이다.

檀紀四三三三年庚辰歲暮(西紀二〇〇〇年)

成均館長 月城 崔 昌 圭 謹書

4. 凡例

延州玄氏 大同譜編纂委員會 規程 및 施行細則과 編纂委員會 議決事項에 準據하여 庚辰譜의 凡例를 定함에 있어 壬戌譜(一九八二年刊)를 基準譜로 하고

丁卯譜(一七四七年刊) 己未譜(一七九九年刊) 甲辰譜(一八四四年刊) 辛丑譜(一九〇一年刊) 甲子譜(一九二四年刊) 丁酉譜(一九五七年刊) 川寧派譜(一八六七年刊) 令同正公派譜(一八八五年刊) 判尹公派譜(一九二七年刊) 龍川派譜(一九三八年刊) 漣朔派譜(一九六九年刊) 博川派譜(一九七〇年刊) 등을 參考譜로 하여 大綱을 定하였다.

一. 本譜는 延州玄氏 八修大同譜(庚辰譜)라 한다.

一. 譜冊은 八卷 一帙로 하고 活字는 清朝體, 孫錄은 七段 五號 九字高 四十行으로 하였다.

一. 首卷初에는 始祖 尊影, 延州玄氏宗旗, 先祖 墓, 碑, 祠宇, 齋室, 等を 天然色 寫眞을 插入하였고, 墓山圖는 黑白으로 既存譜 와 같이 하였으며 墓所地圖는 南韓은 二萬五千分之一(一九九六年度編) 北韓은 五萬分之一(一九七七年度編) 地形圖로 墓와 齋室 位置를 標示하여 墓所를 찾는 데 便利하게 하였다.

一. 庚辰譜의 모든 孫錄은 伯, 仲, 叔, 季의 順次에 따라 一律的으로 編纂하여 各卷 起頭에 卷, 頁을 表示하여 찾는 데 便利하도록 하였다.

一. 本宗을 繼承한다는 分別에 따라 男先女後로 하여 차례를 밝혔으며 子女名字는 大活字로 하고 吐는 小活字 한글로 表示하였으며 配, 室, 夫는 小活字로 表示하였다.

出嫁女, 未婚女는 男과 같이 記入하고 出嫁女의 夫는 姓名

本貫만 記載하였다.

一.孫錄의 譜註는 이름, 諱, 字, 一名 또는 初名, 號, 生卒年月日 年代는 西紀年號太歲를 併用하고 學, 職, 行狀, 經歷, 賞勳, 墓所 等を 記錄하였다.

一.配位에 生存者는 室, 死亡者는 配로 表示하고 本貫, 姓名, 父名, 生年月日, 卒年月日, 學, 職 等으로 男과 같이 記錄하여 墓所가 兩位 同一한 場所일 時는 配位 끝에 表하고 雙封 또는 合封으로 記錄하였다.

一.墓所는 先山, 先墓 등은 先塋으로 統一하고 郡, 面, 里, 番地, 號, 坐向石物, 有無를 詳細히 記錄하였다.

一.收單은 國內는 勿論 中國, 美國, 日本 等 外國居住者도 納單하였으나 收單이 不可能한 北韓과 收單에 應하지 않는 宗員은 壬戌譜에 登載되어 있는 範圍와 編纂委員會規定內에서 記錄하였다.

一.分派圖를 細分하여 一九世까지를 明記하고 各根源地域을 表示하여 찾기 便利하도록 索引表를 記載하였다.

이책은 우리 玄氏史와 先祖의 世德을 옛날 名卿과 碩學에게 찾아가 지은 文字이다 지금도 글을 읽어보면 그 뜻이 深長하고 體系가 分明하여 직접 對談함과 각기 우리 玄氏 子孫된 이는 누구나 배우고 보아 앞날에 模範과 發展이 있을 것을 期待하오니 愛讀하여 주시오.

5.丁卯譜序

冠峯玄公尙璧遺子希遠引其宗人命直子敬來子敬手問目小紙以質余卽其新譜之疑於改書始祖也蓋聞玄氏本延州人後來有三貫曰星山曰昌原曰順天星山昌原則兄弟而順天則又出於星山其子孫以中

祖之有封號各立始祖各自爲譜矣然麗史書星山公與其父將軍某倡義討賊星山舊譜錄此亦昭昭二祖上既有一代而名字官爵文獻足徵則以將軍公爲始祖星山公兄弟并置於將軍公之穆二派合爲一譜三貫俱改延州者義當而禮宜以是語子敬而歸之其後宗人希泰又以諸宗意來曰譜役已告訖而以將軍公爲始祖合譜改貫一如子言子又不可無一言以弁卷也余辭不獲略書顛末如此嗚呼人孰無父母由父母而上之雖百世之遠皆父母之父母而實同一氣此禮經之尊祖而重本也太史公叙自重黎歐陽公溯至大禹若其可徵不以玄遠而或遺而二派之共祖於將軍公者其亦推二祖爲父母之心也真天理之自然而又自將軍公推之子之子孫雖孫而又孫同出於一人之身其所慈愛無近遠親疎之異念之至此我之所以相友睦之意豈不油然而生雖遠如近雖疎宜親曷若前日之各祖其祖各譜其譜不相管攝者哉全譜諸賢能不忘今日合譜同祖之誼則親愛之情寧有不相篤者乎患難之際寧有不相恤者乎如是而風俗厚忠義立寧有不有益於朝廷者乎噫其各勉之余於是役別有感焉惜乎冠峯公不在其見識之高義理之明綜核宗事必不待人之議而定之今不可得聞其一言重可悲夫

英祖二十三年丁卯孟秋日

坡平 尹 鳳 九 書

丁卯譜序 譯文

冠峯玄公 諱 尙璧의 遺子 希遠이 그 일가사람 命直 字子敬과 같이 나에게 찾아와서 子敬이 쓴 問目小紙를 내놓으며 疑心되는 것을 質問한 것은 族譜를 新刊 하는데 있어서 始祖를 改書하자는 것이었다. 듣건대 玄氏는 元來 本貫이 延州人이 있으나 後孫들이 本貫을 셋으로 나뉘 켜오니 星山 昌原 順天이다. 星山과 昌原은 兄弟間이시고 順天은 星山에서 나온 子

孫이 中祖의 封號에 따라 諸各其 始祖를 세워 族譜를 編纂한 것이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星山君께서 그 父親 將軍公과 같이 國亂이 있을 때에 義兵을 일으켜 賊을 討伐하였다고 仔細히 記錄되어있다. 星山君과 昌原君 두분 위로 一代가 있으시어 그 諱字와 官爵에 對兄한 文獻이 있으므로 將軍公을 始祖로 하고 성산군 형제분을 다같이 合하여 한 族譜를 만들어 三貫을 延州로 統一하는 것이 宜當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子敬이 돌아와서 傳 하니 그 후 宗人 希泰가 모든 宗意로써 譜牒에 將軍公을 始祖로 모시어 合譜하자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대로 編纂하였으니 序文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나는 辭讓하다 못하여 그 顛末을 大略 다음과 같이 記錄하는 바이다.

아! 슬프다 사람이 누구든지 父母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父母로 因緣하여 위가 있으면 비록 百世가 멀다하여도 다 父母의 父母이다. 實地로는 같은 血肉이므로 先祖를 尊敬하고 根本를 所重히 여기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太史公(옛 사람의 이름)이 그 始祖를 重黎로부터 내려쓰고 歐陽公 은 夏나라 禹 임금에 이르기까지 아득히 먼 世代의 遺蹟을 밝히어 疏忽히 하지 않았다. 二派가 다같이 將軍公을 始祖로 하는 者 는 그 두 先祖의 父母를 위한 마음을 또한 推測할 것이니 이것은 眞實로 天理의 自然이며 將軍公으로부터 推算하면 이들의 子孫이 비록 孫子인데 그 孫子도 역시 한사람의 몸에서 같이 태어났으니 사랑스러움이 遠近과 親疎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매 내가 所願하는 것은 서로 孝友하고 親睦하는 뜻이 어찌 油然而히 생기지 않으리요. 비록 멀어도 가

까운 것 같고 비록 情이 멀다 해도 親切하여야 할 것이니 前日의 여러 祖上이 그 조상이며 여러 族譜가 그 족보일 때와 같이 어찌 서로 管攝하지 않으리요. 온 족보에 收錄되어 있는 여러 宗族들이 오늘에 合譜하여 같은 祖上의 誼理를 잊지 않는다면 서로 情誼가 어찌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며 근심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찌 서로 돕지 않으리요 이 같이 하여 두터운 風俗과 忠義를 세우면 어찌 朝廷에 有益하지 않으리요.噫라 각자가 다 이에 힘을 쓸지어다.

내가 이 서문을 쓰게 되어 特別히 感動되는 바 있으니 슬프도다. 冠峯公께서 世上에 계시지 않음으로다. 그 높으신 識見과 밝고 밝으신 義理로써 이 宗事に 臨하셨더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議論할 것 없이 決定하셨을 터인데 只今에 그 말씀 한 마디를 들어 볼 수가 없으니 이에 슬프기가 限이 없도다.

英祖二十三年丁卯孟秋日(서기 一七四七年 정묘년 초가을)

坡平 尹 鳳 九 書(파평 윤 봉 구)

6.己未譜序

族之有譜古矣我東巨族以一姓而支分派別各自有貫而爲譜者誠不害爲周禮氏族之例若其一譜中別附者余嘗病其有所闕無所據矣今延州玄氏之族新成譜牒以盡其尊祖重本之義豈不善哉昔當譜議之始發以其三貫之分系致有一宗之岐論就質于李陶庵尹久庵兩賢得有以正其乘謬乃於 英祖丁卯譜書編成而亦不能盡依兩賢之論甚爲識者所訝歎近者改修之謀宗黨詢同尙書公二十代孫進士鎮坤主張竣事今鎮常甫遠來問序余竊惟凡所定例既從陶翁說至於弁卷亦有久翁文顧以賤陋豈容贅辭噫人之明於系譜者儘所以收宗族而厚

風俗立忠義而益朝廷斯譜之成使人觀之孰不以爲明於系譜也三貫之各從其族分書支派卒乃會其源於本氏者其於氏族之別亦明矣譜於斯者吾知其孝悌之心油然而生必如蘇氏之說也先系累世之間雖未有爵秩勳業之燁赫而實不無文章節義之卓偉若希庵公清名直道冠峯公之邃學懿行宜其族黨後承誦慕而篤守矣今之覽斯譜者豈可以近代之不振而少之也從茲以往凡爲將軍公後裔者雖皆散處之遠而其所親愛之篤則時諸各譜時亦自有間焉歲時花樹之會盍相惕勵益修敦睦哉余之爲此說倘不孤諸賢問序之本意也歟

正祖二十三年 己未 秋 七月 上澣

德殷 宋 煥 箕 序

己未譜序(기미보서 正祖二十三年)

우리 겨레에는 예로부터 族譜가 있었다. 東方에서 번창(繁昌)하는 巨族들은 한 성이라도 여러派로 나뉘어 각기 本貫이 있어 족보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周公(주나라 정치가로 文王의 아들이오 武王의 동생)께서 주례(周禮)의 예에 따라 만드신 氏族에 대한 禮의 한 예이다.

내가 항상 보책에 기록한 것이 혹시 잘못되는 것이 없나 우려하는 바이다. 이제 延州玄氏의 성족(姓族)이 보첩을 새로 만들어 그 선조를 존경하고 근본(根本)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義理)를 다하고 있으니 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리오. 전에 족보를 만들려고 시발 할 당시에 삼관(三貫)의 분파가 한 종족으로 숨치자는 의론(議論)에 일치되어 李陶庵선생과 尹久庵선생 두 賢人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질문하였더니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 영조 정묘년(一七四七년)에 보첩을 편성하였으나 양선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는 사람

끼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기던 차에 개수(改修)하자는 모의(謀議)로 종당(宗黨)에서 숙의한 끝에 상서공(尙書公) 二十代 孫 進士 진곤(鎭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일에 성사한 다음에 진상(鎭常)이가 멀리 나에게 찾아와서 서문(序文)에 대하여 문의하기에 내가 가만히 정해진 예를 생각해 보니 기왕에 도암(陶庵)선생의 말씀에 쫓았으며 또한 함권(含卷)한 것은 구암(久庵)선생의 글과 같이 하였으니 천누(賤陋)한 나로서 어찌 이에 언급하리오. 아! 사람이 제보를 밝혀서 종족을 수록하는데 진력하여 좋은 풍속을 두렵게 하고 충의를 세워서 국가를 이롭게 함이라 이번 보첩을 이룬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되면 그 누가 제보에 밝지 않다고 하리오. 본관(本貫)이 세 갈래로 나뉜 것은 족보가 셋으로 분첩한 데서 온 것이요, 지파(支派)가 여러 갈래로 된것도 그 근원이 같으므로 본성씨(本姓氏)에 모이게 된 것이니 씨족의 구별에 대한 것도 또한 분명한 것이라 하겠다. 족보는 이러한 책이기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友愛)하는 마음이 유연(油然)하게 솟아나오는 것을 알게 되니 소동파(蘇東坡)의 말씀과 같도다. 선대 여러 조상님들께서 비록 높은 벼슬과 찬란한 업적은 없다해도 탁월한 문장과 위대한 절의를 가진분이 있으시니 희암공(希庵公)의 청렴하고 고매하신 인품과 관봉공(冠峯公)의 넓은 학문과 훌륭하신 행적은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사모(思慕)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에 이 보첩을 보는 사람이 어찌 근세에 와서 위인이 적다 하리오. 이로 쫓아서 장군공(將軍公)의 후손들이 비록 서로 먼 곳에 흩어져 살아도 사랑하고 친절함을 두터이 하면서 제각기 가지고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

다. 때때로 모이는 화수회에서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 하는 것은 제현들이
나에게 서문의 내용을 물으신 본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바이다.

정조 二十三年 己未(서기 一七九九년) 秋 七月 上澣(상한)
에

덕은 송 환기(德殷 宋煥箕)

7. 甲辰譜序

易 同人之象曰君子以類族辨物 同人之類族辨物 否之終而大有之始
也 小而辨物 七日來復之道也 夫經緯其姓名綱紀昭穆導一宗之源本
是九族之總統斯乃人倫根帶而譜之所以作也 周禮小史之職掌上下
世系以宗法繫屬天下故蒼姬之隆人知斯義克紹其先休保守其家業
兢兢乎禮教之中而靡敢或肆是爲維持世程之基本也 秦漢以降無所
於別姓定系而宗法遂壞矣 徒尚虛文惟貴顯閥閱之是尚故曰尚文之
弊至於尚官尚官之弊至於尚姓尚姓之弊至於尚詐世承其弊不知其
所以弊程子始言明譜系爲收宗族之要法使人不忘基本更互爲禮骨
肉之情常相流通乃所以管攝天下之人心也 延州玄氏爲左海顯族自
勝國人 本朝世多聞望如將軍公之誠激義旅忠感狡虜尚書公昆季
之削平猾賊功著旂常判官公之舉義殉國希庵公之謝簪遯世冠峯不
能窩兩公之淵源正學承三碧之操齊八士之列白庵彝庵奮起西北能
自樹立者爲今昔之所誦慕而堂構播畬雲仍千指是所云士食舊德之
名氏農服先疇之畎畝者歟譜始成於丁卯而再修於己未三修於甲辰
判書公後孫鎮定相舜徵序于不佞不佞累辭以癯病閣筆而其懇愈摯
顧不能爲文略舉周禮成法河南正訓而誦之至若會源歸本之論尊祖
敬宗之道已悉於陶庵屏溪性潭三賢之文茲不敢贅焉因之語玄氏後

承曰觀乎譜而師先祖之善服其詩禮之眞傳則爲君子也可美矣夫有君子而無祿位族雖衰猶盛也祿位顯榮而君子無聞焉族雖盛猶衰也盛衰由于善惡不效流俗借烏衣青箱誇詡世閥惟交修胥勗樂善好學以忠信爲本本孝悌爲仁仁讓興於一國則玄氏之宗赫然光于來世者寧知不權輿于今乎大易來復之理於是焉可驗玄氏乎其欽念哉

憲宗十年甲辰

彌甥 唐城 洪 直 弼 序

甲辰譜序文(갑진보 서문)

주역동인괘(周易同人卦)의 괘상을 보면 군자가 류족(類族)으로써 물건을 분별한다 하니 이는 부괘(否卦)의 마침이요 이어서 대유괘의 시작이 된다. 세밀하게 물건을 분별하면 七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 성명을 기록하고 그 경위를 구분하여 일가의 근본을 밝히고 九族(高祖 曾祖 祖父 子孫 曾孫 高孫 余:위로 四대 아래로 四대)의 계통을 찾는 것이며 인륜의 근본을 탐구하여 족보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다. 周禮의 小史의 직은 상하 세제를 말아서 宗法으로써 천하의 종족을 연결하여 자손들이 융성(隆盛)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대의를 알아서 그 선대의 아름다운 유업(遺業)을 이으며 또한 가업을 잘 지켜서 예의(禮儀)와 교육의 중심이 되면 감히 방종하지 않을 것이니 바로 이것이 세정(世程)을 유지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

진(秦)나라 한(漢)나라 이후부터 성(姓)을 구별하고 세제를 무시함으로써 드디어 종법이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글만 숭상하고 오직 벼슬과 문벌만 숭상하였으므로 글을 숭상한 폐습이 벼슬아치를 숭상한 결과가 되었으며 대대로

그 폐습을 이어받아 그 폐습에 전염된 바를 알지 못할 처지
이었다. 이러므로 정자(程子)가 보계(譜系)를 밝히는데 비로
소 언급하여 종족을 수록하는 요법(要法)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여 다시 서로 禮를 갖추고
골육간의 정(情)이 상통하게 되어 천하의 인심을 관섭(管攝)
하였다.

延州玄氏는 우리나라 좌해(左海) 지역에서는 이름난 성씨로
승국(勝國)으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그 덕망이 높
았으나 將軍公의 충의로 의병들이 감동하였으며 나아가 오랑
캐들을 감격케 하였다. 尙書公 형제가 역적을 무찔러 현저
한 공을 기상(旂常:왕이 베푸는 예우)에 기록하고 判官公께서
의병을 일으켜 순국하신 것과 希庵公(희암공)이 벼슬을 사양
하고 후학들을 양성하신 것과 冠峯 不能窩 양공은 연원을 찾
아 정학(正學)을 하시고 삼벽당(三碧堂)의 지조를 이으며 권
수암문인인(權遂庵門人)의 영재인 팔학사(八學士)의 한분으
로 손꼽히시고 백암(白庵) 이암공(彝庵公)이 서북지역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능히 자립하여 후학을 가르쳐 준재가 배출
하니 지금이나 예나 송모(誦慕)하는 바가 되며 자손들이 마
치 밭에 종자를 뿌려 번식하는 것처럼 융성하여 생업을 하게
되니 옛글에 선비는 덕가(德家)의명성을 입고 농부는 비옥한
땅을 가진다 함이라.

족보를 丁卯年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두 번째는 己未年에 하
였으며 세 번째로 甲辰年에 하였는데 판서공의 후손 진정(鎭
定)과 상순(相舜)이가 재조없는 나에게 서문을 써 달라고 청
원하여 왔으나 재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써 사양하
다가 부득이 졸문(拙文)으로 대략 주례(周禮)에 있는 법과

하남정훈(河南正訓)을 참고 기록하여 보았다. 선대의 근원을 찾아 선조를 존경하고 종족을 사랑하는 도(道)는 이미 도암 선생(陶庵先生) 명계선생(屏溪先生)의 글에서 다 아실 것이니 이에 감히 더 부언(附言)치 않을 것이며 이로 미루어 玄氏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보면 선조의 선행과 덕행을 본받아 실천하면 군자가 될 것이니 可히 아름답도다.

君子가 있어도 녹(祿)받는 벼슬이 없으면 종족은 비록 쇠(衰)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오히려 성연(盛衍)하는 것이고 녹위(祿位)가 많이 있으면 겉으로는 종족이 영화롭고 흥하는 것 같으나 군자의 道가 없으면 사실은 쇠퇴하는 것이니 종족이 성연하고 쇠퇴하는 것은 자손들의 선행에 의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저속한 풍습에 따르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도(世道)와 문벌(門閥)을 세상에 자랑하지 말고 서로 진심으로 사귀고 서로 도와서 착한 일을 하며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충성과 신의로써 근본을 삼고 그 근본은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인(仁)이 될 것이니 어질고 사양함이 한 나라에 흥행한즉 역시 玄氏 종족의 영광이 來世에 빛날 것이 이제부터 시작 될 것이 아니겠는가? 주역(周易) 래복(來復)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니 玄氏들은 장래의 번영을 증명 할 것이며 더욱 공정히 생각 할 지어다.

憲宗 十年 甲辰(서기 一八四四년)

미생(彌甥) 당성(唐城) 홍 직 필(洪 直 弼) 서(序)

8.辛丑譜序

余釋褐屢直堂后略與西關朝士掌事變記注者相善聞延州氏先德甚

詳屈指歲月近五十年光陰旣而避地南來見聞生受蹤跡岵嶇漠然若窮籓蔽日有一儒生古貌古服闐然入門亟延而坐而叩之則玄其姓翼東其名德和其字居天安天安距定山三舍而近問其所以來曰吾家方有譜役請一言以弁卷端噫尊祖敬宗收族講睦譜家義諦卽然顧世級愈降虛僞日滋不覈其實粉飾外面以致真妄邪正泯然一色家無信譜國無信史此事關係世道汗隆風俗盛衰甚重幽有鬼誅明有人責而莫或省悟余嘗病焉今延州氏則不然疑以傳疑信以傳信寧僞史之闕文不敢誣其先質疑大方博采宗議從鼻祖而改貫統分派而合譜此實追遠不忘本之意而亦收宗族厚風俗之道也由是以往則友睦之誼生而親愛之情篤雖至百世之後庶見其承述無弊也顧何辭以贅但有一說不墜先德子孫莫不有是心然而徒知傳之以譜不知傳之以心者在在皆是也玄氏先世若將軍公與尙書公昆季之功存宗祊澤被生民者尙乎無以議爲 我朝以來判官公之舉義殉國希庵公之謝簪遯世冠峯不能窩之淵源正學白庵彝庵之奮起樹立雖其隱顯殊途而所歸一致爲玄氏者夙夜厥心思以諸玄之所以處家需世者需世則此不墜先德之第一義也惟玄氏勉旃哉遂書此以歸之

重光赤奮若中秋上澣

月城 崔益鉉 序

신축보서(辛丑譜序)

내가 벼슬 할 때에 堂上(당상)에 자주 가서 서관(西關)에 사는 사변기주(事變記注:벼슬이름)라는 직책을 가진자와 더불어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延州玄氏는 선조의 유덕이 훌륭하다고 들은지가 곧 오십년전 일이다.

광음(光陰)이 흘러 얼마후에 피난차 남쪽에 와서 보니 전문이 생소하므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빈한한 집에서 생활

하던 어느 날 한 선비가 옛날 옷과 옛날 모습으로 찾아왔기에 상호간에 인사를 교류(交流)하니 성은 玄이요 이름은 익동(翼東)이요 字는 덕화(德和)인데 거주지는 천안이라 하였다. 천안과 정산(定山)은 거리가 구십리나 떨어진 곳인데 나를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으니 우리 집안에서 족보를 하는데 그 서문을 써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가룩한 일이다! 조상을 존_ㄱ〇하고 종친을 경애(敬愛)하며 서로 화목할 목적으로 족보를 만드는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상사람들이 허위가 날로 늘어나고 그 외면만을 분장(粉粧)하여 거짓을 참된것이라 하고 간사한 것을 올바른 것처럼 다같이 일치하여 가정에는 믿을 만한 족보가 없으며 국가에는 믿을만한 國史가 없는 형편이 되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날로 쇠퇴하여 지므로 귀신이 노하여 사람들을 꾸짖을 것이니 우리는 깊이 반성하여야 하며 나는 이러한 일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延州玄氏는 그렇지 않다. 의심되는 일은 사실 그대로 믿을 만한 일은 믿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차라리 역사에 기록은 못할지언정 감히 지나간 일에 대하여 거짓은 안 될 것이며 만일에 의심이 나는 일이 있으면 종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조를 따라서 본관을 고치고 각분파를 통합하여 족보를 합쳐서 편찬하는 것은 선조를 추모하여 잊지 않는 본의가 될 것이며 일가들을 한데 모으는 좋은 풍속을 두렵게 하는 선조를 추모하여 잊지 않는 본의가 될 것이며 일가들을 한데 모으는 좋은 풍속을 두렵게 하는 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나아가면 우애와 화목하는 의(誼)가 생겨서 서로 친애하는 정이 두터워지면 비록 백세후라도 그 뜻을 이어 받는데 장애

됨이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하고싶은 말을 어찌 다 하
오리오만은 다만 한 미디 더 부언한다면 선대조상의 덕행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자손된 자로서 항상 잊어서는 안될 일이
다.

그러나 조상의 사적(史蹟)을 한갓 전할 줄만 알지 족보를 통
하여 전할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玄氏 선대의 장군공
(將軍公)과 상서공(尙書公) 형제분의 공로가 지극하여 백성
들에게 깊은 혜택을 베푸신 것이 참으로 지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조선조에 이르러 판관공(判官
公)이 의병을 일으켜 난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일이며 회
암공(希庵公) 휘(諱)는 덕승(德升:字 聞遠 호 회암 유명한 성
리학자)이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생활을 한 일이며 관봉공(冠
峯公) 불능와공(不能窩公)의 유학(儒學)의 연원을 찾아 정학
(正學)을 배운 일이며 백암(白庵) 이암(彝庵)공이 분연히 일
어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훌륭한 점 등은 비록 숨겨져 있으
나 현수(顯殊)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玄씨가 된 자는 이상 선조들의 덕행과 처세하신 것을 사모하
여 집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나 본받는데 힘쓰면 선조의 덕
행을 더럽히지 않는 의리가 될 것이니 오직玄씨는 이 일에
힘써 행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 글로써 그치는 바이다.

重光赤奮若中秋上澣(一九〇一年 八月 上旬)

月城 崔益鉉 序(월성 최 익현: 韓末에 항일투쟁
으로 국내의 저명인이며 고종 때 판서를 역임함)

9.甲子譜序

孝悌未始不由仁義而發凡有彝性者孰無此心但氣質得以間之莫省其所以然故雖在盛世猶患其無聞況人後千古世不三代義理爲弁髦惟華顯是尚尚官尚閥之弊滋而甚至貿易子女粉作譜牒此士大夫之所宜警筋而亦諸家之深自爲誠也審矣蓋譜者所以尊先祖敬宗族也欲尊敬者舍孝悌奚以哉苟是心做去則眼前皆是白坦坦道脚下曾無黑窰窰地蓋云躬躬噫吾延州氏之爲東方氏族胄于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公公早喜春秋左氏及孫吳書用兵如神未弱冠羯虜入寇倡義旅輒奏功後援兵 天朝殲滅女真帝曰嘉乃自是而威振海內公之穆有兵部尚書星山君及龍虎將軍廣城君削平猾賊功著旂常是豈非孝悌中流出來者耶祖以是傳之孫孫以是承于祖慶流百世雲仍千指若判官公之舉義殉國贊成公之貞忠亮節至今汗青炳然偉歟盛哉鳳韶旋催東岡節彼希庵公之高蹈鶴夢初長北闕還邃竹林公之孝思白菴彝菴種下讀書種子於荒遠使一路髦士舉知家程而戶朱的寒水之淵源八士齊列受花田之心法諸賢獎詡冠峯尋初齋兩先祖之靈毓山河學貫天人者也是豈歷敷華顯者之所可跂及哉凡爲吾宗族者心先祖之心學先祖之學則自不禁油然而生者矣其於治平家國也可拭目而待且竊念靡譜則講昭穆明派系若畫脂鏤冰纔功總而袒免便與路人而無別雖欲孝悌安從而得此乃吾譜之不可無成也顧此衰慵敢云相役與有彝性者不可終默遂演孝悌之義而廣吾宗族

歲在甲子端陽節

侍郎公二十五世孫 在升 敬書

甲子譜序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있는 것은 인의(仁義)에서
우리나오는 것이며 또한 이성(理性)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단지 본연의 기질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교양여하에 좌우되는 수가 허다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록 성세(盛世)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원리를 듣지 못한 것만 한탄하거늘 하물며 사람들이 천고(千古)의 옛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겨우三代도 못되어 의리(義理)로 가장하여 오직 화려한 것과 벼슬 문벌(門閥)만을 숭상하는 폐단이 불어나서 심지어 자녀를 바 꾸어 보책만을 아름답게 분장하는 수가 있으니 이것은 사대 부들이 마땅히 경계할 일이며 보책을 편수하는 사람들은 더욱 삼가야 할 일이다. 대체로 수보(修譜)하는 것은 선조를 존모(尊慕)하고 종족을 경애(敬愛)하는 도리이니 존모하고 경애하고자 하는 사람은 효제하는 마음을 버리고야 어찌 이뤄지리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눈앞에는 탄탄한 대로가 될 것이며 발밑에는 어두워서 걸지 못하는 땅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가록하도다! 우리 延州玄氏가 동방의 씨족이 되어 고려조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延山君) 시(諡) 경헌공(景憲公)을 시조로 하였으니 공께서는 일찍이 좌씨춘추(左氏春秋:책이름)와 손오병서(孫吳兵書:손자병법서)를 즐겨 읽으 시어 용병하시기를 신과 같이 잘 하셨다. 약관(弱冠: 20세 미만)에 갈로(羯虜)가 쳐들어 왔을 때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물리쳐 대공을 세웠다. 또한 그 후 송조(宋朝:중국)에 여진이 침범하는 것을 구원병을 거느리고 가서서 섬멸하셨으므로 제왕께서 가상(嘉尙)히 여기어 포상(褒賞)하시와 이때부터 그 명성이 내외에 떨치셨다. 공의 자손으로 병부상서 성산군(星山君)과 용호장군 광성군(廣城君)께서도 교활무쌍한 적을 무

떨러 그 공로가 현저하여 기상(旂常:임금이 베푸는 예우록)에 오르시니 이 어찌 효제하는 마음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리오. 조상은 자손들에게 전하여 자손은 조상의 업적을 이어받아 그 경사가 백세후의 수많은 자손들까지 흘러내리는 것이니 판관공(判官公)께서 의병을 일으켜 순국하신 일이라든지 찬성공(贊成公)의 공은 충성과 절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청사(靑史)에 빛나고 있으니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당시의 임금께서 벼슬길에 나오도록 재촉함이 크셨으나 저 강직하고 곧은 절개로 벼슬을 사양하신 희암공(希菴公)의 고상한 뜻은 학몽(鶴夢: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초장(初長)하여 북궐(北闕:임금제신곳)로부터 고향으로 오셨으며 죽림공(竹林公)의 효심과 백암(白菴), 이암(彝菴)공 여러분께서 글 없는 황무지에 글읽는 씨를 뿌려 집집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같은 현인사회가 되었으며 한수재(寒水齋: 巨儒의 호)의 연원을 찾아 정학(正學)을 하여 호증팔학사(湖中八學士)의 서열에 같이 서시게 되시고 또한 화전(花田 거유의 아호)의 심법을 본받아 여러 현인들이 장려하도록 하신 관봉공(冠峯公)과 심초재공(尋初齋公) 두 선조의 영특하심이 산하를 흔들고 하늘을 뚫을 수 있는 학자이시니 이 어찌 세인이 따를 수 있는 학자이리오.

우리 종족이 되는 자는 선조의 마음을 따르고 선조의 배움을 배워가면 스스로 유연하게 성(盛)해짐을 금하지 못할 것이니 그 치가하고 치극하는데 있어 이처럼 훌륭한 분은 눈을 닦고 기다릴 것이며 또한 간절히 생각하는 것은 보책이 아니면 소목(昭穆)을 강(講)하고 파제(派系)를 밝히는 것이 손으로 얼음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으니 겨우 시마복(總麻服)만

면하게 되면 행인끼리 상봉하는 것과 다를 바 있으며 효도하고 우애하고자 하여도 어찌 잘 할 수가 있으리오. 생각하건대 이 쇠용(衰慵)한 사람이 감히 이 큰 역사를 서로 의논할 수가 있으리오 마는 다행히 이성자(彝性者)가 있어 합심하여 효제(孝悌)의 뜻으로 우리 玄씨들에게 널리 알리는 바이다.

歲在甲子(一九二四년)端午(단오)

侍郎公(시랑공)二十五世孫 在升(재승) 敬序(경서)

10. 丁酉六修譜序

夫有姓則必有族焉有族則必有譜焉者上溯先冑下及雲仍貫一總衆如木之有枝有葉水之有派有流捲之則萬殊爲一理者也吾姓之修譜創自丁卯今爲六回修刊而不肖素以庸見忝在役末不覺昏眊叅攷久遠之牒謹閱諸賢序撰及凡例編錄則其宗法之嚴密貽後之宏謨眷眷服膺而敦本之心藹然溢於辭表也且以先系之派分也異貫也昭牒昭昭文獻班班悉遵舊規毫無疑惑然世級漸久來孫愈遠未免路人相視則豈不大可懼者乎嗚呼衆流派分同歸於一源千枝萬葉亦歸於一根也今吾宗之散在八域者同是侍郎公之一源一根也可不散敬哉於是乎族譜修輯之議累起而宗議不一未譜矣今乃僉議詢同諸派合力捐財助費年未週而事已成此豈非五宗之幸歟然而時事草創南北分治在北宗族未得合編則名雖爲大同譜乃是南鮮片譜也豈勝慨歎哉但願散處宗族恪述承先之志亦守貽厥之謨各藏譜牒則茲豈非後日南北大同譜之一款耶僉宗各自勉乎哉噫是譜之未遑修輯者凡幾年矣始克成於今日而牧使公派及都領郎將公派夙世未得同譜而同祖之孫常是感歎中今乃合譜以遂宿願其亦氣數之有待而然歟是乃分久必合之理也因竊念系世修譜文也尊祖收族實也苟不用力於實而徒尙其文則於譜奚有哉繼而自今來後子性能準先志修是譜而恪守成

法惟尊祖收族是務則張公之九世同居陳氏之百口共爨不能專美於古而譜之實庶不外乎是矣云

歲在 丁酉 獵月 上浣(歲在丁酉獵月上浣)

시랑공 25세손 응주 근서(侍郎公二十五世孫 應周 謹書)

丁酉 六 修譜 序(정유 육 수보 서)

무릇 사람은 성(姓)이 있으면 반드시 동족이 있고 동족이 있으면 반드시 보첩이 있어야 위로 선조를 비롯하여 아래로 자손에 이르기 까지 일관총중(一貫總衆)할 수 있는 법이니 나무의 지엽과 물의 만파(萬波)가 모두 일원(一源)의 이치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자성(子姓)이 수보함에 있어 정묘보로부터 제 六차에 걸쳐서 족보를 수간(修刊)함에 불초는 원래 천견한 사람으로서 말역에서 혼모(昏眊)한 것을 자각치 못하고 감히 삼가 구원한 보책의 제현서찬(諸賢序撰)과 범례 편록을 참고하여 그 종법의 엄밀함과 이후(貽後)의 굉모(宏謨)를 가슴 깊이 사모하게 되오니 나의 분수에 넘치는 기쁨이며 또한 선제의 분파와 이관(異貫)된 것이 지난 보첩에 소소히 밝혀져 있으며 문헌이 반반하여 구규(舊規)를 잘 준수하였으므로 추호의 의혹이 없으나 자손들이 번창하고 세급(世級)이 오래 흘러감으로 종친간이라도 서로 행인처럼 대하게 되니 이 어찌 송구함을 금 할 수 있으리오.

오호 ! 여러 갈래로 흐르는 물이 결국은 한 바다로 모여 들고 천지만엽(千枝萬葉)이 한 뿌리의 나무일 것이니 우리 종친들이 이 나라 전역에 산재하여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으리오. 우리 종친들은 누가 시랑공(侍郎公)의 자신이 아

니며 어찌 흠경하지 않으리오. 이에 족보 수집지의가 누차 논의되었으나 의론이 귀일(歸一)치 못하였는데 겨우 지금에 각파에서 협력하여 재정적인 협조에 힘입어 一년이 다 못 되었지만 보역(譜役)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우리 종중의 다행한 일이 아니리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토가 분단되어 이북에 계신 종족들과 합보를 못하게 되어 책명은 비록 대동보라 하였으나 이남편보에 불과하오니 이 어찌 개탄 할 일이 이니리오. 원컨대 산재하신 종족들께서는 각 별히 선조의 이월지모(貽厥之謨:선조님의 뜻)를 준수하시어 보첩을 소장하시면 이것이 또한 남북대동보의 일관이 아니리오. 참종들께서는 각자 이 보첩을 소장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요.

이 보첩을 일찍이 수집치 못하고 금일에야 비로소 성책이 되었으며 전일보첩에 목사공파(牧使公派) 및 도령랑장공파(都領郎將公派)와 동보하지 못하게 되어 동조의(同祖)자손으로서 항상 유감으로 여기던 中 이번엔 합보가 되어 소원을 성취하게 되오니 이것은 오로지 기수(氣數 : 時運)이며 또한 분리된지 오래면 합치게 되는 원리일 것이다. 제세를 수보하는 것은 文과 實 이 겸비하여야 성공되는 법이니 금후로는 우리 자성들이 선지(先志)를 받들어 보첩을 수집하여 존조하고 수족하는데 전념하면 장공의 구세동거(九世同居 당나라의 張公藝의 구세동거)와 陳씨의 백구공존(百口共爨: 강주땅의 진씨가 백명이 동거)의 미덕을 본 받기가 어찌 어려울 것이며 또한 보첩의 원리와 그실을 거두는 데는 이밖에 또 있으리오.

歲在 丁酉 獵月 上浣(一九五七年)

시랑공 25세손 응주 근서(侍郎公二十五世孫 應周 謹書)

11. 壬戌七修譜序

丁酉譜를 편수(編修)한지 어언(於焉) 二十五年이 지났다. 수보(修譜)한지 一世가 지나면 故人이 된분도 있고 또 出生한 사람도 많아 이른바 세대교체(世代交替)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시 편제(編制)하는 것이 상례(常例)로 생각한다.

지난 수년래(數年來)로 종문(宗門)이 모이면 우리도 수보하자는 의론(議論)이 있었으나 사거역면(事鉅力綿)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던중 경신추향시(庚申秋享時)에 수의(蒐議)하여 천안종원(天安宗員)들이 편찬사(編纂事)를 맡고 각지유사(各地有司)가 수단(收單)을 독찰(督察)하여 삼년여(三年餘)를 지나 이제야 임슬대동보(壬戌大同譜)를 完成하게 되니 큰 기쁨이 이에 더 할바 없다. 금반종회(今般宗會)에서 불초(不肖)에게 序文을 청(請)하니 멸학(蔑學)으로 사양(辭讓)하였으나 부득(不得)하여 대강 그 경위(經緯)를 기술(記述)한다. 첫째 수보(修譜)에 전념(專念)하신 委員長以下 任員의 노고(勞苦)와 각종유사(各宗有司)의 협찬(協贊)에 玄氏一族을 代表하여 진심(真心)으로 치하(致賀)하는 同時에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하오며 族譜를 보시는 우리 子孫된 이는 근엄(謹嚴)한 마음으로 정성(精誠)껏 보관(保管)하올 것을 부탁(付託)드립니다. 에 곁들여 天安에서는 시조시랑공(始祖侍郎公)과 그 子이신 성산군(星山君) 광성군(廣城君) 회원군(檜原君)三公의 묘소(墓所)가 北韓에 계시어 묘제(墓祭)를 모실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위 四位를 비롯하여 십여위패(十餘

位牌)를 전주공 재실 청사(全州公齋室廳舍)에 모시고 모선재(慕先齋)라 이름하여 해마다 음삼월일일(陰三月一日)과 十月一日에는 비록 南韓에 있는 후손(後孫)들 만이라도 원근(遠近)을 불문(不問)하고 各地에서 모여 제향(祭享)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어 그 선조(先祖)를 경모(敬慕)하는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함을 이에 첨언(添言)하여 두는 바이다.

무릇 族譜를 만드는 의의(意義)에 관하여는 여기서 새삼 논(論)할 必要조차 없는 일이다.

一族의 혈통(血統)과 가계(家系)를 밝힘으로써 先祖의 열력(閱歷)과 個人의 래력(來歷)을 명연(明然)하게 함과 아울러 충, 효, 절, 의(忠, 孝, 節, 義)에 뛰어난 선열(先烈)의 공덕(功德)을 후손(後孫)내지 後世에 傳함으로써 後孫으로 하여금 긍지(矜持)를 갖게 하며 아울러 한 祖上의 후예(後裔)라는 인식(認識)을 두텁게 하여 同族으로서의 돈독(敦篤)과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고 협동적(協同的) 단결(團結)을 이루어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한편 거룩하고 위대(偉大)한 先祖에 부끄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도 더욱 출람(出藍)의 子孫이 되도록 명심(銘心)하고 노력(努力)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논어(論語)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消化)시켜 그로부터 미래(未來)의 것 새로운 것을 개척(開拓)한다는 말이다. 현재(現在)는 과거(過去)없이 존재(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後孫은 先祖없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先祖가 있으므로 미래(未來)의 後孫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先祖를 사모(思慕)하고 그 공덕(功德)을 기림으로써 後孫인 우리와

우리 후대(後代)가 훌륭한 先祖에 뒤지지 않는 위인(偉人)이 되도록 힘쓰게 되며 거기에 宗族의 발전(發展)과 나아가서 國家와 民族의 흥륭(興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族譜는 바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공부자(孔夫子)의 말씀을 실천(實踐)하는 하나의 수단(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族譜의 기원(起源)은 중국(中國)의 한시대(漢時代)에 있다고 하며 우리 나라에는 三國時代에 들어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보편화(普遍化)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니와 族譜制度는 中國이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동서양(東西洋)을 막론(莫論)하고 世界의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학(譜學)은 한 나라의 歷史를 연구(研究)하는데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族譜가 지니는 重要한 가치(價值)를 크게 깨닫고 그 편수(編修)에 정력(精力)과 성심(誠心)을 극진(極盡)히 하고 있는 民族은 東洋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韓人)이라고 함은 自他가 공인(共認)하는 바이다. 유구(悠久)한 歷史와 빛나는 文化를 전통적(傳統的)으로 지니고 있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사람으로서의 당연(當然)한 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보(修譜)에 있어서 延州玄氏는 일찍부터 그 사업(事業)을 실행(實行)에 옮겼다. 現在 있는 최초(最初)의 延州玄氏族譜로서는 조선조(朝鮮朝) 영조 이십 삼년(英祖二十三年=서기 1747년) 丁卯譜를 들 수가 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수증보(改修增補)를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러 임술대동보(壬戌大同譜)의 편찬(編纂)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 玄氏宗族은 祖上의 탁월(卓越)한 업적(業績)과 고매(高

邁)한 人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려는 자각(自覺)의 발로(發露)라고 생각되어 흐뭇함을 느끼게 한다.

西紀一九七五年 十月一日에 실시(實施)한 전국인구조사(全國人口調査)에서 확인(確認)된 바에 依하면 韓國에 성씨수(姓氏數)는 二四九姓이니 이것을 가구수(家口數)에 따라 대성(大姓) 저성(著姓), 귀성(貴姓), 희성(稀姓), 벽성(僻姓), 진성(珍姓) 및 복성(複姓)으로 分類한다면 우리 玄氏는 家口數 12,671로서 人口 64,623명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延州玄氏는 大姓은 되지 못하지만 그 질(質)에 있어서는 歷史上 民族과 國家에 큰 공적(功蹟)을 세워 숭앙(崇仰)을 받는 人物이 많아 이미 高麗史에서부터 그 유업(遺業)이 현양(顯揚)되어 있음을 後裔로서 흠패(欽快)하고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始祖이신 경헌공(景憲公)에 관하여는 불초(不肖)의 高祖 춘안공(春庵公)이 쓰신 侍郎公 사적(事蹟)에 잘 나타나 있으며 尙書公 事蹟은 高麗史에 잘 기록(記錄)되어 있으며 忠孝節義에 뛰어나 청사(靑史)에 빛내신 분이 수다(數多)하시니 우리 玄氏의 장점이다. 우리가 六回에 거듭하여 修譜하여 왔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도 壬戌大同譜를 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훌륭한 祖上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延州玄氏는 여기에 壬戌版의 大同譜를 世上에 내놓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如前)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 壬戌譜가 과연 어느 정도 大同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問題이다. 보소(譜所)의 실무(實務)를 담당(擔當)하신 宗親 여러분의 헌신적(獻身的)인 노력(努力)에 의하여 丁酉譜의

경우보다는 훨씬 내실(內實)을 期하여 宗氏를 빠짐없이 탐문(探聞)하여 수록(收錄)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연락이 미치지 못하여 南韓에 거주(居住)하는 宗親中에도 혹시 빠진 분이 있지 않을까 념려(念慮)되는 바이지만 그것보다도 北韓에 잔류(殘留)하는 宗族의 소식(消息)은 알 길이 없어 이번의 수보(修譜)에서도 거의 제외(除外)될 수 밖에 없었다. 양단(兩斷)된 民族의 비극(悲劇)을 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속(速)히 民族의 숙원(宿願)인 南北의 통일(統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努力하고 기원(祈願)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始祖 侍郎公을 비롯한 在北 先祖의 墓所를 우리들 後孫이 직접 찾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여 마지 않는다. 어쨌든 人力으로 가능(可能)한 범위(範圍)에서의 大同譜가 햇빛을 보게 되었음은 재삼(再三) 다행(多幸)스러운 일이다.

또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壬戌譜의 편수(編修)를 인연(因緣)으로 종친(宗親) 여러분의 노고로 延州玄氏 大宗會가

탄생하였고 각 시도에는 延州 玄氏 화수회(花樹會)가 조직(組織)되어 종원(宗員)이 단결(團結)하여 조선(祖先)을 숭모(崇慕)하고 종원간(宗員間)의 친목(親睦)을 돈독히(敦篤) 하며 後孫의 번영(繁榮)과 인재(人材)의 양성(養成)을 도모(圖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또한 우리 玄氏의 큰 경사(慶事)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역시 이 壬戌譜의 편제(編制)를 계기(契機)로 우리 玄氏의 본관(本貫)을 延州로 統一하는데 모든 종원이 意見(의견)의 일치(一致)를 보았음도 차제(此際)에 특기(特記)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 延州玄氏는 문헌(文獻)에 一〇六本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나 모두가 延州玄氏 始祖인 휘(諱) 담윤(覃胤) 장군(將軍)의 후예(後裔)이다. 성주현씨(星州玄氏)는 휘(諱) 덕수(德秀)를始祖로 하고 창원현씨(昌原玄氏)는 휘(諱) 담윤(覃胤)의 아들 諱 덕수(德秀)의 아우 諱 덕유(德裕)를始祖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현씨(順天玄氏) 또한 휘(諱) 덕수(德秀)의 둘째아들 諱 원미(元旻)를始祖로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수다(數多)한 본관(本貫)이 있으나 모두 延州玄氏에서 분관(分貫)된 것이다. 어쨌든 玄씨이면서도 이본(異本)을 사용(使用)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各其 호칭(呼稱)하는 異本이 延州玄氏 侍郎公의 子孫의 관직임지(官職任地)에 유래(由來)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두가 延州玄氏를 대종(大宗)으로 하는 분적종(分籍宗)임을 모르고 延州玄氏와는 무관(無關)한 異本임을 주장(主張)하는 宗氏도 없지않은 듯하여 始祖 侍郎公에게 後孫된 예의(禮儀)를 다 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시 玄씨의 本貫이 延州 星州 昌原 順天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延州로 귀일(歸一)시키는 문제(問題)에 관하여는 이미 서기 一七四七年의 丁卯譜를 編修할 때에 諱 명직(命直)께서 제기(提起)하여 當代(當代)의 거유(巨儒)인 文臣 이재(李縉) 구암(九庵) 윤봉구(尹鳳九) 및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제위(諸位)에게 丁卯譜 문목(問目)과 같이 문의(問議)한 바 있으며 그 일치(一致)된 意見에 따라 延州玄氏로 統一된 丁卯譜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丁卯譜를 編修할 때에 이미 結末을 본 문제(問題)를 지금에 와서 재론(再論)

된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지는 하지만 어떻든 모든 玄씨가 아무런 이의(異議)없이 本貫을 延州로 統一하는데 완전(完全)한 합의(合議)를 보았음은 侍郎公의 後裔로서 당연한 일 이요 또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星州 星山 玄氏의 中始祖는 侍郎公의 子 尙書公이요 昌原 玄氏의 中始祖는 侍郎公의 子 회원군(檜原君) 諱 덕유(德裕)요 順天 玄氏의 中始祖는 侍郎公의 孫子 順天君 諱 원고(元羔)이니 모두가 侍郎公의 子孫임이 사실(史實)에 비추어 입증(立證)되는 것이며 또 侍郎公은 원래 延州(지금의 평안북도 영변군)人 임이 역시 사서(史書)에 의하여 밝혀졌을 진대 中始祖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本貫을 定할것이 아니라 侍郎公을 始祖로 하여 모든 玄氏는 本貫을 延州로 환원(還元)하는 것이 始祖에 대한 도리(道理)요 玄氏의 긍지(矜持)와 대동단결(大同團結) 친목화합(親睦和合) 상부상조(相扶相助) 중흥발전(中興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 玄氏는 本貫을 延州로 統一하고 여기에 명실공(名實共)히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壬戌 大同譜를 근제(謹製)함으로써 다시 한번 始祖 侍郎公을 비롯한 先祖의 偉대한 業績과 심오(深奧)한 學問과 고매(高邁)한 人品과 불굴(不屈)의 절개(節概)와 불변(不變)의 義理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그 後孫임을 자랑으로 서로 친근(親近)의 정(情)을 두터이 하게 되었거니와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뛰어난 祖上에 뒤지지 않는 後孫이 되도록 하니, 우리 祖上보다 더 훌륭한 後孫이 되어 先祖의 영예(榮譽)를 더욱 빛나게 하도록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끄친다.

西紀 一九八二年 壬戌 十月 日

12. 丁酉譜問目

問命直家氏貫書以星州八莒縣蓋玄氏本延州人也以麗朝兵部尚書諱德秀爲始祖而麗史述尚書公史蹟曰延州人又曰與其父將軍覃胤云云則尚書公考諱字如是昭載於國乘而自前以尚書公爲始祖將軍公則錄於傍註蓋以尚書公移封星山君而子孫因爲氏貫故也今方修譜而各處單子或以將軍公爲始祖或以尚書公爲始祖若以將軍公爲始祖則便非星州之玄又以將軍公爲傍註則於義果未安何以則於道理耶此尚書公有二第一爲廣城君一爲昌原君其子孫各以封號書貫而均是一人之後故昌原之玄亦修送單子願爲合譜尚書公第二子子孫又書貫順天如以尚書公爲始祖則昌原之玄不可合譜似當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州然後皆可合譜而或者則曰各派之自先書貫者今難遽改依前以尚書公爲始祖傍註將軍公詳錄其曲折而昌原則別附可也或者則曰譜冊則書以延州而合錄氏貫則從其封號而各書亦無妨或者則曰譜冊既書延州而各派之異貫不可諸賢當俱改以延州而此是人家莫重之事以改貫之由告于禮曹可也或者則曰勿論合譜與否不以最初所知名字爲始祖而逮下一代者揆以子孫之心甚不安必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州事理甚當而改貫自是私家之事不必告于禮曹說之不同如此未知何者爲是耶伏乞明白指教幸甚且考氏族源流諸姓譜則自將軍公以下數代書以延州玄氏自命直十一世祖以下別書以星州玄州此亦可爲當初書貫延州之一證耶並乞照察而商諒勘破如何

答兩世之家徵既有麗史則不可沒其最初始祖之名恐當以將軍公爲始祖其下註以延州人至德秀註以封星山君子孫因貫星州德裕註以封昌原君子孫因貫昌原而摠名之曰延州玄氏族譜爲可至於改貫之

雪則子孫之各隨其移封以爲貫者譜中已悉其由今不必改之仍舊可矣蓋以周禮氏族之例論之則太史氏所掌有氏族之別玄乃氏星州昌原順天乃族也各從其族分書支派卒乃會其源於本氏庸何傷疑乎

右陶庵答

答人家譜書所載始祖豈皆是上古氣化之人只爲子孫之所以知之者自此始考也若譜書所載始祖之外又有名字所知及文獻可徵而當初不以此爲始祖遞下而以或子或孫始爲譜書之鼻祖則此編譜者之失不但於義無據實不安於子孫之心矣今玄氏譜將軍公名字事蹟既昭載麗史至錄在譜書而初不以將軍公爲始祖者不可之矣今以將軍公特書於譜書之首以爲始祖以尙書公兄弟繼之則事理明甚無可疑矣果以將軍公爲始祖仍以延州玄氏族譜爲名而各因中祖封邑異其姓貫則既不免名實之相乘亦有欠於一統之義矣鄙意統於始祖依譜書之名而三貫宜皆改以延州也古今姓譜與貫未聞有各異之例亦合詳量也

右久庵答

謹安兩先生所答以將軍公貫鄉名譜則同而改貫之說則有異故更質于南塘韓先生則答曰子孫之從鼻祖書貫合譜事理明白云云者一如久庵先生答書且諸處所論亦如兩先生所答故合譜諸宗俱以延州改貫焉

정묘보에 대한 문답

問 : 명직(命直)의 집안은 씨관(氏貫)을 성주나 팔거(八莸)로 써 왔으나 원래는 연주사람이다.

고려조 병부상서 휘 덕수(德秀)를 시조로 하였는데 려조사(麗朝史) 상서공의 사적에 기술되어 있기를 연주사람이며 또 그 부친은 장군 담운(覃胤)이라 써어 있으니 상서공 부친의 휘자가 이같이 고려사에 소상히 실려서 상서공을 시조로 하

고 장군공은 방주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상서공이 성산군(星山君)으로 봉하여져서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성과 본관을 삼은 연유이다. 지금에 족보를 편찬하는데 각처에서 들어오는 단자증에는 혹은 장군공을 시조로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상서공으로써 시조를 삼는 사람도 있으니 만약 장군공을 시조로 하면 성주현씨가 아니고 또한 장군공의 방주를 근본하여 씨관(氏貫)을 삼는 것은 도리에 미안한 일이오니 어찌하면 도리에타당한가요?

상서공께서는 두 아우가 있는데 한분은 광성군(廣城君)이시고 또 한분은 창원군(昌原君)이신데 그 자손들이 각각 봉호에 따라 관(貫)을 써 왔으나 이 역시 한 사람의 후손이므로 창원현씨가 또한 단자를 가지고와서 합보를 원하고 延州玄씨로 관을 고치자하며 상서공 들째아들의 자손들이 또한 본관을 순천(順天)으로 하였으니 만일 상서공을 시조로 하여 합보를 원한다면 창원현씨와는 합보가 불가능한 것이니 의당히 장군공을 시조로하여 연주로 본관을 고쳐서 통일한 연후에 다 합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각파에서 전부터 쓰던 본관을 지금에 와서 창졸히 고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전과 같이 쓰고 상서공을 시조로 하여 방주에 장군공의 사적을 상세히 기록하여 두고 창원현씨는 별도로 수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보책에는 연주로 써서 합치고 씨관(氏貫)은 봉해진 호에 따라 각각 써도 무방할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보책에는 이미 연주로 합치고 각파에서는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현씨는 마땅히 다 연주로 고쳐서 쓰고 이 같은 일은 인류의 막중한 일이니 본관을

고친 이유를 예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후자는 말하기를 족보를 합하고 안 합하는 것은 말 할 것 없이 최초부터 명자(名字)를 아는 분으로써 시조로 하지 않고 한 대 내려와서 시조로 하는 것은 자손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한 것을 측량치 못하는 소치이니 반드시 장군공으로 써 시조를 삼고 본관을 연주로 고치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고 관을 고치는 것은 사가의 일이니 반드시 예조에 고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이 이같이 다르니 어느 분의 말씀이 옳은지 명백히 가르쳐 주소서. 또한 씨족의 원류와 여러 족보를 살펴보면 장군공 이하 여러 대로부터 연주현씨로 써 왔는데 명직(命直) 十一世祖 이하로 부터는 별다르게 성주현씨로 써 있으니 이것은 역시 처음에 본관을 연주로 썼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신 후에 소상히 가르히 가르쳐 주소서.

답 : 양세의 징거는 이미 고려사에 명백히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최초 시조의 이름은 장군공으로 하여 시조로 하고 그 아래 주서에 연주인이라 하였으며 덕수(德秀)에 이르러 성산군이라 주서(註書)하였으니 그 자손들이 본관을 이로 인하여 성주로 하였으며 덕유(德裕)는 창원군을 봉하였으므로 그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관을 창원으로 하였으나 총체적으로 연주현씨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에 본관을 고치자는 문제는 자손들이 각각 그 봉호에 따라 본관을 쓰는 것은 보책중에 기록되어 있어 이미 그 이유를 알 것이니 나는 고칠 필요가 없고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례 씨족의 예를 들어 말치 태사씨의 말은 일은 氏와 族의 구별이 있으니 玄은 氏요 星州 昌原 順天과 같이 여러 派로 나뉜 것은

族이라 종족이 각각 여러파로 나뉘졌더라도 그 근원은 결국 같은 玄氏이니 조금도 상심하고 의심하지 말 것이다.

答 : 人家의 소장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시조가 어찌 상고에 태어난 氣化한 사람이겠는가? 그 자손들이 소급하여 알 수 있는 분을 시조로 삼았을 뿐이다. 만약 족보에 시조 이외에 또 名字와 문헌을 고증 할 수 있는 분을 시조로 아니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 아들이나 손자가 시조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보책을 만드는 사람의 실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의리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자손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끼쳐주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의 현씨족보는 장군공의 명자와 그 사적이 고려사에 분명히 등재되어 있으며 보첩에도 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장군공을 시조로 아니한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장군공을 보책 첫 머리에 대서특필로 시조로 삼았고 상서공 형제로 뒤를 이어 오게 되면 사리에 명백하여 의심할 바가 아니다. 과연 장군공을 시조로 하여 延州玄氏 족보라 이름을 붙였는데 각자가 증시조의 봉호로 인하로 인하여 그姓과 貫을 달리한다면 명실상부한 보첩이 안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또한 하나로 통합한 의의가 없으니 내 생각으로는 보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조로 하고 셋으로 나뉘져 있는 본관에 대하여는 모두 연주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삼가 두 선생의 답변하여 주신 것을 상고하여 보면 장군공의 관향과 이름으로써 수보하자는 데는 동의하나 본관만 고쳐 통일하자는 데는 각각 의견이 다르므로 또 다시 남당 한선생에게 질의하여 보니 그 답변이 자손들이 시조에 따라 본관을 쓰고 족보를 합하는 것이 사리에 명백한 일이라고 하여 구암

선생께서 답하여 주신것과 같으며 또 여러 곳의 여론이 두 분 선생의 말씀과 같으므로 족보를 합치고 다같이 연주로 본관을 고치려 한다.

13.附 延州星州檜原輿地勝覽

謹按玄氏本延州人也麗史述我中祖尙書公事蹟稱延州人而諸玄亦多稱延州勝覽尙書公見於延州人物而姓씨延山註又有玄然則我玄貫鄉本是延州而世居于延州地也後尙書公封八莒君後移封星山君故子孫或以星州爲貫或以八莒爲貫故兩州沿革事蹟附錄于左以明根本之地

부 연주성주회원여지승람

삼가 살펴 보건대 현씨의 본은 연주이다. 고려사에 우리 중시조의 사적에 연주라 기록되어 있고 모든 현씨는 연주라 하였으며 승람(책이름)에 상서공은 연주의 인물인데 성씨는 연주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현씨는 원래 본관과 고향이 연주이며 또 이 연주땅에서 살아왔으며 상서공이 팔거군으로 봉해 졌다가 또다시 성산군에 봉해졌으므로 자손들이 혹은 성주로써 본관을 하고 또 혹은 팔거로 본관을 삼았음으로 양주의 연안과 사적에 대한 것을 부록으로 밝히고자 한다.

延州建置沿革

延州本高麗密雲縣一云安朔光宗二十一年改延州爲知州恭愍王十六年陞延山府 本朝世宗十一年合延山撫山改爲寧邊大都護府置邑于撫山之藥山城爲都節制使 端宗時復以節度使兼府使 世祖朝割延州地屬雲山郡

郡名 密雲 安朔 延州 撫州 古青城 藥山

姓氏 延州玄氏

人物 高麗玄德秀

연주 건치 연혁

연주는 본래 고려조에는 밀운현이라 하고 또한 안삭이라고도 했다. 광종 21년에 또다시 연주를 고치어 지주라 하였으며 공민왕 16년에 연산부로 승격하고 본조 세종 11년에 연산과 무산을 합하여 영변이라하고 대도호부를 만들어 무산약산성에 도절제사를 두었다. 단종때에는 다시 절도사점 부사를 두었고 세조때에 연주를 분할하여 운산군에 붙였다.

郡名 密雲 安朔 延州 撫州 古青城 藥山

姓氏 延州玄氏

人物 高麗玄德秀

星山建置沿革

星山本新羅本彼縣景德王改爲新安縣屬里山郡後改碧珍郡高麗太祖改京山府景宗降爲廣平郡成宗改岱州顯宗改爲星山府忠烈王陞興安都護府後改星州爲牧忠宣王降爲星州府本朝因之太宗朝安御胎于祖谷山陞爲星州牧屬縣八莒在州東十二里本新羅八居縣一云仁里景德王改名八里屬壽昌郡高麗復稱八莒後居轉而爲莒顯宗時來屬本州別號漆谷

郡名 本彼 新安 碧珍 京山 廣平 岱州 星山 興安

姓氏 星州玄氏 八莒玄氏

성산 건치 연혁

성산은 원래 신라 본피현 이었는데 경덕왕 때에 신안 현으로

고쳐서 리산군(里山郡)에 붙였다가 그 후 다시 벽진군으로 바꾸었으며 고려 태조 때에 경산부로 개칭하였으며 경종 때에 광평군으로 승격시켰다가 또다시 성종 때에 이르러 대주로 바꾸고 현종 때에 성산부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 충열왕이 홍안도호부로 승격하였다. 그 후 또다시 성주로 하여 목사를 두었다가 충선왕 때에 성주부로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 때에 조곡산에 어태(御胎)를 안치하고 성주로 승격하여 목사를 두었다. 팔거는 동쪽 12리에 있으니 신라 때는 팔거현이라 하고 또 인리현 이라고도 불렀다.

경덕왕 때 또다시 팔리라고 고쳐 수창군에 붙였다. 고려에서는 다시 팔거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에 거자(居字)를 바꾸어 거자(菰字)로 고치었으며 현종 때에 와서 본주에 소속하여 칠곡이라고도 부르게 하였다.

郡名 本彼 新安 碧珍 京山 廣平 岱州 星山 興安
姓氏 星州玄氏 八菰玄氏

檜原建置沿革

按輿地檜原本新羅骨浦縣景德王改合浦屬義安郡高麗顯宗時義安合浦俱屬金州後改爲檜原忠烈王以賞元世祖東征共億之勞改義安爲義昌陞爲縣令本朝太宗朝二縣改今名昌原陞爲府後改都護府

郡名 骨浦 合浦 檜原 義安 義昌 昌原

姓氏 義昌玄氏 昌原玄氏

회원 건치 연혁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회원은 원래 신라 골포현으로서 경덕왕 때에 함포로 고쳐 의안군에 소속하게 하였으며 고려현종때에 의안과 함포를 합쳐서 금주에 소속한 후 다시 회원으로 하였

다. 충열왕때에 원나라 세조가 동쪽을 정벌할 때 많은 공로에 대하여 상을 주는 의미에서 의안을 고쳐 의창으로 했고 두 고을을 다같이 현령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조 태종때에 2현을 합하여 지금 창원으로 고치었으며 부로 승격시켰고 그 뒤에 도호부로 고쳤다.

郡名 骨浦 合浦 檜原 義安 義昌 昌原

姓氏 義昌玄氏 昌原玄氏

14.侍郎公事蹟

公本延州人少孤貧八九歲體甚碩大智勇絕倫延州劔閣山谷深樹密人不敢夜行公兒時嘗因事出外路由此山夜深昏黑鬼魅列炬前導曰玄將軍來可驗異兆先見矣公年十九猶未娶時羯虜犯境公倡義舉兵擊敗羯虜麗毅宗嘉之特除延山府使且擇名宦家聘之(此見尋墓記) 北宋困於女真之亂請兵於高麗公爲援兵大將立功天子大加賞賜遣使還公時以大用玄某之意褒諭本國(此見麗名臣錄) 麗明宗朝趙位寵之亂公與二子力戰却賊明年金遣將高羅率兵屯延州境城中皆懼高羅曰帝聞爾國列藩皆拒王命獨爾城不從久爲賊所逼命予領兵爲援爾等勿疑公素以恩信聞于金人至其陳告實高羅下淚曰帝所聞果信也有急吾當助之遂去(此見麗史) 後竟平位寵以元勳官至平章事封延山君及捐館後葬時喪行至五里亭州民俱會致奠停喪受奠及奠畢靈輅着地不動乃告以因葬此地之意然後輅乃可動遂葬於今之墓所至於梁姓人築室於公之別業舊基夜見大將具威儀來呼名喝責大恐卽徙之价博川宗人尋得墓所時公現夢於數三人曰深掘得舊壙而有三大蜂飛出以驗吾幽宅之教其他靈異之事不可殫記(此見尋墓記) 自後子孫每年九月十五日用薦歲一之享

시랑공사적

공은 원래 연주 사람으로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집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8,9세 때부터 몸이 매우 크고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다. 연주 검각산 깊은 골짜기는 나무숲이 우거져서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공이 어릴때에 불일이 있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날이 저물어 캄캄한 밤이 되었다. 이 때에 시커멓게 생긴 귀신이 나타나 횃불을 들고 앞을 인도하면서 말하기를 “亥장군님이 오셨다 하니 가히 이상스러운 징조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으리라” 고 하였다.

공의 나이 열 아홉 살이 되었어도 아직 결혼을 못하였었다. 이때 갈로(羯虜-흉노족)가 국경을 침범하자 공은 의병을 일으켜 그를 섬멸시켰다. 고려 의종은 이를 가상히 여겨 연산부사를 제수하시고 또 명문거족의 딸과 혼인하게 하였다. 이 사실은 심묘기(尋墓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北宋(중국)이 여진족의 난리를 만나자 고려에 원병을 청해오니 공을 원병대장으로 임명 출정하였던바 공은 대공을 세웠다. 북송의 국왕이 공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높은벼슬에 임용되도록 주선하여 주었으며 본국에서도 크게 포상할 것을 논의하였다(고려명신록에 기록됨) 고려 명종때 조위총(趙位寵)난리(서기1174년 --1176년 서경 유수 조위총이 정중부 이의방을 치고자 일으킨 난)에 공은 아들 형제와 함께 힘써 싸워 적을 물리쳤다. 그 이듬해 금나라에서는 고려장군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연주지경 성중에 주둔하게 하였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니 고라(高羅)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너의 나라 여러 성들이 왕명을 거역하여 적에게 항복하였으나 오직 너의 성만이 그렇지 아니했다. 그래서 도적들이 땀박을 받은지 오래된다 하여 내가 구원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당신들은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공이 본래 은신(恩信)으로 금국인(金나라)에게 알려진 고로 高羅의 진지에 가 이 사실을 고하니 高羅가 감격하여 말하기를 “국왕으로부터 들은 말이 과연 거짓이 아니었구나, 위급한 이 때에 내가 도와주리라(고려사 열전) 그후 위충의 난리를 평정하고 원훈공신으로서 벼슬이 평장사가 되시고 연산군에 봉되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 장례때의 일이다. 상여가 오리정에 이르니 마을사람들이 다 모여와 상여를 멈추고 영령 앞에 간단히 주과를 차려 예를 올렸다. 예식이 끝난후 상여를 움직이려 하여도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아니했다. “이 곳에 묻히시고 싶은 뜻이 있으신가” 하고 누가 말한즉 그 때야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으므로 결국 그 곳에 장사하였다. 공의 별장이 있던 터에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 집을 지었더니 밤에 큰 장수가 나타나서 위의를 갖추고 그 양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꾸짖었다. 크게 겁을 낸 양씨가 즉시 집을 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갔으며 공의 묘소를 찾으려 할 때에 개천 박천에 사는 종인들의 꿈에 공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광증을 깊이 파보면 무슨 징상이 나올 것이니라” 고 현몽하였다. 오랫동안 땅을 파니 대봉(大蜂) 세 마리가 광증에서 날아 나오니 이는 공의 무덤이 틀림없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신령스럽고 신기한 일을 다 기록 할 수 없다.(상세한 것은 십묘기에 있다) 이 때부터 자손들은 해마다 음력 9월 15일에

한번씩 묘사를 지내게 되었다.

15.附 尋墓事蹟

惟我 鼻祖侍郎公麗之名臣也公以聞世英姿豐功偉節昭載於麗史及關西輿地勝覽本府邑誌赫赫然照人耳目子孫之至于今蕃衍者莫是先蔭之麻而衣履之藏世久失傳蓋緣西陲地近幽燕荐經兵燹故也子孫之世世痛恨庸有極乎雖因古老所傳及野史所記咸知公之墓所在於延之館洞而未得可據之實以疑傳疑者已百有餘年矣粵在純廟辛酉四從祖芝軒公在昶氏懼其終歸於泯沒倡率价博諸宗俱會于館洞發視其云云之塚宅欲求其可驗之跡而鍤未及邃陳鼐先露舉皆瞠愕相顧而有近居人金奉三者奔告曰此卽吾七代傍祖母塚也是何事耶衆皆撫然遂未得實而止莫不慨恨是後遠近諸宗各自訶探未得真的端緒矣至丙寅夏膺洙先大父避憂於藥山僧舍有老衲能守座者卽博川宗人仲孚之兄也逐日陪話極盡其誠者以其姓玄故也自言兒時祝髮於延之普賢寺先師嘗謂曰汝是貫延之玄則亦古玄將軍後裔也爲其後孫者不知先蹟可乎余當以老先師由來相傳之言明告汝蓋聞玄氏赫世大顯富貴甲於關西其家之前後恩澤及於此寺者甚多故寺之扁曰保玄者蓋爲玄氏祝願之意耶其後玄氏子孫之因仕南遷也世傳事蹟田土文記封置一櫃付之本寺且以先世墳墓守護節祀之意作爲一冊子託於寺僧故敬受寶藏相守傳誦 成化年間不幸本寺及所藏書籍盡入於回祿中重構後改扁以普賢者職由於世代悠邈恩澤已熄故也可勝歎哉書籍旣不得傳而惟其傳誦之言至今不泯汝其識之將軍公少孤貧八九歲體甚碩大智勇絕倫劔閣卽延之鎮山谷深樹密人不敢夜行公兒時嘗因事出外路由此山夜深昏黑鬼魅列炬前導曰玄將軍來矣可驗異兆先見矣公年十九猶未娶時羯虜犯境公倡義先登虜遂敗走麗毅宗嘉之特除延山府使且擇名宦家聘之後以

中國請兵事拜爲大將軍又以平趙位寵之元勳屢遷至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延山之地皆其食采公之本第在延山府內而晚築別業於玉女峯下以爲郊居地所公捐館于府內本第及葬喪行至五里亭因府民俱會致奠停喪於今之墓所及奠畢欲行靈輜着地不動乃告以因葬此地之意然後輜乃可動遂葬於停柩之處其英靈蓋如此當初衛隧之物燦然備具經亂歲久墮廢已久而墳形陵夷便作平地境內人冒占其地者恐公之後昆封其墓而復其地碑碣誌銘盡投於野井而埋之又有壓葬於塚上者公有大功德於邦國生靈而萬世幽宅一任泯沒誠極慨歎云云先大父聞不勝感愴適仍族人道彬聞奉三方住城內使之招致細細盤詰且諭以厚助遷葬之意則果首實曰吾家世傳之言以爲偷埋玄將軍墓碑葬吾傍祖母於其上而子孫仍爲滅絕云又問埋碑處則不知其處云奉三之言與能釋之言自相脗合始乃十分無疑歸見芝軒公備述所聞曰能釋奉三之言無異於鄴曼母防墓之證今若遷金骸而廣掘得驗則伐石崇土之儀當如晦翁之於制置公墓也亟舉斯役乃是子孫之責矣未幾先大父以風患沉苦卒于翌年仲夏芝軒公又以老患在世未久嗚呼痛矣至庚午春族祖在德氏通諭諸宗聚會館洞招來奉三使之掘移渠塚而時值日暮仍宿於山下矣數三宗人並於夜夢有一大人儀容甚肅謂曰汝曹欲訪余幽宅則更當浚穿而得一舊壙壙內有三大蜂出卽此便是云覺來相與說夢咸共驚異待朝而至役所山下人來者亦多遂更穿昨掘處幾至一丈果得舊壙壙內有腦骨及二齒腦大四圍齒長二寸諸宗見知自不覺感愴聚首拭眸之際果有三大蜂出自壙底飛入于宗人袖中及其改封也三蜂還入于壙嗚呼異哉數百年湮晦之兆今因先靈託夢一朝復顯是豈人力之所能及焉哉且聞古老傳言曰有一梁姓人築室於玉女峯下別業舊址而一夕明燈獨坐忽聞傳導之聲自遠而至驚起出視則有一員大將介馬戎服騶從甚衆呼梁喝責曰爾焉敢冒占我舊居乎速當欽避去梁卽拔宅移去又修墓之日有五

六老叟來言曰夢一大人威儀甚嚴大陳兵威于墓所云于古今傳言曰每於天陰雨濕之夜輒文部曲行陳喧闐之聲擺列於洞壑矣自改封後不復如是云噫我先祖精靈肝鬢^공蟠於故山棲息之域如水之在地冥冥之中啓牖後昆尋得幽宅於閱怯之後俾免文種之歎而得展歲祀之儀何等感幸是舉也倡義鳩財掘移金塚改封先兆者在德氏之力也掘案山金李兩塚豎墓表買墓田者族叔鐔氏宗丈宗甲氏三從叔錫利氏宗人宗億氏之效勞而鐔氏之力最多云茲記顛末以明尋墓之的驗而且識僉宗之各效誠力焉

憲宗八年壬寅七月既望

二十代孫 膺洙 拜手 謹記

附 심묘 사적

오직 우리 시조 侍郎公은 고려때 명신이셨다. 공이 세상에서의 영특하신 자태와 위대하신 공로와 고결하신 절개에 대하여는 고려사 관서 여지승람(關西輿地勝覽)과 본부 읍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업적이 남의 이목을 환하게 비추는 듯하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은 음덕 때문이다. 공에 대한 업적사실들이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 잊혀진 것은 서쪽 변방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난리로 인하여 그 유적이 불타 버린 까닭이다.

이 어찌 자손들이 대대로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비록 옛 노인들이 전하는 말이나 야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공의 묘소가 연주관동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 서로 의심하여 온지가 백여년이나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순조원년(1801년) 四從祖 지현공(在昶)이 묘소의 전설이 민몰(泯沒)할까 두려워 해

서 개천(介川) 박천(博川)등지에 사는 모든 일가들이 일제히 관동(館洞)에 모여서 그 무덤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그 곳을 삼으로 파헤치자 오래된 뼈가 나왔다. 여러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면서 서로 얼굴들만 바라보고 있을때에 [金奉三]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말하기를[이 묘는 우리 7대 방조모(傍祖母)의 묘소인데 이게 무슨 짓이요]라고 하였다.

모두들 몹시 놀라면서 그 무덤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하고 개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뒤 원근에 살고 있는 종친들이 탐문하여 보았으나 무덤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였다가 병인(1806년) 여름에 응수(膺洙의 별세하신 조부가 약산사에 가서 수양하고 있을 때에 능수좌(能守座)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박천에 사는 종인(중부=仲孚)의 형이었다. 여러 날을 그 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스님과 다정하게 되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지냈다. 그 스님도 역시 종인이었다. 그러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자기는 보현사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그때에 모시고 있던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너는 延州玄氏이니 옛적 현장군의 후손이다. 후손이 되어가지고 그 선조의 태력을 물라서야 되겠느냐?] 내가 전에 모시고 있던 노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玄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거족으로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던 점으로 봐서 관서지방에서 제일이며 이 사찰에서는 그 집안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 사찰 이름을 보현사(保玄寺)라 하였으니 이는 玄씨가 묻어 보다 발전될 것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후 玄씨의 자손들이 벼슬길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玄씨에 대한 일이 세상에 전해 내려온 사적과 토지

문서를 께짜에 봉해서 이 절에 맡겨 두었으므로 그 것을 보관하여 내려오다가 명나라 성화년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이 절에 있던 모든 서적이 소실되었으니 이 절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빈 절터만 남아있게 되었다. 빈 터에다 사찰을 증건하고 그 이름을 보현사(普賢寺)라고 개칭하여 내려온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적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세대가 유원(悠遠=멀다)하야 은택이 이미 오래된 연유로 인하여 그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할 때 이 어찌 한탄할 일이 아닌가? 서적이 없어져서 오직 말로만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너는 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장군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였으나 8,9세 때부터 몸이 석대(碩大=크다)하고 지용이 뛰어났다. 연주 검각산은 큰 산이므로 곡심(谷深)할 뿐만 아니라 수림이 울밀하여 사람이 감히 밤에 다니지 못할 험산이다. 公께서는 아시(兒時)에 불 일로 이 산길을 가게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캄캄 칠야에 도깨비가 열을지어 햇불을 들고 전도를 인도하며 하는 말이 [玄장군께서 오셨다]하니 이상한 징조가 앞으로 잇을 것을 징험하여 보였다 한다. 그 후 公께서 방년 19세로서 결혼 전이었다. 때마침 갈로(羯虜=흉노족)가 국경을 침범하게 되어 公께서는 바로 의병을 일으켜서 갈로를 토벌하여 평정하시니 고려 의종께서는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연산부사를 제수하시고 또한 명문환가를 택하여 혼인케 하였으며 그 후에 중국(北宋)에서 청병을 하여 왔으므로 公을 원병대장으로 삼아 원정하게 하였으며 또한 조위총(趙位寵)난을 평정하시와 원훈으로 문하시랑 평장사를 거쳐 연산군에 봉하였다. 연산땅은 공의 식채하던 지방이며 연산부내에 본택이 있는데 늦게

옥녀봉 밑에다 별장을 짓고 그 곳에 거주하셨다. 오호라! 公께서 연산부내 본택에서 연관(捐館=사대부가 사망 한 것을 칭함) 하시게 되어 장상행열(葬喪行列)이 오리정(五里亭)에 이르자 부민들이 모여들어 간단한 로전제(路奠祭)를 올리고 다시 전진하려고 할 때 영이(靈輶)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므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끝에 이 곳에 장사 하라는 암시가 아니냐고 고하니 그제서야 상여가 움직였다. 드디어 정주(停柩)하였던 곳에 장례를 마친 다음 의물(석물)을 찬연하게 구비하였다. 그러나 난리를 겪고 세월이 오래 흘러 타폐(墮廢)된지 오래 되어서 분묘의 원형이 없어져 평지와 같이 되었다. 公의 후손들이 분묘를 찾고자 여러 차례 심려하고 노력하여 왔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각방으로 탐문하였더니 경내에 모인이 그 땅을 점령하고 公의 후손이 알까 두려워하여 비갈과 지석을 모두 버리고 저희 선묘를 암장한 자가 있어 찾기가 어려웠다 하더라.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이 비분하여 널리 찾아 그 선묘라 하며 다니는 金모가 잇음을 알았다.

업드려 생각하니 公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공덕을 세우셨는데 영혼이 영원히 안민할 수 있는 유택이 없어지는 것을 그대로 하여금방관만 하고 있게 되어 실로 개탄할 일이며 별세하신 대부(大父)께서 이 말을 듣고 감창함을 금치 못하던 차에 때마침 종인 도빈(道彬)씨가 奉三이가 성내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사람을 시켜 그를 초치한 다음 자세히 문의하고 힐책한 다음 설유하기를 [분묘만 옮겨 준다면 후한 보조를 하겠다]고 한즉 그는 비로소 사실을 고백하기를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玄장군의 분묘 앞에 세운 비석을 야정(野井=우물)에 버리고

그 위에 우리 방조모(傍祖母)를 장사하고 그 후에 자손들이 모두 절멸하였다.] 대답하거늘 이어 비석물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봉삼의 말과 능석(能釋)의 말이 추호도 틀림이 없어 의심이 안되므로 지헌공을 찾아가서 들은 바를 세세히 고한즉 이에 두 사람의 말이 똑같으니 이 말을 증거로 김해(金骸(김씨집 유해)를 옮기기로 하고 묘소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상세히 본즉 돌을 다듬어 쓴 것이며 흙을 다듬어 쓴 것이 꼭 예장(禮葬)으로 한 것이 분명하여 회옹(晦翁=朱子の 별칭)의 법제도로 쓴 분묘와 틀림이 없어서 公의 묘소로 확정되어 이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자손들의 지당한 도리이다.

이렇게 한지 얼마 후 선대부께서 풍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듬해 여름에 별세하시고 또한 지헌공께서도 역시 노환으로 상서(喪逝)하셨으니 슬프고 슬프도다! 그 다음 정오년 봄에 족조 재덕(在德)씨의 주선으로 여러 종족을 관동(館洞)에 모아 놓고 이 역사를 계속하자고 설유한 다음 또다시 奉三을 소환하여 무덤을 파 옮기려할 때 마침 일몰(日暮)하여 종인 수삼인이 산 아래에서 노숙(露宿)하게 되었다. 노숙하던 종인 모두가 그날밤 꿈에 의옹이 엄숙하신 대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유락을 찾고자 한다면 또다시 깊게파서 구광(舊壙)을 찾으라. 그러면 광내에서 세 마리의 큰 벌이 나올 것이니 이곳이 곧 내 幽宅이다] 라고 현몽하였다. 꿈을 깨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니 수삼인의 꿈이 다 똑같으므로 경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밤이 밝기를 기다려 역사를 계속하는 도중에 산하의 사람들이 많이와서 다같이 합력하여 작일 파던 곳을 한길 가량 더 파내니 과연 구광을 찾게 되었

다. 광내에서 뇌골과 2개의 치아가 있는데 두뇌골은 커서 등
글고 치아는 길어서 2寸이나 되었다. 모든 종친들은 부지중
에 감격하여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며 눈물이 흘러서 닦고 있
는중 세 마리의 큰 벌이 광중에서 날러나와 종인 옷소매 속
으로 들어갔다가 급기야 봉제를 다시 할 즈음에 세 마리의
벌이 광중으로 다시 들어가니 아 ! 이상하다 몇백년동안 분
묘의 형적이 인물되어 찾을 도리가 없었던 것을 선령의 현몽
을 얻으므로서 일조에 찾게 되었으니 이 어찌 사람의 능력만
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는가?

옛적 노인들의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양씨 성 가진
한 사람이 亥장군의 옥녀봉 밑 별장구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던 차에 어느날 등불을 환히 밝히고 홀로 앉아있을
때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므로 양씨는 깜
짝 놀라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본즉 한 장군이 말을 타고
뒤에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호령하는 말이 [양가 너는 어찌
해서 감히 함부로 나의 옛집을 차지하고 있는나 ! 지체없이
속히 물러가거라]하였다. 양가는 곧 집을 뜯어가지고 떠나
버렸다. 또한 수묘하는 날 5, 6명 노인들이 찾아와서 꿈에 의
용이 위대하고 엄숙한 대인 한분이 와서 묘소곁에 많은 군사
를 벌려 세우고 그 위용을 떨치셨다고 하였으며 또한 예로부
터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말이,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
는 밤이면 군사가 행렬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로 설
레는 소리가 동리까지 들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묘소를 봉
축한 후로는 일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했다. 희라 ! 우리
선조의 정령이 퍼지어 고산에 두루 돌으시고 명명한 가운데
현몽으로 후손들에게 밝혀주시어 수백년 잃었던 묘역을 다시

찾아 하여금 문종이 끊어진 탄식을 면하고 해마다 세사(歲祀)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묘사를 먼저 생각하고 재물을 거출하여 금총(金塚)을 옮기고 선조를 다시 봉축하게 한 것은 재덕(在德)의 힘ियो 안산(案山)에 있는 金李 양씨의 묘소를 이장하고 公의 묘표를 각석(刻石)하여 세우고 묘전(墓田)을 마련한 것은 족속 심(鐔)씨 종장 종갑(宗甲)씨 삼종숙 석리(錫利)씨 그리고 종인 종억(宗億)씨의 공로가 컷으나 鐔씨의 힘이 가장 많았다.

이에 이 전말을 명기하여 심묘(尋墓-묘소를 방문)하는데 대한 경과와 종인등의 성력이 대단히 컷다는 것을 이 글로써 알려두는 바이다.

憲宗 八年(서기 1842년)壬寅 七月 既望
20대손(二十代孫) 응수(膺洙) 拜手 삼가 씀(謹記)

16.有宋大將軍 高麗 門下侍郎 平章事 延山君

諡 景憲 玄公 神道碑銘 并序

高麗大將軍玄公諱覃胤延州玄氏之鼻祖也幼而聰悟岐嶷軀幹碩大智勇絕倫及長博覽經史尤喜左氏孫吳書既而喟然歎曰國家多事邊陲生釁是豈男兒讀書之時乎因投袂而起演習弓馬克臻其妙年未弱冠值羯虜犯境倡率義旅輒奏膚功毅宗特下褒諭仍延山府使命擇名宦家聘之時公尚未有室故也自是聲名籍甚隣邦懼伏後宋朝因女真亂請兵於我公以援兵大將往救奏捷天子大加寵賚宣諭本國以大用之意累增爵秩公見時政昏亂謝事還第治別墅于州之玉女峯下日以經籍自娛澹然無進取意若將終老逮夫明宗四年西京留守趙位寵盜弄西兵岳嶺以北四十餘城遺君迎賊倫常敦敗公聞變卽率二子入見主將曰孽臣跳梁列郡風靡全昧順逆之分一方響應尙無敵愾之旅爲

人臣者豈可坐視不討乎仍部署將吏倡以大義望闕申禮誓共討賊位寵大懼屢遣諜怵以禍福公益勵忠憤立斬諜者時安北都護雲州郎將三十四城俱以位寵腹心投書恐喝欲使來附公忼慨奮勇嬰城固守使二子屢挫賊兵之來犯者凡四戰四捷凶鋒斂退時金國遣將率師來駐延境曰我朝聞爾國列藩皆拒王命獨爾守義不屈爲賊所逼故命我來援云蓋公危忠炳節播聞隣國故致有遣兵來援於是乃與王師夾攻殄滅巨猾掃蕩凶醜位寵之終不得大逞凶圖以公保障西門出奇制勝之功也明宗嘉之策公勲授大將軍二子皆晉秩公以元勲累遷至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及卒諡景憲公葬于延山館洞王坐之原嗚呼公生有異姿氣槩英邁旣嫻於文辭又善騎射智勇過人慮事成敗若燭照而計數無一差失豐功偉烈精忠矯節昭載方策照人耳目綱常不墮疆域賴完斯可謂大東不世出之傑然男子也其他先系官蹟生卒歲遠無徵其傳於麗史遺乘者只如此舉三男曰德秀以功封星山府院君官兵部尚書曰利厚以功封廣城君官按廉使曰德裕檜原君官大司空後孫至今二十餘世凡國中之以玄爲姓者皆發源於公而 國朝四百餘年簪組相承其間達官名儒爲世聞人者亦多猗其盛矣可驗根深而枝茂德厚而流光也始公在兒時夜過州之劔閣山谷邃而樹密人皆憚行時值昏暮逕路莫辨忽有列炬數百前導曰玄將軍來矣蓋公震世勲名發聯於冲齡而有此山鬼之護行也逮公葬時鞠到五里亭州民爭來致侑奠撤將行靈輜不動遂窆于其地岡巒拱護體勢端嚴最稱關西名穴公於幽冥中顯眎靈蹟卜得吉地矣後經兵燹子孫散處樹封之地久失其傳往在 純廟庚午後孫始得墓域尋驗之夕公又視夢于幹事諸孫累百年湮晦之兆復顯于世且梁姓人築室于公之別墅舊基夜有一貴人且儀而至嚴威訶責梁震懾卽日拔宅移去云公之下世夔貌殆近千禩而精靈不爽累發顯異之事尤可見英魂之特異乎人而使人想慕起敬於百世之下矣公之諸孫今將樹碑墓道使鎮定永益鐔膺洙相舜景河來

請銘于致謙於公爲彌甥年衰筆退雖不足以揄揚公勲德之萬一而義
不敢辭遂據遺事而叙之系以銘銘曰

維嶽降靈寔惟我公忠感鄰國名馳大邦辭嚴義明炳若日星功鉅德厚
澤及生靈平生志節忠勇俱隆緝緝雲仍慶流不窮延山之原有碑斯豐
旣固以寧繫公之藏我銘匪私公永不亡垂眎千秋表厥墓宮

外裔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 尹 致 謙 撰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 申 緯 書

유송대장군 고려 문하시랑 평장사 연산군

시 경헌 현공 신도비명 명서

(有宋大將軍 高麗 門下侍郎 平章事 延山君

諡 景憲 玄公 神道碑銘 并書)

고려 대장군 현공의諱 담운(覃胤)은 연주 玄씨의 시조이시
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체구가 석대(碩大)하고 지용이 뛰어났
을 뿐만 아니라 장성함에따라 경사를 널리 보시고 나아가 춘
추좌전과 손자 오자명서를 즐겨서 다 읽은 후에 탄식하는 말
이 국가가 다사다난한 때에 남아대장부가 글만 읽고 있을 때
가 아니라 생각하고 분연히 꺾기하여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망년 19세에 갈로(羯虜-흉노족)가 국경을
침범하자 공께서는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적을 격퇴 평정하
셨다. 고려 의종께서는 공의 대공을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포상을 내리시고 또한 연산부사를 제수하시고 명환거족을 택
하여 결혼토록 주선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공의 명성이 자자

해졌다. 송나라때 여진(지금 중국 변방의 胡族 후족) 난리가 일어나자 우리 고려에 구원병을 청해오자 공은 구원병의 대장으로 출전하여 적을 섬멸하여 대승하고 귀국하셨다. 송나라 임금이 대단히 기뻐하여 대상을 내리고 본국 고려에 알려서 대관을 주도록 선유하여 여러 차례 벼슬이 높아졌으나 공께서는 정국이 혼란함을 즉전하시고 사퇴하시어 고향에 돌아가시어 옥녀봉 밑에 별장을 짓고 한가롭게 여생을 마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고려 명종 4년(서기1174년)에 서경 유수 조위총이 역심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파령 이북 40여성주들이 임금을 저버리고 반군을 환영하니 인륜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

공께서는 이 변란을 듣고 곧 두 아들을 거느리고 주장을 찾아가서 열신(孽臣)들의 반역으로 여러郡이 흔들리고 있어 전연히 충성과 반역의 분별을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르시고 한편 성내의 군사를 설득시키어 반란군에 동조하는 군사가 점점 줄어들었으나 신하된 도리로서 어찌 앉아서 구경만하고 싸우지 아니하리오 라고 결심하시고 장수와 병졸의 부서를 정돈한 후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의리를 외치며 대궐을 향하고 경례한 다음 역적 조위총을 토벌할 것을 맹서하셨다. 위총은 크게 겁을 내고 간첩을 보내서 자기들에게 동조하면 복이 되며 만일에 불연이면 화가 된다고 협박하였다. 공은 더욱 충성심과 의분심을 발휘하여 간첩의 목을 베어 죽였다. 그 때에 안북 도호(都護) 운주 난장(郎將)등 34성이 다 위총의 편이었다. 위총은 공을 자기편으로 유도하고자 공갈서신을 보내왔으나 공께서는 완강히 거절하고 분투용전하여 4전 4승하므로 적이 물러갔다.

이 때에 금국(金國)에서 장졸을 보내어 연주변경에 주둔하게 하고 인솔장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임금님이 고려국 여러 고을 백성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있으나 너희만은 홀로 충의를 지키고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고려에 가서 구원하라는 왕명을 받들고 여기에 왔다.]하니 대개 공께서는 국난으로 위기를 만났어도 충성과 절개를 지킨다는 말이 이웃 나라에서까지 모두들 알았기 때문에 구원병을 보낸 것이다. 공은 원병과 합세하여 적을 포위해서 소탕하고 괴수 조위총을 참살하니 위총의 흉도(凶圖)가 깨어진 것은 공께서 국토를 굳게 지키고 지혜와 용맹을 발휘하여 승전한 공로였다. 이에 명종이 가상히 생각하고 공에게 훈장을 주고 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다 벼슬을 주었다. 공을 원훈으로 여러번 벼슬을 승진시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판서)에 연산군(延山君)으로 봉하여 원로대신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다. 공께서 서거하신 후 경헌(景憲)이란 시호를 내리시고 연산 관동 임좌 언덕에 장사하였다.

아아 ! 슬프도다. 공이 탄생초부터 자세가 석대(碩大)하며 천품이 영특하고 비범하셨으며 학문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말 잘타시고 활 잘 쏘시고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셨다. 매사에 임함에 그 성패를 생각하여 좇볼처럼 환하게 아셨으며 제수에 있어도 하나 틀리는 일이 없으셨다. 공의 위대하신 충절과 공로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명성이 세상에 뛰어났으며 인륜도덕에도 투철하시어 국가의 거성이며 우리 역사에는 호절남아라고 지적되어 있다.

公의 선제와 관직(官蹟) 生 후 등이 너무 세원하여 알 수가 없으며 고려사와 가승에도 다만 이와 같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 公은 세 아들을 두셨는데 長의 휘는 덕수(德秀)이신데 국가에 큰 공이 있어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官은 병부상서(兵部尙書=국방장관)요 次의 휘는 이후(利厚)이니 역시 국가에 공을 세워 광성군(廣城君)이 되시고 官은 안렴사(按廉使=지방장관)이며 三의 휘는 덕유(德裕)니 국가에 대공이 있어 회원군(檜原君)으로 관직은 사공(司空=정1품)이며 시호는 정헌(正獻)이시다. 지금의 후손들은 20여대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玄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발원이 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400여년 동안 公의 자손들이 계승하여 높은 벼슬과 유명한 학자로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많은 것은 예컨대 나무뿌리가 튼튼하면 그 지엽이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선조의 음덕이 두터워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다. 公이 아시(兒時)에 연주 검각산은 골짜기가 깊고 수목이 울밀하여 어떤 사람이 라도 지나기를 싫어하던 곳이었다. 더욱이 때마침 일모하여 캄캄한 칠야에 불일이 있어 이곳을 지나치게 되자 이때에 홀연히 이곳 저곳에서 햇불이 수백이나 나타나 전도를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玄장군이 오셨다]하였다. 대개 公의 세상을 올린 훈명이 어렸을 때에 조짐이 뵈어 귀신들까지 호위하였던 것이다. 공께서 상서하시어 장례시에 상여(喪輦)가 오리 정에 이르자 그 동리 사람들이 모여와서 노전제를 올리겠다고 원하여 제사를 행한 후에 다시 전진하고자 하니 영이(靈輶=시신)가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다. 드디어 그 곳에 장례하니 산세가 장엄하고 강만(岡巒)이 단아하여 관서지방에서

는 제일 좋은 명혈이었다. 공은 별세하신 후라도 원래 위대하신 영혼이시므로 길지를 얻게 된 것이다. 그 후 난리로 인하여 자손들이 사방각처로 산재하게 되고 묘소를 봉축한 지가 오래되어 실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하여 내려오는 말조차 알 길이 없었다. 조선조 순조10년 경오(1810년)에 후손이 비로소 공의 묘소를 찾던 중 묘역인 듯한 곳을 얻어 시험하여 보려고 하던날 밤에 공께서는 꿈에 나타나시어 하신 말씀이 수백년이 되어 희미해진 분묘의 자취를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였으며 또한 梁씨라는 사람이 공의 별장 옛터에 주택을 건축하고 있을 때 귀인 한분이 위용을 갖추고 엄숙히 양씨를 꾸짖으시니 양씨는 겁에 질려서 그 즉시 집을 뜯어가지고 이거하였다고 하였다. 공이 하세하신 후 근 1000년이 되어도 영령이 자주 나타나시어 특이한 일을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것은 조상의 영혼께서 자손들을 항상 돌봐 주시는 음덕이라 생각할 때 자손들은 조상을 천추만대까지 경모하여야 한다.

공의 제손들이 장차 묘에 비를 수립하고자 진정(鎭定) 영익(永益) 심(鐔) 응수(膺洙) 상순(相舜) 경하(景河) 등이 찾아와서 비문을 청하므로 나는 공의 외후손으로서 년채하고 질문이라 공의 훈덕의 만분의 一이라도 유양(揄揚)하지 못하겠으므로 사양하다 못하여 유사와 사적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명을 쓰노라.

오직 이 세상에 탄생하신 공을 사모하니 그 충성에 이웃 나라에서도 감동되어 마침내 내 이름이 큰 나라에 까지 떨치었다. 언사는 엄정하고 의리는 밝아서 일월과 같고 공덕이 크고 두터워서 은택이 생령에 미쳤으며 지조와 용맹이 융성하시어

빛나고 빛나서 경사가 자손에게 영원히 무궁하게 흘렀도다.
연산의 언덕에 묘비가 풍요하여 이미 평안히 모시었으니 이
곳이 공의 유택이라. 나의 이글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
의 유덕을 영원히 기념하여 천추만대의 후손들에게 보이고
이를 묘궁에 표시한다.

外裔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 尹 致 謙 撰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副摠管 申 緯 書

17.高麗門下侍郎平章事玄公墓表

關西古稱多名將如乙支文德楊萬春諸人以弱國孤軍抗隋唐百萬之
衆揚國威武華夏是震及至高麗有玄公覃胤與其子德秀又能折衝禦
侮盡節用命以奠安宗社是所云山西出將爲國之寶者歟公生稟穎悟
纔韶齒嶷然如成人孤貧失學聞群兒書聲日誦數百言隣人奇其才資
貲而就學喜讀左氏春秋孫吳兵法喟然歎曰男兒生長邊陲安事劬書
仍習弓馬武藝絕倫當羯虜犯境倡率義旅先登鏖戰以破虜毅宗特除
延山府使時公年十九猶未娶命聘于名家自是聲名藉甚鄰邦畏讐逮
女眞侵上國宋朝請兵于我公以元戎赴援奏捷宋帝厚賚護送褒諭本
國俾之大用累增爵秩公見時政昏亂遜居玉女峯下若將終身及賊臣
趙位寵叛據平壤一路咸從逆公與德秀見主帥曰契丹之役列郡風靡
而獨我城固守却賊今位寵敢抗王命天地所不容忠義之士誓不俱生
遂率邑子望闕遙拜矢共討滅仍固壘戒嚴位寵誘脅以禍福公立斬謀
者以警衆密諭城中以王師西征用安反側時諸城將領皆爲位寵致書
恐嚇要其投合納款公輒斬其使嬰城牢拒使二子屢却賊兵辨資糧繕

樓櫓厲志攻禦者數年位寵終不敢大逞以公父子故也方其對壘女真遺將高羅駐延境公訊其故高羅曰聞爾國列藩皆拒君命獨爾城不從爲賊所逼故來援爾等勿疑公卽詣陣以告實高羅感泣曰果符所聞有急則吾當效力君益勵忠節用勗王事後與公挾攻而殄滅策元勳拜大將軍累遷至門下侍郎平章事有三男德秀星山府院君利厚廣城君德裕檜原君德秀四子元烈太僕尹元奐令同正元琬都令郎將仁烈文科利厚子元燾平章事德裕子昇吏部典書敬輿典客令元烈出甫令同正元奐出敬祖司評元琬出禹主主簿仁烈出文弘直長元燾出璟祗侯璟樞密院事昇出玄孫以下并不載始公卒于延山本第及葬鞠到五里許輜車着地不動卽其所而窆焉今之延山館洞瑩域是已因後孫南遷歲久而圯爲金姓民所偷埋公宅兆無傳 純祖庚午始乃尋真遷金塚而修公墓是爲王坐之原用薦歲一之饗焉公稟英豪之姿值艱虞之世扶義而動推理而行掩節而斷因資而成功父子兄弟俱紀旂常庶無愧于唐之晟翹宋之彬瑋焉且後承繁昌遍于八域殆不可勝數而往往名世可驗公德厚流光也古語云山致其高雲雨起焉水致其深蛟龍出焉詎不信哉終古勒彝鼎而垂竹帛者未盡享不盡之福而福祿俱全裕後昆于無疆如公者歷選往牒尠與擬倫於乎休哉公世居延州故仍貫延州今爲寧邊府云公裔孫鎮定鎮默永益鐔膺洙相舜景河採野乘邑誌及麗史所載謁不佞以麗牲之丈夫先祖之善雖微亦不忍終泯圖不朽于永遠子孫之仁也況有大勳勞于勝國哉力疾而書之俾歸而刻諸表陰

崇禎 紀元後 四甲辰

彌甥 唐城 洪 直 弼 謹撰

外裔 綏祿大夫 南寧尉 兼 五衛都摠府 都摠管 尹 宜 善 謹書

高麗門下侍郎平章事玄公墓表

고려문하시랑평장사헌공묘표

관서는 예로부터 을지문덕 양만춘과 같은 명장들이 많이 나와서 약소국의 군대로써 수나라 당나라 같은 큰 나라의 백만 대군과 항전승리하여 우리 국위와 무화(武華)를 천하에 선양하였도다. 고려에 이르러서는 玄公 담윤(覃胤)이가 있으시어 그 아들 덕수(德秀)와 더불어 충절과 용맹을 다하여 능히 국란을 방어하여 국가의 종묘와 사직을 안전토록 하였으니 산서에서 출생하신 국보가 되시는 분이다. 아아 ! 공경할 지어다.

공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천품이 영특하시고 체구가 석대하시어 성인과 같으셨으나 일찍이 부모를 잃으시어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잃으셨다. 그러나 여러 서당학동들이 즐밋는 소리만 듣고 날마다 수백수의 글을 송독하시니 이웃 사람들은 참으로 기특한 재조를 칭찬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좌씨(左氏)의 춘추(春秋)와 손오의 병법을 즐겨 읽던중 남아로 태어나서 안일하게 글만 읽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고 탄식하시면서 활 쏘기 말 타기 등의 무술을 익혀 그 술수가 세상에 뛰어났다. 갈로(羯虜=흉노족)가 국경을 침범하였을 때에 공께서는 의병을 일으켜 출정하여 적을 섬멸하였다. 고려 의종께서는 특별히 연산부사를 제수하시니 그때에 방년 19세로서 결혼 전이셨다.

그런고로 국왕께서는 명문거족과 혼인토록 알선하여 더욱 그 명성이 자자하게 되어 이웃 나라에서까지 흠모하게 되었다.

여진이 상국인 송(宋)나라를 침범함에 송나라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여 오므로 공을 대장으로 임명 원정하여 구원승전하셨으니 송나라 제왕은 매우 기뻐하여 후이 포상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크게 임용할 인물이라 천거하

였으므로 본국에서는 여러번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다. 공은 정국이 혼란함을 보고 옥녀봉 밑에 별장을 짓고 여생을 장차 마치려 하셨다. 그러나 때마침 역적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켜 평양일대의 여러 성이 조위총을 따르게 되었으나 오로지 공만은 그 아들 휘 덕수와 같이 적장을 보고 하는 말이[契丹에서 쳐왔을 때도 모든 고을이 다 그에게 순종하였으나 나는 굳건히 성을 수호하고 적을 격퇴시켰다. 지금 조위총이가 감히 거역하면 천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충신과 의사는 죽음으로 맹서하고 대항하리라]하고 성내에 있는 남자를 인솔하고 대궐을 향하여 요배한 다음 적을 토벌하여 없애도록 진을 확고히 구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조위총은 첩자를 보내어 공을 유인하고 협박하기를 자기를 따르면 복이 될 것이며 만일 안 따르면 화를 면치 못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공은 간첩의 목을 베어 죽이고 대중들을 정제하고 성중 백성들을 설유하니 군사들이 적을 치려하는데 더욱 용기를 얻어 일로 매진하였다. 이 때에 여러성 령장들이 조위총을 도와치서 하고 사람을 보내어 공갈하여 항복할 것을 종용하며 갖은 협박과 유혹을 계속 쉬지않으나 공께서는 사자들을 참살한후성을 굳게 방어해서 침입을 방지하였으며 두 아들로 하여금 누차에 걸쳐 적병을 물리치게 하고 군량과 군기를 확보하였다. 초소를 구축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앙양하게 함으로써 수년간 철저한 방어전을 펴셨으므로 조위총이 마침내 감히 대항치 못하게 된 것은 공 부자의 은공이라 생각된다.바야흐로 그 대전할 때에 여진에서 우리 고려의 전황을 탐문하고 아무 예고도 없이 고라라는 장군을 연경에 주둔하게 하였다. 공이 그 이유를 심문한 즉 고라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나라는 모

든 고을들이 다 왕명을 거역하고 당신의 성만은 단독 적을 따르지 아니하여 전황이 대단히 긴박한 상태라고 듣고 구원차 주둔하였으니 당신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공이 고라의 진지에 나아가 사실을 고한즉 고라는 감격 끝에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내가 과연 듣던바와 같구나]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도우리라 하고 군사를 이끌고 공과 더불어 협력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공은 원훈(으뜸 공로)으로서 대장군이 되시고 벼슬은 문하시랑 평장사를 지내셨다. 공께서는 三男을 두셨는데 長의 휘는 덕수(德秀)요 작은 성산부원군이요 次의 휘는 이후(利厚)요 작은 광성군이요 三의 휘는 덕유(德裕)용 작은 회원군이시다. 덕수는 四子를 두셨는데 長의 휘는 원열이요 官은 태복윤(궁중의 목장관리)이시며 次의 휘는 원미(元美?)요 관은 령동정(3품)이시며 三의 휘는 원빈(元?빈)이요 관은 도령랑장(무관 종5품)이요 四의 휘는 인열(仁烈)이니 문과에 급제하시었다. 利厚의 아들 휘는 원도(元燾)요 관은 평장사(판서)이시다. 덕유의 아들 휘는 승(昇)이요 관은 이부전서(정3품)시며 元烈의 아들 휘는 경여(敬輿)요 관은 전객령(외교업무)이시며 원미의 아들 휘는 보(甫)요 관은 령동정이며 원빈의 아들휘는 경조(敬祖)로서 관은 사평(=司評=장례원 6품)이요 인열의 아들 휘는 우규(禹圭)를 두고 관은 주부(主簿=7품)요 원도는 아들 휘 문홍(文弘)을 두셨는데 관은 직장(直長=7품)이며 승의 장자 휘는 경(璟)이요 관은 지후(祗侯)며 차자 휘는 장(璋)이며 관은 추밀원사(3품)이시다. 현손 이하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공께서는 연산 본택에서 서거하시어 장례할 때에 오리정에 이르자 영이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곳에 장사

하였으니 지금의 연산관동영역이다. 후손들이 남쪽으로 옮겨
 온지가 오래되어 분묘가 허물어 졌을 뿐만 아니라 김성이 공
 의 유택위에 투장하여 알아 볼 길이 없었다.조선조 순조 경
 오년(1810년)에 비로서 투장하였던 김충을 파 읍지고 公의 묘
 소를 임좌로 맡끔히 수봉하고 해마다 일차식 묘사를 향사한
 다. 公은 성품이 영웅호걸의 자태로 태어 나시어 국사다난한
 세상을 만나 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하시고 사리에 맞추어 일
 을 처리하시며 절개를 지켜 용단하시며 자질의 능력에 의하
 여 처사하였으므로 매사에 성공하셨다. 公의父子兄弟 모두
 가 기상(旂常=공신록?)에 등록되신 사적으로 당나의 성소(嚴
 廟=당 현인)와 송나라 빈위(彬瑋=현인)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公의 뒤를 이어 덕망 높은 자손들이 번창하여 국
 내전역에 널리 살고 있으며 그 명성이 천하에 떨쳤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公의 덕망과 명성이 길이 후
 손에 광명과 공지를 갖게 하다. 옛말에 산이 높으면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며 물이 깊으면 교룡(蛟龍=용)이 생기는 법이
 니 어찌 믿지 않으리요. 예로부터 역사에 이름만 전해 내려
 오는 자는 많으나 그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나 公과 같이 복록이 완전하게 구비하여 그 음덕이 후
 손들에게 무강하게 유전하시니 진실로 아름답도다. 公은 원
 래 연주에서 살았으므로 본관을 연주로 하였음이 분명하며
 지금은 영변부라고 한다.公의 후손 진정(鎭定) 진묵(鎭默) 영
 익(永益) 심(鐔) 응수(膺洙) 상순(相舜) 경하(景河)가 야승
 읍지나 고려사에 수록된 것을 가지고 불녕(不佞)에게 찾아와
 묘문을 청하니 무릇 선조께서 선행이 비록 미미하다 하더라
 도 잘 보존하여 영원히 전하는 것이 오로지 자손된 도리일

것이어늘 하물며 국가를 위하여 대공이 있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부지런히 글을 썼으니 빨리 돌아가 표석 뒤에 새기시오.

崇禎 紀元後 四甲辰(1844년)

彌甥 唐城 洪 直 弼 謹撰

外裔 綏祿大夫 南寧尉 兼 五衛都總府 都總管 尹 宜 善 謹書

18.尙書公事蹟(見麗史列傳世家)

玄德秀延州人鐵面犀骨有膽略以意氣自高言語夸大人或譏之幼聰悟延州分道將軍金穉圭見而奇之携至京讀書通大義善屬文屢舉不第歸鄉明宗四年趙位寵起兵西京岢嵐以北應之德秀與其父都領覃胤謂主將曰昔契丹侵我列城皆降而我州獨固守今位寵旅拒王命天地所不容苟懷忠義者可忍從耶遂與主將望關拜閉城固守位寵遣人謀延州曰今北界四十餘城已會而獨爾城不至將舉兵問罪慎勿聽一二人語速赴西都城中推德秀權行兵馬臺事遣主將彥通等二十餘人擒謀者殺之位寵又謀云將發兵滅之州人頗洶洶有欲應位寵者德秀詐爲孟州將吏書密令城外民投城中曰上京兵十萬已諭鐵嶺自東界將搗西京凡州鎮爲位寵誑誤者不可輕發其各堅守以待之城中人信之無二心德秀與其州副使崔博文判官安之彥金公裕等分兵屯守諸門兵馬使車仲圭趣延州至雲畔驛雲州人殺之分臺監察御使林擢材錄事李唐就等懷印至延州曰兵馬使旣死吾等無所歸請活我州人以德秀弟宣旨別監龍虎將軍利厚權行兵馬使德秀權監倉使事遂易置部署嚴兵守之安北都護都領姜遇文與三十四城都領致書延州曰上京將發大兵討北蕃諸城無罪故趙尙書欲救吾等徵召士馬而貴城獨不至何也若有異謀不從者當赤其族宜赴西京使無後悔雲州郎將君

禹又遣邊孟諭之曰西京差使員率四十餘城諸寺僧兵萬餘欲攻貴城宜速赴召擢材斬孟梟示城外俄而西京兵來攻擢材擊破之至暮西兵屯城南呼謂曰有斬利厚兄弟及唐就等降者將加厚賞不爾必屠之德秀自南門出擊之西兵趨京都至京西爲李義方所敗復趣延州圍數重德秀遣高勇之唐就等急擊大破擒殺甚多西兵復來攻德秀又擊大破獲兵仗無數明年金遣高羅率兵來屯延州境城中皆懼高羅曰帝聞爾國列藩拒王命獨爾城不從久爲賊所逼命予領兵爲援爾等勿疑覃胤素以恩信聞于金人至其陣告實高羅下淚曰帝所聞果信也有急吾當助之爾等宜勵忠義一心王室遂去諸城兵復攻延州德秀又擊敗之王拜覃胤爲將軍德秀爲內侍祗候德秀上書請納告身赴舉不許尋出爲安南都護府使爲政廉明吏民敬畏尤惡淫祀禁令甚嚴巫覡不得入境有吏執女巫與其夫至德秀訊之顧謂同僚曰此巫非女乃男子也同僚笑曰非女安有夫乎德秀令裸視果男子也先是巫出入士族家潛亂婦女其被污者羞之不以語人故所至恣淫穢至是一方服其神明入爲都官郎中時散員同正廬克清家貧將賣家未售因事出外其妻受德秀白金十二斤賣之克清還謂德秀曰予初以九斤買此家居數年無所增飾而得十二斤豈可乎請還之德秀曰爾能守義而獨予未耶遂不受克清曰予平生不爲非義豈可賤買貴賣以贖于貨子若不從當悉還其直復吾家也德秀不得已受之曰予豈不逮克清者乎遂施佛寺聞者莫不歎息曰今世得見如此人耶(此一條在明宗實錄)後拜吏部郎中諫官奏不宜授邊城人改授兵部郎中轉司宰少卿神宗朝拜殿中監累遷兵部尚書致仕封星山府院君高宗二年乙亥五月壬午卒

宋淳熙元年麗明宗四年甲午與將軍公倡義入延州城討趙位寵有大功拜內侍祗候出爲安南都護府使慶尙道按廉使入爲兵部郎中轉司宰少卿神宗朝拜殿中監累遷至兵部尚書初封八莒君後移封星山府院君致仕與平章事崔謙等八人爲耆老會圖形刻石公居第七世謂之

上仙歷事五朝壽至八十餘宋嘉靖八年麗高宗乙亥五月壬午卒(以上雜見史及列傳)餘見南岳祠宇祝文及耆老會座目小序

尙書公事蹟(見麗史列傳世家)

상서공사적(전려사열전세가)

현덕수(玄德秀)는 연주사람으로 얼굴은 철(鐵)과 같고 체골이 장대하고 담력과 지혜가 겸비하여 의기가 당당하고 제반사에 자신을 가지고 행하니 타인이 혹 시기함도 없지 않았으나 유아시부터 총명하셨다. 연주 분도 장군 김치규(金穉圭)가 기특함을 보고 서울로 데리고 가서 글을 읽혀 아주 거유(巨儒)가 되었으나 누차에 걸쳐 과시에 응하였어도 급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명종4년(1174년)에 조위총이 역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서경 절령(岳嶺)이북에서 싸우려 했다.

공은 부친 도령(都領)과 더불어 주장수에게 말하기를 [옛적 결안이 우리 성을 침범하여왔을 때 모든 성들은 항복했으나 우리 성만이 홀로 왕명에 따라 성을 고수하였다. 지금에 위총이 왕명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니 천지가 역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충의가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겠는가]하고 주장수와 같이 대궐을 향하여 재배하고 성을 굳게 고수하니 위총이 첩자를 연주로 보내어 말하기를[지금 북쪽 40여성은 벌써 다 모여 왔는데 다만 너의 성민만이 따르지 아니하여 이제 곧 군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문책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속히 서쪽 도성중으로 나오라]하였다. 이 때에 德秀는 병마대사와 주장등 20여인을 보내어 위총의 첩자를 사로잡아 죽이니 위총이 첩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앞으로는 군

사를 발동시켜 죽이겠다]고 하므로 성민들은 겁을 내어 여론이 물 끓듯하여 위총을 응원하고자 하는 자도 있었다. 德秀는 맹주 장리서에게 밀령을 내리어 성밖에 있는 백성들을 성중으로 회집하게 하고 설유(說諭)하기를 [상경에서 군사 10만명이 철령을 넘어 동쪽으로부터 서경을 향하여 오고 있으니 주민들은 위총의 감언에 속으면 안 될 것이다. 각자가 본연의 위치를 고수하여 기다리고 있으라]하였다. 성중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다. 德秀는 그 고을 부사 최박문, 판관 안지언 김공유 등과 더불어 분병하여 여러 성문을 수호하게 하고 병마사 차증규가 연주를 거쳐 운반역에 당도하니 운주 사람이 그를 죽였다. 분대 감찰어사 임탁재와 녹사 이당취 등이 연주로 와서 하는 말이 [병마사는 이미 전사하였으므로 우리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우리 고을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하였다.

공의 아우 선지별감 용호장군 이후(利厚)를 병마사로 보내고 공이 감창사를 권행하여 부서를 바쁘게 하고 병사를 엄하게 하여 잘 지키도록 하였다. 안북도호부령 강우문(姜遇文)이 34성 도령과 더불어 연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경대장군이 큰 군사를 일으켜 북변에 있는 여러 성을 토벌하고 있으나 죄가 없는 성민을 습격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 생각하는 趙尙書는 [우리를 구제하고자 군사와 군마를 징소(徵召)하였는데 귀성만은 단독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다른 제책이 있어서 응하지 않는 자는 가족을 멸하게 될 것이니 서경에 이르러서 후회가 없도록 하라]하였다. 운주랑장 군우(君禹)가 또 변맹(邊孟)을 보내어 달래는 말이 [서경차사가 40여성에 있는 여러 절의 승병 만여명을 거느리

고 귀성을 공격하고자 하니 속히 이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니 공이 탁재를 불러 변맹을 교살하여 성 밖에 내 걸었다. 잠시 후에 서경병대가 들어와 탁재와 교전하던 끝에 탁재가 이를 격파하였다.

때는 저녁 때 였다. 서병들은 다시 성남에 주둔하고 외치기를 [이후형제와 당취등을 참수하여 항복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또한 그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하였다. 이 때 공께서 남쪽 문으로부터 나아와서 그를 공격하니 서병이 경도로 달려가 경서까지 갔으나 李義方에게 패배를 당하고 다시 연주로 쫓겨와 두어 점으로 성을 포위했지만 공은 용맹한 당취등을 보내서 급히 공격하게 하여 사로잡고 또 참살하는 자가 많았다. 서병은 다사로서 쳐 부수려 하니 德秀공은 또 적을 대파시키고 병사와 무기를 수없이 많이 노획하였으며 그 다음 해 금국에서 高羅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연주에 주둔하니 성중 사람들은 다 두려워 하였다. 이때에 高羅가 말하기를 [우리 국왕께서 너희 나라 여러 고을 사람들은 왕명을 거역하고 있는데 너의 성만은 쫓지 않은지가 오래되어 적에게 무수한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가서 핍박하게 된 너희들을 도와 주라는 왕명을 받고 왔으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覃胤은 원래 신망이 두터우므로서 금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터이다. 그가 高羅앞에 나아가서 전에 있던 진상을 자세히 고하니 고라는 눈물을 흘려가며 하는 말이[우리 국왕께서 현지실정을 들으신 바와 똑 같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응당 협조할 터이니 당신들은 충성과 의리로써 일치단결하여 왕실을 보호하시오]하고 가 버렸다. 모든 성에 있는 군사들은 또 다시 연주

로 공격해 왔다. 이 때에 공은 이들과 응전하여 격퇴하니 대왕께서는 覃胤으로 장군을 삼고 德秀를 내시지후로 삼으니 공은 글로서 대왕께 상소하여 사퇴할 것을 청원한 즉 대왕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남도호부사에 제수되어 성내에 제사(滌祀)를 엄금하는 명령이 내렸다. 이 때에 이 일을 취급하는 관리가 무녀와 그 부군 된다는 남자를 잡아 공의 앞에 온 즉 공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무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분명하다고]하니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남자가 어찌 남편이 있겠습니까?]하니 공께서는 그의 옷을 벗겨 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옷을 벗겨보니 과연 남자였다. 이 무녀는 점부터 문벌이 높은 집에 드나들면서 부녀자들에게 음란한 짓을 하여 왔으나 그러나 몸을 더럽힌 부녀는 부끄러워서 감히 남에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러운 짓을 하여 왔던 것이다. 공이 도관 낭중(都官郎中=정5품)

으로 제냈을 때 산원동정으로 있는 노극청(盧克淸)이 가빈하여 주택을 공에게 팔기로 언약만 하고 집값을 받기 전에 출타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의 처가 공으로부터 주택 값으로 백금 12근을 받아갔다. 극청이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당초에 내가 샀을 때 9근을 주고 이집을 매입하여 수년 동안 살았어도 더 수리한 것도 없이 12근을 받았으니 어찌 옳은 일이겠소]하면서 윗 돈을 반환하려 하니 공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의리를 잘 지키고 있으나 나는 홀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극청의 말이 [나는 평생을 두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 천한 집을 팔면서 귀한 값을 받아 장사꾼처럼 더러운 짓

은 못하겠다. 만일에 공께서 받지않으려면 나의 집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공은 할 수 없이 돈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극청이와 같은 사람이 못 되었던가]하고 받은 돈을 절에 시주하셨다.

이 사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이와같이 의리가 두터운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는가 하였다.(명종실록에 등재됨) 그 후에 이부랑중(吏部郎中=5품 벼슬)으로 제수 되었다가 간관이 변방인이라 옳지 못하다고 왕에게 상소하여 병부낭중으로 전임되었다가 또 다시 사재소경(司宰少卿=종4품)의 자리로 옮겨졌다. 神宗조(1198년)에 전중감(殿中監=종3품)을 배수한 다음 누차에 걸쳐 승진하여 병부상서(兵部尙書=장관)에 이르러 성산부원군에 피봉되시다. 高宗 2년(1215년)을해 5월 임오일에 서거하셨다. 송 순희원년(1174년)즉 려조 명종4년 갑오에 장군공으로 더불어 충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연주성으로 들어가 조위총을 격퇴시켜 대공을 세웠으므로 내시지후를 배수한 다음 또 안남도호부사와 경상도안렴사를 거쳐 팔거군에 피봉하고 다시 성산부원군으로 이봉되셨다.

평장사 초당등 벼슬을 치른 8인과 더불어 기로회를 조직한 다음 등근 돌에다 각자한 곳에 공이 제7위에 있으니 세인이 지상 신선이라 하였으며 5대의 임금들 섬겨 높은 벼슬을 지내시다 80여년 사시다가 려조 고종 을해(1215년)5월 임오일에 영서(永逝)하셨다.(고려사 열전 등재) 이상 사적은 남악사우측문 및 기로회 좌목 소서에 있다.

19.九賢耆老會座目(熙宗六年庚午秋九月爲此會)

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致仕 崔 謙 號雙明齋 諡靖安

守太傅

崔 詵 謙의 弟

太僕卿致仕

張自牧

東宮侍讀學士

高瑩中

判秘書省致仕

白光臣

守司空致仕

李俊昌

兵部尙書致仕

玄德秀

守司空致仕

李世長

國子監大司成致仕

趙 通

수태위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치사 최 당 호 쌍명재 시 정
안

수태부

최 선(詵) 당의 弟

태복정치사

장자목

동궁시독학사

고영중

판비서성치사

백광신

수사공치사

이준창

병부상서치사

현덕수

수사공치사

이세장

국자감대사성치사

조 통

耆老會座目小序

於戲人生天地長年最貴而同德黃鸞盍簪清道者自古有幾箇人哉唐
之白樂天宋之文潞公俱以盛代之老共有洛中之會擅美當世作圖以
傳則者英之會古亦鮮矣吾東方麗之中葉太尉崔謙以老退野扁其齋

曰雙明與同時告老人八賢傲前代二公之事創海東耆英之會而道遙
自適觴詠自娛圖形刻石傳播於世故時人指謂之地上仙云爾則桑榆
晚景之清致蘭亭暮春之好期想必當世之所未有而一時士大夫景仰
之心不啻若郭李同舟之望也嗚呼吾先祖尚書公居於九賢中第七則
生卒雖未詳知享壽從此可推而惜乎年代既邈文獻莫徵同遊之圖會
約之條旣不得目擊又不得耳聞則後生之感慨夫豈淺淺哉今當譜牒
之成附錄先代之蹟只將耆會座目列書如右而不勝追遠之懷忘其僭
越略叙荒無以寓羹牆之慕云

崇禎紀元後再丁卯中秋上澣尚書公十六代孫 尚禧 拜手 謹書

기회회좌목소서

어회라 ! 인생이 천지에 태어나서 천지에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같이 덕을 닦아온 구인(耆人)들이 청도(淸
道)를 길게 한 자가 고래로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인가. 당나
라의 백락천 과 송나라의 문로공은 당,송전성시대의 노인으
로서 낙양에서 모임이 있어 그 미풍이 당세에 진작되어 이
양상을 그림으로써 전하여지니 기영회의 참 모습이 또한 더
욱 아름답더라. 우리 동방 고려의 중엽에 태위 초 당은 노후
에 하야하여 그 서재를 쌍명이라 하고, 그 때당, 송 二公 노
인의 하던 일을 본받아 당시 8현노인들에게고하여 해동에 처
음으로 기영회를 조직하고 시를 읊으시며 술을 마시며 여생
을 즐겁게 소일하시어 그 진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돌에 조
각하여 세상에 전하였으므로 그 때 사람들은 이 노인들을 가
리켜 지상신선이라 불렀다. 상유(桑榆=뽕나무와 느릅나무 위
에 해가 지는 모습)의 저문 풍경과 난정의 청아한 풍치를 이
룬 노인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풍습은 쉽게 볼 수 없는 일

이며 사대부들이 그 때 그들의 덕행을 앙모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 선비 곽옹과 이옹(한나라 거유)이 같은 배를 타고 즐겼던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아 슬프다 ! 우리 선조 상서공은 9현중에서 서열이 7위되는 분인데 생사는 비록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장수하셨다는 것은 이로 추상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아 ! 애석하도다. 년대가 막연하여 문헌과 동유하시던 도회(圖繪=그림)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 후생들이 어찌 탄식하지 않으리오. 지금 보첩을 수록할 즈음에 선대 사적과 기로회좌목을 위와같이 열서하오니 감모지심이 더욱 새로워 짐을 금치 못한다.

승정기원 후재 정묘중추상한상서공십육대손 상희 배수 근서
崇禎紀元後再丁卯中秋上澣尚書公十六代孫 尚禧 拜手 謹書

20.寧邊南嶽祠宇

崇禎九十二年 肅廟朝己亥間清北儒生白采五等數十人以逮祠事
發文于清南北則士林齊聲應之遞至 景廟朝癸卯春本府儒生吉仁
和吳麟瑞柳星樞明萬鏡等建議設役于府之南嶽下
甲辰秋訖功

寧邊南嶽祠宇

영변남악사우

승정92년 숙묘기해(1719년)에 청천강 이북따에 사는 유생 백채오등 수십인이 사당을 짓기 위하여 발기를 강남북에 있는 사림들에게 전하여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경묘제

묘년(1723년) 봄에 본부 유생 길인화 오인서 류성추 명만경 등이 건의하여 갑진(1724년)에 관부의 남악산 밑에 사당을 준공하였다.

奉安祝文

上天有眷英豪篤生間氣所鍾山河毓精或遂節義或著勳名惟公一身二者兼并五百于年其賢孰京爰在孩提志豪氣清文辭沛然見識高明長者傾與夙馳高聲逮夫位寵盜弄西兵岳嶺以北四十餘城視君如遣惟賊是迎倫綱數敗大義晦冥河北諸州有一真卿時以韋布發憤氣盈所惡重死虎口斯櫻指陳逆順義激群情炳然其言雷轟日晶曉諭主將勉勵忠貞望闕再拜城門斯扃凶賊肆狼怒鋒搗營兵勢孔熾雲擁潮渟如山之壓弱線難撐公則雍容不震不驚出奇制勝裏智有贏貽書安衆殺諜摧勅簡選精銳乘夜鏖坑終奏膚功西賊垂平惟時金國嘉公血誠聞風興師千里助征虜酋同彝義形涕橫忠感蠻貊名馳八紘累蒙寵擢翱翔雲程班躋八座手握銓衡年屆懸車謝却簪纓優閒田畝蟻視浮榮同德告年盛會耆英地上有仙南極耀星餘光不沫聳瞻聆二十郡襟紳暨厥氓永世仰止遠揖芬馨咸謂延州桑梓攸青於焉創廟于以妥靈想像名節疊巘崢嶸追見事業雲水浩溟今涓穀朝敬陳肥牲永願顧歆啓佑百齡

봉안축문

영웅호걸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하늘이 도와주시고 산천정기가 일어나며 절개와 의리를 수호하여야 그 공로를 세워 명성이 만대까지 빛나게 할 수 있다. 공은 오직 일신에 두 일을 겸하였으니 500년동안에 걸쳐 위대하고도 현명한 업적과 공덕을 따를 자 누가 있으리오. 아해 때부터 의기가 활발하고

호방하였으며 글을 뛰어나게 잘 하였으므로 일찍부터 식견이 높아 그 명성이 멀리 떨쳤다. 위총이 반란을 일으켜 파령이 북을 치려고 하였다. 그 때에 40여성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배반하고 위총을 환영하였으니 삼강오상이 땅에 떨어지고 대의가 어두워진 형편이었다. 그러나 하북이북 여러 고을중 오직 한 고을만이 위총을 따르지 않고 적을 격퇴시키려고 무장을 튼튼히 하고 죽음을 각오하였다.

公은 격분한 나머지 뇌성과 같은 목소리로 역적과 충신에 대한 구분을 설교를 하여 충의심을 불러 일으켜 결합한 다음 모두 다 같이 대궐을 향하여 재배한 후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니 흉악한 역적들이 태풍과 같이 습격해 와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것을 미약한 군사로 대항하여 방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公은 조금도 진경(震驚=놀람)치 않으시고 침착히 기묘한 전술을 연구하시어 제승(制勝=이긴다)하시고, 또한 탁월하신 문장으로 군중을 안심토록 하신 다음 침입한 적의 첩자를 참살하여 사기를 꺾는 한편 정예군사를 선발하여 야간을 이용해 적을 섬멸하셨다. 公께서는 마침내 여차한 전략으로 적을 격퇴시켜 난리가 평정되려할 때에 전국에서 公의 혈성을 가상하게 생각하고 천리밖에서 구원병을 많이 파병하여 합세하므로써 전황이 유리하게 되었다. 이 때에 구원병 장수가 公의 충절을 듣고 감격하였다. 온 나라 장군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감동되었으며 公의 명성이 팔도강산에 떨쳤다. 누차에 걸쳐 높은 벼슬길에 올랐으며 노후에는 사양하고 하여하여 자연에서 생을 영위하여 부귀영화를 초월하셨다.

덕이 있는 같은 년배 친구들끼리 기로회를 조직하여 세진을

잇으려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지상신선이라 하였다. 공의 공적은 남극의 빛나는 샛별처럼 그 빛이 매몰(昧沒 꺼지지)치 않고 자손만대까지 빛나리니 어찌 사모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이 아니겠는가? 천추만대까지 공이 끼치신 뜻을 우러러보고 높이신 유덕을 추모하고자 공의 상재(桑梓=고향 선산)옆에 사당을 짓고 연주현씨의 자손들은 다 같이 절을하니 언제나 푸르게 돋보이도다. 공의 명절(名節=뛰어난 절개)이 산과 같이 높으시고 물과 같이 넓으시도다. 이제 음식을 장만하여 자손의 마음을 한데 모아 드리오니 흠향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돌봐 주소서.

春秋常享祝

勳節炳如聲名洋溢民到于今仰若星日茲值中丁敬奠芬苾○抗義却賊全城活民一方懷德千秋享禋

춘추상향축(봄, 가을 제사 올리는 축문)

공이 남기신 공훈과 충절이 빛나 그 명성이 바다 물결과 같이 지금 세상에 까지 넘쳐 흘러 일월성진과 같이 앙시하므로 이에 中丁日(제삿날)을 맞이하여 공경히 분향을 드리고 추모합니다. 정의로써 역적을 섬키려하시어 성민을 구제하신 덕을 잊지 않기 위하여 천추까지 정결히 제사 할 지어다.

祭文 其一

節彼天登磅礴蜿蟺嶽靈鍾淑篤生英賢生長其地曰延有邑臨亂激烈觀公樹立曩在麗葉孽臣跳梁挾西都叛獬我一方列郡風靡響應影從蕞爾彈丸公獨奮忠集我州人倡以大義望闕申禮妥城誓死賊乃飛書

動我喝我公愈膽怒立梟謀者援枹登埤四戰四捷凶鋒欽退三版妥帖
 中朝聞急遣帥來唁王國褒勳丹書鐵券憶昨狼狽微禹其魚豐功偉節
 古今誰如河北甘四真卿討賊薩西數十乙支陷敵所同成功遣光照世
 禮有祭社典有祠報博詢公議士林僉同隱隱南岳載營靈宮選彼穀朝
 奉公于堂籩豆潔嘉黍稷馨肅肅廊廡劒履在中山河氣作靈魄流通玄
 達雖邈不昧猶存念我邦人式薦蘋蘩世世無斁奠此行潦 一句缺
 通訓大夫兵曹正郎 李 時 恒 製

제문 기일

천지가 다 같이 도우시고 산신령께서도 정기를 모으시와 영
 특하고 현명한 사람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
 장에서 태어나서 그 고장에서 자라나니 바로 연주고을에 현
 공이시다. 역적배가 날뛰어 여러 고을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
 여 위기에 봉착하였다. 公은 홀로 충의심을 발휘하여 군민을
 소집한 후에 성내에 대의를 주창하면서 대궐을 향하여 요배
 한 다음 죽음으로 맹서하고 성을 수호하는 중 적은 서함(書
 緘=글)을 보내어 우리를 동요하게 하고 협박하여 오므로 公
 은 더욱 격분하시어 첩자를 참살하고 4전 4승하니 이에 겨우
 적들이 물러갔다. 3차전시에 중국 조정에서 으원군사를 보내
 어 왔다. 이 때에 국왕께서는 公의 공훈을 포상하고 첩에 다
 가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도록 하였다. 公의 위대하신 공덕과
 충절을 고금을 통하여 누가 따를 이가 있으리오. 하북24개성
 을 토벌하시어 을지문덕장군이 살수(薩水) 싸움에서 적을 섬
 멸한 공과 같으시니 公의 위훈이 영세에 빛나게 되었다. 이
 에 사당을 설치하고 해마다 제사하는 것은 예의에 타당한 일
 이라 하여 사람들이 공의업적을 순의한 끝에 남악산밑 은은

한 곳을 찾아 사당을 건립하고 공의 영령을 봉안하여 정성어린 제사를 엄숙히 드리고 공께서 생전시에 사용하시던 무기와 유품등을 진열하였다.

산천정기로 태어나신 영혼께서 왕래하며 두루 살피시기에 비록 멀기는 하나 공이 남기신 훈업이 위대하시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우리나라 사람은 공정히 대대로 제사를 올리게 될 것이다.

통훈대부 병조정랑 이 시 항 제

祭文 其二

曩在麗朝趙賊猖獗列城響應岳嶺以北維時尚書抗義憤擊州將感激始議嬰城登陴誓衆拜宸攄誠援絕虬蟬日滋犬羊詭辭鎮衆出奇摧強賴及一郡獲免禽獸時君嘉獎聯翩寵援遂長兵銓蔚爲名臣照人耳目赫若千春景仰風烈崇報可遲多士倡議遠邇同辭輦如新廟南山之麓我來守土幸襲遺馨瞻仰棟宇彷彿儀型自嗟來暮未聞援薤永言懷仰無以爲話敢將菲薄敬伸一奠尚冀明靈鑑此徵悃

府使 朴 弼 哲 製

제문 기이

지난 려조에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키니 여러 고을은 이에 호응하였으나 절령이복의 상서공만 대의를 위하여 항거하여 분격하니 주내 장수들이 감격하였다. 공은 비로소 영성에 모여 의논하고 단에 올라 대중과 같이 궁성을 향하여 배례하고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병사가 드물었으나 적은 날마다 전양(犬羊)과 같은 군졸이 불어나고 또한 이상한 감언이설을 퍼뜨려 성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

시켰다. 그래도 공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기묘한 지혜와 용맹스러운 충성으로 강한 적을 무찔러서 금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인륜의 도리를 지키게 되었다. 이 때에 임금이 가상히 여겨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또한 명신으로 삼으니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환하게 비쳐 봄 70치와 같을 것이니 공의 유품을 높이 흠안하여 보답하는 것이 늦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義를 불러 일으켜 원근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였도다. 새로운 사당이 제신 남산 기슭에 날아와 내가 이 고을을 수호함에 있어서 다행히 공의 유덕을 이어받고 사당을 우러러보니 공의 옛 모습을 대하는 것과 근사하도다. 참으로 슬프도다. 내가 늦게 와서 자세한 일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약산의; 제수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살피주소서.

부사 박 필 철 제

詩 一

枌樹新成日椒漿未薦時
尙書還介冑處士本弓箕
二老生同土千秋設並祠
請君激我至山水話清奇
(處士卽尹松坡並享故云松坡名衡舉武科後學禮人也)

右 參議 趙 正 萬

詩 一

사당을 새로 이루던 날 초장(椒漿=채소)을 드리지 못하였을 때 尙書의 한 개 투구가 돌아오고 처사(尹松坡名은 衡舉學禮人也)는 활을 기구(箕裘=갑옷)의 근본으로 삼았도다. 두 노인(公과 松坡)은 같은 땅에서 나고 천추에 까지 사당에 같이

모시었다. 청하전대 그대께서 나를 불러 맞으시면 산수가 맑고 아름다움을 이야기 할 지어다.

우 참의 조정만

詩 二

尙書戡亂後處士下帷時苦學欽餽薺清名憶化箕二人並嘉惠一體享
新祠好是藏修地兼之水石奇

右 承旨 趙 明 翼

시 二

상서께서 난리를 이기신 후는 처사가 해야하였을 때로다. 고학으로 덕을 닦으신 것은 냉이를 먹고 물마시며 고생하신 것을 공경하며 청렴하고 높은 덕은 별과 같이 오래오래 빛나리라. 두 분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뜻에서 두 분을 한 사당에 모시니 이 사당을 설립한 이 고장은 겸하여 수석이 더욱 아름답도다.

우 승지 조 명 익

詩 三

嶽瀆生申甫雙賢各一時戎韜神却賊範學闡承箕稷與回同道巡宜遠
合祠斯文事易就輪奐更新奇

右 正郎 李 時 恒

시 三

산수종은 곳에서 두 현인이 나시니 한 때의 분이시다. 육도삼략으로 적을 물리치니 학문을 배우심을 근본으로 하여 세상을 바로잡는箕를 이어 받는데 밝으셨도다. 직(稷=순 임금 때 농사일을 잘하던 관리) 회(回=공자의 제자)와 더불어 갈

은 도를 뿔으니 두 분을 합사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다 사
문 두 분이 있으시니 다시 새롭게 돋보이더라.

우 정랑 이 시 항

詩 四

醇風日頽已百尋嘒嘒尙友古人心竹符蘇里嗟來暮樽酒成都只細
斟遐徼挺儒螟誨遠孤城抗賊虎韜深如徵二子吾誰與自許襟期照古
今

右 府使 朴 弼 哲

시 四

순풍이 날로 허물어지니 교교하게 옛 사람의 마음을 벗할 것
뿐이다. 죽부소리는 소리로부터 저물게 슬피 들려오고 동이
슬은 다만 성도에서 비웠도다. 변방에서 뛰어난 선비가 나오
시고 외로운 성에서 역적에 항거하여 싸우셨으니 만일에 두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마음을 털어 놓으리
오.

右 府使 朴 弼 哲

21. 尙書公尋墓事實記

惟我中祖考 尙書公 本是延州人也 公私間世英資生得 鐵面犀骨
氣像

拔萃遠抱大膽 忠心智略 過人讀書通 大義臨事好義氣慨然有濟
救民

之志矣有宋淳熙元年甲午卽其市道伯趙位寵陰畜不臣之志盜弄西
兵岳嶺以南諸鎮將不變順逆之機從風而靡惟公時以韋布之士奮發
忠義之心

與其父親侍郎公及二及伏以春秋亂臣賊子人人得謀之義曉諭州將望闕伸禮而倡義舉兵於擊破趙位寵將相文武忠孝一邦服其神明年屆懸車休退鄉里與崔謙等八賢勗海東九老會講究箕聖之法制而風邊民間以常禮讓之俗故見稱於朱夫子同時之華而直書高麗有風俗之爲好求得孔孟之經傳而導迪士林以興明倫之學攷開示呼安文成公來頭之緒而終使東邦見道學之來明時人之所謂地上仙者猶是賣櫝還珠之語爾且圖形刻石專仰其容德者有之又奉位忝享思慕其忠賢者尚矣其豐功偉烈昭載於麗史提綱及關西與地勝覽而歷歷可考其年月也其嘉言善行槩傳戶延州邑誌與南岳祠宇祝文而赫赫然照人耳目是以名聲洋溢乎海東民到于今稱之而且且後昆承之蕃昌于八域者堂構畬雲仍千支豈公樹德植根之厚且深而然歟惟公衣履之藏本在於桑梓之鄉而未能繼守者蓋緣關西地接遼東屢經亂離子孫南遷之故而然矣失傳以來遠近子孫目見其家乘所記耳聞其父祖所傳非不知公之墓所的在延州境內耳累累往深則居近之人廬有後幣專爲隱諱故未得其明證確據以疑傳者已爲幾百祀于茲矣今我子孫之所以世世痛恨上可以澈乎九天矣而下可以質諸神明者也往太上皇壬辰年間炳翼先人以爲寧邊府吾玄之本鄉云而遂卜居于藥城之南以耕讀爲產矣越明年甲午端陽翌日壬午早起命呼小子而有言曰今夜蒙偶見一位老人鐵面犀骨身被戎衣威風凜凜望之嚴然悅如貌蒙矣卽拜見于座下老人莞爾而笑曰能知乃祖乎正欲犀問而瞿緣覺之卽汗出滿賴心驚身顫終夜不成寐而自反思之則吾前在石倉時得聞尙書公墓所在於南松坊委往探問之時已有似此之夢疑是明靈所致也吾今又往鳳至理探知先墓而歸也遂促離去小子未知下謂而拜辭于五里亭矣越三日乙酉候迎于南門下仙人喜色滿顏而還小子趨而問之先人曰前自石倉往時誤入他山崇忠洞未見墳墓而來矣今番行尋入真崇忠山好學洞而問於附近之人舉皆隱迹矣最後遇一人再

三求問則曰此地古有玄尚書公而至于中古有何甕匠者毀撤碑碣沉於釜沼故中年玄氏子孫來欲尋墓未果而去云吾聞尚書公大有功德於邦國生靈而萬歲有宅一任泯沒是誠慨嘆處也余聞不勝惻然而扣其誰氏則乃鳳至里居人姓申名俊文也因請益老人曰君爲子孫不識先墓余是他姓也其外又何知乎遙指高峰言彼所謂紫烟峰而其中有一麓古今傳言曰玄尚書古墓云而去直向所指處往觀之則真是子坐午向之局而龍勢隱隱穴局方正馬鬣隆隆墳形尚完然而所恨者不知何許人儉葬于祭節而乃下山而問於採薪之童果言尚書洞也又問於採蕨之女亦云尚書洞也縱未見碑碣誌銘惟一片佳城化作地名前有延州江中有德秀峰傳爲千古口碑山川不變矣此非明証確據呼弟待秋節當遍議于門中而奉尋先塋用薦時享之禮乃是子孫之職責也汝其銘心不忘云云不過數月忽有日清交戰之變關西居民扶老携幼渡海入山當此之時救死不贍愛假治禮義哉乙未以后雖是安於姑息而亂離之餘邑里今條難以舉事矣至乙巳秋八月先人忽以風症臥床不起小子晝宵侍湯未暇舉事矣丙午夏四月四從叔圭學氏以踏山次至自雲山謂炳翊曰余今行路遇康達京金仁恒兩氏得聞尚書公墓所在好學洞以往觀之則果是枕子之原而與我家乘若合符節尚書公墓所確實無疑也子其問議于宗中而尋墓奉祀乃是子孫之道理云故炳翊歸告先人奉命而往于館洞時祀與价定諸宗共議定論而欲期成事矣不過旬餘先人病患尤篤臨終謂小子曰吾平生念願尋得尚書公墓所以繼時祀矣有意味就而死雖歸九原將何面目以謁于先靈乎我昔年申戒之事汝能不忘也否言訖潛然淚下而終嗚呼痛矣自後身在草土荏苒歲月矣在戊申春族上寬玉兄弟寓居崇忠谷近境得聞古老傳言而來告于博川四從叔圭桓氏爲先素有誠意者也卽往告于門長處通諭於价定約與七八人往于鳳至里欲尋塋域言有圭角而退又俟秋節館洞時享會聚更議尋墓云云是歲之春炳翊讀書于朝陽關北飛虎山

主於贊玉妻家尋思窮理耿耿不眠矣似夢非夢先人來呼曰汝能尋尚書公墳墓乎對曰雖欲尋之未知其實先人責之曰試掘墓左則必有的驗云去之頃忽聽鷄鳴而覺老人儀容煇蒿悽愴常目在之昧爽而起與贊玉同往好學洞入于墓境而觀之乎與贊玉手以伐草哀聖三周不勝永慕而想見先祖之事之蹟完然余儀形之在目昊天罔極而記憶先人之遺言恍然若聲音之在耳仍進墓下焚灌尊爵而告祝曰維歲次戊申四月丁巳朔十一日乙丑二十八世孫炳翊敢昭告于顯二十六代祖考有宋高麗兵部尚書星山府院君之墓伏以公在盛時守城鐵甕擊破位總宗社賴安公惟休退齊居雙明文學同崔譔等道德有傳公既尊楹葬于忠谷魂氣上天軀魄歸地子孫不肖藏久失傳公靈不昧垂示顯聖以享百代歲事尚饗讀祝畢乃與贊玉試握墓左日已暮矣下山齊宿耿耿到晨似夢非夢一大人鐵面犀骨威儀嚴肅來教曰欲尋吾之幽宅深掘墓左必有誌石云云恍然乎心思確定更無所疑坐待天明適有年過八旬之老叟來言曰聞子欲尋尚書公墓域云莫非玄氏子孫乎對曰然雖欲尋而惟恐誠力不足也老人曰至誠感天子用誠心求之那有不尋之理乎炳翊不勝感悚而敢請人事則此是昔年老人之所奉話申俊文氏也乃將先人之言而切切告之老人曰子其然乎若是則吾無隱也遂說道古今傳來之事又言申孝子文集與金處士崇忠本辭顛末與我家乘所載之言如合符節無異鄴曼母訪墓之証乃請於斯老而爲之會同古老數十餘員深深其本而還鄉俱告門內四從叔圭學氏聽罷慨然歎曰此實吾先子之所墓仰親切而抑亦不肖無窮之恨也遂發文于宗中而擇定五月乙酉朔日始設封築之役墓左深掘幾尺果出誌石於是忠谷金斯文秉淵氏與該近古老知名之士數十人敬持酒果來相稱賀稱賀競赴封役不日成墳焉是日夜公又現夢于幹事諸孫此非公之精靈尚有顯聖乎卽招致逼葬者金俊明諭以道理那人亦有秉彝之性者內發羞惡之心更無一言推托而旋即掘移龍尾偷塚亦爲前此掘去此非其

公之遺澤尚此不泯者乎於是時享儀物不備至於十月十五日晷俱床石用薦時享之禮至于本春二月价熙宣定博五郡諸宗同心協力始役乎价川三角山而運石于數百餘里到處人民傳相聞之曰此是尚書公碑石乎競來助曳日行十餘里至于清州江水漲沙流碑重難渡適會數十餘人運碑載船櫟入于中流船邊出水者不過半村若有一字風浪則數十人性命危在頃刻而天無一点風浪無事渡江人稱明靈所佑而轉運月餘及到紫煙峰下崎嶇險路幾爲數十里實難轉上於是乎馬上鳳至兩里人百餘員聞風自來一心協力不日上山而建神道碑銘于十月之望而公又現夢于真川吳孝子宅云斯無乃關公之顯聖於天下後世乎又樹碣之後有黃耆老叟來言曰老身生長此地事有異常故專此來告尚書公尋墓以前每日雲霧晴谷矣自修墓後瑞氣連月明洞云嗚呼公精魂靈魄眸蠻_𧈧蟠故山棲息之所幽鬱於冥冥之中者將爲六七百年之久而精靈不衰一朝復顯此豈人力之所能及焉抑公之所以一幽一顯天也其爲後裔者孰不感幸也哉斯役也倡義發文而興起諸宗者門長錫筠氏及族弟炳燮甫之力拔涉山川不憚盡霄而掘前後逼塚者族祖益濂氏及族弟炳契甫之力也改封墳墓而備具石床者四從叔圭學氏與炳稷甫之力也風動遠邇左右周旋而建神道碑者价川宗長命赫氏及熙鳳之力也監督石役而終始勤勞者价川宗丈寅赫氏及族兄炳璉氏之力也圖形墓所而買得塋域者熙川宗丈錫湖氏及錫璉氏之力也請求碑銘于大斯文而竭力大書者四從弟炳朝甫及炳瑾甫之力也出義千金買得位土大繼香火者天安門長永鳳氏及執事百周氏之力也不遠千里而遍諭諸宗永久圖存者族叔繼承氏族弟炳律甫之力也茲記顛末以明尋墓之的驗而又記諸宗之各效誠力焉

純宗三年己酉陽復吉月丁未

二十八世孫 炳翊 拜手 謹記

상서공심묘사적기(尙書公尋墓事蹟記)

유아중조 상서공(惟我中祖尙書公)은 본시(本是) 연주인(延州人)이시라 공(公)은 간세영자(間世英資)로서 철면서골(鐵面犀骨)에 기상(氣像)이 발취(拔萃)하시고 원포대담(遠抱大膽)에 지략(智略)이 과인(過人)하시며 독서(讀書)에 대의(大義)를 통(通)하시고 임사(臨事)에 의기(義氣)를 호(好)하시니 개연(慨然)히 제세구민(濟世救民)의 대지를 품으신지라 宋 순희 원년 甲午는 즉고려명종 4년이다. 그 때에 도백 조위충이 불신지의(不臣之意)를 음축(陰蓄)하여 서병을 도농할제 절령이 남의 제 진장병이 순역의 기를 분별치 못하고 풍세를 쫓아 미탕(靡湯)하였는지라 유공은 그 당시에 위포의 선비로서 충의지심을 분발하사 그 부친 시랑공과 두 아우와 더불어 춘추법에 난신적자는 인인득주지의(人人得誅之義)로써 주장께 효유하시고 대궐을 향해 국궁 신례를하시고 연주성에서 창의거병하여 위충을 격파하고 장상에 출입하시니 문무와 충효를 일방이다.그 신기하신 용의를 탄복하시니라. 명년에 벼슬을 사양하시고 향리에 돌아가 최당등 8현과 더불어 해동구로회를 창립하시고 옛 기성의 법제를 강구하시니 풍화가 민간에 뇌급(賴及=미치다)하여 예양의 속을 승상케 하시며 공맹(孔孟)의 경전을 구득하사 사림을 교도하여 명륜지학을 흥왕케 하시고 또 도형각석을 하시니 그 덕용을 존앙하여 지상선이라 칭하며 또 남악사에 우|상을 봉안하고 향사를 받들어 그 충현을 사모하니 그 풍공위열이 려사제강과 관서여지승람에 소재되어 역역히 참고하게 되었고 그 가언선행이 연주읍지와 남악사우 측문에 상기(詳記)되어 세인의 이목을 혁연케 하니 시이로 명성이 해동에 양일(洋溢=넘치다)하여 주민이 금세에

이르러서도 칭함을 마지 아니하며 또 후손이 제승하여8역에
 변잉한 것이 어찌 그 공의 수덕식근이 두텁고 깊음이 아니리
 요. 공의 의리지장(衣履之藏=시신)이 근본 상재지향에 제시
 되 능히 제수치 못한 것은 대개 관서는 지체가 요동을 접하
 여 자주 난리를 당하여 자손이 남천(南遷=남쪽으로 이사)한
 연고라. 실전하여 오면서 원근 자손이 눈로 그 가승에 기재
 됨을 보며 귀로 그 부조의 전하는 바를 들어 공의 묘소가 적
 실이 연주경내에 제심을 알지못한 것은 아니로되 누누이 왕
 심한즉 근거의 주민이 후폐가 있을까 연려하여 전혀 은휘(隱
 諱)한 고로 그 확거명증을 얻지 못하고 이의전의회한 자 이미
 기백 성상이 지난지라 이제 우리 자손으로써 세세로 통한한
 바는 위로 구천에 사무쳐 아래로 가히 신명에게 질정할 만한
 자로다.

왕재 태상황 무진년간하여 병익(炳翊)의 선인께서 영변부는
 우리 玄 씨의 본향이라 하시고 드디어 약성지남(藥城之南)에
 복거하여 경독(晝耕夜讀)으로 생애를 삼으시다가 월명년 갑
 오 단양일 임오에 일찍 조기(早起=일어나서)하사 소자를 불
 러 가라사대 어제밤꿈에 한 노인이 철면 서골(犀骨=무소뿔)
 에 신포음의하셨는데 위풍이 늠늠하사 망지에 엄연황황이라
 즉시좌하에 나가 복배하니 노인이 완이이소왈능지내조호(莞
 爾而笑曰能知乃祖乎=웃으며 내자손아)아 하심으로정옥병문이
 탁연각지칙한출만신(正欲更問而瞿然覺之則汗出滿身)에 심경
 체전(心驚體顫)하여 종야불면(終夜不眠)이다가 自反思之則
 우리 석창에 거주할 때 상서공 묘소가 남송방에 제시다는 말
 을 듣고 승층에 나아가 묘소를 탐색하던때에 여차한 현몽을
 얻었더니 이번 꿈이 분명히 明靈이 지시하신바라네. 이제 다

시 봉지리에 가서 선묘를 탐지하고 돌아오리라 하시고 떠나
 시거늘 소자는 오리정까지 나아가 배사할 뿐이러니 월 삼일
 을유에 선인이 희색만안으로 돌아오시는지라 소자 추이문지
 (趨而問之=달려가 묻다)하니 월 전자 석창으로 갔을때에는
 오입타출승충동(誤入他出崇忠洞=잘못 들어감)하여 미심분묘
 더니 금행엔 바로 진 승충산호학동을 찾아 부근지인에게 문
 지척 거개가 은휘하는지라 최후에 일인을 만나 재삼 간곡히
 문지척 월 차지는 고유 현상서 묘이지우증고하여 한 노장이
 가 비갈을 궤철하여 부소중에 몰투한 고로 증년에 현씨자손
 이 와서 심묘코자 하나 찾지 못하고 공귀(空歸=빈손)하였다
 하면서 운운 하기를 나는 들으니 상서공은 방국과 생령에 대
 공덕이 있다 하는데 만세유택을 일임민몰함은 진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거늘 여문지하고 惻然함을 이기지 못
 하여 그의 성함을 물은 즉 [나는 봉지리에 거주하는 사람인
 데 성은 申-이요 名-은 준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청일한
 대 노인왈 [군은 자손이 되어 선묘를 모르거늘 나는 타성의
 사람이라 그 외에 또 무엇을 더 알리리요]하고 멀리 고봉을
 가르쳐 왈 [저 산이 이른바 자인봉인데 그 중에 이록(一麓)
 이 있어 고래로 전하는 말이 현상서의 묘라 한다] 하고 물러
 가는지라 바로그 가리킨 곳을 쫓아가 본즉 진실로 子坐午向
 의 판국인데 용세가 은은하고 혈국이 방정하며 분형(墳形)이
 완전히 잇으나 소한자는 하인이 제절에 특장이나 하지 아니
 하였나 알지 못하더라. 이에 산하로 내려가다 採薪지동(쇠나
 무 캐는 아이)를 만나 물은즉 [尙書洞]이라 말하고 또 채철
 (採蕨=고사리)女를 만나 물은즉 역시 [상서동]이라 대답을
 하는지라 비록 비갈과 지명을 보지 못하였으나 일편가성이

화하여 지명을 지었는데 앞에는 연주강이 있고 뒤에는 덕수
봉이 있어 천고에 전하는구비가 되고 산천이 변하지 않은지
라 이 어찌 확거명증이 되지 않겠는가.

第待秋節하여 문중에 遍議하여 奉尋墳塋하고 用薦時享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이니 汝其銘心不忘이어다 하시더니 불과 수
월하여 日淸의 전쟁이 발발하여 관서주민은 늑근은이를 모시
고 아이를 데리고 渡海入山을 하는지라 當此之時하여 救死不
贍이어늘 愛暇에 治禮義哉아 을미 이후엔 비록 안식이 되었
다 하나 난리를 지낸 나머지 읍리가 소조(蕭條)하여 거사가
실난(實難)이라.

乙巳 秋 8월에 이르러 선인이 홀연히 풍증으로 위석불기
(委席不起=자리에서 못 일어남)하시는지라 소자는 주소(晝霄
=밤낮으로 시탕(侍湯)에 얹매여 심묘사에 겨를하여 뜻하지
못하였더니 병오 하 4월에 四종숙 규학씨가 답산차로 운산방
면을 편답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병익 더러 일러 왈 [여금
행로(余今行路=내가 이번 걸음)에 우연히 강달정과 김인항
양씨를 만나 상서공 묘소가 호학동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나
가 본즉 과연 침자지원(枕子之原)인데 우리 가승에 기재된바
와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아증조고 상서공 묘소가 확실하여
의심이 없으니 주는 속히 종중에 문의하여 심묘 봉사케 함이
내시자손지(乃是子孫之) 도리]하시느 고로 병익은 돌아와 선
인께 일일이 말씀을 품하여 득명하고 관동시사에 나아가 개
천 정주 제종으로 공의 정론하여 성사를 기약하였든바 불과
순여에 선인 병환이 우독(尤篤더욱 심함)하자 임종하여 소자
에게 일러 왈 쯔 평생에 상서공 묘소를 심득하여 시사하는
것이 원이더니 상미수의이사(尙未遂意而死=뜻을 이루지 못

함)하니 구천에 돌아가 무슨 면목으로 선령께 뵈오랴. 석자(昔者=옛날 사람)에 나의 신용지사(申戎之事)를 여능기억이 불망부(汝能記憶而不忘否=너는 잊지마)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운명하시니 오호 통재라 ! 이후로 조역의 몸이 되어 임영(荏苒=세월이 지남)세월을 하다가 무신년 봄에 족상되는 관옥형제가 승충곡 근정에 가서 우거중 지방 고로의 전언을 듣고 박천(四)종숙되시는 규환씨에게 래고(來告)하셨다.

규환씨는 소유 성의자시다. 즉시 문장께 고유하시고 개천 정주에 통유하사 7,8인 종족이 봉지리에 나가 분영(墳塋)을 심득코저 하나 언유 규각(圭角)이라 퇴휴(退休)하고 또 추절 관동시사에 회합하여 심묘지의를 결정키로 되었는지라 시세지춘(是歲之春)에 병익은 조양관북 비호 산하에 가서 글을 읽다가 을종(胤宗)씨의 래방으로 인하여 세세한 소식을 듣고 홀연히 선인의 유언이 상기되어 즉시 봉지리로 나가 찬옥씨의 처가에다 주인을 정하고 심사전전에 경경불면증사몽비몽(耿耿不眠中似夢非夢=꿈결인지 생시인지?)에 선인이 래호 왈 여능심상서공분영호(汝能尋尙書公墳塋乎)아 하시거늘 대욕수 욕심지(對欲雖欲尋之)나 미지 확실하여 불과이 주저(躊躇=머뭇거림)니이다. 한데 선인이 책지왈 시굴묘죄칙필유적험(試掘墓左則必有的驗=좌칙을 파라)이리라 하시고 가시는지라 순간에 제명성(鷄鳴聲=닭울음)으로 인하여 깨치니 선인의 의용이 우연히 눈에 나타나는 듯 하는지라 매상이기(昧爽而起=새벽에 일어남)하여 찬옥으로 같이 호학동 묘소 경내에 들어가 보니 정히 선인 생시에 말씀하신 바와 소무차이의(少無差異矣=별 차이가 없음)라.

그런데 전후로 암장한 투총이 핏열(逼列=줄서있다)하였고 좌

우로 초목이 무성하였으니 자손된 자의 마음에 어찌 처창통심(悽愴痛心 = 슬프고 가슴아픔)치 않으리요. 찬옥과 같이 별초를 대략하고 두루 살펴보니 선조의 사적을 회상하매 의형이 눈에 우연한 듯 하고 선인의 유언을 기억하니 성음이 귀에 쟁쟁한 듯 하는지라 그 망극한 심정이야 어찌 일일이 다 기록하리오.

에에 전작지의(奠酌之儀=슬한잔 올리는 예절)를 갖추어 분향고축하여 월 유세차 무신 4월 정사삭 11일 을축 28세손 병익감소고우 현26대 조고유송고려병부상서성산부원군지묘 복이공재성시수성철옹격파위총사직뇌안공유휴퇴쌍명문학동최당등도덕유전공기전영장우충곡혼기상천체백지자손불초세구실전공령불매수시현성이향백대세사상향독축필에 내여 찬옥으로 시굴묘좌하니 일기모의라. 이에 산하로 내려가 제숙할제 경경도진하여 사봉비몽에 일 대인이 철면 서골에 위의를 엄숙히 하시고 래교하시니 월 [나의 유택을 심득코자 하면 탐굴묘좌에필유 지식운운 하시는지라 황연(恍然=황홀하게)히 심사가 확정되어 다시 의심할 바가 없어 좌대천명(坐待天明=날이 밝을 때를 기다림)하여 묘소에 나아가니 마침 년과 8순의 노인이래언(來言) 월 [듣노니 구가 상서공의 묘소를 찾고져 한다 하오니 막비현씨(莫非)의 자손이라 對曰然하다. 확욕심이유공성력지부족야(確欲尋而惟恐誠力之不足也)라 한 대 노인 월 [지성이면 감천이라 자용성심이면 나유불심지리호리오]하는지라 병익은 불승감송(不勝感悚)하여 감 청 인사척 석년에 선인이 만나 말씀하시던 신준문씨라 이에 선인의 말씀을 절절히 고한데 노인월 [子其然乎 만일 그러하다면 내 은휘할 것 없이 고금 전래지언과 신표자 문집○의 말이며 김처사의

승충지의 본사를 일일이 말 하리라]하고 전후사연을 말씀하
 시매 들어본즉 우리 가승 소재지사와 여합부절하니 추만모
 (鄒曼母)의 방묘지증과 다름이 없는지라 이에 신노인에게 청하
 여 근리에 고로 수십원을 회취하고 심심기본(深深基本)하여
 고향에 돌아와 문내 4종숙께 구고한즉 청파(聽罷)에 개연 탄
 왈 차는 오선자(吾先子)의 사모하여 경륜하시던 바시며 역불
 초의 무궁지한이라 하시고 드디어 종중에 발문하여 5월 을유
 삭일로 택정하시고 비로소 봉축지역(封築之役)을 시작하여
 묘소 좌척을 심굴기척에 지석(誌石)이 노출하는 지라 어시에
 승충곡 김사문 병연씨가 근정 고로(古老) 지명지사 수십인으
 로 경대주과하여 래상칭하하고 경부봉역(競赴封役)하니 불일
 성분하였는지라 또 시일야에 간사 제손들에게 현몽을 하시니
 차비공지정령이시면 어찌 현성(顯聖)이 이 같으시오. 즉시
 편장한 김명준을 불러 도리로써 개유한 즉 나인(那人)도 역
 시 벼이지성이 있는자라 내발 수오지심(羞惡之心)하고 다시
 무슨 말 없이 이글하고 용미에 투장하였던 자도 굴거하니 이
 그 공의 유택이 상금까지 민물치 아니 하심이라. 어시에 시
 향 의물을 불비하고 10월 15일에 와서 락구상석하고 용천시향
 지례라 본 춘2월에 와서 개천 박천 정주 희천 선천 5군 제종
 이 동심 동력하여 개천 삼각산에 나아가 신도비의 석물을 구
 하여 수백여리외에 운반 할제 도처 인민이 서로 묻지하고 와
 서 차시 현상서공의 비석이라 하면서 경래조예(競來助曳=경
 쟁적으로 끌다) 일행 십여리라. 청천강가에 이르니 수창사류
 (水漲沙流)하고 비중난도(碑重難渡=무거워 건너기 어렵다)
 마침 수십여의 주민이 나와 조력하여 운비재선(運碑載船=배
 에 싣다)을 하여 배가 중류에 이르니 재중하여 선변의 수상

에 나타난 부분이 불과 반촌이라 만약 일점의 풍랑만 있다하
 면 수십인의 성명이 급재경각이어늘 다행히 천우신조하시어
 일점의 풍랑도 없이 무사도강을 하니 모두 칭하기를 영명이
 도우심이라 하더라. 전운(轉運)월여에 자인봉하에 이르니 묘
 소까지 남은 수십리의 길이 기구 로험하여 실난전상이라 어
 시호 마상과 봉지 양리의 주민 백여원이 문풍 자래(自來)하
 여 일심 협력에 不日上山하니 이 어찌 공의 위열 음덕지 택
 이 아니시며 기가여차호리오. 10월 망일에 신도비명건립지역
 을 필한지라 시야몽(是夜夢=당일 밤 꿈)에 공이 또 진천 오
 호자택에 현몽하셨다. 운하니 이는 관공이 천하후세에 현성
 하신바로 전차래고하는데 상서공 심묘이전에는 호학동곡에
 운무가 자욱하여 청풍지기를 구경할 일자가 없더니 수묘일부
 터 서기가 연일 상명하여 동곡이 청명하다 하니 오호라 공의
 정혼령백이 고산 서식지소에 연원하시어 명명지중에 유을하
 신바 장위 6,7백년지구로되 정령이 쇠치 아니하시사 일조에
 복현하시니 이 어찌 인력으로 능급(能及)할바 이리요. 抑公
 이 써 일유일현(一幽一顯)하신바는 天이시라. 그 후예된 자
 숙불감행(孰不敢幸)이라 하리오. 사역에 창 의 발문하여 제종
 을 흥기한 자는 문장 석균(錫筠)씨와 족제 병섭보의 힘이며
 발섭 산천하여 주소(晝霄=밤낮)를 불탄(不憚=가리지 않고)하
 고 전후 핏총을 굴이한 자는 족조 익염(益濂)씨와 족제 병제
 (炳契)보의 힘ियो 분영을 개봉하고 구비 석상한 자는 四從
 叔 규학씨와 四從弟 병직보의 힘이며 풍동원통(風動遠通)하
 며 좌우 주선하여 건립 신도비 자는 개천 종장 명혁씨와 희
 봉씨의 힘이며 석역(石役)을 감독하여 종시 근로한 자는 개
 천 종장 인혁씨와 족형 병연씨의 힘이며 묘소를 도형하고 영

역을 매득(買得)한 자는 희천 종장 석호씨와 석연씨의 힘이
오 비명을 대사문(大斯文)에게 청구하여 갈력대서(竭力大書)
한 자는 四從弟 병조보와 병근보의 힘이며 출의 천금하여 위
토를 매득하고 대제(大繼) 향화한 자는 천안 문장 영봉씨와
집사 백주씨의 힘이오 불원천리하고 제종께 편유하여 영구
도존한 자는 족숙 계승씨와 족제 병을보의 힘이신데 자기 전
말하여 이명심묘지적험(以明尋墓之的驗)하고 제종의 각진 성
력지효하면서 순종 3년(1909년)기유 양력 복 길일 丁未에 28
세손 병익은 배수 근거하나이다.

22.高麗兵部尙書玄公墓碣銘 并序

永歷五己酉孟秋延州玄君熙鳳遺其宗人炳翊訪至石溪曰惟我先祖
高麗兵部尙書公衣履之藏在寧邊府南松面鳳至里崇忠谷好學洞子
坐之原嘗因亂離失之昔价川族大父命懋熙復始飢語炳翊曰先祖有
不世大勳而宅兆失傳迹隨以泯沒心常惶慨爲學實事莫先於尊祖報
本君盍圖焉炳翊歸稟四從叔圭學慨然歎曰雲仍千枝孰無此心斯實
吾先子之所慕仰親切抑亦不肖無窮之恨也遂發文于价熙宣定博五
郡遍議宗族僉謀詢同爲廣搜博考據金處士崇忠誌得尋玄宅法當有
墓道顯刻宗中父老咸願得吾子一言子其銘之顧三圭賤陋焉敢當雅
與玄氏有契者多亦不忍終辭茲敢考諸國史叅以私乘撰次如左按公
諱德秀鐵面犀骨生得異凡才性聰悟有膽略義氣言語頗高人或譏其
污濶及長博通經史詞藝大進屢舉不第明宗四年西京留守趙位寵叛
檄召列郡岳嶺以北四十餘城應之公從大人都令公入延州城曰今位
寵包藏禍心抗拒王命義當聲討同州將及若而義士望闕遙拜誓共討
賊閉城牢守位寵屢以書誘脅人心洵洵公爲飾孟州將吏書言上京兵
十萬已踰鐵嶺由東界將擣西京凡州鎮勿驚動堅守以待之密授城外

人令投城中人皆信之稍安帖會北面兵馬使車仲圭爲盜所殺麾下將校懷印至請公兄弟權行兵馬使事於是易置部署守備益嚴位寵及諸城兵并至言斬德秀兄弟者當重賞不爾屠全城公出擊敗之西北諸賊又書誘百方公折梟其使位寵向上京進兵爲李義方所敗欲逞忿於公來圍延州數重公命高勇之唐就等急擊大破擒殺甚多位寵兵復來侵公出擊大破獲兵仗無算明年女真遺將高羅率兵來都令公詣以告實高羅感泣約以有急相助位寵于侵之公與王師夾

擊平之王嘉之策元勳陞都領爲大將軍除公內侍祇候公上書請納告身赴舉不許除安南府使爲政廉明嚴禁淫祀有一凶覲扮斗女巫出入人閨內盜淫婦女公發奸治之人服其神明拜慶尚道按廉使入爲都官郎中同正盧克清家貧要賣居第公以白金十二斤和買盧嘗出外還曰我以九斤買居數歲少無增飾徒得高價心甚不安遂還剩金公辭却盧曰寧休賣定不取濫直以傷吾廉公不得已受之遂散施除吏部郎中諫官以邊人不當窠駁之改授兵部郎中轉司宰少卿神宗朝拜殿中監累遷至兵部尚書致仕初封八莒君移封星山府院君與平章事崔譙等八人爲耆老會圖形鐫石以壽傳世稱地上仙嘉靖乙亥五月壬午卒壽八十餘 我朝 肅廟己亥建南嶽祠俎豆之以松坡尹公配後因禁院令撤之考諱覃胤以功封延山君墓在延山館洞壬坐原有二弟曰利厚封廣城君曰得裕文科封檜原君子男元烈太僕尹元𠂔令同正元璣都領郎將仁烈文科孫太僕尹男敬與典客令令同正男甫令同正都領男敬祖司評文科男禹圭主簿曾孫典客令男嶽左贊成司評男𠂔中郎將主簿男瓚進士璣直長玄孫贊成男致龍都僉議繼龍令同正瑞龍進士郎將男楦文科權左承宣進士男應和振和直長男永和詵詵螽斯簪綬世赫傳至數十世散處雲仍殆不可數計公之種德深厚亦可推知噫公布衣從戎爲能感動孤城將卒矢死固守積歲抗四十餘城團結勁敵戰必得勝竟奏廊請之功宗社再安綱常大明百世下聞風者可以廉頑立懦矣

況氣脉相傳之地其慕仰親切爲當何如也哉仁人慈孫之顯揚其先繼述爲大今世變不可與當時同日論然爲公後者咸體公所存所處而奮發有爲則安知必不見顛木之有粵孽乎哉結鑣偉蹟於螭首求耀人觀察瞻而止則抑末也烏得以爲孝乎銘曰

香嶽毓靈篤生偉人此實仁天以擬濟屯強藩跳梁一方風靡布衣奮忠誓守孤陴賊乃飛書頑誘且脅膽憤愈激立地梟謀擊却勁敵有同拉朽戰必獻捷掃蕩凶醜隣邦救急五國褒忠眞卿古義乙支遺風出試百里治稱神明相讓濫直廉警頑情翱翔雲路位躋八座歸樂田里賢有九老精忠偉烈百世難忘名耀竹帛廟巍梓鄉德厚流光福祿未艾螭首再轟紫烟掩靄我薦石章誕告雲仍奉瞻跂慕其各惕兢

是歲之南呂秋分

水原后人 白三圭 謹撰

二十八世孫 炳朝 謹書

고려병부상서헌공묘갈명명서

(高麗兵部尙書玄公墓碣銘并序)

영력(永曆)기유(순종(純宗)3년 서기1909년)초가을에 연주현씨(延州玄氏)의 희봉(熙鳳)은 그 일가 사람 병익(炳翊)이를 석계(石溪)로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 선조(先祖) 고려병부상서공(高麗兵部尙書公)의 묘소가 영변부(寧邊府) 남송면(南松面)봉지리(鳳至里) 승충곡(崇忠谷) 호학동(好學洞) 자좌(子坐)의 억덕에 있었으나 일찍이 난리로 인하여 잃어 버려서 옛적에 개천(价川)에 사시는 대부(大父) 명혁(命赫) 희복(熙復) 시을(始谿)이가 병익(炳翊)이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조(先祖)께서 세상(世上)에 큰 공로가 있었으나 그 묘소를 찾지 못하여 마음 속으로 늘 죄송(罪悚)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글을 배우는 것은 선조(先祖)를 높이고 그 근본(根本)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군(君)은 어찌 이러한 일을 도모(圖謀)하지 않느냐」 한 즉 병익(炳翼)이가 돌아와서 사종숙(四從叔) 규학(圭學)에게 품의(稟議)하니 규학(圭學)이 역시(亦是)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손(子孫)된 도리로서 누가 이러한 마음이 없으리오. 이 일이 선대(先代)로 내려오며 추모(追慕)하는 마음이 간절하오나 불초(不肖)의 몸이 되어 무궁(無窮)한 탄식(嘆息)만 할 따름이라」 하고 드디어 개천(价川) 선천(宣川) 희천(熙川) 정주(定州) 박천(博川) 오개군(五個郡)의 종친(宗親)들에게 두루 발문(發文)하여 이에 종족(宗族) 여러 사람들이 순동(詢同)하여 김처사(金處士)의 승충지(崇忠誌)에 의거(依據)하여 유택(幽宅)을 심득(尋得)하고 종중부로(宗中父老)가 묘비(墓碑)를 세우고자 하여 이 비문(碑文)을 오자(吾子)에게 얻기를 현씨(玄氏) 종중(宗中) 부로(父老)는 원(願)하니 오자(吾子)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천루(賤陋)한 삼규(三圭)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으리요. 현씨(玄氏)와 친한 자가 많아 그들에게 사양하였으나 또한 마침내 사양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 기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저술(著述)한다.

공(公)의 휘(諱)는 덕수(德秀)인데 체구(體軀)가 석대(碩大)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시면서 부터 재주가 비범하시고 총명하심이 남다르시며 담력(膽力)과 지략(智略)이 특이하시고 의기(義氣)가 강하시고 목소리가 커서 오활하다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점점 크시면서 경사(經史)에 능통(能通)하시고 사기(史記)에 밝으셨으므로 누차(累次) 과거(科

擧)에 응시(應試)하셨으나 급제(及第)하지 못하셨습니다.

명종(明宗)4년(서기1174년)에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이 반란을 일으켜 파령이북사십여성(岳嶺以北四十餘城)이 이에 호응(呼應)하여 합세(合勢)하니 공(公)은 대인도령공(大人都領公)을 따라 연주성(延州城)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지금 위총(位寵)이가 역적의 마음을 먹고 왕명(王命)을 거역하고 있으니 의리(義理)로써 마땅히 토벌(討伐)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고을 장수(將帥)와 의로운 선비들은 모이라 하여 이들은 대궐을 향하여 요배(遙拜)한 다음 다 같이 역적을 토벌하기로 굳게 맹서(盟誓)하고 성문(城門)을 굳게 닫고서 위총(位寵)을 지켰다. 위총(位寵)이가 글로써 여러번 달래고 협박(脅迫)을 하여 민심(民心)이 매우 흥흥하여졌다.

공(公)은 장사(將史)의 글로 가장하여 서울에서 올라오는 군사(軍士) 십만명이 이미 철령(鐵嶺)을 지나 동계(東界)를 거쳐 공격(攻擊)해 오고 있으니 성내(城內)에 있는 백성(百姓)들은 놀라지 말고 굳게 지켜 기다리라고 편지를 써서 은밀(隱密)히 성외(城外)의 사람으로 성중(城中)에 들어오게 하니 성내(城內)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믿고 안심(安心)하였다.

이 때에 병마사(兵馬使)(고려의 외직으로 삼품벼슬)차중규(車仲圭)가 적에게 죽었다. 그 부하(部下) 여러 군사가 공(公)을 찾아와서 공(公)의 형제에게 장군이 되어 줄 것을 청하므로 공(公)은 이를 승낙하고 부하들의 부서를 다시 정비하고 성을 더욱 엄중하게 수비(守備)하도록 하였다.

위총(位寵)은 여러 성민(城民)이나 병사에게 말하기를 「덕수형제(德秀兄弟)를 참살(斬殺)하는 자는 많은 상을 줄 것이며, 너의 성은 차지 않을 것이라」 것이라 했으나 공(公)

은 나가서 적을 격퇴시키니 서북(西北)에 있는 모든 적들은 또 글로써 백방(百方)으로 공(公)을 회유하여 왔으나 공(公)은 마침내 그 사자(使者)를 목베어 나무에 달아매고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다. 위총(位寵)이 서울을 향하여 출격(出擊)하던 중에 이의방(李義方)(정중부의 난리에 가담하여 벼슬이 전중감(殿中監)에 이른 사람)에 패배를 당하였으므로 그 분풀이를 공(公)에게 하고자 하여 연주성(延州城)을 수접으로 포위(包圍)하였으나 공(公)은 고용지(高勇之) 당취(唐就) 등에게 명하여 급히 습격하여 대파(大破)시키고 모조리 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적을 사로잡기도 하고 많이 죽이기도 하였다. 위총(位寵)의 군사(軍士)가 다시 쳐들어오니 공(公)은 반격(反擊)하여 무기 등을 많이 노획하였다.

그 이듬해 여진국(女眞國)에서 장수(將帥) 고라(高羅)가 군사를 거느리고 원조(援助)하러 왔으므로 도령공(都領公)이 나아가서 전황(戰況)의 사실을 고하니 고라(高羅)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급한 일이 있거든 와서 말하시면 서로 협조하리라」 하였다. 기후(其後) 위총(位寵)이 또 다시 침입(侵入)하여 오므로 공(公)은 여러 군사(軍士)와 더불어 쳐부수어 평정(平征)하시니 왕(王)은 가상히 여기시어 가장 큰 원훈(元勳)을 삼으시어 도령공(都領公)을 승급시키어 대장군(大將軍)을 제수(除授)하시고, 공(公)에게는 내시지후(內侍祗候)를 삼으니 공(公)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과거(科擧)를 치르려 하셨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안남부사(安南府使)에 제수(除授)되셨는데 정사(政事)에 청렴결백하고 매사(每事)에 공명정대(公明正大)하였으며 더욱이 음사(淫祀)를 엄금(嚴禁)하시어 흉악한 무당(巫堂)이 귀내(閨

內)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셨다. 한 박수무당이 여무(女巫)로 가장하여 규내(閨內)를 출입하면서 간음(姦淫)함을 발견(發見)하시고 그가 남자임을 알고서 간통죄(姦通罪)로 다스리니 공(公)의 명철하신 점에 감복하였다.

그 후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에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었다. 이 때에 동정(同正)으로 있는 노극청(盧克淸)이 빈한하여 사는 집을 팔고자 하므로 공(公)께서 노씨(盧氏)가 출타중(出他中)이라 그 부인(婦人)에게 백금(白金) 십이근(十二斤)을 주셨다. 그 후에 노씨(盧氏)가 돌아와서 보니 백금(白金) 구근(九斤)에 산 집을 십이근(十二斤)을 받았으니 너무 많이 받게 되어 불안(不安)한 마음이 생겨서 많이 받은 돈을 공(公)에게 돌려 주려고 말하기를 「두 해 동안 살면서 더 늘인 것도 없고 또 치장한 것도 없는데 한갓 돈만 더 받으면 안되겠다」고 한즉 공(公)은 할 수 없이 웃돈을 받아 절(寺)에 시주하였다.

후에 이부낭중(吏部郎中)이 되었는데 간관(諫官)이 변방(邊方)사람이라 적격자(適格者)가 못 된다고 간(諫)하는 까닭에 병부낭중(兵部郎中) 제수(除授)되었다가 잠시후(暫時後)에 사재(事載)소운을 전직(轉職)되었다. 기후(其後) 신종조(神宗朝)에 전중감(殿中監)을 거쳐 누차 승진하여 드디어 병부상서(兵部尙書)가 되었다.

이리하여 처음에 팔거군(八菴君)을 피봉(被封)되었다가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이봉(移封)되었다. 평장사(平章事) 최당(崔譔) 등 팔인(八人)과 더불어 기로회(耆老會)를 조직(組織)하고 도형(圖形)을 돌에 새겨 오래도록 살게 된 것을 세상에 전하였으니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상(地上)의

신선(神仙)이라고 하였다. 가정(嘉靖) 을해(乙亥)(서기1215년)5월 임오일(壬午日)에 상서(喪逝)하셨으니 나이가 팔십여세(八十餘歲)였다. 숙종(肅宗) 기해(己亥)(서기1719년)에 남악사(南嶽祠)를 짓고 송파윤공(松坡尹公)과 같이 배향(配享)한 후 금원령(禁院令)에 의하여 철폐(撤廢)되었다.

공(公)의 부친(父親) 휘(諱)는 담운(覃胤)인 바 국가에 공로가 있어 연산군(延山君)에 피봉(被封)되었으며, 묘는 연산관동임좌(延山館洞壬坐) 언덕에 있으시다. 다음 아우가 있으시어 휘자(諱字)가 이후(利厚)이온 바 광성군(廣城君)에 봉하였으며 셋째 아우의 휘 덕유(德裕)는 문과(文科)로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다. 공(公)의 아들 원렬(元烈)은 태복윤(太僕尹)이요, 둘째 아들 원미(元旻)는 영동정(令同正)이요, 셋째 아들 원빈(元璣)은 도령낭장(都領郎將)이요 넷째 아들 인렬(仁烈)은 문과(文科)며 손자 태복윤(太僕尹)의 아들 경여(敬輿)는 전객령(典客令)이요, 영동정(令同正)의 아들 보(甫)는 영동정(令同正)이요, 도령(都領)의 아들 경조(敬祖)는 사평(司評)이요, 문과(文科) 인렬(仁烈)의 아들 우규(禹圭)는 주부(主簿)요, 공(公)의 증손 전객령(典客令)의 아들 금(鎡)은 좌찬성(左贊成)이요, 사평(司評) 경조(敬祖)의 아들 박(瓘)은 중랑장(中郎將)이요, 주부(主簿)의 아들 찬(瓚)은 진사(進士)요, 둘째아들 기(璣)는 직장(直長)이요, 공(公)의 증손자 금(鎡)의 아들 치룡(致龍)은 도첨의(都僉議)(도첨의부(都僉議府)의 벼슬)요, 계룡(繼龍)은 영동정(令同正)이요, 서룡(瑞龍)은 진사(進士)요, 낭장(郎將)의 아들 선(楨)은 문과(文科)요, 권(權)은 좌승선(左承宣)(삼사(三司)의 종이품 벼슬)이요, 진사(進士) 찬(瓚)의 아들은 응화(應和) 진화(振和)요, 직장(直長) 기(璣)의 아들은 영화(永和)니 많은 자손(子孫)들이 수십

대(數十代)를 내려 오면서 벼슬을 하여 빛나고 빛나는 공훈(功勳)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쳤다. 지금은 자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공(公)께서 쌓으신 덕(德)이 깊고 두터워서 음덕(蔭德)을 어찌 가(可)히 추산(推算)할 수가 있으리오.

아! 가록하도다. 공(公)은 선비의 몸으로 능히 싸워서 외로운 성민(城民)들을 감동(感動)하게 하고 장졸(將卒)들과 죽을 힘을 다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사십여성민(四十餘城民)들을 회유(誨諭)시켜 단결하여 적을 무찔러 마침내 전쟁(戰爭)에 이겼다.

공(公)의 위대(偉大)하신 공로(功勞)로써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다시 안전(安全)토록 하시고 오상(五常)(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크게 밝혀 백세후(百世後)의 자손(子孫)들까지 본 받도록 하셨다. 겸(兼)하여 조상(祖上)의 일을 다 같이 이어받아 서로 존경(尊敬)하고 자손(子孫)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어질고 자비(慈悲)로운 자손들이 선조(先祖)의 유적(遺蹟)을 현양(顯揚)하는 동시에 그것을 몸소 실천(實踐)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세태(世態)가 변해서 옛적과 다를지 모르나 공(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다 같이 공(公)께서 몸소 하신 바를 본받고 공(公)께서 처(處)하신 바를 공정하여 하는 일에 분발(奮發)한다면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트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존경(尊敬)하지 않으리오.

선조(先祖)의 위대(偉大)하신 업적(業績)을 비(碑)머리에 새겨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효도(孝道)라 하겠는가. 그 비명(碑銘)에 쓰여 있으되 향기(香氣)로운 산천정기(山川精氣)와 천지(天地) 신령(神靈)의 힘으로

위대(偉大)히 태어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진실로 내리신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란(叛亂)을 일으킨 역적 무리들이 날뛰니 그들에게 휩쓸리는 자들이 있어 공(公)은 선비의 몸으로 충성심(忠誠心)을 발휘(發揮)하여 죽음을 맹서(盟誓)하고 싸워 외롭고 위태로운 성(城)을 굳게 지켰다.

적(敵)은 글을 보내어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니 공(公)은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간첩(間諜)의 목을 베어 적들 앞에 내걸고 완강한 적들을 향하여 싸우시어 흉악한 적의 무리를 완전(完全)히 소탕하시려 고전(苦戰)하실 때에 이웃 나라에서 구원병(救援兵)을 보내어 와서 같이 싸워 적을 무찌르니 임금(王)이 가상(嘉尙)하게 여져 그 충성(忠誠)을 크게 포상(褒賞)하였다.

중국(中國)의 안진경(顏真卿)(중국(中國) 당(唐)나라의 충신 서도(書道)의 대가(大家))의 충성(忠誠)이며, 옛적 을지문덕장군(乙支文德將軍)의 의리(義理)를 이어 받은 것이다. 백리(百里)길을 선정(善政)으로 다스리니 신기(神奇)하고 현명(賢明)한 일이 많아 칭송(稱頌)하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며 강직하고 청렴결백(清廉潔白)하시자 벼슬길이 점점 더하여 팔좌(八座)에 오르시고 전리(田里)에 돌아와 기로회(耆老會)의 일곱 번째 자리에 참여(參與)하시어 중국(中國)의 도연명(陶淵明)처럼 전원(田園)에 돌아와 사셨으며 깨끗한 충성심(忠誠心)과 높고 높은 정열(貞烈)은 백대(百代)에 내려가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청사(靑史)에 빛나고 또한 사당(祠堂)을 고향(故鄉)땅에 모시고 기념(記念)하니 덕망(德望)이 두터워서 복록(福祿)이 무궁무진(無窮無盡)할 것이다. 비석(碑石)을 다듬어 우뚝하게 세워 보라빛 연기와 아지랑이가 오락가락하게

되었도다. 내가 비문(碑文)을 새겨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그 위대(偉大)하신 모습을 추모(追慕)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시세지남려추분(是歲之南呂秋分)

수원후인(水原后人) 백삼규(白三圭) 근찬(謹撰)

이십팔대손(二十八代孫) 명조(炳朝) 근서(謹書)

23. 廣城君事蹟

公諱利厚侍郎公第二子也麗明宗四年以宣旨別監龍虎將軍與兄尙書公討叛賊趙位寵有大功出爲慶尙道按廉使封廣城君事蹟詳載麗史及尙書公列傳中○謹按公之官爵似不止按廉使而已而他未有考慶尙道伯先生案有公諱至今昭載故只以按廉使載錄而子孫無聞焉可勝惜哉

광성군사적(廣城君事蹟)

공(公)의 휘자(諱字)는 이후(利厚)인데 시랑공(侍郎公)의 둘째 아들이다. 고려명종(高麗明宗)四年(西紀一一七四年) 선지별감(宣旨別監)(임금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 용호장군(龍虎將軍)(현재(現在)령급(領級)으로서 형(兄) 상서공(尙書公)과 더불어 반란(叛亂)을 일으킨 조위총(趙位寵)을 토벌(討伐)하는데 큰 공(功)을 세우시어 안렴사(按廉使)가 되고 광성군(廣城君)에 봉(封)해졌다. 사적(事蹟)은 고려사(高麗史)및 상서공열전중(尙書公列傳中)에 자세(仔細)히 기록(記錄)되어 있다.

삼가 공의 관작(官爵)을 살펴보건대 안렴사(按廉使)뿐만

아닐 것 같지만 다른 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경상도백선생안(慶尙道伯先生案)에 公의 휘자(諱字)만은 자세(仔細)히 기록(記錄)되어 있지만 지금(只今)에 이르도록 더 이상(以上)은 분명(分明)치 않고 기록(記錄)된 것은 안렴사(按廉使)뿐이며 자손(子孫)들은 달리 들은 바가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24. 檜原君事蹟

公諱德裕侍郎公第三子也麗明宗十六年丙午登第性倜儻好學譏權臣崔忠獻以是久在散地後歷吏禮部侍郎西京留守位至金紫光祿大夫叅知政事大司空封檜原君諡曰正獻

회원군사적(檜原君事蹟)

公의 휘(諱)는 덕유(德裕)이니 시랑공(侍郎公)의 세째 아들이다. 고려명종(高麗明宗) 十六年(西紀一一八六年)병오(丙午)에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했다. 그 성품(性稟)이 고결(高潔)하여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권신(權臣)(권리를 가진 관리) 최충헌(崔忠獻)을 비방하였다가 이로 인(因)하여 오랫동안 외지(外地)로 나가 있더니 이부(吏部)와 예부시랑(禮部侍郎)(이부(吏部)의 정사품(正四品)벼슬)) 서경유수(西京留守)(지방장관(地方長官))를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종이품(從二品) 벼슬) 참지정사(叅知政事)(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이품(從二品) 벼슬) 대사공(大司空)(공조판서)으로 회원군(檜原君)에 봉(封)해졌으며 시호(諡號)를 정헌(正獻)으로 받으셨다.

25.都元帥公實記

公諱文爌(麗史作奕)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諱覃胤之玄孫金紫光祿大夫叅知政事大司空檜原君諡正獻諱德裕之曾孫也生而天姿英邁驍勇絕倫好讀書善騎射卜居于漣川郡南進祥里而築楠松亭逍遙其上以書籍自娛麗元宗朝徵拜將軍累立功元宗十一年庚午(宋度宗咸淳六年)拜都元帥鎮江華時六月將軍裴仲孫盧永禧等率三別抄(軍隊別名有夜別抄左別抄右別抄之名)叛于江華擅發府庫嬰城固守賊之始謀也將軍李白起不應乃殺之賊又以直學鄭文鑑爲承宣使文鑑曰與其富貴於賊寧潔身於泉下卽投水而死其妻亦投于水其時公見事不濟將欲後圖逃奔舊京(今開城府)賊兵四五艘異以追之公獨射之飛矢相接其夫人在側抽矢授之賊不敢近俄而矢已盡而船膠于淺灘賊追及之射中公仆於舟夫人曰吾義不爲鼠輩所辱遂携二女投水死事載麗史及三綱行實詳見李益齋先生文集(卽櫟翁稗說)及文獻備考諸書時人爲之作詩曰跳梁叛賊在江華獨有玄公爲國家可惜夫人投水死古今貞烈孰能加又曰不幸船膠沒賊兵携兒投浪最傷情至今灘水流嗚咽疑是精魂哭泣聲元宗十二年下敕敕命將軍玄文奕妻直學鄭文鑑妻投水而死不爲賊所辱節義可尙特爲加封贈官其子孫○按漣川邑誌玄將軍文爌殉節於三別抄亂其夫人携二女投水死墓在縣南十里上深谷里云而今失傳將欲設壇薦苾而尙今未遑不勝痛恨之至

도원수공실기(都元帥公實記)

公의 휘(諱)는 문혁(文爌)이요 고려문하평장사(高麗門下平章事)(정일품(正一品)) 연산군(延山君) 휘담윤(諱覃胤)의 고손(高孫)이며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참지정사(叅知政

事) 대사공(大司空) 회원군(檜原君) 시(諡)(나라에서 내리는 호)정헌(正獻) 휘덕유(諱德裕)의 증손(曾孫)이다. 타고 나신 자질(資質)이 고매(高邁)하시며 용맹(勇猛)이 월등(越等)하시고 겸(兼)하여 글 읽기와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하셨다. 연천군남면진상리(漣川郡南面進祥里)에 사시어 남송정(楠松亭)이라는 정자(亭子)를 지으시고 그 정상(亭上)에서 소요(逍遙)하시며 항상(恒常) 서적(書籍)을 즐겨 읽으셨다.

때는 고려원종(高麗元宗)때에 장군(將軍)을 제수(除授)받으셨다. 그 후(後)수차에 걸쳐 국가(國家)에 공훈(功勳)을 세우시니 원종(元宗)十一年(西紀一二七〇年) 경오(庚午)에 도원수(都元帥)로 발탁(拔擢)되시어 강화(江華)를 진함(鎮合)함에 있어서 때 마침 六月에 장군배증손(將軍裴仲孫) 노영희(盧永禧) 등(等)이 삼별초(三別抄)(군대의 이름으로 야별초(夜別抄) 좌별초(左別抄) 우별초(右別抄))군(軍)을 거느리고 강화(江華)에서 반란(叛亂)을 일으켜 부고(府庫)(국고(國庫))를 제 마음대로 열고 양곡(糧穀)과 무기(武器) 등(等)을 도적(盜賊)질 하고 성(城)에 들어가 고수(固守)하더라. 적병(賊兵)들이 첫 음모(陰謀)할 때 장군(將軍) 이백기(李白起)에게 위협(威脅)하나 백기(白起)가 의리(義理)를 지켜 응(應)하지 않고 죽었으며, 적(賊)이 또 직학(直學)(도서관장) 정문감(鄭文鑑)으로써 승선사(承善使)(정삼품(正三品) 왕(王)의 비서관)로 삼고자 하니 정문감(鄭文鑑)이 하는 말이 너희들과 같이 부귀(富貴)를 탐내어 도적(盜賊)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투신자살(投身自殺)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백배

(百倍) 낳을 것이라 하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니 그 처(妻)도 역시(亦是) 부군(夫君)의 절조(節操)에 따라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였다.

공께서는 평란(平亂)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시고 장차후일(將次後日)을 도모(圖謀)하고자 구경(舊京)(지금의 개성(開城))으로 도주하시니 적병(賊兵)들이 사오(四五)척의 배를 타고 좌우(左右)로 쫓아오므로 공께서는 홀로 활을 쏘기 시작(始作)하는데 그 부인(夫人)은 곁에서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빼어 주시니 한치의 양보(讓步)도 없이 적중(適中)하게 되어 적(賊)은 감(敢)히 접근(接近)을 하지 못하던 차(次)에 안타깝게도 화살이 다 없어지고 배는 얇은 여울에 다다르자 적(賊)이 쫓아오면서 활을 쏘아 공은 배 바닥에 엎드리시니 부인(夫人)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義)롭지 못한 쥐 같은 도적(盜賊)놈들에게 욕(辱)을 당(當)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투신(投身)하여 자살(自殺)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두 딸을 데리고 다같이 물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하셨다.

이 사실(事實)은 고려사기(高麗史記)와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자세(仔細)히 기재(記載)되어 있으며 이익재선생문집(李益齋先生文集)과 문헌비고(文獻備考)와 여러 서적(書籍)에 명기(明記)되어 있으므로 세상(世上)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터이며 그 때의 시인(詩人)들은 공의 부부(夫婦)의 절조(節操)를 찬양(讚揚)하는 시(詩)를 지어 세상(世上)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 시(詩)에 쓰였으되

날뛰는 도적(盜賊)들이 강화(江華)에 있었는데

현공(玄公) 홀로 나라를 위(爲)하여 고수(固守)하셨도다.

아! 참으로 가석(可惜)하도다

부인(夫人)께서 강(江)물에 투신(投身)하여 자살(自殺)하셨으니

그 정렬(貞烈)을古今(古今)을 통(通)하여 누가 능(能)히 더할 사람이 있으리오.

불행(不幸)하게도 적병(賊兵)에게 죽지 않으시려고 물에 빠지시고

부인(夫人)께서 딸을 데리시고 부군(夫君)을 따라 물에 빠져 순국(殉國)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마음 아픔이 또 어디 있으리오.

지금 유유(悠悠)히 흐르는 물소리는

두 분의 충혼(忠魂)을 조위(弔慰)하는 곡성(哭聲)인가 한다.

원종(元宗)十二年(西紀一二七一年)에 원종(元宗)께서 장군(將軍) 현문혁(玄文燦)의 처(妻)와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妻)가 도적(盜賊)에게 더러운 죽음을 당(當)하기 전(前)에 물에 빠져 자살(自殺)하였으니 절조(節操)와 의리(義理)가 가상(嘉尙)하다 하여 그 자손(子孫)들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라고 특명(特命)을 내리셨다. 이 사실(事實)은 연천읍지(漣川邑誌)에 현장군문혁(玄將軍文燦)께서 삼별초란(三別抄亂)에 순절(殉節)하신 것과 그 부인(夫人)이 두 딸을 데리시

고 순사(殉死)하신 것이 상세(詳細)히 기재(記載)되어 있어 후세(後世)에 전(傳)하고 있으나 그 묘소(墓所)가 현남십리(縣南十里) 깊은 산(山)골에 계시다 하지만 찾지 못하여 실전(失傳)되었으므로 장차(將次) 단(壇)을 모아 분향(焚香)을 드리고자 하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여 통탄(痛嘆)함을 금(禁)하지 못할 뿐이다.

26.判書公事蹟

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僉議公長子也生而姿性英邁氣宇宏廓文詞邃博儀容愷悌爲趙松亭文貞公之婿切於爲己之學不樂宦達與尹別洞(祥)趙公(末生)裴公(桓)裴公(杠)同師事文貞公而以教導後學爲己任故文化蔚興齊一變魯名賢輩出麗恭愍王二十三年甲寅中殿試恭讓王朝爲史官 本朝太祖朝特除禮儀判書復爲判典儀寺事判典儀與禮曹判書同品而尤選人望之高者也退仕教授之暇有時携短僕乘小車逍遙自娛於月下沙上故名其所居洞曰沙月詩叢古韻載公詩云月沙洞裏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裝得十分云(註云答問使詩)盖月沙卽沙月而倒文者取其平聲之諧簾也退翁詩性理淵源不易明襄陽(卽醴泉舊號也)稱道二公名如何著述無傳後仰止高山獨感情二公盖指公及趙松亭也公之官爵及事蹟載於醴泉邑誌而醴泉鄉校題板卽公之手書云墓在龍宮內下面所洞(卽今醴泉郡知保面所華里)牛峯公(卽委峯山也變委爲牛由於字音之相近而舊讀之訛傳已久故仍舊存之)負乾之原而碑面題曰通憲大夫判典儀寺事玄玉亮之墓 萬曆四十六年戊午五月日改立陰刻云外孫慶尙道巡察使尹暄題墓下有位土若干而每於十月上旬一祭之

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공의 휘(諱)는 옥량(玉亮)이요 자(字)는 채상(采相)이며 호(號)는 사월(沙月)이시니 첨의공(僉議公)의 장자(長子)이다. 공께서는 타고나신 자질(姿質)과 성품(性稟)이 영매(英邁)하시고 기개(氣慨)가 굉장(宏壯)하시며 문장(文章)이 뛰어나시고 의용(儀容)이 단정(端正)하시어 송정(松亭) 조문정공(趙文貞公)(송정(松亭)은 아호(雅號) 문정(文貞)은 시호(諡號))의 사위가 되셨다. 학문(學文)에만 정진(精進)하시고 벼슬길에 나아갈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윤별동(尹別洞)(별동(別洞)은 아호(雅號)) 상(祥)과 조공말생(趙公末生)과 배공환(裴公桓)과 배공강(裴公杠)과 더불어 문정공(文貞公)을 스승으로 모시고 후학(後學)을 교도(教導)하므로써 당신(當身)의 임무(任務)라 생각하시고 이에 전심전력(專心專力)하셨으므로 문화(文化)가 율흥(蔚興)하여 패륜적(悖倫的)인 제(齊)나라가 오륜삼강(五倫三綱)이 확립(確立)된 노(魯)나라와 같이 되어 명현(名賢)들을 많이 배출(輩出)하셨다.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二十三年(西紀一三七四年) 갑인(甲寅)에 전시(殿試)(임금앞에서 보는 과거)에 급제(及第)하시어 공양왕(恭讓王)때에 이관(吏官)이 되시고 조선(朝鮮)에 들어와 예의판서(禮儀判書)에 특별(特別)히 제수(除授)되셨다가 다시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로 전임(轉任)하시니 판전의(判典儀)는 예조판서(禮曹判書)(지금(至今)의 문교부장관(文教部長官))과 동품(同品)인데 인망(人望)이 높으셨다. 퇴임(退任)하신 후(後)에 후학(後學)들을 교수(教授)하시기에 열중(熱

中)하시다가 여가(餘暇)가 있으시면 몸종과 더불어 수레를 타시고 달밝은 백사장(白沙場)으로 나아가시어 소요(逍遙)하시며 자연을 즐기셨으며 사시던 동명(洞名)을 사월동(沙月洞)으로 하시고 공의 시집(詩集)에는 월사동(月沙洞)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화음산(華陰山)위에는 구름밖에 없고 푸른 버드나무 무성한 오동(梧桐)에는 바람이 없으니 오히려 내 마음이 흠족(洽足)하여 정서적(情緒的)인 환경(環境)을 얻었도다」 고 하셨다.

이 처럼 시(詩)를 읊으신 것은 공의 독특(獨特)한 개성(個性)과 주변환경(周邊環境)에 적응(適應)하셨음을 표현(表現)한 것이며 공의 시(詩)를 보는 사람들은 평화(平和)스럽고 공의 개성(個性)에 맞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 하였다. 퇴옹(退翁)(이퇴계(李退溪))의 시(詩)에 쓰여 있으되 성리학(性理學)의 근원(根源)이 분명(分明)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양양(襄陽)(지금의 예천(醴泉))에서는 공과 조문정공(趙文貞公) 두 분을 도학군자(道學君子)라 칭송(稱頌)하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후세(後世)에 전(傳)하는 기록(記錄)이 없으니 자세(仔細)히 알 수가 없어 아쉬움이 간절(懇切)하다.

다만 공의 관작(官爵)과 사적(事蹟)은 예천읍지(醴泉邑誌)에 기재(記載)되어 있을 뿐이고 예천향교(醴泉鄉校)의 현판(懸板)은 공께서 직접(直接) 쓰신 것이라 하니 공의 문필(文筆)이 어떠하셨는지 세상(世上)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공의 묘소(墓所)는 지금(至今)의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마전리우봉산건좌(慶尙北道醴泉郡知保面麻田里牛峰山乾坐)에

있으며 그 비면(碑面)에는 통헌대부판전의시사(通憲大夫判典儀寺事) 현옥량지묘(玄玉亮之墓)라 하였던 것을 만력(萬曆)四十六年(西紀 一六一八年)무오(戊午)에 다시 비(碑)를 세우고 음기(陰記)는 외손(外孫) 경상도순찰사윤훤(慶尙道巡察使尹暄)이 쓰다. 묘하(墓下)에 위토(位土) 약간(若干)을 마련하고 매년(每年) 음력(陰曆)十月상순(上旬)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있다.

27.高麗通憲大夫判典儀寺事沙月玄公神道碑銘并序

醴泉治南知保面所洞委峯下坐乾之原有崇四尺而龜龍煥然寔高麗判典儀寺事沙月玄公衣烏之藏也禮當有神道顯銘而尚未遑是爲仁孫歷世之恨今年秋將伐石而豎于隧下石旣具後孫惠基舜基等請銘詩於相圭圭年今八十三癯弊不堪承膺而其請益勤乃按其遺事而叙之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姓玄氏貫延州高麗明宗朝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景憲公諱覃胤爲上祖生諱德秀兵部尙書星山府院君於公間五世高祖諱元烈太僕尹曾祖諱敬輿典客令祖諱嶽左贊成考諱致龍都僉議寺事公天姿英邁儀貌豈弟字量宏豁自少有大人風采趙文貞公愛賞之以女妻之公因師事之講質理義與趙公末生襄公桓襄公杠別洞尹公爲同門契好交修互磨之行噪一世恭愍王甲寅中殿試文科歷史官至判典儀寺事皆精選也及恭愍遷驪興而宁位屢易邦運垂訖公遂不樂仕進角巾私第以育英才扶儒緒爲家計恭讓壬申我 康獻王受禪特命公爲禮儀判書俄拜判典儀寺事并不就脫然歸鄉里與世相忘日以琴書詩酒遣懷所居濱江愛明沙朗月之勝名其坊曰沙月嘗有詩曰月沙洞裡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粧得十分云其意誠遠矣盖當麗氏之末爲其臣子者欲挺身奮義挽回已

傾之天固難回而身踵竹橋之血至若拚龍鱗附鳳翼翱翔於新春日月則實喬木世臣之所不屑也無寧退守林垞托意於沙月嶺雲以隱其節而泯其跡焉耳噫沙上皓月可賞而不可名言嶺上白雲可悅而不堪贈人則此卽是先生心事也其高風曠韻人孰能知之昔漢之末龐德公托遺安之計而耕於壠上晉之末陶元亮托田園將蕪而賦歸柴桑古君子亂代自靖之義誠曠世一轍也顧其世代綿邈文籍蕩佚公之居家行治立朝事爲與夫生卒年月無得以考焉是爲可恨然大節旣著小德略之亦無妨配貞敬夫人眞寶趙氏卽文貞公庸之女生三男用武副正用休文司評用富判尹女適進士申維副正男諱珪文吏郎司評男諱景祚郡守諱命祚通德諱光祚叅奉判尹男諱良績校理諱白同正吏郎男諱得元文牧使諱得亨南海縣令諱得利全州判官諱得貞進士郡守男諱瑛牧使通德男諱佑進士校理男諱禎學生同正男諱存夫判官內外孫曾達官聞人多不能盡錄銘曰於赫公家麗代名閥世秉均衡爲國柱石名登太常勳錫采邑繫公之生苞羽藍玉英姿偉器宏文邃識文貞曰咨館我貳室雲錦玉珮周旋函席煌煌丹桂載榮喬木乍掌太史特陞宗伯天命靡常國社遠屋新龍御天俊乂雲集判尹典儀召命頻沓公矢曰嘻我罔臣僕冥冥遐舉于洛之側晴沙明月證我心曲節高跡泯候誰與識有蔭孔厚有遠其澤內外雲仍布濩八域金冠玉帶墨綬朱紱繩前踵後照耀邦國大德必祿其理不忒屹彼委峰月封四尺樂石峩峩螭螭龜伏我作銘詩詔世千億

歲赤猿重陽月初吉

永嘉後人 權相圭 謹撰

後孫 應周 篆

外裔完山後人 崔英憲 書

고려통헌대부판전의시사사월헌공신도비명명서

(高麗通憲大夫判典儀寺事沙月玄公神道碑銘并序)

예천군(醴泉郡) 남(南)쪽 지보면소동위봉산(知保面所洞委峰山)아래 건좌(乾坐)에 높이 사척(四尺)의 묘(墓)가 있는데 귀룡(龜龍)이 환하게 비치니 여기가 바로 고려판전의시사사월공(高麗判典儀寺事沙月公)의 유택(幽宅)이시다. 고래(古來)로 내려오는 예(禮)로는 묘소(墓所) 아래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워 그 행적(行蹟)을 세상(世上)에 밝히는 것이 의당(宜當)한 일이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자손대대(子孫代代)로 한(恨)이 되었다. 금년(今年) 가을에 돌을 다듬어 그 묘하(墓下)에 세우고자 하여 비석(碑石)을 마련하고 덕기(惠基)와 순기(舜基) 등(等)이 상규(相圭)에게 명시(銘詩)를 청(請)하여 왔으나 상규(相圭)는 연령(年令)이 이미 八十三의 몸으로 파리해져서 능(能)히 감당(堪當)하기가 어려웠으나 그 청(請)이 너무도 간곡(懇曲)하므로 사양(辭讓)치 못하고 공의 유사(遺事)를 상고(詳考)하여 기술(記述)한다.

공의 휘(諱)는 옥량(玉亮)이요, 자(字)는 채상(采相)이며 호(號)는 사월(沙月)이시고 성(姓)은 현씨(玄氏)며 관(貫)은 연주(延州)이니 고려조(高麗朝) 명종(明宗)때 문하시랑평장사연산군(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당시(當時)의 장관(長官) 연산군(延山君)은 국가(國家)에 공훈(功勳)이 있으면 국가(國家)에서 포상조(褒賞條)조 군(君)을 봉(封)하여 그 지방(地方)의 세금(稅金)을 수급(收給)하는 제도(制度)) 시(諡)(나라에서 큰 공이 있는 신하에게 죽은 후(後)에 내리는 아호(雅號))경헌공(景憲公) 휘담운(諱覃胤)이 시조(始祖)가 되신다.

휘덕수(諱德秀)는 병부상서성산부원군(兵部尙書星山府院君)이 오대조(五代祖)가 되시고 고조(高祖)의 휘(諱)는 원열(元烈)이시니 벼슬은 태복윤(太僕尹)(고려때 큰 벼슬 군사(軍士)를 맡은 자(者))이요 증조(曾祖)의 휘(諱)는 경여(敬輿)이니 벼슬은 전객령(典客令)(고려조(朝)의 예조중신(禮曹重臣))이시며 조부(祖父)의 휘(諱)는 금(嶽)이시니 벼슬은 좌찬성(左贊成)(정이품(正二品) 의정대신(議政大臣))이시고 고(考)의 휘(諱)는 치룡(致龍)이시니 벼슬은 도첨의시사(都僉議寺事)(고려의 정승)이시다. 공의 천품(天稟)이 영특(英特)하시며 용모(容貌)가 단정(端正)하시고 도량(度量)이 굉활(宏豁)하시어 어려서부터 대인(大人)의 풍채(風采)가 있으시므로 조문정공(趙文貞公)께서 사랑하시고 가상(嘉尙)히 여기시어 여서(女婿)로 맞이하셨다. 조공말생(趙公末生)과 배공환(裴公桓) 배공강(裴公杠)과 별동윤공(別洞尹公)과 같이 동문생(同門生)이 되시어 의리(義理)가 깊은 친우(親友)로서 상호간(相互間)에 문학(文學)과 예의(禮義)를 마탁(磨琢)하심으로 그 때에 이름이 뛰어나셨다.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西紀一三七四年)에 전시문과(殿試文科)(임금 앞에서 직접 보는 과거)에 알성급제(謁聖及第)(임금이 직접 합격증(合格證)을 주는 제도(制度))하시어 벼슬이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에 이르셨으니 국가(國家)에서 가장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선발(選拔)한 것이라고 하였다. 공민왕(恭愍王)께서 여흥(驪興)으로 파천(播遷)(임금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하고 저위(宇位)(임금이 조회를 맡은

자리)가 여러 번 바뀌게 되어 국운(國運)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되자 공께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시는 것을 불쾌(不快)하게 생각하시고 사제(私第)로 돌아오시어 선비 관(冠)을 쓰시고 유생(儒生)들을 모으시어 영재(英才)를 기르는데 총력(總力)을 경주(傾注)하셨다.

공민왕(恭愍王) 임신(壬申)(西紀一三九二年)에 강헌왕(康獻王)(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공양왕(恭讓王)으로 부터 왕위(王位)를 양위(讓位)받으신 다음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는 공을 특명(特命)으로 예의판서(禮儀判書)와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거듭 임명(任命)하셨으나 공께서는 모두 불응(不應)하시고 탈연(脫然)히 향리(鄉里)로 돌아오시어 세상(世上)일을 잊으시고 금서(琴書)와 시주(詩酒)로 그 회포(懷抱)를 달래셨으며 강(江)가에 사시면서 맑은 모래와 밝은 달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어 그 동리(洞里)의 이름을 사월동(沙月洞)이라 하시고 시(詩)를 쓰셨으니 그 시(詩)에 월사동리문하유(月沙洞裏問何有) 괴담화음령상운(愧答華陰嶺上雲)이라 하였으니 즉(卽) 월사동리(月沙洞里)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 좋아하시느냐고 물으면 부끄러워하시며 대답(對答)하시기를 「화음산(華陰山)위에는 백운(白雲)밖에 없노라」 고 하셨으며 이 뜻은 밝은 달과 밝은 백사장(白沙場)과 영상(嶺上)의 백운(白雲)을 사랑하면서 세상(世上)일을 잊고 고요히 살 것이며, 벽류처오품불산(碧柳萎梧風不散) 유능장득십분운(猶能粧得十分云) 즉(卽) 푸른 버들과 성한 오동(梧桐)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내 마음에 흡족(洽足)한 환경(環境)

을 얻어 장식(粧飾)한 것과 같도다.

이 뜻은 새 나라가 푸른 버드나무와 무성한 오동(梧桐)과 같아도 바람이 해치지 못하니 즉 다시 말해서 새 임금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처럼 고요한 곳에서 여생(餘生)을 보내는 것이 내 아음에 족(足)할 것이라 읊으셨다.

공의 시(詩)의 뜻이 이처럼 깊고 머니 이것이 고려말(高麗末)의 실정(實情)이다.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때를 당(當)하면 누구든지 의협심(義俠心)을 발휘(發揮)하여 이에 참여(參與)하는 것이 신하(臣下)된 도리(道理)라 생각하고 공께서는 이에 반발하시어 기울어가는 국운(國運)을 만회(挽回)하시려 노력(努力)하셨으나 천운(天運)이 아마 회복(回復)되기가 불가능(不可能)하여 선죽교(善竹橋)의 충혈(忠血)(정포은의 충혈)을 이을 것이요 국운(國運)이 이처럼 위기(危機)에 이르렀으니 이 일을 장차(將次) 어찌 하리오.

만일(萬一) 새로 등극(登極)한 용린(龍麟)(임금)에 봉익(鳳翼)(중신(重臣)을 붙여 새봄 일월하(日月下)에 날으려 하는 것은 교목(喬木)(큰 신하(臣下)) 세신(世臣)으로서는 용납(容納)할 수 없는 일이니 차라리 산(山)에 들어가서 농사(農事)나 지어 살고, 흰 모래와 맑고 밝은 달과 산(山)위에 있는 흰 구름에 마음을 붙여 그 지조(志操)를 숨기고 종적(踪跡)을 감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사(假使) 맑은 백사장(白沙場)에 밝은 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로는 표현(表現)하지 못하고 영상(嶺上)의 백운(白雲)이 아무리 장관(壯觀)일지라

도 능(能)히 사람에게 주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곧 선생(先生)의 마음이다.

그 높은 풍치(風致)와 빛나는 시운(詩韻)을 세상(世上)사람 누가 능(能)히 알고 있으리오. 옛적 한(漢)나라 방덕공(龐德公)(한(漢)나라 유명(有名)한 시인(詩人)의 이름)은 안일(安逸)한 생활(生活)을 도모(圖謀)하기 위(爲)하여 밭을 갈아 농사(農事)지었으며, 진(晉)나라 말엽(末葉)에 도원량(陶元亮)(당(唐)나라 유명(有名)한 시인)은 고향(故鄉)에 있는 전원(田園)이 장차(將次) 황무지(荒蕪地)로 변(變)할까 염려(念慮)한 끝에 고향(故鄉)인 자상리(紫桑里)로 돌아갔으니 옛날 군자(君子)들은 세상(世上)이 어지러워지면 자숙(自肅)하는 의의(意義)가 두터워져서 한 때의 법규(法規)처럼 세상(世上)에 밝혀져 있었다.

公께서 생존(生存)하시던 그 세대(世代)를 돌이켜보면 멀고 멀어서 그 때의 유서(遺書)가 없어져 평생(平生)을 사실 때에 하시던 일이며, 조정(朝廷)에 나아가셔서 하시던 일이며, 탄생(誕生)하시고 별세(別世)하신 연월일(年月日)을 상고(詳考)할 데가 없으니 한탄(恨歎)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큰 절개(節介)만은 기술(記述)하고 소덕(小德)은 약(略)하여도 무방(無妨)할 것이다. 배(配)는 정경부인(貞敬夫人)(정종일품이상(正從一品以上)의 벼슬한 자(者)의 부인(夫人)) 진보조씨(眞寶趙氏)이니 즉(卽) 문정공옹(文貞公庸)의 따님이시다. 公께서 삼남(三男)을 두셔서 일남(一男) 휘(諱)는 용무(用武)시며 벼슬은 부정(副正)(정삼품(正三品) 벼슬)이요, 이남(二男)

의 휘(諱)는 용휴(用休)인데 벼슬은 문과(文科)로 사평(司評)(정육품(正六品) 벼슬)이시며, 삼남(三男)의 휘(諱)는 용부(用富)시며 벼슬은 판윤(判尹)(정이품(正二品))이시다. 따님은 진사신유(進士申維)에게 출가(出嫁)하시고 부정공(副正公)께서는 독자(獨子)를 두셨는데 휘(諱)는 규(珪)시니 문과(文科)로 이랑(吏郎)(이조정랑(吏曹正郎) 정오품(正五品))이시며 사평공(司評公)은 삼남(三男)을 두셨는데 일남(一男)의 휘(諱)는 경조(景祚)시고 벼슬은 군수(郡守)시며, 이남(二男)의 휘(諱)는 명조(命祚)인데 벼슬은 통덕(通德)이요, 삼남(三男)의 휘(諱)는 광조(光祚)시며 벼슬은 참봉(參奉)이시다.

판윤공(判尹公)은 이남(二男)을 두시어 일남(一男) 휘(諱)는 양적(良績)이오며 벼슬은 교리(校理)(정오품(正五品))이시고, 차남(次男)의 휘(諱)는 백(白)이시며 벼슬은 동정(同正)이시다. 이랑(吏郎)께서는 사남(四男)을 두시어 일남(一男)의 휘(諱)는 득원(得元)이요 문과(文科)로 목사(牧使)시고, 이남(二男)의 휘(諱)는 득형(得亨)이시고 벼슬은 남해현령(南海縣令)(군수(郡守)와 동급(同級))이시며, 삼남(三男)의 휘(諱)는 득리(得利)이시며 관(官)은 전주판관(全州判官)이시고, 사남(四男) 휘(諱)는 득정(得貞)이요 벼슬은 진사(進士)이시다. 군수공(郡守公)의 남(男) 휘(諱)는 전(璵)이신데 벼슬은 문과(文科)로서 목사(牧使)이시며, 통덕공(通德公)의 남(男) 휘(諱)는 우(佑)이신데 진사(進士)이시며, 교리공(校理公)의 남(男) 휘(諱)는 정(禎)이신바 학생(學生)이시고, 동정공(同正公)의 남(男)은 휘(諱)가 존부(存夫)이신데 벼슬이 판관(判

官)이시다.

본손(本孫)과 외손(外孫)들이 다 달관(達官)이시며 문인(聞人)(이름 높은 현인(賢人))들이 많아서 다 기록(記錄)하지 못하여 마음이 섭섭하다. 그 명(銘)(명(銘)은 비(碑) 서문(序文)끝에 비문(碑文) 내용(內容)을 율시(律詩)로 표현(表現)한 것)에 씌었으되 빛나고 빛나는 공의 집안은 고려(高麗)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이라 대대(代代)로 똑 고르게 나라의 동량(棟樑)이며 초석(礎石)이 되셨으니 그 이름이 태상(太常)(고려때 제일높은 벼슬)에 오르시고 공훈(功勳)은 채읍(采邑)(녹을 먹는 고을)을 주었다.

아! 부럽도다. 공께서 이 세상(世上)에 태어나신 것은 우산(羽山)(지금(至今)의 중국(中國)에 있는 산(山) 이름)에 봉황(鳳凰)과 남전(藍田)(지금(至今)의 중국(中國)에 있는 유명(有名)한 밭)에 옥(玉)과 같으며 위대(偉大)하신 바탕이며 넓으신 문학(文學), 깊으신 지식(知識)이 겸비(兼備)하시니 문정공(文貞公)이 사랑하시어 사위(여서(女婿))를 삼아 내 곁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여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후(後)에 운금(雲錦)(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입는 좋은 비단옷)과 옥패(玉珮)(벼슬한 사람이 차는 패물)에 제화(桂花)(벼슬한 사람이 머리에 꽂는 꽃)를 머리에 꽂은 교목(喬木)(나무)과 같은 세신(世臣)이 되시어 영화(榮華)를 차지하시며 또한 잠시 후(暫時後)에 태사(太史)(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하는 벼슬)를 차지하시다가 특명(特命)으로 종백(宗伯)(높은 벼슬)에 까지 오르셨다.

때마침 국운(國運)이 기울어져 사직(社稷)이 없어지고 신룡(新龍)(새 임금)이 등극(登極)하게 되자 준재(俊才)(수재)가 구름같이 모여 들었지만 공과 같은 사람이 없어 신왕(新王)이 공을 자주 불러 판서전의를(判書典儀) 자리를 권유(勸誘)하였으나 공께서는 맹서(盟誓)하시기를 「나는 신하(臣下)가 될 것을 단념(斷念)하고 먼 곳 강(江)가로 떠나 맑은 모래 밝은 달을 벗하여 여생(餘生)을 마칠 것이며 백사(白沙)와 명월(明月)은 나의 심정(心情)을 잘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높으신 절조(節操)와 그 종적(踪跡)을 은닉(隱匿)하시려 하심이니 이것을 누가 알 바 있으리오. 공의 두터우시고 넓으신 음덕(蔭德)과 멀고 먼 혜택(惠澤)이 전국(全國) 각처(各處)에서 살고 있는 본손(本孫)과 외손(外孫)들에게 미쳐 금관옥대(金冠玉帶)(높은 벼슬)와 묵수주불(墨綬朱紱)(좋은 벼슬)이 선조(先祖)의 뒤를 이어 후손(後孫)들에까지 계속(繼續)되어 국가(國家)에 큰栋梁(棟樑)으로 대덕(大德)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녹(祿)을 내리는 이치(理致)는 어김이 없을 것이다.

저 위봉산(委峰山)에 높은 묘소(墓所)가 있으며 아래에 높은 비석(碑石)이 용(龍)의 머리와 거북의 좌대(坐台)로 되어 있으니 내가 그 비석(碑石)에 명시(銘詩)를 써 천억대(千億代)를 내려 가도록 고(告)한다.

세적원증양월초길(歲赤猿重陽月初吉)에

(서기(西紀)一九五六年九月)

영가후인(永嘉後人) 권상규(權相圭) 근찬(謹撰)

후인(後人) 응주(應周) 전(篆)

외예완산후인(外裔完山後人) 최영헌(崔英憲) 서(書)

28.通憲大夫行禮儀判書判典儀寺事沙月玄公墓碣銘 并序
書曰君子得志澤加於民不得志修身見於世正謂判書玄公平生事行之大略也公生而稟性英邁氣宇宏廓文詞遼博儀容愷悌受業于趙文貞公切於爲己之學先生愛重而以女妻之高麗恭愍王二十三年甲寅中殿試文科歷舍人史官至判典儀寺事爲政清廉明敏朝廷咸推其德性也及朝鮮太祖受禪後公遂不樂仕宦退隱龍宮縣與尹祥·趙末生·裴桓·裴杠爲同門契好講論道義性理之說德學文行之教聲譽膾炙一世焉日以教導後進爲己任故文化蔚興齊一變魯碩學名賢多出其門下太祖特除禮儀判書而不就答問使詩曰月沙洞裡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裝得十分云而以詠其无悶之意也蓋我國高麗成宗時設置國子監而名雖謂創明儒學好學者甚小未得布教於世鄉黨莫知其仁義禮智之性天地萬物之理而徒以爲高遠難行之事自安暴棄矣惟公斯惻教之以五書五經使其時習沈潛性理學繼開其奧妙之說於是從學者甚衆變化其氣質是可謂齊一變魯之實也公之歿二百年後退溪李公慕公德行有詩曰性理淵源不易明襄陽稱道二公名如何著述無傳後仰止高山獨感情云蓋嗟惜公及趙松亭之遺文不多也公又與鄉中章甫議立醴泉鄉校祖述孔孟憲章弘文手書懸板云其慕賢明倫之誠於此可見矣惟我玄氏胄于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公諱覃胤生諱德秀慶尙道按廉使兵部尙書致仕享寧邊南嶽祠高祖諱元烈太僕尹曾祖諱敬輿典客令贈右叅贊祖諱嶽左叅贊考諱致龍都僉議寺事贈領議政先系記事舉多遺逸姑依大譜而敘之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延州人生于世家華胄早登科舉特陞宗

伯邦運乖訖謝絕世路遯居鄉里以育英厚俗爲樂事也墓醴泉知寶面所華里牛峰山乾坐原配南陽(今真寶云)趙氏文貞公庸之女墓在醴泉神堂洞而今失傳生三男一女長用武副正以親命絕意世道侍廬因居教民農桑一鄉賴安次用休司評次用富判尹以開國勳太祖手書賜祿券女適進士平山申維孫男珪正郎贈吏叅景祚郡守命祚通德郎光祚叅奉良績校理白同正曾孫得亨縣令錄原從勳得利文科判官錄原從勳咸吉道軍官殉忠於施愛亂壤牧使佑進士厚澤虞侯禎學生存夫判官自後子姓繁延散在八域而其麗數萬矣後裔宗孫保功將軍忠順衛貴監察縣監太始府使孝福武科僉正參原從勳球縣監璉引儀德元郡守德郁武左部將德潤軍資正贈嘉善德良武備邊司贈兵叅德顥郡守贈戶叅德龍郡守德升文科正郎持平司藝文章筆法冠於當世稱希菴先生享天安六賢祠侃同知中樞府事志道侍廬有虎銜一大軍器寺判官尚璧洗馬世稱江門八學士若昊有文行崇氣節以規文學遽高爲關北名儒鳳漸文學高明以孝行累蒙獎翊鎮商文科司諫府使永基以孝友經學名翼東從仕朗廣搜宗族刊行辛丑四修譜翼洙有文行俊鎬叅奉積而能散盛稱德義錫虎國會議員內務國防長官治德大著名振一世糾合宗黨乃設大宗會以勗之錫朱陸軍少將安保會議常任委員餘不盡錄噫公之忠義德行固已樹立於當日如彼其卓然身後宜有崇褒之典而寥寥數百禩不得聞其偉蹟實爲之者之恨也後孫等將豎碣而來請文願以薄識辭不獲而據世德錄序之如右銘曰天生哲賢用是國光維公進退道學賴彰早登文院史筆忠良履歷清顯澤加萬氓國運盛衰繫是天常高麗命盡朝鮮新皇退去龍宮師友同床道義性理學德文行講論啓牖膾炙一鄉文化蔚暢興起家邦瞻彼牛峰碩人之藏過者必式視我銘章

一九九二年陰十月十日

族後孫 國務總理 勝鍾 謹撰

통헌대부행례의판서전의시사사월헌공묘갈명 병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군자(君子)는 뜻을 얻으면 은택(恩澤)을 백성에게 입히
고, 뜻을 얻지 못하면 수신(修身)하여 세상에 모범을 보인
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녕 판서헌공(判書玄公) 평생(平生)
의 사행(事行)의 대략(大略)과 같다.

公은 나면서부터 성품(性品)이 영매(英邁)하고 기우(氣宇)
가 넓으셨으며, 학문(學問)과 문학(文學)이 깊고 넓으시며 몸
가짐과 모습이 아름다우셨다.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선생
에게서 수업(受業)하여 수신(修身)하는 학문(學問)을 갈고 닦
으시니 선생(先生)께서 애중(愛重)하여 따님으로 짝을 지우
셨다.

고려 공민왕二十三年 갑인(甲寅)(一三七四)에 전시(殿試)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사인(舍人)·사관(史官)을 거쳐 판전
의시사(判典儀寺事)에 이르시니 정치를 하심에 청렴(清廉)하
고 밝고 민첩하시니 조정에서 모두 공의 덕성(德性)을 추앙
(推仰)하였다. 조선(朝鮮) 태조(太祖)가 왕이 된 이후로 公은
벼슬길에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용궁현(龍宮縣)에 은퇴(隱
退)하여 윤상(尹祥)·조말생(趙末生)·배환(裴桓)·배강(裴
扛)등 동문(同門)과 친분을 맺어 도의(道義)·성리(性理)의
설(說)과 덕학(德學)·문행(文行)의 교(敎)를 강론하니 명성
(名聲)과 명예(名譽)가 온 세상에 회자(膾炙)되었다. 날마다
후진(後進)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소임(所任)으로 하였기 때

문에 문교(文教)의 교화(教化)가 성대하게 일고, 제(齊)나라가 일변(一變)하여 노(魯)나라로 되듯이 풍속이 변했으며 석학(碩學)과 명현(名賢)이 그 문하(門下)에 많이 나왔다.

태조(太祖)대왕이 특별히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제수(除授)하였으나 취임(就任)하지 않았으며 찾아온 사신(使臣)에게 시(詩)로 대답하기를,

월사동리문하유(月沙洞裡問何有) 월사동(月沙洞)에 무엇이 있는가 물으신다면

괴담화음령상운(愧答華陰嶺上雲) 화음산(華陰山) 영(嶺)마루에 구름 떠 있고

벽류처오품불산(碧柳萎梧風不散) 푸른 버들 오동잎이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으니

유능장득십분운(猶能裝得十分云) 그래도 충분히 즐겁다 말하오리다.

라고 함으로써 아무런 번민(煩悶)이 없다는 뜻으로 노래하였다.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성종(成宗)때에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여 명색(名色)은 비록 처음으로 유학(儒學)을 천명(闡明)한다고 하였으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 아직 세상에 널리 가르침이 퍼지지 못하였었고, 향당(鄉黨)(시공)에서는 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과 천지만물(天地萬物)의 리(理)를 알지 못하고 부질없고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며 배우지 않거나 배우다가도 금방 그 만두는 것이었다.

公은 이를 측은(惻隱)하게 생각하시어 오서(五書)·오경(五經)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때때로 익혀 성리학(性理學)에 침잠(沈潛)(=몰두(沒頭))하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오묘(奧妙)한 학설(學說)을 깨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시니 배우는 사람이 매우 많아져 그 기질(氣質)이 변화(變化)하였다. 이것은 「제(齊)나라를 일변(一變)하여 노(魯)나라를 만든(註)」 실증(實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註) 제일변로(齊一變魯)=논어(論語), 옹야편(雍也篇)에 「子曰,齊一變,至於魯,魯一變,至於道」 라고 있다. 「一變」이란 판 판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周易,夬卦,本義에 「剛長乃終,謂一變則爲純乾也」 라고 있다.

公께서 돌아가신지 이백년후(二百年後)에 퇴계(退溪) 이공(李公)(이황(李滉))이 公의 덕행(德行)을 흠모하여 시(詩)를 지은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성리연원불이명(性理淵源不易明) 성리학(性理學)의 연원(淵源)을 알기가 어렵더니

양양칭도이공명(襄陽稱道二公名) 양양(襄陽)에서 두 분 이름(註)을 칭송(稱頌)하며 말하도다.

여하저술무전후(如何著述無傳後) 저술(著述)을 후세(後世)에 전하지 않은들 어떠하랴

앙지고산독감정(仰止高山獨感情) 산(山)처럼 높이 우러러

정(情)을 느끼면 그만이지

주(註) 두 분이란 공과 스승이자 장인(丈人)인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을 말한다. 양양(襄陽)은 지금의 예천(醴泉)이다.

이는 대개 공과 조(趙)선생이 남기신 글이 많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아까워한 것이다.

공은 또 향중(鄉中)의 장보(章甫)(=진신(縉紳))들과 의논하여 예천향교(醴泉鄉校)를 세워 공자(孔子)·맹자(孟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홍유후(弘儒侯)(설총(薛聰))·문창후(文昌侯)(최치원(崔致遠))의 글을 가르치며 손수 현판(懸板)을 써서 달았다고 한다. 공이 그렇게 선현(先賢)을 흠모(欽慕)함과 윤상(倫常)을 밝히려는 정성(精誠)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우리 현씨(玄氏)는 시랑(侍郎) 평장사(平章事) 연산군(燕山君)이시며, 시호(諡號)는 경헌공(景憲公)이신 휘(諱) 담운(覃胤)의 후손이며 그 아드님 휘(諱) 덕수(德秀)는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치사(致仕)하시고 영변(寧邊)의 남악사(南嶽祠)에서 제향(祭享)을 모신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원열(元烈)이시니 벼슬은 태복윤(太僕尹)이시고, 증조(曾祖) 휘(諱) 경여(敬輿)는 전객령(典客令)을 하시고 우참찬(右叅贊)에 증직(贈職)되셨고, 할아버지의 휘(諱)는 금(鎭)이시니 좌참찬(左叅贊)을 하시고 아버지의 휘(諱)는 치룡(致龍)이시니 도첨의시사(都僉議寺事)를 하시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셨다. 선대(先代)의 기록(記

錄)은 대부분 없어진 것이 많아서 대동보(大同譜)에 의하여 기술(記述)할 수 밖에 없었다.

공의 휘(諱)는 옥량(玉亮)이고, 자(字)는 채상(采相)이고, 호(號)는 사월(沙月)이시니 연주인(延州人)이다. 좋은 집안의 빛나는 후손으로 태어나 일찍이 과거(科擧)에 올라 두드러지게 종백(宗伯)(=예조판서(禮曹判書)의 별명(別名))에 승진(陞進)하셨는데 나라의 운(運)이 다하게 되자 벼슬길을 사절(謝絶)하고 고향(故鄉)에 숨어 살며 영재(英材)를 기르고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 묘소(墓所)는 예천군(醴泉郡) 지보면(知寶面) 소화리(所華里) 우봉산(牛峰山) 건좌(乾坐)의 언덕에 계시다.

배위(配位) 남양(南陽)(금진보운(今眞寶云))조씨(趙氏)는 문정공(文貞公) 휘(諱) 용(庸)의 따님이신데 묘(墓)는 예천(醴泉) 신당동(神堂洞)이나 지금은 실전(失傳)되었다. 삼남일녀(三男一女)를 낳으시니 맏이 용무(用武)는 부정(副正)을 하였는데 친명(親命)으로 벼슬길에 대한 마음을 끊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다가 그대로 늙어 앉아 살면서 백성들에게 농桑(農桑)을 가르치니 그 덕택(德澤)에 한 고을이 편안하였다. 다음 용휴(用休)는 벼슬이 사평(司評)이고, 다음 용부(用富)는 판윤(判尹)으로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어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손수 녹권(祿券)을 써 주었다. 딸은 진사(進士) 평산신유(平山申維)에게 시집갔다.

손자(孫子) 규(珪)는 정랑(正郎)을 하고 이조참판(吏曹叅判)에 증직(贈職)되었다. 경조(景祚)는 군수(郡守)이고 명조

(命祚)는 통덕랑(通德郎)이고, 광조(光祚)는 참봉(參奉)이고, 양적(良績)은 교리(校理)이고, 백(白)은 동정(同正)이다. 증손(曾孫) 득형(得亨)은 현령(縣令)인데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고, 득리(得利)는 문과(文科)를 거쳐 판관(判官)을 하고 함길도(咸吉道)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고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순국(殉國)하였다. 전(填)은 목사(牧使)이고, 우(佑)는 진사(進士)이고, 후택(厚澤)은 우후(虞侯)이고, 정(禎)은 학생(學生)이고, 존부(存夫)는 판관(判官)이다. 이 이후로 자손(子孫)이 번성(繁盛)하게 퍼져나가 전국(全國)에 흩어져 사는데 그 자손(子孫)은 수만명(數萬名)이나 된다.

후예(後裔)의 증손(宗孫)은 보공장군(保功將軍) 충순위(忠順衛)요, 분(賁)은 감찰(監察)·현감(縣監)을 지내고, 태시(太始)는 부사(府使)이고, 효복(孝福)은 무과(武科)를 하여 첨정(僉正)을 지냈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參與)하였으며, 구(球)는 현감(縣監)이고, 련(璉)은 인의(引儀)이고, 덕원(德元)은 군수(郡守)이고, 덕욱(德郁)은 무과(武科)를 한 좌부장(左部將)이고, 덕윤(德潤)은 군자정(軍資正)으로 가선(嘉善)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덕량(德良)은 무과(武科)를 하여 비변사(備邊司)에 속(屬)했는데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되었고, 덕옹(德顙)은 군수(郡守)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었고, 덕룡(德龍)은 군수(郡守)이고, 덕승(德升)은 문과(文科)를 하여 정랑(正郎)·지평(持平)·사예(司藝)를 지냈는데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이 그 당시 세상에서 으뜸이었다. 세상에

서 희암선생(希菴先生)이라고 부르며 천안(天安)의 육현사(玄沙)에서 제사(祭祀)를 받든다.

간(侃)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고 지도(志道)는 시묘(侍墓)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호위(護衛)한 일이 있고, 일대(一大)는 군기시(軍器寺) 판관(判官)이고, 상벽(尙壁)은 세마(洗馬)이니 세상(世上)에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분으로 불렸고, 약호(若昊)는 문행(文行)이 있으며 기절(氣節)이 높았고, 이규(以規)는 문학(文學)이 깊고 높아 관북명유(關北名儒)가 되었고, 봉점(鳳漸)은 문학(文學)이 고명(高明)하고 효행(孝行)으로 여러번 표창을 받았으며, 진상(鎭商)은 문과(文科)에 올라 사간(司諫)·부사(府使)를 하였고, 영기(永基)는 효우(孝友)와 경학(經學)으로 이름났고, 익동(翼東)은 종사랑(從仕郎)인데 널리 종족(宗族)을 찾아내어 신축년(辛丑年)의 <사수보(四修譜)>를 간행(刊行)하였고. 익수(翼洙)는 문행(文行)이 있었고, 준호(俊鎬)는 참봉(參奉)인데 재산을 모았으나 산재(散財)도 잘하여 성칭덕의(盛稱德義)에 대하여 칭송(稱頌)이 성대(盛大)하였다. 석호(錫虎)는 국회의원(國會議員)과 내무(內務)·국방장관(國防長官)으로 정치(政治)의 업적(業績)이 컸고, 이름이 온 세상에 떨쳤는데 종당(宗黨)을 규합(糾合)하여 대종회(大宗會)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寄與)를 하였다. 석주(錫朱)는 육군소장(陸軍少將)으로 안보회의상임위원(安保會議常任委員)을 하였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아! 진실로公께서 당시(當時)에 새우신 충의(忠義)와 덕

행(德行)이 이처럼 높았으니 돌아가신 후에 의당(宜當)히 높이고 숭앙(崇仰)하는 의전(儀典)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수백년(數百年)을 쓸쓸하게 내려와 그 훌륭한 업적(業績)을 천명(闡明)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뜻 있는 사람의 한(恨)이 되어왔다. 후손(後孫)들이 묘갈(墓碣)을 세우려 하면서 와서 글을 청(請)하니 내 박식(薄識)한 것을 생각하여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세덕록(世德錄)에 의거하여 이상과 같이 서문(序文)을 기록(記錄)하였다. 명문(銘文)은 다음과 같다.

천생철현(天生哲賢) 하늘이 철인(哲人)과 현인(賢人)을 내시는 것은

용시국광(用是國光) 이 분들로 나라를 빛나게 하려는 뜻이로다.

유공진퇴(維公進退) 공의 나아가고 물러나심에 따라
도학뢰창(道學賴彰) 도학(道學)이 그 덕택(德澤)에 밝아졌도다.

조등문원(早登文院) 일찍이 문과(文科)에 오르시니
사필충량(史筆忠良) 역사(歷史)를 기록하심에 충직(忠直)하고 뛰어나셨도다.

이력청현(履歷淸顯) 청직(淸職)과 현직(顯職)을 두루 거치시니

택가만맹(澤加萬氓) 은택(恩澤)은 온 백성에 더하였도다.
국운성쇠(國運盛衰) 국운(國運)의 창성(昌城)과 쇠퇴(衰退)는

제시천상(繫是天常) 바로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라.

고려명진(高麗命盡) 고려의 명(命)이 다하고
 조선신황(朝鮮新皇) 조선이 새로이 왕조(王朝)를 세우도다.
 퇴거용궁(退居龍宮) 물러나 용궁(龍宮)에 은거(隱居)하시니
 사우동상(師友同床) 사우(師友)들이 한 자리에 모이도다.
 도의성리(道義性理) 도의(道義)와 성리(性理)
 학덕문행(學德文行) 학덕(學德)과 문행(文行)을
 강론제유(講論啓牖) 강론(講論)하고 제도(啓導)하시니
 회자일향(膾炙一鄉)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藉藉)하였도다.
 문화윙창(文化蔚暢) 아름다운 교화(敎化)가 윙창하니
 흥기가방(興起家邦) 온 나라를 흥기(興起)시키도다
 첨피우봉(瞻彼牛峰) 저 우봉산(牛峰山)을 바라보라!
 석인지장(碩人之藏) 크고 훌륭한 분이 묻히신 곳이로다.
 과자필식(過者必式) 지나가는 자(者)들이여!
 시아명장(視我銘章) 내가 새긴 글을 볼지어다.

一九九二年陰十月十日

죽후손 극무총리 승종(勝鍾)이 삼가 지음.

29.永慕祠創建記

慶尙北道醴泉郡知保面所華里東幕牛峰山判書公墓西園創建崇祠
 楣曰永慕嘻哉其意義實巍大哉自六百餘年前以來吾醴泉玄門之延
 州玄氏正統奉祀宗孫判書公胄裔以簪纓世族代代堅守儒風及崇祖
 敬宗之士大夫家門而因於滄桑之餘判書公以下諸先之香火尙能世
 世保守不替也嗚呼此延州玄門之矜伐判書公後裔之自負矣然乙酉
 光復後國運否塞爲南北分斷嘗未曾有同族相殘動亂各門皆流離離
 散之際吾延州玄門亦不可爲例外也卽判書公上代祖幽宅在北側地

域不可往來時享參拜不可哀痛莫大於此哉俗言曰衣食足然後知禮儀哉然不曰人人有誠則事無不成乎去三年前延州玄氏奉祀宗孫縣令公派醴泉玄門合謀宗中判書公上代先祖祠宇建立焉爲先之誠忠兮至極戾天也於是受納誠金備購資材經之營之庶民攻之經始勿亟不日成之於戲玄門之光榮兮醴泉之史蹟也今日之爲先兮後日之庭訓也此宮奉安先祖始祖諱覃胤公高麗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諡景憲二世諱德秀公兵部尙書星山府院君享寧邊南嶽祠宇三世諱元烈公太僕尹四世諱敬輿公典客令五世諱嶽公左贊成六世諱致龍公都僉議寺事贈領議政六位也於是乎建祠主管之一人而於推進委員長與諸推進委員及納誠金之全宗人不惜勞苦之諸人元鶴洞全宗人獻謝而合掌祝福焉

西紀一九九九年己卯仲秋節

儒道會 崔權興 謹撰

二十四世孫 炳龍 敬書

영모사창건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동막 우봉산 판서공의 묘서쪽에 영모사가 창건됨은 기쁜 일인 동시에 그 의의가 실로 위대합니다. 육백여년 전부터 우리 예천현문은 연주현씨 정통봉사 종손은 판서공의 후손으로 대대로 벼슬에 나아가 송조경종의 유품을 글에 지켜온 사대부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의 변천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판서공 이하 모든 선조 분들의 향사를 매년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연주현문의 자랑인 동시에 판서공 봉사 종손의 자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국운이 비색하여 나라가 남북

으로 분단되고 전대미문의 동족상잔의 동란이 일어나 각 문
중이 거개가 헤어짐을 당할 때 우리 연주현문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판서공 상대의 유택이 북측 지역에 있어 왕래가 불가해서
시향참배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애통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속담에 의식이 족한 연후에 예의를 안다고 하였
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마다 성의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년 전에 연주현씨 봉사종
손인 현령공파 예천 현문은 종중의 합의에 의하여 판서공 상
대 선조님을 봉안할 사당 건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극함
이 하늘에 알려졌는지 삼년동안 전종인의 헌성금이 모아져서
자재가 구입되고 예천종중이 합심하여 헌신적이고도 희생적
인 노력의 결과로 사우를 준공케 되었습니다.

이는 현문의 영광이며 예천의 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오
늘날에 조상을 위함이요 후일의 정훈이 될 것입니다. 본 사
당에 봉안될 판서공 상대 조상님은 시조 휘 담윤공은 고려대
장군 분하시랑 평장사로 연산군에 봉작을 받으시고 시호는
경헌공이시며,二世 휘 덕수공은 병부상서 성산부원군을 지
내시고 영변 남악사에서 제향을 모십니다.三世 휘 원열공은
태복윤이시고,四세 휘 경여공은 전객령이시고,五세 휘 금
공은 좌찬성이시고,六세 휘 치룡공은 도첨의시사로 영의정
에 증직되셨는데 이 여섯 분의 조상이십니다.

이 사당 창건을 주관해 온 한 사람으로 사당건립추진위원
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여러분과 창건성금을 내주신 전종인의

노고와 특히 원학동 전종인의 물심양면의 헌성에 축복을 빕니다.

서기一九九九년기묘 중추절

유도회 최권홍이 삼가 짓고

二十四世손 병용 삼가 쓰다.

30.副正公事蹟

公諱用武判書公長子也判書公雖身爲宰相此是迫於君命而非其素志也常有深隱遯世之意而未遑故公遵承親意及遭巨創襄奉于所洞而三年廬墓之後因卜居于安峴之西十里地羅浮山下枝村村在洛江之北馬峴之東蓋此地極其幽深入烟不通處也公乃伐木通道薙草拓田躬率奴僕務勸農桑韜晦踪跡而絕念世路故官至副正云墓在宗基後數百步許壬坐之原

부정공사적(副正公事蹟)

公의 휘(諱)는 용무(用武)시니 판서공(判書公)의 장자(長子)이다. 판서공(判書公)의 몸은 비록 재상(宰相)이셨으나 이것이 공의 본의(本意)가 아니시고 항상(恒常) 산(山)골에 들어가셔서 험난(險難)한 세상사(世上事)를 잊으시려 하셨으나 이루지 못하시니 공이 부친(父親)의 뜻을 준수(遵守)하시다가 급기야(及其也) 친상(親喪)을 맞게 되어 소동(所洞)에 장례(葬禮)를 모시고 三年동안 시묘(侍墓)하신 뒤에 안현동(安峴洞) 서(西)쪽 십리(十里)밖 나부산(羅浮山)밑 지촌동(枝村洞)에서 사셨다.

이 동리(洞里)는 낙강(洛江)의 북(北)쪽이며 마현동(馬峴洞)의 동(東)쪽이다. 대체로 이 곳은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통로(通路)조차 없어서 공께서 손수 나무를 벌채(伐採)하시어 치도(治道)하시고 산(山)에 풀을 깎아 밭을 개간(開墾)하시고 노복(奴僕)과 더불어 농사(農事)에 힘쓰시며 공의 종적(踪跡)을 감추시고 세상사(世上事)를 단념(斷念)하셨으므로 벼슬이 부정(副正)(돈녕부(敦寧府)에 속한 벼슬로 종삼품(從三品))에 그치셨으니 실(實)로 공의 충의심(忠義心)을 가(可)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묘소(墓所)는 사시던 터의 뒤 수백보(數百步) 떨어진 임좌(壬坐) 언덕에 제시다.

31. 司評玄公祭壇碑銘并序

公諱用休字禹律號月菴姓玄氏延州人也高麗毅宗朝有諱覃胤官至將軍至明宗時討平趙位寵亂錄元勳拜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諡景憲乃鼻祖也至諱德秀明宗四年與父公及二弟討位寵有大功拜內侍祇候出爲慶尙道按廉使入爲兵部郎中神宗朝拜殿中監至兵部尙書初封八莒君後封星山府院君享寧邊南岳祠生諱元烈太僕尹生諱敬輿中顯大夫典客令生諱嶽左贊成生諱致龍都僉議寺事生諱玉亮號沙月入李朝太祖時通憲大夫行判典儀寺事與禮曹判書同品選人望之高始居龍宮之神堂洞教導後學文化大行貞敬夫人眞寶趙氏文貞公庸女是爲公之考妣也公太祖六年丁丑登文科掌隸院司評兼開國功臣有御旨職帖其他行蹟皆逸而無傳配東萊鄭氏兩位墳墓在安東云而無眞的之地有子三人長景祚郡守孫塏牧使仲命祚孫佑季光祚餘不盡錄嗚呼神之在天下如水之在地中用誠求之必有所得故詩曰神之格思不可度思古人祭壇之義抑或由此生歟今去公之時年至五百代近二十桑瀾屢變兵燹多閱以至塚宅之失傳孝子慈孫之茹痛含恨曷有其極也主營孫洛植乃謀於宗將欲壇而祭之使族人奎錫問

銘於余故按其譜乘所載撰之如右銘曰

邈矣惟公代序綿邈日月滋久失傳幽宅山有九疑山無^봉卜候誰徵之
莫可真的乃禪乃封壇高七尺神必洋洋於昭來格

壬戌流火節上浣

仁川 張炳達 撰

사평현공제단비문 병서

공의 휘(諱)는 용휴(用休)요, 자(字)는 우율(禹律)이며, 호(號)는 월암(月菴)이며, 성(姓)은 현씨(玄氏)며 연주인(延州人)이다. 고려 의종조(毅宗朝) 휘(諱) 담운(覃胤)이 있어 벼슬이 대장군(大將軍)이었는데 명종조(明宗朝)에는 조위총(趙位寵)의 난(亂)을 평정(平定)하시어 고려원훈(高麗元勳)으로 기록(記錄)되었으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의 벼슬에 올랐으며, 연산군(延山君)으로 봉작(奉爵)되었으며 시호(諡號)는 경헌(景憲)이니 이 분이 바로 시조(始祖)이다. 이세(二世) 휘(諱) 덕수(德秀)는 고려명종(高麗明宗)四年에 아버지와 동생 휘(諱) 이후(利厚) 휘(諱) 덕유(德裕)와 더불어 위총(位寵)의 난(亂)을 토벌(討伐)하여 대공(大功)을 세워 내시지후(內侍祗候)의 벼슬에 올랐으며 후(後)에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및 병부낭중(兵部郎中)에 오르시고 신종조(神宗朝)에는 전중감(殿重監)이 되시고, 그 후(後)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오르셨다.

처음에는 팔거군(八莸君)에 봉작(奉爵)되셨다가 후(後)에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작(奉爵)되셨다. 그 아드님 휘(諱) 원열(元烈)은 태복윤(太僕尹)이며, 그 아드님 휘(諱) 경여(敬輿)는 중현대부(中顯大夫) 전객령(典客令)이시며 그 아

드님 금(鎡)은 좌찬성(左贊成)이시며, 그 아드님 휘(諱) 치룡(致龍)은 도첨의시사(都僉議寺事)이시며, 그 아드님 휘(諱) 옥량(玉亮)의 호(號)는 사월(沙月)이며, 조선조(朝鮮朝) 태조(太祖)때에 통헌대부(通憲大夫)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이시며(예조판서(禮曹判書)와 같은 품계(品階)) 인망(人望)이 높으셨다. 처음에는 용궁(龍宮)(예천(醴泉)) 신당동(神堂洞)에 사셨으며 후학교도(後學敎導)와 문화창달(文化暢達)에 크게 이바지 하셨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진보조씨(眞寶趙氏)는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의 따님이시니 이 분들이 공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公은 태조(太祖)六年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장예원(掌隸院) 사평(司評) 겸(兼)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어지(御旨)와 직첩(職帖)을 받았으나 다른 행적(行蹟)은 모두 잃어버려 전(傳)하는 것이 없다. 배위(配位)는 동래정씨(東萊鄭氏)이며, 양위분(兩位分)의 묘(墓)는 안동(安東)에 있다고 하나 그 지명(誌銘)을 알 수 없다. 슬하(膝下)에 아들 삼형제(三兄弟)를 두셨는데 장자(長子) 경조(景祚)는 군수(郡守)이며, 손자(孫子) 전(塏)은 목사(牧使)이고, 차자(次子)는 명조(命祚)인데 손자(孫子)는 우(佑)이고, 막내는 광조(光祚)이다. 나머지는 다 기록(記錄)하지 못한다.

오호(嗚呼)라 신명(神明)은 하늘에 계시며 물이 땅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성(精誠)껏 구(求)하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詩)에 이르기를 신명(神明)이 하감(下鑑)하심과 생각(生覺)은 가(可)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옛 사람들이 제단(祭壇)을 마련하는 뜻이 이와 같은 이유(理由)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공이 가신 시년(時年)이

오백년(五百年)이 넘었고, 근이십여상란(近二十餘桑瀾)에 여러번 병란(兵亂)을 겪어 총택(塚宅)이 실전(失傳)에 이르니 많은 자손들의 슬픔과 한(恨)됨이 어찌 지극(至極)하지 않으랴. 주손(胄孫) 낙식(洛植)이 곧 종중(宗中)과 상의(相議)하여 장차(將次) 단(壇)을 마련하여 제향(祭享)코자 족인(族人) 규석(奎錫)으로 하여금 나에게 명문(銘文)을 물어 왔기에 그 보첩(譜牒)에 실려 있는 바를 살펴보고 이상과 같이 지었으니 명(銘)에 이르기를,

까마득하게 멀도다

公이여 대서(代序)가 아득하게 이어졌도다.

일월(日月)이 오래되어 유택(幽宅)은 실전(失傳)했으니

산(山)은 구의산(九疑山)이 있고 사람은 그 묘지(墓地)를 점(占)칠 자(者)가 없도다.

누가 알아보아 증거(證據)를 대더라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도다.

이에 터를 닦고 봉단(封壇)을 하니 단고(壇高)는 칠척(七尺)이로다.

神明(神明)이 반드시 양양(洋洋)하시리니 여기에 밝게 내려오소서.

임슬유화절상완(壬戌流火節上浣)(서기(西紀)一九八二年)

인천(仁川) 장병규(張炳達) 찬(撰)

二十七世孫 인규(仁圭) 유희(洵鎬) 근해(謹解)

32.判尹公事蹟(公之事蹟遺失無傳故抄附其錄券)

公諱用富判書公季子也 太祖大王潛邸時殫誠保護及其龍飛竭忠翊贊故 太祖大王登極初以親筆書 賜錄券其略曰玄用富 錄券 王旨 御筆直下 行通訓大夫判尹 洪武二十六年九月日 洪武二十六年八月十日左承旨李懃次知口傳 王旨敷奏以言明試以功而報其庸者古之道也判校書監事文中大將軍趙卿等自 予潛邸安危注意艱險不避以至今日其褒賞之典有司舉行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舉其功前書雲正金寶前軍器寺監成乞等三十九員亦於 予出將入相三十餘年許身以死捍衛寡躬俾保生民又致坐成大業式至今休功誠不能忘也或適遼而舉義之日雖有不與焉者功安敢略乎其褒賞之典有司舉行 洪武二十八年二月初五日都承旨韓尙敬次知口傳 王旨思審是白內乎上頂功臣等或自 殿下潛邸之時服勤內外積其歲月及其凶徒謀亂請聲其罪以汨其謀爲白齊或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安危注意於 殿下諭德宣譽馴致今日爲白齊或於 殿下出將入相三十餘年間許身以死不避艱險捍衛 殿下馴致今日爲白齊或方 殿下卽位之初聞則未備而損益前朝盛時之制以飾宮儀爲白齊或方 殿下卽位之時在於日官謹卜天時勸登大位爲白齊爲等如 王旨內貌如功勞可尙是白教等用良更良功臣職名單子申(右錄券文)

판윤공사적(判尹公事蹟)

(公의 사적이 유실되어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 것이 없어 그
록권에서 초한 것임)

公의 휘(諱)는 용부(用富)이니 판서공(判書公)의 제삼자(第三子)시다.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아직 왕위(王位)에

오르시기 전(前) 사저(私邸)에 잠거(潛邸)(숨어 사시는 것)하실 때에 성심(誠心)을 다하여 보호(保護)하시고 또한 태조대왕(太祖大王)으로 등극(登極)한 후(後)에도 역시(亦是) 충성(忠誠)을 다하여 호위(護衛)하셨으므로 태조대왕(太祖大王)이 등극(登極)하시어 바로 녹권(錄券)(왕(王)의 뜻을 직접 써서 내리는 문서)을 친필(親筆)로 쓰시어 주셨다.

그 녹권(錄券)을 간략(簡略)하게 말하면 현용부(玄用富)의 녹권(錄券)이다. 행통훈대부판윤(行通訓大夫判尹)(정삼품(正三品) 지금의 시장(市長)급)에 명(命)한다고 어필(御筆)로 쓰시어 내리셨다. 이것이 홍무(洪武)二十六年(西紀一三九三年)九月이다. 또한 같은해 八月十日에 좌승지(左承旨)(승정원(承政院)에 속한 관청 지금의 청와대의 비서관) 이근(李愼)이 왕(王)의 뜻을 미리 차례로 본인(本人)에게 구두(口頭)로 전(傳)하고 난 다음에 왕(王)에게 보고(報告)하였다. 나를 위(爲)하여 수고(手苦)한 사람의 공로(功勞)를 밝혀서 보답(報答)하는 것은 고래(古來)로 내려온 상례(常例)이다.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승정원에 속한 정삼품(正三品)벼슬) 문중(文中)과 대장군(大將軍) 조정(趙倬) 등(等)은 내가 사저(私邸)에서 잠거(潛居)할 때부터 생명(生命)과 안녕(安寧)을 보호(保護)하고 그 위험(危險)을 무릅쓰고 금일(今日)까지 왔는데 공훈(功勳)을 포상(褒賞)하는 절차(節次)를 마련하여 유사(有司)를 거행(舉行)하라고 명(命)하였다.

왕지(王旨)는 「국가(國家)에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을 포상(褒賞)하는 것은 고래(古來)로부터 있는 법제(法制)이거

늘 하물며 건국초(建國初)를 맞이한 이 때 그 공로(功勞)를 표창(表彰)하는 것은 더욱 마땅한 일이라 하셨다. 전(前)에 명시(明示)한 운정(雲正)(벼슬 이름) 김보(金寶)와 전군기시감(前軍器寺監)(군기를 맡은 벼슬이름)성걸(成乞) 등(等) 삼십구명(三十九名)이 또한 내가 재위전(在位前)에도 전쟁(戰爭)이 나면 나아가 장군(將軍)으로 조정(朝廷)에 들어오면 재상(宰相)(충신(忠臣))으로서 자기(自己) 죽음을 맹서(盟誓)하고 나를 호위(護衛)하고 나아가 백성(百姓)을 살피주어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대업(大業)을 성공(成功)하게 되었으니 실(實)로 감사(感謝)하였으며 어찌 그 공(功)을 잊으리오. 혹(或)은 저 멀리 요동(遼東)에까지 가서 우리 의거(義舉)하든 날에 비록 참여(參與)치 못한 사람이 있으나 이 어찌 감(敢)히 빼놓을 수가 있으리오. 기(其) 포상(褒賞)하는 절차(節次)를 마련하여 거행(舉行)하라」 하셨다.

이것으로 홍무(洪武)二十八年(西紀一三九五年)二月初五日 에 도승지(都承旨) 한상경(韓尙敬)이 대왕(大王)의 이 같은 뜻을 미리 본인(本人)들에게 구두(口頭)로 전(傳)한 다음에 왕(王)에게 보고(報告)하였다. 공신(功臣)들이 하는 말이 전하(殿下)께서 잠거(潛居)하실 때부터 내무(內務)와 외무(外務)를 살펴보아 온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도 우리를 흉도(凶徒)라 하여 그 음모죄(陰謀罪)를 성토(聲討)하자는 모의(謀議)가 있으니 이 모의(謀議)를 봉쇄(封鎖)하자고 고(告)하는 신하(臣下)가 있는가 하면, 또는 혹 신씨(辛氏)(승려(僧侶) 신돈(辛旽)이)가 왕위(王位)를 뺏으려 함)가 왕위(王位)를 탈

위(奪位)하려고 혼란(混亂)을 극도화(極度化)하였을 때 정치(政治)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研究)하려면 제일(第一)먼저 전하(殿下)의 안위(安危)에 대(對)한 깊은 배려(配慮)와 덕(德)을 펴서 회유(回諭)하고 나아가 명예(名譽)를 선양(宣揚)하여야 백성(百姓)들을 평화(平和)롭게 유도(誘導)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신하(臣下)는 전쟁(戰爭)에 나가면 장군(將軍)이 되고 조정(朝廷)에 들어오면 재상(宰相)이 되어 전하(殿下)께 죽음으로써 맹서(盟誓)하여 삼십여년간(三十餘年間) 그 험난(險難)함을 물리치고 전하(殿下)를 호위(護衛)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혹(或) 다른 신하(臣下)는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시든 처음에 현행(現行) 국법(國法)이 미비(未備)하여 막히는 일이 있으면 고려전성기(高麗全盛期)에 백성(百姓)들이 평화(平和)롭게 지날 때의 법제(法制)를 본받고 옳지 못한 법규(法規)는 버리고 해서 국가(國家)의 안위(安危)를 보강(補強)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며 또 혹(或) 다른 신하(臣下)는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실 일자(日字)를 좋은 날로 택일(擇日)하셔야 한다고 여러 신하(臣下)들이 이 같이 상백(上白)하였다.

33. 贊成公事蹟

國朝人物誌云玄碩圭字德璋延州人護軍孝生子也聰慧奇偉西遊京師 世宗路見奇其狀貌召見于孝寧大君補第問其年對曰十七歲問其娶對曰未婚問以經史子集應對如流謂大君曰此兒必大起門戶雖出寒微將相豈有種乎願兄畜以爲婿大君以其子瑞原君之第二女妻

之世祖庚辰登文科性清介遇事敢言 成宗朝以其言行皆當於義不次超擢官至右贊成

國朝寶鑑云 成宗丙申七年都承旨柳輕以七年居職辭免 上謂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主言行皆當於義且使獄訟無冤滯今當右賢欲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對曰 世宗朝安崇善 世祖朝盧思慎皆以賢能超擢都承旨也 上乃以碩主代輕爲都承旨持平金彥辛劾玄碩主比之於盧杞王安石 上曰當遍問議政銓曹若無其實爾受欺君之罪否對曰臣當受極刑上乃召議政銓曹問之皆對曰臣不知其爲小人也於是 上下旨義禁府鞠彥辛禁府讞以欺妄律杖一百徒三年 上曰罪當死也何律之輕遂命押彥辛至政院鞠之中樞府事金紐上疏曰臺諫人主之耳目也言及乘輿至尊改容事關廊廟宰相待罪今碩主之爲君子爲小人臣未知之使碩主君子也而彥辛指爲小人亦不過錯料誤執况碩主不次超擢位列六卿可謂赫赫大臣彥辛微者披肝露膽敢爭於雷霆之下言雖不中有古骨鯁之風誠宜褒獎以勸士類而反抵於罪臣恐自此臺諫解體也 上曰彥辛自言身被極刑予當裁斷卿其退去仍命中官問彥辛曰汝今當死能知當初所執之誤耶對曰臣初不畏死亦不知所執之誤也於是 上教曰臨死不易辭信也卽命解枷就職無何諸諫官上疏匡救鞠諫官之過 上下教嘉矣○任士洪有罪削竄初士洪當上初年請罷內佛堂頗有聲稱 上亦嚮用然士洪外若嚴重內實陰邪好以機數傾陷人嘗嗾諫官劾去玄碩主規取都承旨又搆誣南孝溫朱溪副正沈源之罪將欲網打士類以媚悅於勳舊公議諸憤至是副提學俞鎮奉教表沿沫等上疏言都承旨任士洪陰隱邪佞凡古小人之態皆兼以有之其父元濬穢行惡跡著自 先朝請竄士洪父子以答天譴 上召兩館臺閣問之大司憲柳輕言誠如館疏所訴也 上卽命收士洪告身元濬不可以子罪及其父勿問應教蔡壽等諫曰臣等義不可與元濬同回旋於經筵乞罷臣等之職 上允之朱溪副正沈源奏曰

殿下之并罪兩館及士洪父子何哉士洪卽臣之姑母夫詳知其小人也
因歷數言奸邪狀 上復召沿沫等及士洪父子問其狀沿沫因面斥士
洪嗾諫官劾碩圭事士洪語屈不能辨 上乃教曰其復兩館人之職遂
命竄士洪○己亥十年二月平安道觀察使玄碩圭有治績 上以御書
褒之仍賜御衣法醢密陽邑誌云玄碩圭登第官至議政府右贊成(出
勝覽) 成宗大王朝恩寵殊隆柳子光與任士洪朴孝元等欲擠去子光
等謀敗反流東萊(出子光傳) 居府北大項里谷良洞(勝覽云谷陽村
部曲) 北有右贊成玄碩圭墓子坐原○孝寧大君第二子瑞原君案五
子五女第二女玄碩圭文科贊成諡夷安父護軍孝生(在璿源譜略)
又 贈諡文憲(在文衡錄)

찬성공사적(贊成公事蹟)

국조인물지(國朝人物誌)에 보면 현석규(玄碩圭)의 자(字)
는 덕장(德璋)이요 연주(延州)사람인데 호군(護軍) 효생(孝
生)의 아들로 지혜(智慧)가 총명(聰明)하고 기골(氣骨)이 위
대(偉大)하였다. 하루는 서울에 가서 유람할 때에 세종대왕
(世宗大王)께서 길에서 용모(容貌)가 비범(非凡)하고 재질(才
質)이 특이(特異)한 소년(少年)을 만나게 되어 공을 효령대군
(孝寧大君)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연령(年齡)을 물으니
대답(對答)하기를 십칠세(十七歲)라 하고, 또 결혼(結婚)했느
냐고 물은 즉 아직 혼인(婚姻)하지 아니했다고 대답(對答)하
니 또 물기를 들은 어느 정도(程度)나 읽었느냐고 물으니 경
서(經書)와 사기(史記) 제자백가집(諸子百家集)을 다 읽었다고
대답(對答)하는 말이 청산유수(靑山流水)와 같았다.

대왕(大王)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니 비록 한미(寒微)한 가정(家庭)에서 태어났으나 장수(將帥)나 재상(宰相)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원하건대 형(兄)님의 사위를 삼으소서」 하고 대군(大君)의 아들 서원군(瑞原君)의 둘째 사위로 맞이하게 하였다. 세조(世祖) 경진(庚辰)(西紀一四六〇年)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해서 벼슬에 나아가니 그 성품(性稟)이 청렴결백(清廉潔白)하여 모든 일을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처리(處理)하였다. 성종조(成宗朝)에 이르러 그 말과 그 행실(行實)이 의리(義理)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서 조정(朝廷)에 발탁(拔擢)되시어 그 벼슬이 우찬성(右贊成)에 까지 이르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종(成宗)七年 병신(丙申)(西紀一四七六年)에 도승지(都承旨) 유지(柳輕)가 七年동안 재직(在職)하다가 물러나게 되니 성종대왕(成宗大王)이 지경연사(知經筵事) 홍응(洪應)(경연청의 정삼품(正三品)벼슬)에게 말하기를 「형방승지(刑房承旨) 현석규(玄碩圭)는 그 언행(言行)이 일치(一致)하여 의리(義理)에 어긋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罪人)을 다루는 것이나 재판(裁判)을 옳게 하므로 원망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현석규(玄碩圭)를 도승지(都承旨)로 승진(陞進) 제수(除授)하고자 하는데 옛적에도 그러한 실례(實例)가 있었느냐」 고 물었다. 홍응(洪應)이가 대답(對答)하기를 「세종(世宗)때에 안승선(安崇善)과 세조(世祖)때 노사신(盧思愼)이 모두 어질고 매사(每事)에 능(能)했으므로 도승지(都承旨)로 발탁(拔擢)된 일이 있었다」 고 하니 왕(王)이 현석규(玄碩圭)로써 유지(柳

輕)를 대리(代理)하여 도승지(都承旨)(승정원(承政院)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의 벼슬)를 맡겼다.

그러나 지평(持平) 김언신(金彦辛)이 현석규(玄碩圭)를 모함하여 말하기를 중국(中國)의 노기(盧杞)와 왕안석(王安石)에 비유(比諭)하여 왕(王)에게 상소(上疏)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전조(議政銓曹)에게 물어서 너의 말이 거짓이라면 임금을 기만한 죄(罪)를 받아야 한다」 고 한 즉 대답하기를 「신(臣)들은 마땅히 극형(極刑)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은 의정전조(議政銓曹)를 불러서 물으니 모두 대답하되 「신(臣)들은 그 소인(小人)(모함한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칭(稱)한 것)됨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은 김언신(金彦辛)을 의금부(義禁府)에 하교(下敎)하여 가두라고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언신(彦辛)에게 거짓말 한 죄로 「곤장 일백(一百)대와 도형(徒刑)(옛날 형법(刑法)에 오형중(五刑中)의 하나 三年으로 하겠습니다」 한 즉 임금이 하시는 말이 「죄(罪)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인데 어찌 너무 경하게 다스리겠느냐」 하고 다시 언신(彦辛)을 정원(政院)으로 압송(押送)하고 극문(鞠問)(중한 죄인을 심문하는 것)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중추부사(中樞府事)(중추원의 종이품(從二品)벼슬) 김뉴(金紐)가 상소하기를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어 모든 일이 조정(朝廷)에 관계되는 것이옵니다. 죄(罪)지은 재상(宰相)은 그 죄(罪)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道理)이거늘 이제 현석규(玄碩圭)

가 군자(君子)인지 소인(小人)인지는 소신(小臣)이 알 수 없으나 석규(碩圭)가 과연(果然) 군자(君子)라 하면 김언신(金彦辛)이 그를 소인(小人)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석규(碩圭)가 발탁(拔擢)되어 육조판서(六曹官署)에 임용(任用)되니 훌륭한 대신(大臣)입니다. 언신(彦辛)은 소인(小人)으로서 간(肝)과 쓸개를 내놓고 감(敢)히 임금과 다투고자 하였으되 그의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하나 매우 단단하고 곧으므로 도리어 그를 가상(嘉尚)히 여겨 포상(褒賞)하면 선비들에게 좋은 일을 권유(勸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만약(萬若)에 죄(罪)를 준다면 임금을 간(諫)하는 대간(臺諫)벼슬은 이제부터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라고 상소(上疏)한 즉 임금이 말하기를 「언신(彦辛)이 스스로 극형을 감수할 것을 말하였으니 경은 물러가 있으라」 하였다.

이에 중관(中官)에게 언신(彦辛)을 문초하라 명(命)하였다. 중관(中官)이 언신(彦辛)에게 문초하되 「네가 지금 죽는다면 처음에 잘못 이야기한 죄(罪)를 알겠느냐」 언신(彦辛)이가 대답(對答)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저의 고집에 대한 잘못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령(命令)하기를 「죽을 때가 되어도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은 신의(信義)가 있음이니 장(壯)하다」 하고 곧 형벌 기구(器具)에서 몸을 벗기라 하여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모든 간관(諫官)들이 간관(諫官)의 잘못을 죄(罪)

로 삼지 아니할 것을 상소(上疏)하니 웃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모두 좋아하였다. 임사홍(任士洪)은 죄(罪)가 있어서 관직(官職)이 삭탈되고 귀양가게 되었다. 처음에 사홍(士洪)은 임금이 등극(登極)한 첫 해에 경복궁(景福宮)안에 있는 내불당(內佛堂)(궁(宮)안에 있는 절)을 없앨 것을 청(請)하여 성문(聲聞)이 있었으며 이 때에 임금도 그의 말을 믿었다. 사홍(士洪)의 성질(性質)은 겉으로는 엄하고 강직한듯 하고 안으로는 음흉(陰凶)한 마음을 품어 기회(機會)를 노려 남을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성품(性稟)이다.

일찌기 간관(諫官)을 시켜 현석규(玄碩圭)를 몰아내고 도승지(都承旨)를 빼앗으려 했으며, 또 남효온(南孝溫) 주계(朱溪) 부정(副正) 심원(沈源)이 죄(罪)가 있다하여 무고(誣告)하여 선비들을 몰아내려 했다. 이 일을 위(爲)하여 사홍(士洪)은 공로(功勞)가 큰 원로대신(元老大臣)에게 아첨했다. 이 때 이에 대하여 여러 신하(臣下)들이 의론(議論)하고 모두 분개(憤慨)했던 것이다. 부제학(副提學)(홍문관(弘文館) 정삼품(正三品) 벼슬)유진(兪鎭)과 봉교(奉敎)(벼슬이름) 표연말(表沿沫) 등(等)이 상소(上疏)하기를 임사홍(任士洪)은 음흉하고 간사하게 아첨하여 옛적 소인(小人)의 태도(態度)를 다 겸(兼)하여 있으며 그의 부친(父親) 원준(元濬)도 더러운 행실과 나쁜 실적(實跡)이 현저(顯著)하여 선조(先祖)때부터 사홍(士洪) 부자(父子)를 귀양 보내기를 청(請)한 바 있으니 귀양 보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임금은 대답하기 위하여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

館)·사헌부(司憲府)의 고관(高官)들을 불러들여 물으니 대사헌(大司憲)(사헌부(司憲府) 종이품(從二品) 벼슬) 유지(柳輕)의 이야기가 상소문(上疏文)과 같았다. 임금은 사홍(士洪)의 말을 거두고 「그의 부친(父親) 원준(元濬)에 대(對)하여는 죄상(罪狀)이 부모(父母)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묻지 말라」 하였다. 응교(應敎)·채수(蔡壽) 등(等)이 임금께 간(諫)하기를 「의리를 볼 때 원준(元濬)과 함께 경연(經筵)할 수 없을 형편(形便)이니 지경연사(知經筵事)의 직(職)을 없애고 소신(小臣) 등(等)을 파면(罷免)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은 허락(許諾)하였다.

이에 주계(朱溪) 부정(副正) 심원(沈源)이 아뢰기를 「전하(殿下)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및 사홍(士洪) 부자(父子)에게 어떻게 해서 같이 죄를 주는 것입니까? 사홍(士洪)은 저의 고모부(姑母夫)로서 간사한 말과 행동(行動)으로 보아 소인(小人)이 분명(分明)합니다」 하니 임금은 다시 연말(沿沫) 등(等)과 사홍(士洪)의 부자(父子)를 불러서 그 죄상(罪狀)을 물으니 연말(沿沫)이 사홍(士洪)의 면전(面前)에서 그가 간관(諫官)을 시켜 석규(碩圭)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말을 하자 사홍(士洪)은 말이 막혀 대답(對答)을 못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관(藝文館)·홍문관(弘文館)에서 파직(罷職)된 사람들의 벼슬을 부활(復活)시키고 임사홍(任士洪)을 귀양보내라」 하였다.

세조(世祖)十年二月에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현석규(玄碩圭)는 행정(行政)을 잘해서 임금께서 친필(親筆)로 쓴

상(賞)을 주고 의복(衣服)과 약주(藥酒)를 주었다. 밀양읍지(密陽邑誌)를 보면 현석규(玄碩圭)는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벼슬이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에 이르렀으며 성종대왕(成宗大王)때에 은총(恩寵)이 자못 높으니 유자광(柳子光)이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과 더불어 쫓아내려 하다가 도리어 자광(子光)이 패(敗)하여 동래(東萊)로 귀양갔다. 부북대항리(府北大項里) 곡량동(谷良洞)에 살으셨으며 승람(勝覽)에 의(依)하면 곡양촌(谷陽村) 부곡북(部曲北)쪽 자좌(子坐)에 묘소(墓所)가 있으시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둘째 아들 서원군(瑞原君)은 오남오녀(五男五女)를 두셨는데 둘째 딸이 공의 부인(夫人)이시며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시고 시호(諡號)는 이안(夷安)이다. 부친(父親)은 호군(護軍)(무관(武官)으로 정사품(正四品) 벼슬)이며 휘(諱)는 효생(孝生)이시다. (선원록(璿源錄)에 있음) 또 추증(追贈)으로 시호(諡號)를 문헌(文憲)으로 내리었다. 이것이 문형록(文衡錄)에 기록(記錄)되어 있다.

34. 贊成公神道碑銘并序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吏曹判書弘文館大提學原任奎章閣直提學贈諡文憲號清湍玄公碩圭延州人也公之鼻祖諱覃胤以高麗毅宗朝元勳官至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諡景憲實左海玄氏發源之始也景憲公擧三男長諱德秀以功封星山府院君官兵部尙書次諱利厚以功封廣城君官按廉使次諱德裕官金紫光祿大夫大司空西京

留守封檜原君諡正獻正獻生諱昇官吏部典書昇生諱璟以牧使官至閣門祇候璟生諱簡官安南都護府使常衣司徒簡生諱台老忠肅王朝登文科官至門下侍郎平章事台老生諱元義官樞密院直學禮曹典書元義生諱孝生始仕本朝官至少尹配貞夫人丹陽李氏叅議芾之女也以 世宗辛酉二月十七日生公公幼而慧悟長益博學魁偉特達之志氣兼備廉公正直之行義俱著自在韶胤時爲衆所敬服

世祖朝庚辰登第歷敷清顯屢遷至舍人考諸國朝寶鑑槩可見其詳矣其在 成宗丙申都承旨柳輕以七年居職辭免 上謂知經筵事洪應曰刑房承旨玄碩圭言行皆當於義且使獄訟無冤滯今當右賢超授都承旨於古有例否應以 世宗朝安崇善 世祖朝盧思慎對之竟超授都承旨後歷大司成兵吏曹判書又拜叅贊贊成越三年己亥公以平安道觀察使大著聲績至有登聞於 朝而御衣冑醢與御書并下光輝朗耀特降褒異之恩是公當日際遇之盛無不由於躬行心得其修齊治平之大要使斯君爲堯舜之君而使斯民被堯舜之澤者也至若媚嫉賢能之如柳子光任士洪輩以公位望隆赫一則嗾諫官劾奏一則設權謀擠去而因奉教表公沿沫之疏彈面斥俱伏蔽賢之科而并用竄逐之典是公忠信質直屹然若砥柱撐立百道狂瀾有不能傾陷者也而運之攸否智焉而所不免也賢焉而所不免也逮夫戊午士禍之網打清流也公執義正大坐流嶺表之密陽郡以終餘年壬戌十月五日公損館之日也噫公之生其真降自喬嶽遭遇聖明章章焉有功業之可稱則公之沒其必上爲列星播傳聲牙炳炳焉節義之可尚而兵燹屢經文獻爽實掌銓衡二十年名顯之蹟僅存一二於國乘邑誌者豈不惜哉郡之下西面谷良里內洞子坐原是公禮葬之也公之沒自 上特憐其苦心秉直遣地方官致祭仍又 賜牌而樹封之公之存沒間知遇也禮遇也何其盛矣配貞敬夫人全州李氏瑞原君案第二女孝寧大君補孫女也以 世宗壬戌九月十五日生卒於 中宗癸酉三月十一日與公同原異兆而葬之

公舉二男一女男長俊 成宗朝文科官司諫次健系士元后官沔川郡
守女適廣州李世匡文承旨俊長子思肅蔭縣監次思傑次思弼官忠順
侍衛次思佑蔭沔川郡守思肅子瑾通德郎女適都正完山李壽甲思傑
子琢思弼子珽蔭叅奉璫琳琦巡察使璉文科正言瑗珉固城縣令璞思
佑子仁居義居瑾長子守諫蔭府使次守儉蔭叅奉女適廣州李之蕃守
諫子虎蔭副司直玆以降雲仍寔蕃簪組相承達官名碩之爲世所推者
亦多有之始知公英毅不昧之令留有餘不盡之福以還子孫也明矣噫
公塋域之不幸失傳迄爲數百歲而 上皇三十九年壬寅秋公之十五
代孫叅將暎運奉命視察於嶺南諸郡事既訖取考密陽邑誌所載及四
標坐向之昭詳符合者藁荒埋沒之兆尋驗而改築之前後犯葬之塚照
法而掘去之實名祖肖孫之誠意所格而抑其非 聖恩攸暨耶國內士
林之聳動觀瞻者尤以公不祧 恩典之獨後於戊午諸賢舉懷咨鬱乙
巳秋呈籲禮院仰請奏明于 淵鑑之下而竟因國家多事未克稟裁其
或期數有待而然歟公之嗣孫從二品內藏院卿昌原府監理學杓素著
忠孝今欲豎碑墓道銘而勅之壽其傳於來裔袖其家乘與國史野乘之
所略者來示不佞懇之以一言以余不文雖不足萬一揄揚然若公之勲
業昭著志節卓犖有不泯於公議藉蔚玆庸撫其槩而系之以銘銘曰
昭代方興爰有哲人緬惟我公早擢臣隣臯陶平允賈誼超遷睠彼西土
惠洽生民金縷玉液 恩數頻繁宵小喧虺在公無損陽九遭剝蕙歎芝
焚玦淚南荒悠悠白雲旣賄且隧禮云自天碩果懷仁慶延後昆載新瞻
掃理無終湮有碑斯豐屹于山巔以永來世於乎不顯

上之卽昨四十三年丙午七月 日

外裔 內部大臣宮內府特進官 海平 尹用求 謹撰

찬성공신도비명병서(贊成公神道碑銘并序)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규장각(奎章閣) 직제학(直提學) 시호(諡號)는 문헌(文憲)이요, 호(號)는 청단(淸湍) 현공석규(玄公碩圭)는 연주(延州)사람이다. 공의 시조(始祖)는 휘(諱) 담윤(覃胤)인데 고려의 종(高麗毅宗)때 국가(國家)에 공로(功勞)가 큰 원훈(元勳)으로서 문하시랑(門下侍郎)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러 연산군(延山君)에 봉(封)해졌다. 시호(諡號)는 경헌공(景憲公)이며 우리나라 현씨(玄氏)의 시조(始祖)이다.

경헌공(景憲公)은 아들 삼형제(三兄弟)를 두셨는데 맏아들의 휘자(諱字)는 덕수(德秀)로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벼슬은 병부상서(兵部尙書)이며, 둘째아들의 휘자(諱字)는 이후(利厚)이신 바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어 광성군(廣城君)에 봉(封)해졌으며 벼슬은 안렴사(按廉使)이다. 그 다음 셋째아들의 휘자(諱字)는 덕유(德裕)로서 벼슬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대사공(大司空)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지냈는데 회원군(檜原君)에 봉(封)해졌고, 시호(諡號)는 정헌(正獻)이다.

정헌공(正獻公)은 아들 휘(諱) 승(昇)을 낳으시어 이조전서(吏曹典書)(이조(吏曹)의 정삼품(正三品) 벼슬)요, 승(昇)은 아들 휘(諱) 경(璟)을 낳았는데 목사(牧使)로서 함문지후(閤門祗候)(정삼품(正三品) 벼슬)가 되고, 경(璟)은 아들 휘(諱) 간(簡)을 낳으시니 벼슬은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府使)(종삼품(從三品) 벼슬) 상의사도(常衣司徒)(어의(御衣)를 맡은 벼슬)이다. 간(簡)은 휘(諱) 태로(台老)를 낳았는데 충숙왕

(忠肅王)때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해서 벼슬이 문하시랑(門下侍郎) 평장사(平章事)가 되시고, 태로(台老)는 아들 휘(諱) 원의(元義)를 낳으시니 벼슬이 추밀원직학(樞密院直學)에 조전서(禮曹典書)(예조의 정삼품(正三品)벼슬)요, 원의(元義)는 아들 휘(諱) 효생(孝生)을 낳았는데 벼슬이 소윤(少尹)(벼슬의 종류)으로서 부인(夫人)은 단양이씨(丹陽李氏) 참의(叅議) 불(弔)의 딸이다. 이조세종(李朝世宗) 二十三年신유(辛酉)(西紀一四四一年)二月十七日에 공이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지혜(智慧)가 총명(聰明)하고 자라남에 따라 널리 배워서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고 굳센 의지(意志)와 청렴결백(清廉潔白)하고 정직(正直)한 행실(行實)과 의리(義理)가 갖추어져서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공경(恭敬)하고 감탄(感歎)하였다.

세조(世祖)六年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여러 벼슬과 사인(舍人)(의정의 정사품(正四品))등(等)을 지냈다는 것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자세(仔細)히 기록(記錄)되어 있다. 성종(成宗)七年에 도승지(都承旨) 유지(柳輕)가 칠년간(七年間) 벼슬자리에 있다가 그만두게 되자 임금이 지경연사(知經筵事) 홍응(洪應)에게 물기를 「형방승지(刑房承旨) 현석규(玄碩圭)는 언행(言行)이 모두 일치(一致)되고 죄인(罪人)에게 재판(裁判)을 하되 옳게 하니 그러한 자(者)에게 옛 부터 도승지(都承旨) 제수(除授)를 한 일이 있느냐」 물은 즉 그 대답이 「세종(世宗)때에 안승선(安崇善)이 있었으며, 세조(世祖)때에 노사신(盧思愼)이 있었다」 고 대답(對答)을 하였다.

드디어 석규(碩圭)에게 도승지(都承旨)를 제수(除授)하였다. 그 후(後)에 대사성(大司成)·병조(兵曹)·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으며 참찬(參贊)·찬성(贊成)을 지냈고, 삼년후(三年後)에는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큰 공로(功勞)를 세웠으므로 임금께 그 소식이 전해져서 임금이 의복(衣服)과 약주(藥酒)며 친필(親筆) 등(等)을 하사(下賜)하시고 또 많은 포상(褒賞)을 내리셨으니 그 영광(榮光)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程度)이었다. 포상(褒賞)을 받게 된 것은 공이 정사(政事)를 함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궁행실천(躬行實踐)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을 요(堯) 순(舜)임금과 같은 임금으로 만든 것이요, 백성(百姓)으로 하여금 요(堯) 순(舜)의 덕택(德澤)을 입은 백성(百姓)으로 만든 것이다.

공이 현명(賢明)하고 유능(有能)함을 시기(猜忌) 질투(嫉妬)한 자(者)는 유자광(柳子光)과 임사홍(任士洪)의 무리였다. 공의 지위(地位)가 높고 일신(一身)에 영화(榮華)를 누리는데 것을 떨어뜨리기 위(爲)해서 간관(諫官)을 시켜 권모술수(權謀術數)로 공을 제거(除去)하려고 하던 날 연말(沿沫)이라는 신하(臣下)가 상소문(上疏文)을 올리고 임사홍(任士洪)의 면전(面前)에서 그의 간악(奸惡)한 점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은 그를 귀양 보내고 어진 벼슬아치를 다시 임용(任用)했었다. 이렇게 된 것은 공의 임금에 대(對)한 충성(忠誠)과 신망(信望)때문이며 성품(性稟)이 곧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예(例)를 들면 돌기둥이 하늘높이 서 있는데 백길이나 뛰는 물

결이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운(運)이 막히면 지혜(智慧)롭고 현명(賢明)하여도 액운(厄運)을 면(免)치 못하는 것이다. 무오사화(戊午士禍)때 많은 선비가 희생(犧牲)되었다. 公도 정의(正義)롭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처신(處身)하였어도 밀양(密陽)에 귀양 가서 여년(餘年)을 사시다가 임술년(壬戌年)(西紀一五〇二年)十月五日에 손관(損館)사대부(士大夫)가 사망(死亡)한 것)하였다.

슬프도다. 公은 높은 태산(泰山)의 정기(精氣)를 타고 나서어 훌륭한 임금을 만나 그 공적(功績)이 더욱 뚜렷하였으니 가(可)히 칭송(稱頌)할만하다. 세상(世上)을 떠나신 후(後) 생전(生前)의 그 공적(功績)은 창공(蒼空)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뚜렷하여 그 절의(節義)는 가(可)히 많은 사람들에게 숭앙(崇仰)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난리(亂離)로 인(因)하여 그 많은 문헌(文獻)이 유실(流失)되어 이십여년(二十餘年) 관직생활(官職生活)의 자취가 겨우 국승읍지(國乘邑誌)에만 약간(若干) 남아있을 뿐이니 이 어찌 애석(哀惜)한 일이 아닌가.

밀양군서면곡양리내동(密陽郡西面谷陽里內洞) 자좌원(子坐原)에 분묘(墳墓)가 있다. 公이 서거(逝去)하신 후(後) 임금은 특별(特別)히 公의 생전(生前)에 남긴 공로(功勞)를 잊을 수가 없어서 지방관(地方官)을 시켜 제사(祭祀)지내게 했고, 또한 토지(土地)를 하사(下賜)하시어 公의 분묘(墳墓)를 영원(永遠)히 수호(守護)하도록 하시었으며 생전(生前)과 사

후(死後)에 대(對)한 예우(禮遇)가 얼마나盛大(盛大)하였던가. 公의 부인(夫人) 정경부인전주이씨(貞敬夫人全州李氏)는 서원군(瑞原君)의 둘째 딸로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손녀(孫女)이다.

세종(世宗)二十四年九月十五일에 태어나서 중종(中宗)八年三月十一일에 세상(世上)을 떠나니 公의 묘(墓)와 동원이조(同原異兆)에 장사(葬事)지냈다. 公은 이남일녀(二男一女)를 두었는데 장남(長男) 준(俊)은 성종(成宗)때 급제(及第)하여 벼슬이 사간(司諫)(사간부(司諫部) 정삼품(正三品) 벼슬)이요, 둘째 아들 건(健)은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고, 딸은 광주이씨세광(廣州李氏世匡) 문승지(文承旨)의 부인(夫人)이 되었다. 준(俊)의 큰 아들 사숙(思肅)은 음현감(蔭縣監)이었으며, 다음 사걸(思傑)과 사필(思弼)은 벼슬이 충순위(忠順衛)였으며 다음 사우(思佑)는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다. 사숙(思肅)의 아들 근(瑾)은 벼슬이 통덕랑(通德郎)(이조(李朝)때 정오품(正五品) 문관(文官)벼슬), 딸은 도정(都正)(이조시(李朝時) 종친부(宗親府) 둔녕부(敦寧府) 훈련부(訓練部)의 정삼품(正三品) 벼슬)벼슬에 있는 이수갑(李壽甲)의 부인(夫人)이다.

사걸(思傑)의 아들은 이름이 탁(琢)이요, 사필(思弼)의 아들 정(珽)은 음참봉(蔭參奉)으로 순찰사(巡察使)를 지냈으며, 진(璉)은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정언(正言)(이조(李朝)때 사간원(司諫院)의 정육품(正六品) 벼슬)을 지냈다. 다음 아들은 원(瑗)이요 민(珉)은 고성현령(固城縣令)이다. 막내아

들은 박(璞)이다. 사우(思佑)의 아들은 인거(仁居)·의거(義居)요, 근(瑾)의 맏아들 수간(守諫)은 음부사(蔭府使)를 지냈으며, 둘째 아들 수검(守儉)은 음참봉(蔭叅奉)을 지냈고 딸은 광주인(廣州人) 이지번(李之蕃)의 부인(夫人)이다. 수간(守諫)의 아들 호(虎)는 음부사직(蔭副司直)을 지냈다.

다음 대(代)부터도 높은 벼슬을 지내고 이름이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 영혼(靈魂)이 이 세상(世上)에서도 자손(子孫)들을 도와 무궁무진(無窮無盡)한 복(福)을 전(傳)하신 것이라고 하겠다. 슬프다 공의 무덤이 있는 곳을 잃어 버린지 백여년(百餘年)이 되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二十九年(西紀一八九二年)임진(壬辰) 가을에 공의 십오대손(十五代孫) 참장(叅將)(대한제국(大韓帝國)때 무관(武官))벼슬에 있는 영운(暎運)이 황제(皇帝)의 명(命)을 받들어 영남(嶺南) 여러 군(郡)을 시찰(視察)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공의 묘소(墓所)를 찾고자 밀양읍지(密陽邑誌)를 고찰(考察)하여 보니 읍지(邑誌)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것과 사표좌향(四標坐向)에 자상(仔詳)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서로 부합(附合)되므로 황폐(荒廢)한 무덤을 찾고자 범장(犯葬)(남의 산소(山所)의 경계를 침범하여 묘소를 쓴 것)한 무덤을 법(法)에 의(依)하여 파내어 찾아냈으니 자손(子孫)으로서의 성의(誠意)를 다한 것이며 임금이 베푸는 은혜(恩惠)가 망극한 것이 아닌가.

국내(國內)에 있는 훌륭한 선비들이 처음에는 공에게 혜택(惠澤)이 없었던 것을 민망(憫忙)히 여겼다. 을사추(乙巳

秋)에 예원(禮院)에 아뢰니 예원(禮院)이 직접(直接) 연감(淵鑑)에 상신(上申)하였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건대 국가(國家)가 다사다난(多事多難)해서 품의(稟議)하고 재가(裁可)할 여가(餘暇)가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公의 사손(嗣孫) 종이품(從二品) 내장원경(內藏院卿)을 지내고 창원부감리(昌原府監理)로 있는 학표(學杓)가 公의 충효(忠孝)에 대(對)한 것을 비(碑)에 새겨 세우고 후손(後孫)에게 전(傳)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승(家乘)과 국사야승(國史野乘)에 기록(記錄)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비문(碑文)을 지어 달라고 간곡(懇曲)히 부탁(付託)하여 왔으므로 글이 비록 부족(不足)하지만 公의 위대(偉大)한 업적(業績)과 뛰어난 지조(志操)와 절개(節介)를 여기에 소개(紹介)하려는 바이다.

평화(平和)로운 시대(時代)에 학식(學識)이 높고 사리(事理)에 밝은 위대(偉大)한 인물(人物)이 세상(世上)에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찬성공(贊成公)이시다. 일찌기 임금께서 발탁(拔擢)하시어 대신(大臣)의 지위(地位)에서 임금을 보필(補弼)하고 국사를 바로 잡은 것은 순(舜)임금때의 신하(臣下) 고도(皋陶)에 못지않고, 한(漢)나라 제국(帝國)을 일으킨 큰 정치가(政治家)며 학자(學者)인 가의(賈誼) 이상(以上)이었다. 민생고(民生苦)를 없애려고 혜택(惠澤)을 베풀었으며 그로 인(因)하여 임금께서 내리신 어주(御酒)를 받으셨으니 임금의 은총(恩寵)을 자주 받으신 것이다.

하늘밑에 벌레같은 간신(奸臣)의 무리도 公을 해(害)칠 수는 없었다. 사화(士禍)를 당(當)함에 조정(朝廷)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한탄(恨歎)하여 눈물을 흘리며 조정(朝廷)에서 물러간 후(後) 흰 구름을 밟삼아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게 사시다가 세상(世上)을 떠나셨다. 임금(王)이 상(賞)을 주고 치제(致祭)하여 증은 하늘이 내린 큰 결과(結果)이며, 또한 씨를 뿌리신 결실(結實)이시니 후손(後孫)에게 까지 경복(慶福)이 있을 것이다. 공의 무덤 곁에 우뚝 솟아있는 비(碑)는 영원(永遠)한 미래(未來)까지 변(變)함이 없으리라.

고종황제 즉위(高宗皇帝卽位)四十三年(西紀一九〇七年)七月

日

외 후손(外後孫) 내부대신(內部大臣)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근찬(謹撰)

35.兵使公事蹟

公諱明遠卽我鼻祖侍郎公九世孫令同正公諱繼龍曾孫也 世宗朝十一年己酉登武科屢遷至嘉善大夫行咸鏡道水陸兵馬節度使公天姿英毅氣宇恢廓風雲廟堂晝日三接受 命禦侮鎖鑰嚴密邊陲肅清晏然無事及其晚暮退休隱居於仁同加羅村庄以書籍自娛閨門雍睦有朝廷之禮焉以天年終 命葬于善山夢大面烏沙洞白虎麓西坐之原噫粵自龍蛇兵燹之後子姓離散零替家藏文籍盡爲遺失墓誌碑石歲久剝落後被冒葬者之所毀破行路爲之咨嗟其在雲仍云如之何哉往在 崇禎紀元後四丁未星州商翼慶山鶴來氏慨然追慕憑信於家乘古牒而尋得墓所改修隧道更置床石而掘去偷塚盖由外裔尹致膺之力也噫公之當世勲業照耀左海而文獻莫徵故老傳誦徒有口碑至今不泯烏得免墮地之責也茲當修譜之日略叙顛末以俟後日參考焉

移葬于永川大昌面江回之箔山茅堤內酉坐原

歲在甲子春

十七世孫 鍾澈 泣血謹書

병사공사적(兵使公事蹟)

公의 휘(諱)는 명원(明遠)이시니 우리 시조(始祖) 시랑공(侍郎公)의 구세손(九世孫)이요 영동정공(令同正公) 휘(諱) 제룡(繼龍)의 증손(曾孫)이시다. 세종조(世宗朝)十一年(西紀一四二九年) 기유(己酉)에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시어 여러 번 승진(昇進)하시어 함경도(咸鏡道) 수륙병마절도사(水陸兵馬節度使)를 역임(歷任)하셨다. 공께서는 원래(元來) 천품(天稟)이 영특(英特)하시고 강직(剛直)하시며, 또 기골(氣骨)이 장대(壯大)하시다. 국가(國家)에 변란(變亂)이 있게 되면 주상(主上)을 밤낮 세 차례씩 찾아뵈옵고 그 방어책(防禦策)에 대(對)한 명(命)을 받아 엄밀(嚴密)히 봉행(奉行)하여 변방을 숙청(肅清)하시고 평화(平和)스럽고 무사(無事)하게 하였다.

노후(老後)에 퇴임(退任)하시어 인동가라촌장(仁同加羅村庄)에서 은거(隱居)하시며 서적(書籍)과 벗하시어 자오(自娛)하시고 가정(家庭)의 의례(儀禮)를 조정(朝廷)의 의례(儀禮)에 준(準)하여 시행(施行)하시어 항상(恒常) 엄숙(嚴肅)하게 지내시다가 천명(天命)에 의(依)하여 서거(逝去)하셨다. 묘(墓)는 선산(善山) 몽대면(夢大面) 오사동(烏沙洞) 백호산(白虎山) 유좌원(酉坐原)에 모셨으나 묘소(墓所)가 병란중(兵亂

中) 자손(子孫)들이 모두 각처(各處)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겸(兼)하여 빈한(貧寒)하였으므로 묘소(墓所)도 실전(失傳)하게 되고 소장(所藏)하였던 서적(書籍)조차 유실(遺失)되었으며, 또한 묘지(墓誌)(묘하(墓下)에 묻은 지석(地石))와 비석(碑石)도 여러 해가 지나 풍화작용(風化作用)으로 자연(自然)히 퇴폐(頹廢)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소(墓所)위에 투장(偷葬)하여 그 형상(形象)조차 찾아보지 못하게 된 실정(實情)이다. 이 상황(狀況)을 보는 행인(行人)들도 분(憤)하고 아쉬워 탄식(歎息)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 자손(子孫)들의 심정(心情)은 어떠하였으리오.

승정기원 후사정미(崇禎紀元後四丁未)(西紀一八四七年)에 본손(本孫)의 성주(星州)에 상익(商翼)과 경산(慶山)에 학래씨(鶴來氏)가 공을 추모(追慕)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전(前)의 가승(家乘)과 고첩(古牒)에 의거(依據)하여 묘소(墓所)를 찾게 되어 투장(偷葬)한 것을 철거(撤去)하였으며, 따라서 통로(通路)도 다시 내고, 상석(床石)도 마련하여 세웠다. 이 일은 외손(外孫) 윤치응씨(尹致膺氏)(윤오음(尹梧陰)의 후손(後孫))의 힘을 얻어서 성사(成事)한 것이다.

참으로 장(壯)하시도다. 공의 찬란(燦爛)하신 업적(業績)이 그 당시(當時) 좌해(左海)(영남(嶺南))에 빛나고 빛나건만 그 문헌(文獻)을 찾아 볼 수가 없었으므로 노인(老人)들에서 말로 전(傳)하여 온 것을 구비(口碑)가 되어 다행(多幸)히 소멸(消滅)되지 않아 오늘까지 내려와 공의 업적(業績)이 없어지지 않아 책임(責任)을 면(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

보(修譜)함에 있어서 그 전말(顛末)을 기록(記錄)하여 후일(後日) 후손(後孫)들에게 참고(參考)하게 되었노라.

이장우영천대창면강회(移葬于永川大昌面江回) 유좌원(西坐原)

갑자년춘(甲子年春)(서기(西紀)一九二四年 봄)

십칠세손(十七世孫) 종철(鍾澈) 음혈근서(泣血謹書)

36.嘉善大夫行咸鏡道水陸兵馬節度使雲菴府君墓碣銘 并序

府君諱는 明遠이요 字는 光錫이며, 號는 雲菴이요 姓는 玄氏니 貫은 延州라 以侍郎公諱覃胤으로 爲上祖요 侍郎公이 仕高麗明宗朝하사 討敵有功으로 封延山君하니 諡는 景憲이라 公이 生諱德秀하니 官尙書라 亦以軍功으로 封星山府院君하니 兩世勲業이 昭載麗史라 生諱元烈하니 太僕尹이요 生諱敬輿하니 贈叅贊이요 高祖曰欽인데 贈贊成이요 曾祖曰繼龍인데 同正이요 祖曰浩明인데 校尉요 考曰珍인데 進士요 妣는 義城金氏라. 府君이 天姿特異하고 英武弘毅하야 見者咸推之而干城之材라 하다.

世宗十一年己酉에 登文科하야 恩寵眷至하야 命三對前席하야 累遷至嘉善大夫하고 出爲咸鏡道兵馬節度使하야 受命莅任에 明賞罰하고 謹防牒하야 軍伍整肅하고 驍勇無敵하야 邊陲賴以清晏이라 迨其季年에 退休于仁同加羅村하야 常以書史로 自娛하고 閨壺斬斬하야 嚴若朝廷焉이라 及卒에自 上으로 特下優賻하다. 墓在善山夢大面烏沙洞西坐原이라. 歲久五百年而累經兵亂하야 不幸被奸輩冒葬하야 至有侵毀碑誌하야 塋域莫

徵이러니 至憲宗丁未하야 因外裔尹公致膺이 力詞하야 始得還
尋奉護而庚亂以後에 深懼陵谷之變遷하고 又戒前鑑之不遠하야
遂與諸族으로 合謀移窆而緬裏于永川大昌面江回之箔山茅堤內
酉坐原하니 亦可驗遺澤之不泯也라. 配貞夫人坡平尹氏合封焉
이라.

子晝版圖郎은 墓在同原而今又移葬하야 祔公階下하다. 版
圖公子는 經인데 進士요 進士의 子는 光紹인데 文承旨요 承
旨가 生二子하니 長德麟인데 司憲府監察이요 次仲麟은 武僉
使인데 是爲公玄孫이라. 五代孫 澄과 浩는 俱進士요 洽은 主
簿요 潁은 武科요 규(塏)는 生員이요 六世孫用統은 都事요
應機는 叅奉이요 思曾은 通政이요 孝曾과 孝徽는 俱進士요
七世孫運은 贈吏叅이요 健은 進士別座요 希文은 生員이요 得
成은 同中樞요 舜昌은 武僉使요 運의 子는 尙旭인데 文重試
하야 守慶州尹이요 應機의 孫龍遜은 將仕郎副司勇이니 有孝
行하고 龍駿은 副摠管이요 得成의 子는 寬이니 戶曹正郎이
라. 其餘九世以下는 簪組不絶하고 亦有通材達識과 隱德遺賢
而今不盡錄이라 銘曰

於皇我祖는 天賦挺特이라 蚤歲蜚英에 迺通朝籍이라 兜務
鐵冠으로 進退前席에 作之股肱이요 事之心腹이라 風雲一堂에
桓桓諤諤이라 訏模都兪에 雍雍穆穆이라 王曰嘉乃하사 降以恩
渥이라 杖鉞北關에 樹立卓卓이라 敵騎遠遁하야 藩鎮清肅이라
文武全才가 煌煌史策이라 菀彼佳成은 變遷陵谷이라 歷累百歲
에 幸得深目하야 有屹新壠하니 箔山之曲이라. 一片貞石은 大
書深刻이라 山水益麗하고 草木增色이라 凡百君子는 過此必式
하리라.

歲丁未三月 日(西紀一九六七年)

37.默隱先生玄公墓碣銘并序

於乎 莊光之際殉靖之賢無慮屢百而特載之於 二陵誌褒之於 列聖之 贈者殆未半焉 斯豈非爲世道者興歎也哉昔 成廟色變於 齋之言廷臣股慄於鶴峯之奏蓋忌諱弘多不敢顯言者如此而終乃有幽微而未能闡顯者又過半矣曷爲而爲世道勸也今公墓道顯刻之文重可歎也謹按公諱得元字貞淑號默隱其先延州人延山君景憲公諱覃胤其上祖也至諱致龍贈領議政諱玉亮通憲諱用武奉善諱珪通訓於公爲四世也妣貞夫人青松朴氏典客令林彦女先生生于枝村里第質粹而德邵曾以學行聞 世宗丁巳登第 端宗甲戌除星州治民以孝悌忠信爲本一郡洽如丁丑六月聞 上王遜越之報痛哭寄書集賢諸公曰國事至此吾輩何歸先王顧命豈敢忘之彼蒼者天誓死而已卽日解紱歸隱于永川之默坊洞終身不出竟以忠憤歿於 端廟昇遐後一年戊寅十月十七日葬于村後壬坐之原配貞夫人慶州金氏叅奉奎錫之女生丁亥歿壬午二月一日墓雙封生一男一女男寶孫女柳陽春禮判寶孫生長男琦榮生大圓曾玄以下不盡錄於乎先生官微而行高節顯而跡隱蓋其志則非惡死而死不得其所其義則非好生而生自得其靖則其於生死必其有甚焉者存而只就其一個是苦心貞守自成爲一家之義理者也是故諸賢之撰述繼焉 莊鶴之佚編補焉真所謂時有拙伸事有顯晦非公之謂耶日公之昆孫尙明與尙慶賚公遺事及附編一局來請公篆刻之文顧不肖不堪當是役而竊念事契之深不敢終辭略據其遺事彙括如左系爲之銘銘曰

寄書示志凝川之義休官勇退越庵之槩聞 遜哭隱睡翁之憤不謀相符百世匹美非畏白刃視彼青史深目而誰屹彼斧堂星山轟轟二水泱泱庸寓篆刻昭示無疆

碧珍 李泰一 謹撰

묵은선생현공묘갈명명서(默隱先生玄公墓碣銘并序)

아아! 슬프도다. 장광지제(莊光之際)(단종대왕(端宗大王)시절)에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왕위(王位)를 양위(讓位)할 때 순절(殉節)하고 멀리 떠난 현인(賢人)들이 무려(無慮) 수백명(數百名)이나 되는데 이릉지(二陵誌)(단종실기(端宗實記)나 국조실록(國朝實錄))에 특별(特別)히 기록(記錄)되어 포상(褒賞)된 사람이며, 또한 추증(追贈)된 사람이 반수(半數)도 못되니 이 어찌 공평(公平)된 도리(道理)이며 흥분(興奮)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오. 옛날 성종(成宗)때 점필재선생(佔畢齋先生)(김종직선생(金宗直先生)의 아호(雅號) 문묘배향(文廟配享))의 충성(忠誠)된 말씀과 학봉선생(鶴峰先生)(김성일선생(金誠一先生)의 아호(雅號) 선조시(宣祖時) 재상(宰相)인 거유(巨儒))의 올바른 상소문(上疏文)으로서 화(禍)를 당(當)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이름을 밝히면 어떠한 화(禍)가 있을까 염려(念慮)되어 감(敢)히 나타내지 못하는 자(者)가 또한 반수(半數)가 넘으니 어찌 세상(世上)일이 옳다고 권(勸)할 수가 있으리오.

지금에야 비로소 公의 묘비(墓碑)에 사적문(事蹟文)을 새기게 됨을 거듭 한탄(恨歎)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삼가 살피건대 公의 휘(諱)는 득원(得元)이요 자(字)는 정숙(貞淑)이요 호(號)는 묵은(默隱)이요 그 선조(先祖)는 연주(延州)사람으로서 연산군(延山君) 휘(諱)는 담운(覃胤)이요 시호

(諡號)는 경헌(景憲)이시며, 휘(諱) 치룡(致龍)은 증영의정(贈領議政)이요 휘(諱) 옥량(玉亮)은 통헌대부(通憲大夫)요 휘(諱) 용무(用武)는 봉선대부(奉善大夫)요 휘(諱) 규(珪)는 통훈대부(通訓大夫)가 공의 사대(四代)가 되신다.

비(妣)는 정부인(貞夫人) 청송박씨(靑松朴氏)로 전객령(典客令) 임언(林彦)의 따님이시다. 선생(先生)이 지촌리(枝村里)에서 나시어 그 성품(性稟)이 수진(粹眞)하고 덕(德)이 두터우시어 일찌기 학행(學行)으로써 칭송(稱頌)이 높으시며 세종(世宗) 정사(丁巳)(西紀一四三七年)에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시고, 단종(端宗) 갑술(甲戌)에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제수(除授)되시어 백성(百姓)을 다스리시되 효도(孝道)하고 공경하며 우애하고 충성(忠誠)하며 공신력(公信力)이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根本)으로 삼으시니 군민(郡民)들이 다 흠족(洽足)히 여기던 차(次)에 정축(丁丑) 六月(西紀一四五七年)에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왕위(王位)를 내놓으셨다는 통보(通報)를 받고 통곡(痛哭)을 하며 집현전(集賢殿)(지금의 문교(文教)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일을 맡아보는 관청) 여러 관원(官員)에게 서신(書信)을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국사(國事)가 이 지경(至境)」에 이르렀으나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선왕(先王)(문종대왕(文宗大王)) 고명(顧命)(어린 임금이니 국사를 잘 봐 달라는 유언)을 감(敢)히 어찌 잊으리오. 저 푸른 하늘을 두고 죽음을 맹서(盟誓)할 따름이다」 하시고 그날로 벼슬을 사임(辭任)하신 다음 영천(永川)의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가셔서 숨어 일생(一生)동

안을 나오시지 않으셨다가 마침내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승하(昇遐)(임금이 사망(死亡)하신 것)하신 후(後) 일년(一年)만에 충성(忠誠)된 분(憤)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 즉 무인(戊寅)(西紀一四五八年)十一月十七日에 돌아가시어 동리(洞里) 뒷산(山) 임좌원(壬坐原)에 장사(葬事)지냈다.

그리고 배정부인(配貞夫人)은 경주김씨(慶州金氏) 참봉(參奉) 유석(奎錫)의 따님이신데 정해년(丁亥年)(西紀一四〇七年)에 나시어 임오년(壬午年)(西紀一四六二年)二月一日에 사망(死亡)하시니 공의 묘소(墓所)와 쌍분(雙墳)으로 모시었다. 아들 딸 각각(各各) 한분씩 두셨는데 아들 휘(諱)는 보손(寶孫)이요 딸은 유양춘(柳陽春)에게 출가(出嫁)하시니 예조판서(禮曹判書)요, 보손(寶孫)은 휘(諱) 기영(琦榮)을 낳으시고, 기영(琦榮)은 휘(諱) 대원(大圓)을 낳으셨으며 증손(曾孫)과 고손(高孫) 이하(以下)는 다 기록(記錄)하지 못한다.

아아! 선생(先生)께서는 비록 벼슬은 않으셨으나 그 행적(行蹟)은 고상(高尚)하시고 그 절의(節義)가 세상(世上)에 현저(顯著)하셨어도 그 자취를 숨기셨으니 공의 본뜻은 죽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사는 것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환경(環境)만을 얻게 되면 그 생사(生死)에 어찌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리오. 살아서 그 하나를 가려서 스스로 한 가정(家庭)의 의리(義理)를 이루는데 고심(苦心)하셨다.

이러므로 모든 훌륭한 선비가 장학지사(莊鶴之史)(단종실기(端宗實記))에 기록편찬(記錄編纂)하기를 이른바 매사(每事)에 있어서 급허야 할 때와 용기(勇氣)있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으며, 또한 매사(每事)가 밝아지면 어두워지는 때가 있으니 이것은 공을 가르쳐 말함이로다. 하루는 공의 사손(嗣孫) 상명(尙明)과 상경(尙慶)이 공의 유사(遺事)와 별책(別冊) 한권(卷)을 가지고 와서 공의 비문(碑文)을 청(請)하므로 불초(不肖)한 내가 감당(堪當)하기 어려우나 사양(辭讓)하지 못하고 그 유사(遺事)에 의거(依據)하여 위와 같이 서문(序文)을 쓰고 아래와 같이 명(銘)을 기록(記錄)한다.

글로써 뜻을 표현(表現)한 것은 응천선생(凝川先生)의 의리(義理)며 벼슬에서 용맹(勇猛)스럽게 물러난 것은 월암선생(越庵先生)의 기개(氣慨)이며, 단종대왕(端宗大王)이 왕위(王位)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듣고 통곡(痛哭)한 것은 수옹(睡翁)(강침(姜沉) 진주인(晉州人))선생(先生)의 충성(忠誠)과 같도다. 이분들과 같이 서로 의론(議論)하여 행(行)한 일은 아니나 그 의리(義理)와 기개(氣慨)와 충성(忠誠)은 백세(百世)에 내려가도록 아름다운 짝이 될 것이며 흰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으심이니 저 청사(靑史)를 보면 깊이 숨어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준엄(峻嚴)한 저 부당(斧堂)(묘소(墓所))은 성산(星山)에 우뚝 솟아있어 두 물줄기가 항상(恒常) 그치지 않을 것이다. 비명(碑銘)과 전자(篆字)를 돌에 새겨 세우니 그 밝은 글이 무궁(無窮)하리라.

벽진후인(碧珍後人) 이태일(李泰一) 삼가 씀

38.判官公事蹟

公諱得利判書公曾孫也嘗以蔭補通訓大夫全州判官矣 成化元年世祖朝乙酉登文科以姪婿柳陽春(一云妹子)構訴禮曹削科(按科榜註柳陽春以構外叔事亦被謫云則妹子似是)丁亥年吉州賊李施愛謀叛起兵一國震駭公舉往討初頗立功及其勢窮力竭顏色不變坐而待死賊欲脅降則厲聲叱罵至死不絕賊皆嗟歎曰此真忠臣也義士也爲埋公屍立標其處曰忠義將玄某埋此處人不可放牛馬踐踏云(自上文初頗立功至此抄出於龜岩先生李載亨所藏古蹟記)○公於出戰之日斷其左手第四指授其夫人曰我今行生死未可知此指色變之日卽吾死之日也以此爲驗夫人掩泣而受其指以青錦囊盛之藏諸巾笥每日披視血色鮮紅宛然若始斷之日矣一日色忽黯黑而變知其爲戰亡乃放聲大哭蒼黃罔措之際有一鬣者啣矢而至向夫人悲鳴不已果公之出戰時所騎也嗚呼異哉以遺衣裹其矢斂其指葬于天安郡遠西面下道宗北麓西坐之原淑人全氏附左噫公之忠義如彼卓卓故賊亦感服有瘞屍立標之事馬雖微物有啣矢悲鳴之異而九重深邃旣不能褒揚於當世北關絕遠又未能返葬於故鄉子孫之痛恨極矣顧此後孫微劣尙未能叫 闔而得蒙追馳之典尤切痛恨嗚呼公議不泯碩果有報則安知無後日奏達 天陞而追蒙崇典仰慰客土泉下之先靈下伸後孫腔裏之至恨也哉

판관공사적(判官公事蹟)

公의 휘(諱)는 득리(得利)이니 판서공(判書公)의 증손(曾孫)이다. 公은 일찌기 음직(蔭職)으로 통훈대부 전주판관(通訓大夫全州判官)에 보충발령(補充發令)을 받으시고 성화원년(成化元年) 세조(世祖) 을유(乙酉)(西紀一四六五年)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셨으나 公의 질서(姪婿)되는 유양춘

(柳陽春)이 예조(禮曹)에 소송(訴訟)하여 과거(科擧) 급제(及第)를 삭제(削除) 당(當)하시자 이년 후(二年後)인 「정해년(丁亥年)에 길주(吉州)의 이시애(李施愛)가 반역(叛逆)을 모의(謀議)하고 군사(軍事)를 일으켜 전쟁(戰爭)이 발발(勃發)되어 일국(一國)이 다 놀라게 되니 공은 이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敵)을 치려고 나아가시어 처음에는 공(功)을 세우시다가 그 군세(軍勢)와 군력(軍力)이 쇠진(衰盡)해졌어도 안색(顔色)도 변(變)치 않으시고 앉아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적(賊)이 항복(降伏)하라고 위협(威脅)하여도 공은 큰 소리로 적(賊)을 꾸짖으시며 죽을 지경에도 항복(降伏)하지 않으시니 적(賊)은 모두 탄식(歎息)하며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충신(忠臣)이며 의사(義士)라 하여 公의 시체(屍體)를 땅에 묻고 그 곳에 충의장군현묘(忠義將軍玄某)가 묻히신 곳이니 사람들은 소와 말이 밟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경계표목(警戒標木)을 세웠다.」 이 글은 구암선생(龜岩先生) 이재형(李載亨)의 소장한 고적기(古蹟記)에서 발취하였다.

公이 전쟁(戰爭)에 나아가시든 날 그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부인(夫人)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떠나면 생사(生死)를 알지 못할 것이니 이 손가락 빛깔이 변하는 날은 내가 곧 죽는 날이니 이것을 잘 살피라」 하시니 부인(夫人)이 울음을 머금고 그 손가락을 받아 청금(靑錦)주머니에 넣어 옷상자에 간직하고 날마다 펴 보아도 혈색(血色)이 처음에 자르던 날과 같이 곱고 아름답더니 하루는 홀연(忽然)히 검게 변하였다.

부인(夫人)은 공께서 전사(戰死)하신 줄 알고 목을 놓아 통곡(痛哭)하여 슬퍼하던 중(中) 말 한필이 화살을 물고 와서 향(向)하여 슬퍼하므로 다시 살펴보니 출전(出戰)하시던 날 타고 가신 말이었다. 생전(生前)에 입으시던 옷에 그 화살과 손가락을 염습(歛襲)하여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하도종(下道宗) 북(北)쪽 산(山) 유좌원(酉坐原)에 장례(葬禮)하였으며 숙인(淑人) 천안전씨(天安全氏)도 공과 같이 원편(便)에 합폄(合窆)하였다.

참으로 장(壯)하시도다. 공의 높고 높으신 충의(忠義)가 저 같으시므로 적(賊)들도 감복(感服)하여 묘소(墓所)에 표지(標識)를 세우고 말은 비록 미물(微物)이나 화살을 물고서 슬퍼함이 특이(特異)하여 구중(九重)이 깊고 멀어서 세상(世上)에 포양(褒揚)하지 못하고, 또한 북관(北關)(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이 멀고 떨어져 고향(故鄉)에 반장(返葬)하지 못하니 자손(子孫)들의 원통한 마음이 극심(極甚)할 뿐만 아니라 기후(其後) 자손(子孫)들이 미력(微力)하여 정원(政院)에 호소(呼訴)하여 추숭(追崇)하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니 통한(痛恨)한 마음 간절(懇切)하나 세상(世上) 공론(公論)이 없어지지 않을진데 후일(後日) 임금님께 주달(奏達)하여 승전(崇典)을 내리시게 되면 위로 지하(地下)의 선령(先靈)을 위로하고, 아래로 후손(後孫)들의 한(恨)을 풀지 아니하리요.

39.全州判官玄公墓碣銘并序

歡城西二十里道宗之原有面卯而封者曰故忠臣判官玄公衣履之藏

也公後孫彩東應周抱公遺事謁余以墓銘其懇苦切不忍牢讓乃按而叙之公諱得利星州人高麗平章事景憲公諱覃胤爲其始祖生諱德秀兵部尚書生諱元烈太僕尹生諱敬與右叅贊生諱嶽左贊成生諱致龍仕本朝都僉議寺事贈領議政卽公高祖以上也曾祖諱玉亮禮曹判書祖諱用武司宰監副正考諱珪郡守妣青松朴林彥女公有器局尙忠節世祖乙酉登文科尋拜全州判官丁亥有北賊李施愛之亂公舉義往討初頗立功竟以衆寡不敵枚賊不屈而死賊嗟歎曰此真義士也忠臣也爲埋公屍而題其所曰忠義將軍某公之墓戒人勿踐傷公出戰日斷其左手第四指授夫人曰今行生死未可知此指變色卽吾致命之日也以此爲驗夫人泣受而盛錦囊藏諸巾笥每日披視血色鮮紅如初一日色忽變黑夫人知其死放聲大哭際有一鬣者啣矢而至向夫人悲鳴不已果公出戰時所騎馬也乃以遺衣裹矢斂指而葬夫人淑人天安全氏副護軍孝信女墓附左有一男曰貴松禾縣監男允文習讀允明司直允武副司直習讀男琛璘孝福僉正以原從勳受錄券司直男球縣監外孫曰梧陰尹公斗壽月汀尹公根壽焉 穆陵名臣副司直男瑚璉通禮院引儀琦宣務郎璫叅奉玄孫曰德升文科禮曹正郎棄官昏朝享天安六賢祠有希庵集八代孫曰尙璧號冠峰學行薦洗馬道德邃高世稱江門八學士之一餘不盡載噫公之烈烈忠義固已樹立於當日如彼其卓身後宜有崇褒之典而寥寥數百禩未得聞其偉蹟實爲識者之恨而內外後孫多以科宦勳業顯者是可驗報施之天而時之顯晦人之知否於公何與焉銘曰粵昔北亂 宗社幾危公能挺身殉忠如歸馬啣矢至并指以葬後之過者疇不敬仰矧是後承克蕃克顯惟德之報神理奚舛道宗之阡化碧攸藏凡百君子式此銘章

隆熙紀元後丙戌孟夏下澣

嘉善大夫 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禮安 李貞烈 撰

嘉善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閏丙承 書并篆

전주판관현공묘갈명명서(全州判官玄公墓碣銘并序)

환성(歡城) 서(西)쪽 이십리(二十里) 도종(道宗)(현(現)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북(北)쪽 산(山) 묘향(卯向)에 묘소(墓所)가 있으니 즉(卽) 고(故) 충신 판관(忠臣判官)(종오품(從五品) 현(現) 시장급(市長級)) 현공(玄公) 휘(諱)(죽은 사람의 이름)득리(得利)의 분묘(墳墓)이다. 公의 후손(後孫)인 채동(彩東)과 응주(應周)가 公의 유사(遺事)를 써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묘비명(墓碑銘)을 저술(著述)하여 달라고 간곡(懇曲)히 청(請)하므로 나는 사양(辭讓)하지 못하고 상고(詳考)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한다.

公의 휘(諱)는 득리(得利)시니 연주인(延州人)이요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정일품(正一品) 현(現) 장관급(長官級)) 시호(諡號)(죽은 뒤에 나라에서 내리는 호) 경헌공(景憲公) 휘(諱) 담운(覃胤)이 그 시조(始祖)가 되시며, 아들 휘(諱) 덕수(德秀) 관(官)은 병부상서(兵部尙書)(현(現) 국방장관(國防長官))를 맡으시고, 휘(諱) 원열(元烈)이시며 관(官)은 태복윤(太僕尹)(현(現) 장관급(長官級))이 손자(孫子)이시며, 휘(諱) 경여(敬輿) 관(官)은 우참찬(右叅贊)(정삼품(正三品) 의정부(議政府))이 증손(曾孫)이며, 휘(諱) 금(鎡)이시며 관(官)은 좌찬성(左贊成)(종일품(從一品) 의정부(議政府))이 고손(高孫)이며, 휘(諱)는 치룡(致龍)이시며 관(官)은 도첨의시사(都僉議寺事)(고려 정승(政丞))(사후(死後)에 영의정(領議政)

으로 증(贈)가 오대손(五代孫)이 되시고, 公의 증조고(曾祖考)는 휘(諱) 옥량(玉亮)이시며 관(官)은 예조판서(禮曹判書)(현(現) 문교부장관(文教部長官))이시고, 조부(祖父)의 휘(諱)는 용무(用武)시며 관(官)은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이시고, 부친(父親) 휘(諱)는 규(珪)이시며 군수(郡守)이시고, 모친(母親)은 청송박씨(靑松朴氏) 임언(林彦)의 따님이시다.

公께서는 원래(原來) 타고 나신 기국(器局)이 의협심(義俠心)과 충절심(忠節心)이 탁월(卓越)하시더니 세조(世祖)(조선(朝鮮) 칠대왕(七代王))을유년(乙酉年)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어 전주판관(全州判官)(종오품(從五品))으로 부임(赴任)하시고 이년후(二年後)인 정해년(丁亥年)에 북적(北賊)이시애(李施愛)가 반역(叛逆)하여 난(亂)을 일으켜서 서울을 향(向)하여 진격(進擊)하는 것을 公께서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나아가 토벌(討伐)하시어 처음에는 큰 공(功)을 세웠으나 끝내는 적(敵)의 수(數)가 많아졌으므로 증과부적(衆寡不敵)하여 적(賊)을 꾸짖어 불굴(不屈)하다 전사(戰死)하시니 역적(逆賊)들은 오히려 탄식(歎息)하며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충신(忠臣)이며 의사(義士)라 하고 公의 시체(屍體)를 매장(埋葬)한 연후(然後)에 「충의장군현공(忠義將軍玄公)의 분묘(墳墓)이니 격별(格別)히 수호(守護)하여야 한다」는 제인문(戒人文)으로 표지(標識)하였다 하니 公의 충절(忠節)이 얼마나 탁월(卓越)하셨는지 자못 추모(追慕)할지로다.

公이 출전당시(出戰當時)에 당신(當身)의 원편 넷째 손가락을 끊어 부인(夫人)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출전(出戰)하면 생사(生死)를 알 수가 없을 터이니 이 손가락이 변색(變色)이 되거든 내가 곧 전사(戰死)하는 날이니 꼭 경험(經驗)하여 보라」고 하시며 출전(出典)하셨다. 그 부인(夫人)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받아 가지시고 비단주머니에 싸서 깨끗한 상자(箱子)에 보관(保管)한 후에 날마다 한 번씩 펴 놓고 혈색(血色)을 보는 것이 일과(日課)이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혈색(血色)이 홀연(忽然)히 흑색(黑色)으로 변(變)해지자 부인(夫人)은 부군(夫君)께서 전사(戰死)하신 것으로 아시고 목을 놓아 통곡(痛哭)하시는데 그 때 마침 공께서 애용(愛用)하시던 노새가 화살을 물고 집으로 돌아오니 천지(天地)가 무너진 듯 애통(哀痛)함을 억제하지 못하시니 공의 충절(忠節)과 선견지명(先見之明)이 탁월(卓越)하셨음을 그 때 세상(世上)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을 추증(推證)할 수 있으며 겸(兼)하여 부인(夫人)께서는 끊어진 왼편 손 네째 손가락을 생전(生前)에 입으시던 옷에 염습(歛襲)하시어 장례를 지내셨다.

부인(夫人) 숙인천안전씨(淑人天安全氏)는 부호군(副護軍)(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 효신(孝信)의 따님이신데 공의 묘소(墓所) 원편(便) 곁에 같이 합장(合葬)하였다. 공의 아드님은 휘(諱) 분(賁)이시고 송화현감(松禾縣監)이다. 공의 장손(長孫)인 휘(諱) 윤문(允文)은 습독(習讀)(작은 벼슬이름)이요, 차손(次孫)의 휘(諱)는 윤명(允明)이며 관(官)은 사직(司直)(정오품(正五品) 법(法)을 다루는 관직(官職))이시며, 삼손(三孫)의 휘(諱)는 윤무(允武)요 관(官)은 부사

직(副司直)이시다. 公의 장손(長孫) 습독(習讀)께서는 삼형제(三兄弟)의 아들을 두셨는데 장남(長男)의 휘(諱)는 침(琛)이요, 차남(次男)의 휘(諱)는 린(璘)이시고, 삼남(三男)의 휘(諱)는 효복(孝福)이신데 첨정(僉正)(정사품(正四品))이니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권(錄券)을 받고 벼슬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으며 사직윤명(司直允明)의 남(男) 휘(諱) 구(球)는 현감(縣監)이요, 외손(外孫)은 오음윤공두수(梧陰尹公斗壽) 형제(兄弟)이신데 모두 목릉(穆陵)(선조조(宣祖朝))때의 명신(名臣)이시다. 부사직(副司直)께서는 사형제(四兄弟)를 두셨는데 장남(長男)의 휘(諱)는 호(瑚)요, 차남(次男)의 휘(諱)는 련(璉)이신데 두 분이 다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정칠품(正七品))를 지냈으며, 삼남(三男) 휘(諱)는 기(琦)신데 선무랑(宣務郎)(종육품(從六品))이시고, 사남(四男)의 휘(諱)는 숙(璠)이신데 참봉(參奉)(종구품(從九品))이시다.

公의 고손(高孫) 휘(諱)는 덕승(德升)이요 호(號)는 희암(希庵)이신데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혼조(昏朝)(광해군(光海君))를 당(當)하여 벼슬을 사양(辭讓)하시고 낙향(落鄉)하시어 세상사(世上事)를 잊으시고 학문(學文)을 연구(研究)하시어 도학(道學)이 뛰어 나시와 천안육현사(天安六賢祠)에 향사(享祀)하며, 또한 희암문집(希庵文集)이 세상(世上)에 널리 보급(普及)되어 후학(後學)들에게 좋은 교재(教材)가 되었으며 公의 팔대손(八代孫) 휘(諱) 상벽(尙璧)은 호(號)는 관봉(冠峰)이신데 학행(學行)과 도학(道學)이 높으시어 세마(洗

馬)(정구품(正九品))로 천거(薦舉)되었으며 강문(江門)(한강이남(漢江以南))팔학사(八學士)의 한 분이셨으니 그 업적(業績)을 어찌 다 기록(記錄)할 수 있으리오.

아! 公의 열렬(烈烈)한 충의(忠義)는 하루 동안에 굳게 수립(樹立)하신 것이 저 같이 탁월(卓越)하시니 기후(其後)마땅히 높이 포상(褒賞)하는 법전(法典)이 있어야 할 터인데 멀고 먼 수백년(數百年)이 지난 그 위대(偉大)하신 업적(業績)을 밝혀드리는 것을 듣지 못하여 식자(識者)들이 한탄(恨歎)스럽게 여기던 차(次)에 본손(本孫)이며 외손(外孫)들이 과환(科宦)과 훈업(勳業)으로써 세상(世上)에 나타나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지신명(天地神明)께서 마련한 것인데 시기(時期)가 밝고 어둠과, 사람의 알고 모르는 것이 公에게 어찌 관여(關與)되어 있으리오. 그 명장(銘章)에 써 있으되,

옛날 북(北)쪽 난리(亂離)로 국가(國家)가 몇 번 위태로울 때에 公께서는 솔선수범(率先垂範)으로 출전(出戰)하시어 순충(殉忠)하셨으며 기마(騎馬)가 화살을 물고 돌아와서 끊어진 손가락을 염(斂)하여 장례(葬禮)하였으니 누가 우러러 존경(尊敬)하지 않으리오. 하물며 후손(後孫)들이 번창하여 현명(賢明)한 인재(人材)가 많으니 이 또한 公의 유덕(遺德)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천지신명(天地神明)께서도 천리(天理)에 어찌 어김이 있으리오. 도종리(道宗里)의 북(北)쪽 산(山)에 충신(忠臣)의 화벽(化碧)(시신(屍身))이 묻히신 묘소(墓所)가 있으니 모든 군자(君子)들은 이 명장(銘章)을 공경(恭敬)할 지어다.

융희기원후(隆熙紀元後) 병술(丙戌)(西紀一九四六年)

맹하(孟夏)(四月)하한(下澣)(그믐날)

가선대부(嘉善大夫) 시강원검보덕원임(侍講院兼輔德原任)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예안(禮安) 이정렬(李貞烈) 찬(撰)

가선대부전이조참판(嘉善大夫前吏曹參判) 홍문관부제학동지(弘文館副提學同知) 경연의금부춘추관사(經筵義禁府春秋館事)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 시강원검교보덕(侍講院檢校輔德) 여흥(驪興) 민병승(閔丙承) 서병전(書并篆)

追記

於戲我先祖判官府君之墓今始樹碣實累世積久之功而府君忠義節烈之盛既有原序可考但內外子孫中名宦行義之可書者亦多如諱德仁郡守莅官清直諱應臣殉節壬辰縣監 贈兵叅諱德良治郡有偉蹟贈兵叅諱德顥郡守叅原從勳 贈戶叅德潤軍資正 贈嘉善諱尙龜生員有經行諱僉龜篤孝善書諱鼎龜水軍節制勇力絶人諱遇元判尹有風節諱徵司馬以孝棄叅奉諱微有文行諱若昊號三碧堂崇氣節爲尤庵宋先生所稱獎諱希喆孝行道薦諱鎮坤生員善文藝諱鎮商文科府使諱永基以文學名諱永益號晚晦齋學問邃高諱基奉生員叅議有孝義風領府使南公九萬文簡公趙公復陽亦以外裔顯猗歟盛矣此可見府君深仁厚德有以啓無疆之休於後嗣而後嗣之克世續述與有光乎烈是皆可記而原序略之故謹就譜牒各派中取其勳德事行之特異書之如右

十三代孫 彩東 敬識

十五代孫 基周 謹書

추기(追記)

아! 참으로 기쁘도다. 우리 선조(先祖) 판관부군(判官府君)의 묘소(墓所)에 누세(累世)동안 못하였던 묘갈(墓碣)을 지금(至今)에서야 세워 부군(府君)의 충렬(忠烈)과 절의(節義)가 장(壯)하신 것을 글로써 세상(世上)에 알리게 되니 참으로 감개(感慨)가 무량(無量)한 따름이오나 원서문(原序文)을 상고(詳考)한 즉(則) 본손(本孫)과 외손(外孫)들 중(中)에 몇 분이 빠져서 추기(追記)하는 바이다. 우리 본손(本孫)과 외손(外孫)들 중(中)에서 명관(名官)과 행의(行義)가 뛰어나신 분이 많이 계시니 휘(諱) 덕인(德仁)께서는 군수(郡守)로 청렴결백(清廉潔白)하시어 타(他)의 모범(模範)이 되었으며, 휘(諱) 응신(應臣)께서는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 현감(縣監)으로 소임(所任)을 다 하시어 조금도 의지(意志)를 굴(屈)하지 않으시고 순절(殉節)하신 고(故)로 나라로 부터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종이품(從二品)) 증직(贈職)을 받으셨으며, 휘(諱) 덕량(德良)은 군수(郡守)로서 선정(善政)을 하시어 그 위업(爲業)이 많으시어 또한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증직(贈職)받으시고 휘(諱) 덕윤(德潤)께서는 군자정(軍資正)으로서 청백(清白)하시어 가선대부(嘉善大夫)(정이품(正二品))로 증직(贈職)받으셨으며, 휘(諱) 상구(尙龜)는 생원(生員)으로 경륜(經綸)과 덕행(德行)이 겸비(兼備)하여 지역사회(地域社會)에 덕풍(德風)을 진작(振作)하시고 휘(諱) 명구(明龜)께서는 효행(孝行)이 돈독(敦篤)하셨으며 글씨를 잘 쓰서

서 세상(世上)에 명성(名聲)이 높으셨으며, 휘(諱) 정구(鼎龜)는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군외직(軍外職) 정사품(正四品))로서 용기(勇氣)가 뛰어나 세상(世上)사람들의 존경(尊敬)을 받으셨고, 휘(諱) 우원(遇元)께서는 판윤(判尹)(지금 시장(市長))으로 품치(稟致)와 절조(節操)가 겸비(兼備)하셨으며, 휘(諱) 징(徵)께서는 사마(司馬)(과거시험(科擧試驗) 감시관(官))로서 부모(父母)를 극진(極盡)히 봉양(奉養)하기 위(爲)하여 벼슬을 버리시고, 휘(諱) 미(微)께서는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장(壯)하셨으며, 휘(諱) 약호(若昊)는 호(號) 삼벽당(三碧堂)이신데 성리학(性理學)과 충절(忠節)을 숭상(崇尚)하셨으므로 우암송선생(尤庵宋先生)께서 그 장절(壯節)하심을 칭송(稱頌)하신 바 있고, 휘(諱) 희철(希喆)께서는 효행(孝行)이 충천(冲天)하시어 지방유림(地方儒林)들이 도백(道伯)에게 천거(薦擧)한 바 있으며, 휘(諱) 진곤(鎭坤)은 문예(文藝)를 잘 하시어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귀감(龜鑑)이시고, 휘(諱) 진상(鎭商)은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어 부사(府使)(정사품(正四品))로서 활약(活躍)하신바 크시며, 휘(諱) 영기(永基)께서는 문학(文學)이 탁월(卓越)하시어 세상(世上)에 그 명성(名聲)이 높으시고, 휘(諱) 영익(永益)은 호(號)는 만회재(晩晦齋)신데 학문(學問)이 높으실 뿐만 아니라 유고문집(遺稿文集)이 십여권(十餘卷)이나 전(傳)하여지고 있으며, 휘(諱) 기봉(基奉)은 생원참의(生員叅議)(의정부에 속한 벼슬)로 효우심(孝友心)과 의리감(義理感)이 투철(透徹)하시고 영부사(領府事)를 지내신 남공구만(南公九萬)과 문간공

조복양(文簡公趙復陽)이 역시(亦是) 우리 외손(外孫)이운데
학풍(學風)이 탁월(卓越)하시고 겸(兼)하여 관작(官爵)이 높
으시어 그 업적(業績)이 현저(顯著)하시다.

이것은 부군(府君)의 깊은 인자(仁慈)하심과 두터우신
덕망(德望)이 후손(後孫)에게 전(傳)하심이니 후손(後孫)들은
대대(代代)로 유업(遺業)을 이어받아 선열(先烈)이 더욱 빛나
도록 노력(努力)할 것을 원서(原序)에 기술(記述)하여 보책
(譜冊)으로 편제(編製) 각파문중(各派門中)에 보급(普及)코저
하오니 그 훈덕(勳德)과 사행(事行)이 특이(特異)한 것을 명
심(銘心)하시라.

십삼대손(十三代孫) 채동(彩東) 경지(敬識)

십오대손(十五代孫) 기주(基周) 근서(謹書)

40.縣監玄公墓碣銘并序

故縣監玄公墓于寧城北富垓之辰原殆五百有餘年後孫彩東應周奉
譜牒謁余以墓銘而曰先祖墓舊有表石實南溟曹先生所述而歲久字
沒全不記得將改刻願得吾先生一言揭諸余辭以謏聞不獲乃按其牒
公以世家華胄爲女婿於廣城君李克堪性伉高不屑進取晚以蔭補司
憲府監察亦以直道忤當路出爲松禾縣監未幾棄歸卒於燕山乙卯盖
李氏世稱五君之家而富貴隆赫震耀一時宜其依附于進以圖倘來之
榮貴而公能審時見機介貞自守超然免乎廢朝之日清哉高哉是可以
見公於百世之下矣公諱貴星州人始祖有曰覃胤高麗平章事景憲公
曰德秀兵部尙書曰元烈太僕尹曰敬輿右叅贊曰嶽左贊成生有公孤
大著勝國公五代以上也曰致龍仕 本朝都僉議寺事 贈領議政曰玉
亮禮曹判書曰用武司宰監副正曰珪郡守曰得利判官殉忠於北關高

曾祖稱外祖曰副護軍天安全孝信妣淑人廣州李氏與公同原爲上下封公有三男允文習讀曰允明司直曰允武副司直習得男曰琛曰璘曰孝福僉正叅原從勳司直男曰球縣監女海澄府院君海平尹忤梧陰文靖公斗壽月汀文貞公根壽其所出勳德冠世副司直男曰瑚曰璉通禮院引儀曰琦宣務郎曰璫叅奉男曰德升號希菴文科司藝享天安六賢祠宣務郎五代孫曰尙璧號冠峰逸洗馬世稱江門八學士之一南文忠公九萬趙文簡公復陽亦以外舅顯猗歟盛矣有德者之有後宜如是也於乎公以正直清高之資見時不可則棄官如屣遵晦自靖以全其性命詩所云旣明且哲以保其身殆公之謂而內外後承甚蕃衍無慮爲千億益可驗德厚者流光也銘曰燕山之際善類難容惟時惟公色舉潛踪皜然不滓清明凝神一縣之試太虛浮雲流慶百世子孫千億非麗之以克闡厥德富垚窈窈哲人攸宅過是阡者式敬無斁

隆熙紀元後丙戌重五節

西河 任憲瓚 撰

嘉義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閔丙承 書并篆

현감현공묘갈명명서(縣監玄公墓碣銘并序)

고현감현공(故縣監玄公)의 묘소(墓所)가 영성(寧城)(천안시(天安市))북(北)쪽 부대리(富垚里) 동편진좌(東便辰坐) 산(山)언덕에 모신지가 어언(於焉) 오백여년(五百餘年)만에 후손(後孫) 채동(彩東)·응주(應周)가 보첩(譜牒)을 싸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선조(先祖)의 묘(墓)에 전(前)부터 내려온 표석(標石)은 남명조선생(南溟曹先生)(유명(有名)한 성리학자(性理學者))께서 저술(著述)하셨으나 오랜 세월(歲月)

이 흐르고 흘러 글자(字)가 전부(全部) 퇴락(頽落)되어 전연(全然) 알아볼 수가 없어 선생(先生)의 비문(碑文)을 다시 조각(彫刻)하여 세우고자 저술(著述)하여 줄 것을 간청(懇請)하므로 나는 원래(原來)전문(見聞)이 없어서 감당(堪當)하기가 어렵다고 사양(辭讓)하였으나 그 간곡(懇曲)한 청(請)을 끝내 거절(拒絶)하지 못하고 이어 그 보첩(譜牒)을 상고(詳考)한 즉(則) 공께서는 대대(代代)로 내려오는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 광성군(廣城君) 이극감(李克堪)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 성품(性稟)이 고결(高潔)하시어 벼슬길에 나아가심을 꺼려하셨다가 늦게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특보(特補)하니 공께서는 정도(正道)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부득이(不得已)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가 잠시후(暫時後)에 또 다시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전임(轉任)하셨다가 바로 사임(辭任)하신 후(後) 연산(燕山) 을묘(乙卯)(西紀一四九五年)년에 졸(卒)하셨다.

공의 처가(妻家)는 명문오군(名文五君)의 집으로 부귀(富貴)가赫赫(赫赫)하여 한 때에 세도(勢道)가 당당(堂堂)하였는데 범인(凡人)이라면 이 세도처가(勢道妻家)에 의지(依支)하여 영화(榮華)와 부귀(富貴)를 차지하려고 계책(計策)을 도모(圖謀)하였으련만 공께서는 능(能)히 그 시기(時期)와 기회(機會)를 살피셔서 절개(節概)와 지조(志操)를 지키기 위(爲)하여 벼슬에서 사임(辭任)하셨으므로 연산군(燕山君)의 폐조(廢朝)(연산군이 폐비(妣)하였을 때)때도 무사(無事)하셨으니 참으로 깨끗하시고 고귀(高貴)하신 정신(精神)과 백세(百世)

의 뒷일을 내다보신 결과(結果)가 아닌가 하노라.

公의 휘(諱)는 분(賁)이요 성주(星州)사람이시다. 시조(始祖)의 휘(諱)는 담윤(覃胤)이신데 벼슬은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요 시(諡)는 경헌공(景憲公)이시며, 그 아들의 휘(諱)는 덕수(德秀)요 벼슬은 병부상서(兵部尙書)요 이 분의 아들 휘(諱) 원열(元烈)은 벼슬이 태복윤(太僕尹)이며, 또 이분의 아들 휘(諱) 경여(敬輿)는 우참찬(右叅贊)이요, 이분의 아들 휘(諱) 금(鎡)은 좌찬성(左贊成)이시니 고려(高麗)의 중신(重臣)으로 오대이상(五代以上)이赫赫(赫赫)하셨으며, 그 아들 휘(諱) 치룡(致龍)은 이씨조선(李氏朝鮮)에 들어와 벼슬이 도첨의시사(都僉議寺事)에서 영의정(領議政)으로 증직(贈職)되셨으며, 또 그 아들 휘 옥량(玉亮)은 예조판서(禮曹判書)시고, 이 분의 아들 휘(諱) 용무(用武)는 사재감(司宰監)이시며, 또 그 아들 휘(諱) 규(珪)는 군수(郡守)이시며, 이 분의 아들 휘(諱) 득리(得利)는 판관(判官)으로 북관(北關)(지금(至今)의 함경도(咸鏡道))에서 순충(殉忠)하셨으니 이위는 公의 고(高)·증(曾)·조(祖)·고(考)이시고, 외조(外祖)는 부호군(副護軍)(군부(軍部)의 종사품(從四品))천안전효신(天安全孝信)이시다. 公의 부인(夫人)은 광주이씨(廣州李氏)이신데 公의 묘소(墓所)와 합폄(合窆)하시다.

그리고 삼남(三男)을 두셨는데 장휘(長諱)는 윤문(允文)인데 벼슬은 습독(習讀)이요, 이휘(二諱)는 윤명(允明)인데 벼슬은 사직(司直)이요, 삼휘(三諱)는 윤무(允武)인데 벼슬은 부사직(副司直)이시다. 습독공(習讀公)이 삼남(三男)을 두셨

는데 일휘(一諱)는 침(琛)이요, 이휘(二諱)는 린(璘)이며, 삼휘(三諱)는 효복(孝福)이시니 벼슬은 첨정(僉正)(종사품(從四品) 벼슬)이신데 원종훈(原從勳)(국가(國家)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참여(參與)하시고, 사직공(司直公)께서는 일남일녀(一男一女)를 두셨는데 남휘(男諱)는 구(球)시며 벼슬은 현감(縣監)이시고, 여(女)는 해정부원군(海澄府院君) 해평윤변(海平尹忭)의 부인(夫人)이 되시어 오음문정공두수(梧陰文靖公斗壽)와 월정문정공근수(月汀文貞公根壽)를 두셨는데 모두 훈덕(勳德)이 세상(世上)에 으뜸이시고, 부사직(副司直)께서는 사남(四男)을 두셨으니 장휘(長諱)는 호(瑚)요, 차휘(次諱)는 련(璉)이신데 벼슬이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정육품(正六品) 벼슬)시고, 삼휘(三諱)는 기(琦)요 벼슬은 선무랑(宣務郎)(종육품(從六品))이요, 사휘(四諱)는 숙(璠)이시며 참봉(參奉)이시다.

참봉공(參奉公) 장남(長男)에 휘(諱) 덕승(德升)이 있으시니 호(號)는 희암(希庵)이시며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어 사예(司藝)를 지내시고 천안육현사(天安六賢祠)에 배향(配享)하고, 선무랑공(宣務郎公)의 오대손(五代孫) 휘(諱) 상벽(尙璧)은 호(號)가 관봉(冠峰)이시니 벼슬은 세마(洗馬)(정팔품(正八品))요 학행(學行)이 탁월(卓越)하시어 강문(江門)(한강이남(漢江以南))의 팔학사중(八學士中) 한 분이시다.

그리고 남문충공구만(南文忠公九萬) 호(號)는 약천(藥泉)과 조문간공복양(趙文簡公復陽)도 역시(亦是) 외손(外孫)으로 그 덕망(德望)이 높으시니 성(盛)하고 성(盛)하도다. 덕(德)

이 있는 사람으로 후손(後孫)을 두심이 마땅히 이 같도다.
아! 공께서 정직(正直)하시고 말고 높이신 자질(資質)로 그
때의 형편(形便)이 마음에 옳지 못한 것을 보신즉 벼슬 버리
시기를 헌신짝같이 하시어 자취를 감추어 스스로 신분(身分)
을 온전히 하시니 시전(詩傳)에 이른 바 이미 윤리(倫理)를
밝히고 학리(學理)를 밝혀서 그 몸을 보전(保全)한다 함이
공을 가르침이로다.

본손(本孫)이며 외손(外孫)이 번성(繁盛)하여 그 수(數)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더욱 덕(德)을 두터이 쌓은 사람에게
는 영광(榮光)이 흐르게 마련이니 가(可)히 경험(經驗)할지어
다. 명장(銘章)을 다음과 같이 썼으니,

연산군시대(燕山君時代)에는 선(善)한 사람으로서는 용납
(容納)하기 어려운 일이 허다(許多)하거늘 공께서는 그 시기
(時期)의 형편(形便)을 생각하시고 당신(當身)의 종적(踪跡)
을 감추어 흠 없이 깨끗하게 지내셨으니 청명(淸明)하기가
신명(神明)과 같도다. 한 고을에 나아가 현감(縣監)으로서 시
험(試驗)하신 것은 한 때에 뜬 구름처럼 여기는 바요 이 처
럼 청렴결백(淸廉潔白)하시매 그 음덕(蔭德)으로 경사(慶事)
가 자손백대(子孫百代)까지 흘러내릴 것이니 어찌 아람답지
않으리요. 조상(祖上)의 음덕(蔭德)을 밝히고 밝힐지어다. 부
대산(富垞山)이 고요하고 아름다우니 과연(果然) 현철(賢哲)
하신 어른의 유택(幽宅)이로다. 이 묘(墓)앞을 지나가는 사람
들은 공경(恭敬)하고 공경(恭敬)할지어다.

응희기원 후(隆熙紀元後) 병술(丙戌)(西紀

一九四六年)五月五日

서하(西夏) 임헌찬(任憲瓚) 찬(撰)

가선대부전이조참판 홍문관부제학동지(嘉善大夫前
吏曹叅判 弘文館副提學同知) 경연의금부춘추관사(經筵義禁府
春秋館事) 규장각직제학시강원검교보덕(奎章閣直提學侍講院
檢校輔德) 여흥(驪興) 민병승(閔丙承) 서병전(書并篆)

41.楠松祠創建事蹟碑

京畿道漣川郡南進祥里之東園有廟貌異然門庭秀麗額以楠松祠而行路之人莫不敬禮者延州玄氏都元帥公縣監公司諫公司果公副護軍公司果公六賢妥靈之所也嚮者文化院長文壽按譜牒而謁不佞曰先祖都元帥公麗代名將忠節炳炳事載麗史而墓儀失傳久雉寓慕之情今欲設位致祭願宗伯設位規模致奠儀式無不昭示余以後生末學何散當是役屢辭不獲乃廣搜先賢遺事以聞之卽爲詢謀諸宗創建楠松祠而每歲十月初日奉香于神位前遠近參祀者莫不欽服也丙子秋又曰設位事旣聞命矣六賢之潛德懿行不可無文敢請余撮其大要叙之如左都元帥公諱文燦延州人侍郎平章事景憲公諱覃胤之玄孫大司空正獻公諱德裕之曾孫祖諱昇吏部典書考諱璋全州節度使同知樞密院事公生而天姿英邁驍勇絕倫卜居漣川而築楠松亭以書籍自娛元宗朝拜將軍以都元帥鎮江華島矣三別抄軍叛舉入城陰殺官長掠奪人民擅發府庫其勢凶險公見事不濟將爲後圖渡海赴京而賊共翼而追之公力射之夫人抽矢授之賊不敢近俄而矢盡船膠夫人曰吾義不爲鼠輩所辱遂携二女而投水死公遽馳上京率兵殄滅之時人爲之作詩曰跳梁叛賊在江華獨有玄公爲國家可惜夫人投水死古今

貞烈孰能加衆人皆

哀悼之王曰公及夫人之忠節可尙特加官封贈褒其子孫

縣監公諱起文官建功將軍行龍驤衛副護軍朔寧縣監

司諫公諱玉衡字治圭文科司諫院司諫

司果公諱應淑字彥澄武科司果

副護軍公諱應國宣祖朝扈聖原從功臣副護軍

司果公諱瑋武司果

嗚呼都元帥公之卒世代遙遠屢經兵禍旣失衣履之葬矣今以後
孫崇慕之誠公之英靈始有憑依之處其赫赫之貞忠大節因此徵信於
百世之下也是役也夙夜黽勉至誠從事者郡守永煥鍾武鍾壽

檀紀四三二九年丙子仲秋節

族後孫 庠淳 謹撰

二十代孫 文壽 敬書

남송사를 창건한 사적비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의 동원에 사당집이 우뚝하
고 정문이 수려하니 남송사라고 현판하여 길가는 사람이 경
례하지 않는 이 없는 곳이 있으니 연주현씨 도원수공·현감
공·사간공·사과공·부호군공·사과공 여섯 현인의 영령을
되신 곳이다.

지난날에 문화원장인 문수(文壽)가 족보를 살펴보고 나에
게 와서 말하기를 선조 도원수공은 고려의 명장으로 충절이
빛나시어 사적이 고려사에 실려 있는데 묘소가 실전하여 오
래 추모하는 정성을 펼하였기에 이제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
를 올리고자 하니 원컨대 증백은 신주되시는 일과, 제사 올
리는 절차를 명시하여 주시오 하였다. 내 후생의 말학으로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하리오.

여러 번 사양하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이에 선현의 전사를 널리 찾아 들려주었더니 즉시 모든 일가에 협의하여 남송사를 창건하고 매년 十月初日에 신위 앞에 봉향하니 원근의 참사하는 자가 흠복하지 않는 이 없더라. 병자년(丙子年) 가을에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신위 설치하는 일은 이미 명한대로 행하였음에 육현(六賢)의 숨은 덕행과 아름다운 사적에 대한 기록이 없지 못하여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그 대략을 베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도원수공의 휘는 문혁(文爌)이니 연주인이다. 고려시랑 평장사 경헌공 휘 담윤의 현손이요, 대사공 정헌공 휘 덕유(德裕)의 증손이며 할아버지 휘는 승(昇)이니 이부전서이고, 아버지의 휘는 장(璋)이니 전주절도사·동지추밀원사이시다. 공은 나면서부터 자품이 영매하고 용맹이 절륜하셨다. 연천 땅에 살며 남송정을 짓고 서적으로써 즐기더니 원종조(元宗朝)에 장군을 배하여 도원수로써 강화도에 진주하였는데 삼별초군이 반란을 일으켜 성안에 들어와 관장을 음살하고 인민을 약탈하여 부고를 천발하니 그 형세가 흉험하였다.

공은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장차 후일을 도모하고자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올 때 적병이 좌우로 추격하니 공은 힘껏 활을 쏘고 그 부인은 화살을 빼어주어 적병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한참 후에 화살이 다하고 배가 부딪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의리가 쥐 같은 무리의 욕된 바가 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두 딸을 이끌고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공은 급히 서울로 달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진멸시켰

다. 그 때 사람들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날뛰는 반적들이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홀로 현공(玄公)이 국가를 위해 싸웠도다. 슬프다 부인이 물에 던져 죽음이여. 예나 이제 정렬(貞烈)이 뉘가 더 할소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애도하였다. 임금은 「공과 부인의 충절이 가상하다」 하고 특별히 관직을 더하고 그 자손에게 증직 표창하였다.

현감공의 휘는 기문(起文)이니 벼슬은 건공장군 용양위 부호군과 삭녕현감을 하였다.

사간공의 휘는 옥형(玉衡)이요 자는 치규(治圭)니 문과에 올라 사간원 사간을 하였다.

사과공의 휘는 응숙(應淑)이요 자는 언징(彦徵)이니 무과로 사과를 하였다.

부호군공의 휘는 응국(應國)이니 선조조에 호성원종공신 부호군을 하였다.

사과공의 휘는 위(瑋)이니 무과에 올라 사과를 하였다.

아! 슬프다. 도원수공께서 돌아가신지 세대가 요원하고 여러 번 병화를 겪어서 이미 의리(衣履)의 장사한 곳을 잃었더니 이제 후손의 숭모하는 정성으로 공의 영령이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 비로소 생겼으니 그 혁혁하신 정충과 대절이 이로 인하여 백세 후에 증명될 것이다. 이 일에 주야로 힘쓰고 지성껏 종사한 자는 군수인 영환과 종무와 종수 등 모든 사람이다.

단기 四三二九年(서기(西紀)一九九六年) 증추절에

죽후손 상순(庠淳)이 삼가 짓고

이십대손(二十代孫) 문수(文壽)가 삼가 쓰다.

42. 叅奉玄公墓碣銘并序

公諱璫字彥璟玄氏貫延州高麗平章事諱覃胤其始祖屢傳有諱玉亮禮曹判書顯於本朝曾祖曰得利全州判官殉義於李施愛亂祖曰貴縣監考曰允武副司直妣蔚山李氏別提舜弼女公以中廟癸未三月七日生自幼有至性孝事二親盡其志體之養才思穎悟不煩教督而文理夙達成童已通詩書常曰讀書歸天行行必以孝悌爲本故曰本立而道生爲人之道蓋不外此伯仲兩兄既通仕籍吾亦出仕則養親末由遂廢舉業專力供奉兼治書疇旨甘常充歲餓有盜數十突入家內公負母越牆爲盜所擊血流被面竟屏處而安之父病求藥昏夜踰嶺有猛獸當路公諭以湯藥急歸之意虎遂俛首少避殆數十里隨後護行及到家忽不見人謂孝感仍廬墓終制後喪亦如之至今有遺址明廟壬戌以孝行薦爲獻陵叅奉未幾辭歸有四同氣公其季也而與伯氏同居一室湛樂式好尺布斗粟不爲私儲如飲食之常不敢先箸仲氏異居朝夕問候至衰老靡懈有疾則親湯藥以進撫養諸姪無間已出其孝友事行之大略如此也辛卯十二月十四日卒墓于天安北面富土里縣監公塋右艮原配安東金氏叅奉彥邦女生甲申正月卒乙酉三月二十日有淑行墓祔公有四男德升號希庵文科北評事有節義享天安六賢祠德敏將仕郎德立通德郎德輝女延日鄭渼歡城全得一內外孫曾不盡錄嗚呼公孝友既篤且有文學之才薄試郎僚罔展其他步惜矣公後承繁衍至今十餘世往往以文學科宦爲湖中聞族天道報應其在茲乎後孫將豎碣來請銘者十代孫彩東十二代孫武周十三代孫鍾完既不得辭則據家傳叙之如右繼以銘曰

猗歟維公天賦美兮家政云何孝友是兮虎護神指孝感然兮分外榮貴視如雲兮志高行備奚翹文兮流慶無極後嗣昌兮我銘于石於千霜兮

戊子南至節

嘉善大夫 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宣城 李貞烈 撰

참봉헌공묘갈명병서(參奉玄公墓碣銘并序)

공의 휘(諱)는 숙(璠)이요 자(字)는 언경(彦璟)이요 현씨(玄氏)의 관(貫)은 연주(延州)니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정일품관(正一品官)) 휘(諱) 담윤(覃胤)이 그의 시조(始祖)요 여러 대(代)를 내려와서 휘(諱) 옥량(玉亮)이 있으시고 예조판서(禮曹判書)(이품관(二品官))시니 본조(本朝)(이씨조선(李氏朝鮮))에 신분(身分)이 현저(顯著)하시고 증조(曾祖)의 휘(諱) 득리(得利)시니 전주판관(全州判官)(종오품관(從五品官))으로 이시애반란(李施愛叛亂)에 순의(殉義)(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죽음)하시고 조(祖)의 휘(諱)는 분(賁)이시니 송화현감(松禾縣監)이요 고휘(考諱)는 윤무(允武)신데 벼슬은 부사직(副司直)(종오품관(從五品官))이요, 비(妣)는 을산(栗山)이씨 별제(別提)(벼슬이름) 휘(諱) 순필(舜弼)의 따님이시다.

公께서 중종(中宗) 제미(癸未)(西紀一五二三年)二月七日에 출생(出生)하시어 어릴 때부터 부모(父母)님께 효도(孝道)로서 봉양(奉養)하시고 재질(才質)이 영매(英邁)하시어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문리(文理)가 일찍 통달(通達)하시어 성동(成童)(十五歲)에 벌써 시전(詩傳)·서전(書傳)을 능통(能通)하시고 항상(恒常) 말씀하시기를 「글을 읽는 것은 실지(實地)로 실천(實踐)하기를 더 귀중(貴重)하게 여기도록 할 것이니 행실(行實)은 반드시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兄弟間)에 우애(友愛)하고, 일가간(一家間)에 화목(和睦)함을 근본(根本)으로 하므로 행실이 올바르게 사람의 도리(道理)가 되는 것이고, 근본(根本)이 서게 되면 사람의 도리(道理)가 자연(自然)히 우러나오는 것이니 사람이 되는 도

리(道理)는 이 밖에 또 있으리오.

백씨(伯氏)와 증씨(仲氏)가 모두 벼슬길에 오르셨으니 내 또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면 부모봉양(父母奉養)은 누가 하리오」 하시며 과거(科擧)를 아니 하시고 부모봉양(父母奉養)에 전력(專力)하시고 겸(兼)하여 글공부(工夫)를 하시며 감지(甘旨)로 봉양(鳳陽)하시더니 흉년(凶年)을 맞이하여 수십명(數十名)의 폐도적이 몰려드니 공께서는 모친(母親)을 등에 업고 담을 넘어가다가 화(禍)를 입어 얼굴에서 피가 흘러 방황할 때 마침 습을 곳을 찾게 되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아버지의 병환(病患)에 약(藥)을 구(求)하러 어두운 밤에 험한 산(山)고개를 넘게 되자 호랑이가 앞을 막으므로 공께서 부친병환(父親病患)에 약(藥)을 가지고 급(急)히 집에 돌아가야 할 뜻을 일러 말하니 범이 드디어 머리를 구부리고 길을 열어주고 수십리(數十里)까지 뒤를 따라 호위해 오다가 급기야(及其也) 公의 집에 이르자 홀연(忽然)히 사라지니 사람들이 公의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함이라 하고 부친상(父親喪)에 시묘(侍墓)로 삼년복제(三年服制)를 마치시고 그 뒤 모친상(母親喪)에도 또한 부친상(父親喪) 때와 같이 시묘(侍墓)하셨으므로 시묘(侍墓)하셨던 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명종(明宗) 임술(壬戌)(西紀一五六二年)년에 나라에서 효행천거(孝行薦擧)로 헌릉(獻陵)(태조대왕릉(太祖大王陵)) 참봉(參奉)이 되셨다가 얼마 안되어 사직(辭職)하고 집에 돌아오셨다.

사형제(四兄弟)가 있으니 공께서는 막내시다. 백씨(伯氏)와 항시(恒時)한 집에서 사시게 됨을 즐거워하시며 한 치의 옷감이나 한말의 곡식을 따로 사사롭게 저축하신 일이 없고,

음식(飮食)에 있어서도 감(敢)히 먼저 시저(匙箸)를 들지 아니하고, 증씨(仲氏)께서는 각거(各居)하시는 고(故)로 병환(病患)이 있으시면 손수 약(藥)을 다려 봉진(奉進)하고 여러 조카들도 부양(扶養)하기를 친(親)아들 딸과 다름없이 하셨으니 공의 효도(孝道)와 우애(友愛)하심이 대략 이와 같으셨다.

신묘(辛卯)(西紀一八九一年)十二月十四일에 기세(棄世)하셔서 천안시(天安市) 부대동(富垞洞) 현감공(縣監公)의 묘소 우편(墓所右便) 간좌원(艮坐原)에 장사(葬事)하고 배위(配位)는 안동김씨(安東金氏) 참봉(參奉) 휘(諱) 언방(彦邦)의 따님이시다. 갑신(甲申)(西紀一五二四年) 正月에 출생(出生)하시어 을유(乙酉)(西紀一五八五年)三月二十일에 돌아가시니 현숙(賢淑)하시고 묘(墓)는 부군(夫君)과 합폄(合窆)하였다. 사남(四男)을 두시니 휘(諱) 덕승(德升)은 호(號) 희암(希庵)이시며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북평사(北評事)(벼슬명칭)로 도학(道學)과 절의(節義)가 있어 천안육현사(天安六賢祠)에 봉안(奉安)하고 유림(儒林)이 제향(祭享)하며, 휘(諱) 덕민(德敏)은 장사랑(將仕郎)(구품(九品) 벼슬)이요, 삼남(三男) 휘(諱) 덕립(德立)은 통덕랑(通德郎)(오품관(五品官))이요, 사남(四男) 휘(諱) 덕휘(德輝) 호(號) 청암(淸庵)은 역시 통덕랑(通德郎)이요, 여서(女婿)는 연일정 익(延日鄭 湑)과 환성전득일(歡城全得一)이요, 본외손(本外孫)을 다 기록(記錄)하지 못한다.

아! 슬프다. 공께서는 효도(孝道)와 우애(友愛)가 이 처럼 두터우시고 문학(文學)의 재능(才能)이 있으시어 잠깐 낭료(郎僚)(낮선 벼슬)에 나아가시었다가 높고 큰 뜻을 펴지 못하

쳤으니 참으로 애석(哀惜)하도다. 公의 후손(後孫)이 번연(繁衍)하여 십여대(十餘代)에 이르기까지 왕왕(往往)히 학문(學問)과 벼슬로써 호중(湖中)(호남지방(湖南地方))에 그 명성(名聲)을 떨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도움으로써 이뤄진 것이라 할 것이다.

후손(後孫)들이 장차(將次) 公의 묘(墓)에 비(碑)를 세우고자 십대손(十代孫) 채동(彩東), 십이대손(十二代孫) 무주(武周), 십삼대손(十三代孫) 종완(鍾完)이가 나에게 와서 명장(銘章)을 청(請)하므로 부득이(不得已) 사양(辭讓)하지 못하고 가전(家傳)하는 바에 의거(依據)하여 우(右)와 같이 저술(著述)하고 좌(左)와 같이 명장(銘章)을 쓰노라.

아 ! 아름답도다. 公께서는 천성(天性)이 아름다우시고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兄弟間)에 우애(友愛)하심이 지극(至極)하시어 범이 호위(護衛)하고神明(神明)이 가르치시니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하심이라. 분수(分數)밖에 부귀영화(富貴榮華)는 허공에 뜬 구름처럼 보시고 뜻이 높고 행실(行實)이 갖추졌으니 어찌 학문(學問)뿐이리오. 이로 인한 경사(慶事)가 끝없이 흘러 후손(後孫)들이 창성(昌盛)할 지어다. 내가 이와 같이 글을 지어 돌에 새기니 천추(千秋)에 이어 갈 것이다.

무자(戊子)(西紀一九四八年)남지절(南至節)

가선대부(嘉善大夫) 시강원(侍講院)(왕(王)이 강론하는 자리)점보덕원임(兼輔德原任)(벼슬이름) 규장각(奎章閣)(어필보관(御筆保管)하는 곳)직학사(直學士) 선성(宣城) 이정렬(李貞烈) 찬(撰)

43.希庵先生遺稿序

希庵玄公沒而無記事之狀闕揭阡之文寥寥近三百年至今學士大夫往往有談及公類企慕徘徊恨不及並時齊美致慷慨之情也是必其咳唾之遺人皆愛而寶之不啻如吉光之羽則雖殘章短吟在所剗剔廣布耳目不可緩也顧後承單寒又無好善慕義之士爲之致力者泯泯以至于今尚論者慊焉蓋公早歲釋褐進途于于而光海敦倫杜門歛跡 仁廟改玉不就徵辟才豪氣直聳拔一世一世之愛重者如尹月汀李月沙姜睡隱李陶庵諸賢并在觀善之列而洪學士翼漢孫翰林必大乃其高弟門人則交遊傳授之盛書交志尚之高顧何如也至若各家叙述有曰良玉其質冰蘖其操有曰其文也奇班馬餘骨其詩也古李杜遺風云者亦以見當時推轂之萬一則百世景仰實是出於秉彝同情而決非阿私之論也余僑居湖右之定山有玄生翼東過從乃是公九世傍孫裔袖公遺稿二局屬以玄晏余愧非其任而亦不能辭也遂叙大略以寓緇衣之感至於詩文之聲律校卒有不敢論公諱德升字聞遠星州世家 萬曆庚寅登科由承文正字歷長興通判至成均館司藝字號希庵居士云

永曆二百五十六年歲次壬寅季秋日

嘉善大夫戶曹叅判同知義禁府事兼 經筵特進官 月城 崔益鉉 序

희암선생유고(希庵先生遺稿)에 대(對)한 서문(序文)

희암현공(希庵玄公)이 돌아가셨음에도 그 기행문(紀行文)이나 묘소(墓所)에 세울 비문(碑文) 한장(章)없이 삼백년(三百年) 가까이 흘러온 지금(至今)에도 학자(學者)나 사대부(士大夫)(큰벼슬아치)가 공에 대(對)한 말씀이 왕왕(往往)있으니 거개(擧皆)가 선생(先生)을 사모(思慕)하고 배회(徘徊)하여 돌아가신 그 당시(當時)에 유적문(遺蹟文)이나 묘갈명(墓碣

銘)을 갖추지 못하여 강개(慷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오니 한(恨)스럽도다. 이것은 반드시 선생(先生)의 유시(遺詩)를 모두 사랑하여 길광(吉光)(봉황새)의 날개와 같은 보물(寶物)일 뿐만 아니라 그 글 한 구절(句節)이라도 조각(彫刻)하여 세상(世上)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띄이게 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當然)한 일인데 후손(後孫)들이 빈한(貧寒)하고 선행(先行)을 좋아하고 의사(義士)를 사모(思慕)하여 힘을 합치(合致)하는 선비가 없어서 민민(泯泯)하게 내려오다가 지금(至今)에 이르러 거론자(舉論者)가 오히려 한(恨)스러운 일이다.

대저 공께서 일찍 나이에 촉포(蠹布)옷을 벗고서 벼슬길에 나아가니 진도(進途)가 양양(洋洋)하였으나 불의(不意)에 광해주(光海主)가 패륜적(悖倫的)으로 폐비(廢妣)하는 고(故)로 공께서는 이에 의분(義憤)이 솟아 벼슬을 내놓으시고 종적(蹤跡)을 감추시었더니 인조대왕(仁祖大王)께서 즉위(卽位)하시어 누차(累次)에 걸쳐 공을 불렀으나 불응(不應)하셨으며 그 재주가 뛰어나시고 기품(氣稟)이 강직(剛直)하시어 한 세상(世上)에 그 명성(名聲)이 드높게 울리었다.

그 세대(世代)에 애중(愛重)하게 생각하신 분(分)은 윤월정(尹月汀)(휘 근수(諱根壽) 해평인(海平人)) 이월사(李月沙)(휘 정구(諱廷龜) 연안인(延安人) 문장(文章)) 강수은(姜睡隱)(휘 침(諱沉) 진주인(晉州人)) 이도암(李陶庵)(휘 재(諱緯) 우봉인(牛峰人) 문장(文章))과 같은 여러 현인대열(賢人隊列)에 병립(并立)하셨으며 홍학사(洪學士)(휘 익한(諱翼漢) 남양인(南陽人)으로 병자호란(丙子胡亂)에 수절(守節)하신 분(分)) 손한림(孫翰林)(휘 필대(諱必大))은 공의 문인(門人)이

니 위와 같은 고명인사(高明人士)들과 교제(交際)하여 상호 간(相互間)에 전수(傳授)하며 글로써 사귀어 그 아름다운 뜻을 숭고(崇高)하였으니 이것이 과연(果然) 어떠하였으리오. 만약(萬若)에 각가(各家)의 서술(敘述)에 의(依)하면 그 바탕이 양옥(良玉)과 같으시고 또한 절조(節操)는 얼음과 같으시고 작문(作文)에 있어서는 반씨(班氏) 마씨(馬氏)의 여골(餘骨)과 같으시며 시운(詩韻)은 예전에 이씨(李氏) 두씨(杜氏)(이씨는 태백 두씨는 자미)의 풍채(風采)와 같으시니 그 당시(當時)에 수레바퀴와 같으신 만인중(萬人中)에 일인격(一人格)인 존재(存在)로 백세(百世)에 이르기까지 추앙(追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공정(公正)한 판단(判斷)에서 증정(衷情)으로 하는 말이지 내 사사(私私)로히 아첨하여 하는 말이 아니로다. 내가 호우(湖右)의 정산(定山)에 교거(僑居)하더니 현생익동(玄生翼東)이 공의 유고이편(遺稿二編)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이 분이 공의 구세방손(九世傍孫)이다. 간절히 공의 유고서문(遺稿序文)을 기술(記述)하여 달라고 청(請)하오나 그 청(請)을 맞기가 부끄러워서 사양(辭讓)하다가 할 수 없이 대략(大略)을 엮어서 치의지감(縑衣之感)(부끄러운 마음)으로 현생(玄生)에게 주었으며 공의 시문(詩文)에 있어 성률(聲律)과 교졸(巧拙)한 것을 감(敢)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공의 휘(諱)는 덕승(德升)이요 자(字)는 문원(聞遠)이니 성주현씨(星州玄氏) 세도(世道)있는 집안으로서 만력(萬曆)경인(庚寅)(서기(西紀)一五九〇年)에 등과(登科)하시어 승정원(承政院)의 정자(正字)에 부임 후(赴任後) 장흥통판(長興通判)을 거쳐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에 이르렀으며 자호(自

號)로 희암거사(希庵居士)라 칭(稱)하다.

영력(永曆)二百五十六年 세차임인제추(歲次壬寅季秋)에

가선대부호조참판동지의금부사겸(嘉善大夫戶曹叅判同知義禁府事兼)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 서(序)

44.希庵玄公墓碣銘并序

嘗聞士非博學之難能審思明辨之爲難希庵玄公自少書無不讀至於討論經籍必欲推原正俾學者知所依據矣公諱德升字達夫希庵其號星州人曾于麗朝兵部尙書諱德秀自是冠冕隆赫入本朝諱得利廣陵朝文科屢典郡邑吉州李施愛之亂舉義殉身是爲公高祖曾祖諱貴宰松禾縣南溟曹公撰墓表祖諱允武司直考諱璠啓功郎著行誼妣安東金氏考曰彥邦公生於寧城西道宗村性至孝自幼已知事親之道先以順志愛本聰穎過人才器熟就見者嘖嘖家貧四壁徒立公與其弟竭誠供甘旨務悅親心餘力學問就正於梧陰月汀兩公卽公戚兄也盛稱才學其學也專攻性理書不以事物經心嘗曰道義須從成性而做明誠必賴讀書而知一日有僧持綱目一帙欲賣力不能辨留僧三晝夜盡閱領會與人言不錯一字又工筆法與韓石峯爲伯中戊子中司馬榜仍居齋泮長策試諸生公對甚博雅聲名藉甚月沙李公睡翁姜公浦渚趙公諸名碩以道義推重浦渚公之姻黨尤愛重焉庚寅登文科隸正字攝堂后歷金吾郎出宰長興卽歸棄行里蕭然人服其清白親瘠嘗糞驗甘苦及喪廬于墓側哀音動人除制拜禮曹正郎北評事除直講司藝公當昏朝廢母之論盛行因謝絕世路家居作戀君恩一曲歌之日與多士講書於所居就陰亭若將終身及門之士日益衆考德問業莫不悅服丁卯二月二十九日考終于正寢距生甲子七月三日享年六十四葬于天安遠西三台里向癸之原有遺稿谿谷張公跋尾行于世配晉州鄭氏持平

思誠孫直長吉之女無育以姪子偃爲嗣偃生四男一女男興後次弘後有至行母病以指血進延壽徵後凝後有孝行興後有二男三女萬元萬亨女李秀寅鄭鍾勳李宣慶餘繁不記公好神采美鬚髯譚笑琅琅奉先克誠俎豆牲割親檢釀祭醴於枕邊因甕風病輦不以爲意芝村李公治郡也登眺公就陰亭釣臺慨然興感謀士民爲公將立祠享之未果至仁陵戊辰因多士齊籲許享六賢祠此可以概公矣學不志道乃冥行也道不法聖乃曲涂也公以審思明辨之學修其倫紀發諸孝悌止其定履至光海士人夫鮮不趨利染跡辱先喪身而公獨褰裳遠避獨爲完人噫其盛矣公之後孫武周鍾九請余曰先祖墓道尙闕顯刻蓋有待也願以不朽請余今寄生之踪不事鉛槧文莫吾猶人曷敢當是役辭而不能得遂序次如右系之銘曰

受之厚而獨孔仁守身爲大名愈振是維民之司表而可爲王庭輔弼之臣彼其之伎而我益伸而遂其初而返其真不知者以爲不知而知者斷斷乎元祐完人

嘉善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閔丙承 撰
完山後人 前叅奉 崔英憲 書

희암헌공묘갈명명서(希庵玄公墓碣銘并序)

일찍이 듣건대 선비가 넓게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能)히 깊게 생각하고 판단(判斷)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이다. 희암헌공(希庵玄公)은 어려서부터 읽지 않은 글이 없으며 경적(經籍)을 토론(討論)함에 있어서도 원리(原理)에 미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여 학자(學者)로 하여금 의거(依據)할 곳을 알려 주시었다. 公의 휘(諱)는 덕승(德升)이요 자(字)는 원문(遠聞)이며 희암(希庵)은 그 호(號)이신데

성주(星州)사람입니다.

고려조(高麗朝)에 으뜸이신 병부상서(兵部尙書) 휘(諱) 덕수(德秀)가 시조(始祖)이시니 벼슬이 이로부터 융赫(隆赫)하시고,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휘(諱) 득리(得利)께서는 광릉(光陵)(세조(世祖))때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시어 여러 군읍(郡邑)을 맡아보시다가 길주(吉州)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출전(出戰)하셨다가 순국(殉國)하신 분이 바로 고조(高祖)이시며, 증조부(曾祖父)의 휘(諱)는 분(貴)이시니 송화현감(松禾縣監)을 역임(歷任)하신 바 있으시어 남명 조선생(南溟曹先生)께서 묘표(墓表)를 찬술(찬술(撰述))하시고 조고(祖考) 휘(諱)는 윤무(允武)이신데 벼슬은 사직(司直)입니다.

고(考)의 휘(諱)는 숙(璠)이신바 계공랑(啓功郎)을 지내시고 행의(行誼)가 저명(著名)하시었다. 공의 비(妣)는 안동김씨(安東金氏)이신데 휘(諱) 언방(彦邦)따님이시다. 공께서는 영성서도종촌(寧城西道宗村)(현(現)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豊歲面) 용정리(龍井里) 도종(道宗))에서 출생(出生)하시어 그 성품(性稟)이 지극(至極)한 효성(孝誠)이 있으시어 어려서부터 부모(父母)를 모시는 도리(道理)를 아시므로 먼저 부모(父母)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것을 근본(根本)으로 하였으며, 총명(聰明)하심이 월등(越等)하시어 재능(才能)이 일찌기 발달(發達)되시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程度)이시나 빈한(貧寒)하시어 사시는 집이 네 벽만 서 있을 정도(程度)이니 가(可)히 알지로다.

이러함에도 그 아우와 더불어 정성(精誠)을 다하여 음식(飮食)의 맛을 보신 후(後)에 어버이에게 공양(供養)하여 기

쁘시게 하여 드리는데 힘쓰시고, 시간적(時間的)으로 여유(餘裕)가 있으면 학문(學問)에 주력(注力)하시어 오음(梧陰)·월정(月汀) 양공(兩公)에게 나아가서 자독(自讀)하신 것을 바로 잡으시니 이 두분은 즉(卽) 公의 척형(戚兄)이시다.

公은 글재주가 비상(非常)하다고 칭송(稱頌)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성리학(性理學)을 전공(專攻)하셔서 사리판단(事理判斷)에 정확(正確)하셨으며 도의(道義)는 모름지기 그 성품(性稟)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따라서 진실(眞實)하고 명확(明確)한 성의(誠意)를 지을 수가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글을 읽는데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루는 한 종이 강목(綱目)(책(冊)이름) 한 질(帙)을 가지고 와서 팔고자하는데 公께서 이 책(冊)을 사시고 싶어도 책값을 능히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종을 삼주야(三晝夜)를 당신(當身)집에다 머무르게 하면서 그 책(冊) 한 질을 다 읽으셨다. 다음에 친우(親友)와 더불어 강론(講論)하시는데 한 자(字)의 틀림이 없으시며, 또한 글씨 쓰는 필법(筆法)에 있어서도 한석봉(韓石峯)과 더불어 백중(伯仲)을 가리기가 어려웠으니 필적(筆跡)도 가(可)히 알 수 있으며 무자(戊子)(西紀一四六八年)年에 사마방(司馬榜)(보통고시(普通考試)를 치르는 장소(場所))에 나아가 제실 때에 반장(泮長)이 유생(儒生)들에게 시험(試驗)을 보인 바 과연(果然) 우수(優秀)한 성적(成績)으로 합격(合格)하시어 그 명성(名聲)이 자자(藉藉)하여 월사이공(月沙李公)과 수옹강공(睡翁姜公)과 포저조공(浦渚趙公) 여러 석사(碩士)들께서 公의 도의(道義)가 탁월(卓越)하시어 추중(推重)하셨으니 포저(浦渚)는 公의 인당(姻黨)(처족(妻族))이라 더욱 애중(愛重)하셨다.

경인년(庚寅年)(西紀一五九〇年)에 문과(文科)에 합격(合格)하시어 예정자(隸正字)와 섭당후(攝堂后)를 거쳐서 금오랑(金吾郎)을 역임(歷任)한 후(後) 장흥(長興)(지명(地名))을 맡으셨다가 바로 사임(辭任)하시고 귀향(歸鄉)하시는데 그 행리(行李)(이삿짐)가 너무도 간단하였으므로公께서 그 청백(清白)하신 것을 알게 되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복(歎服)하게 하였으며, 친환(親患)이 제실 때에 대변(大便)을 맛보시고 달고 쓴 것을(달면 살 가능성이 없고 쓰면 살 수 있음) 시험(試驗)하셨으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급기야(及其也) 그 상(喪)을 당(當)하셨으므로 묘소(墓所)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애통(哀痛)하시는 소리가 사람들을 감복(感服)케 하였으며, 그 효성(孝誠)을 능(能)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탈상후(脫喪後)에 예조정랑(禮曹正郎)(정오품(正五品)) 북평사(北評事)(정육품(正六品)) 직강(直講)(정오품(正五品)) 사예(司藝)(벼슬이름 정사품(正四品)) 등(等)을 역임(歷任)하시다가 혼조(昏朝)(광해주가 폐모할 때)를 당(當)하시어 상왕(上王)이 폐모(廢母)하겠다는 패륜적(悖倫的)인 언동(言動)이 성행(盛行)하므로公께서는 분연(憤然)히 직위(職位)에서 용퇴(勇退)하시어 집에 돌아오시니 군은(君恩)을 생각하는 노래를 지으시었고, 날로 많은 선비와 더불어 사시는 취음정(就陰亭)에서 글을 강론(講論)하시며 평생(平生)을 마치려 하셨으나 찾아오는 선비가 날로 늘어나서 덕(德)을 고찰(考察)하고 업(業)을 문의(問議)하여 승복(承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다.

정묘(丁卯)(西紀一六二七年)二月十九日에 사시던 집에서

천명(天命)에 의(依)하여 잠드셨으니 가위(可謂) 오복중(五福中)에 하나인 고종명(考終命)을 하셨다. 갑자(甲子)년(西紀一五六四年)七月三日에 출생(出生)하시어 향년(享年)六十四歲이시고, 장지(葬地)는 천안원서삼태리(天安遠西三台里)(현(現)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삼태리(三台里) 원당(元塘))의 제좌(癸坐)의 산록(山麓)이다.

공의 유고(遺稿)가 있어서 계곡장공(谿谷張公)께서 유고(遺稿)의 말미(末尾)에 발문(跋文)을 첨부(添附)하여 세상(世上)에 내놓으셨다. 그리고 배위(配位)는 진주정씨(晋州鄭氏)이신데 지평(持平)(정오품(正五品)) 휘(諱) 사성(思誠)의 손녀(孫女)요 직장(直長)(정칠품(正七品)) 휘(諱) 길(吉)의 따님이다. 그러나 일점(一點) 혈육(血肉)이 없어 조카 언(僊)을 사자(嗣子)로 양입(養入)하셨으며 언(僊)은 사남일녀(四男一女)를 두셨는데 일휘(一諱)는 흥후(興後)요, 이휘(二諱)는 홍후(弘後)신데 효행(孝行)이 지극(至極)하시어 자친(慈親)의 병환(病患)이 있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복용(服用)토록 하여 그 수(壽)를 연장(延長)토록 하였으며, 삼남(三男)의 휘(諱)는 징후(徵後)요, 사남(四男)의 휘(諱)는 응후(凝後)인데 역시(亦是) 효행(孝行)이 있으시며, 흥후(興後)께서는 이남삼녀(二男三女)를 두셨는데 일남(一男)의 휘(諱)는 만원(萬元)이요, 이남(二男)의 휘(諱)는 만형(萬亨)이요, 일녀(一女)는 이수인(李秀寅), 이녀(二女)는 정종훈(鄭鍾勳), 삼녀(三女)는 이선경(李宣慶)이며 이하(以下)의 자손(子孫)들은 번연(繁衍)하여 다 기록(記錄)하지 못하는 바이다.

공께서는 체국(體局)과 풍채(風采)가 좋으시며 수염이 아름답고 웃음소리가 낭랑(琅琅)하셨다. 그리고 선조(先祖)

를 받드시는 정성(精誠)이 극진(極盡)하시어 제수(祭需)를 친(親)히 장만하시고 제주(祭酒)를 손수 비저 머리말에 놓으시어 외인(外人)들을 엄금(嚴禁)하셨다. 이 슬독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롱(耳聾)까지 있으셨으나 이것은 조금도 염려(念慮)치 않으셨다.

그 때의 군수(郡守) 지촌이공(芝村李公)이 공이 제신 뉘시터에 나와 공의 유업(遺業)을 보고 감개(感慨)한 나머지 사민(士民)들과 더불어 공의 사당(祠堂)을 세우려고 모사(謀事)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릉(仁陵)(순조(純祖)) 무진(戊辰)(西紀一八〇八年)년에 많은 선비가 일제(一齊)히 육현사(六賢祠)를 세우자고 부르짖어 관(官)의 허가(許可)를 얻어 사당(祠堂)을 건립(建立)하고 향사(享祀)하니 이것은 가(可)히 공의 절개(節概)로 인연(因緣)한 것이었다.

아무리 배워도 도(道)를 뜻에 두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걷는 것이요, 성인(聖人)의 도(道)를 본받지 않으면 구부러진 흙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恒常) 배우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어 윤리(倫理)를 닦으시어 동기(同氣)에 우애(友愛)있고 어른을 공경(恭敬)하는 것을 솔선수범(率先垂範)하시어 실천(實踐)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갈 곳과 못갈 곳을 정(定)하시어 행(行)하셨으므로 다른 사대부(士大夫)들은 이(利)를 추구(追求)하여 자기(自己)의 행적(行跡)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적어서 선조(先祖)를 욕(辱)되게 하고 자기(自己) 몸을 상(喪)하게 하였으나 공께서는 홀로 멀리 피하시어 완인(完人)이 되셨으니 참으로 장(壯)하시도다.

공의 후손(後孫) 무주(武周)와 종구(鍾九)가 나에게 찾아와서 선조(先祖)의 묘도(墓道)에 지금(至今)까지 켜(闕)하였

던 묘갈명(墓碣銘)을 저술(著述)하여 줄 것을 청(請)하므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法)이라 비문(碑文)을 초(草)하는 일도 역시(亦是) 시기(時期)가 있어서 지금(至今)껏 지연(遲延)된 것이며 내가 글이 남만 못한 것이 아니라 위대(偉大)하신 선생(先生)의 비문(碑文)을 감(敢)히 감당(堪當)할 수가 없어 사양(辭讓)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위와 같이 서문(序文)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계통(系統)을 찾아 명장(銘章)을 쓰노라.

하늘로부터 내려 받은 덕(德)이 두터우며 어질고 또한 내 몸을 지켜 이름을 떨쳤으니 이는 오직 백성(百姓)들의 사표(師表)가 되심이요 왕정(王庭)을 보필(輔弼)하신 신하(臣下)이시니 공께서는 내 몸을 더 신장(伸長)하고자 욕심(慾心)하심이요 기(其) 초지(初志)로부터 끝까지 진실(眞實)한 것만으로 반복(返復)하셨으니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모두 단호(斷乎)히 완인(完人)이 되도록 근본(根本)부터 도을 것이다.

가선대부전이조참판홍문관부제학동지(嘉善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경연의금부춘추관사(經筵義禁府春秋館事) 규장각직제학시강원검교보덕(奎章閣直提學侍講院檢校輔德) 여흥(驪興) 민병승(閔丙承) 찬(撰)

완산후인(完山後人) 전(前) 참봉(叅奉) 최영헌(崔英憲) 서(書)

45.贈吏曹判書南村公行狀

府君諱積福字誠中自號追遠堂晚稱南村迺叟高麗毅宗朝門下侍郎平章事諱覃胤之十五世孫順天君諱元奭之十三世孫也諱紹宗居家

有至行二十六早卒後

贈兵曹叅判寔府君之先考也妣龍仁李氏將仕郎茂女工曹典書彥曾孫以正德辛巳十二月三十日生府君于延安城外西部之宗家自幼愛親之誠根於天賦乙酉遭先考喪時年纔五歲已有哀慕之發於中者稍長至誠事母夫人承奉之節服勤之勞出自中心無一毫勉強底意人皆以天生孝子目之十五慨然有求道之志所自期者不在於凡儒俗學之間晨昏之暇沈潛性理之書講究經禮之旨日勉勉不已且自念三世天闕之餘門戶日替苟非科第之成名則無以振衰運而慰親心兼復致力於公車之業文賦各體亦臻練熟而未嘗以科舉累其心戊申丁內艱哭泣之哀顏色之憾不特弔者之悅而已葬後不爲返虞仍守廬于墓側在邑下咫尺日夜號哭之聲感動行路凡朝夕上食必躬自炊爨常沐浴致齋于墓下川故至今邑人號其川曰致齋是時道伯聞其善居喪躬造致禮栗谷李先生亦於海州來往之路歷訪叙話仍爲道義之交自後孝行經學之名播諸中外大爲儒林所推重庚申有事八閩留泮中數月太學東西齋及四學儒生爭來致敬仍合辭公薦非生進而八齋薦從古所無而聲望之素孚於人此可見也壬戌冬 筵臣以至孝 奏達請行褒美之典自 上特命遣禮官 旌閭于所居之家在世時 旌閭乃曠世殊榮也是歲七月擬光陵叅奉未受點尋 除恭陵叅奉以不仕沽名爲耻卽日上京肅謝隨例入直朝夕整冠服上 陵省掃不避雨雪日以爲常約束山直護養樹木而間三日親自巡山省視之至如疏滌井泉修掃祀廳等節皆有程課未嘗暫雜齋舍必靜坐讀書以終日七年如一日乙亥春移差平壤永崇殿直是冬遷豐儲倉奉事戊寅冬遷尙衣院直長前後二司皆公上進排之地而恪勤奉公咸得體裁長官比僚無敢非義干之庚辰夏陞受司僕寺主簿是年秋 除河陽縣監爲政廉而簡勤而謹尤以恤民隱崇儒學爲本別構學舍名曰作成齋每月選儒生十數人使之居處做業傾廩以供之五年間文化蔚興甲申冬遞遷己丑春復職爲司憲府

監察庚寅春出爲殷山縣監居官行政一如河陽時而以邑俗專尚武事故崇儒之政一倍加意一境人士稍知爲學之方向辛卯春 聖上遇災求言府君應旨陳疏深勉修省之實而先言以敬之一字爲一心之主公之一字爲政治之本勤咨訪以廣聰明好學文以崇德業處九重而念民之不庇於風雨對八珍而念民之不足於糠粃服輕暖則念蠶婦之赤立臨宴享則念田家之辛苦宮房無私愛左右無偏恩王子公翁主第宅亦毋得違越法制以傷民力繼言早建 世子以定國本者乃是宗社之至計國家之大事而今日朝廷之上無一人抗言而請建臣切慨然也末言本道民瘼數三條以附救弊之策首尾數千言勤勤懇懇深得格君獻替之本而及其疏到也政院以建儲一事爲 聖心之所厭聞退却而不以聞稍後松江鄭相國澈獨以建儲陳疏遭譴罰始知忠良之爲國深慮所見相符也是年冬解歸鄉廬府君素有宿疾篤老以後諸症迭欲辛丑四月二十四日損館享年八十有一葬于鳳嚙山壬坐之原嗚呼府君身貌肥碩氣質淳慤心德之忠厚誠孝之純篤寔出於天賦之自然而好學以克其操好禮以檢其身蔚然爲名世之宏儒其爲學不資於師友而只務心得不專於口耳而只要躬行處心則以至誠不欺爲本修行則以忠信篤敬爲基居家盡事親之道居官盡事君之道惟孳孳爲善而已其爲禮酌古通今本之人情情之所安雖古禮所無或有義起而行者情之所不安則雖古禮亦有不行者觀其所著家禮祠堂條有曰禮云晨省昏定爲人子者所當依事生之禮而禮只有晨謁之文未有夕謁之節無乃禮有所未備者乎每晨早起梳頭盥洗詣家廟再拜夕時亦行再拜又曰禮云出告反面爲人子者所當依事生之禮而人之出入有遠近久速亦宜有分別之節也每日瞻謁之外經宿而歸則焚香再拜而已經旬以上則焚香再拜後必有告辭告畢又再拜歸亦如之經月而歸則先再拜於階下升自阼階焚香有告辭告畢再拜降復位再拜並皆裁成節目爲常行之規且府君乃支孫也不祭祖以上只奉考妣兩位朝夕上食之禮終身不

廢考妣生辰則亦依事生之禮盛設別祭自己生日則追思劬勞之恩別行茶禮此數段卽古禮外義起而行者也觀其家禮編末自叙之文有曰喪制之禮人道之始終前賢所著詳且備矣而其中飯含明器二事雖出於古人不忍其口之虛不忍死其親之意而於某之心終有所不安者他日某喪勿用此禮其後辛丑之喪諸孤不敢違其遺意遂廢而不行此一段雖古禮亦有不行者也蓋府君之七十年竭力而盡誠者只在於奉祭祀一事家廟上食既是古今人家之所未行而每值考妣忌則一月行素祖曾以上遠代之忌必行三日素至篤老而猶不輟祭禮則以晦齋李彥迪奉先雜儀佔只齋金宗直彝遵錄栗谷擊蒙要訣參酌攷訂定爲一家之法是時金沙溪喪禮備要未出人各異禮家各異規也府君以是爲憂一依朱文公丘瓊山兩家之禮參以時俗之所宜訂以諸儒之所纂積年編摩手成一部家禮至今印行于世人家多有依行者今以備要之書互見則綱領節目無甚異同惟居廬一節乃備要所無也禮學之精深見識之博洽於是乎益驗矣觀乎逐年日記中壬辰癸巳所錄則日日首書大駕之在何地國家之有何故然後次及於私事是蓋朱夫子帝在房州之意而憂時向國之忱亦可見其一段也且舊藏國忌帖下端見有手題者曰某自少時每值國忌則例爲行素而七十以後氣力消耗非肉則食不能下咽故只行中仁明三宗之素其餘則皆未强行傷哉老也又於三宗忌日所書之下有題曰白髮小臣海西之一野民也曾歷三宗之世而躬服其喪故茲就帖中別錄其昇遐月日而行其齋素以表其於戲不忘之意其亦古人獻芹曝之類也歟若其事業則位卑職疎固無布施之及于民國而內外居官二十四年一以至誠奉職爲務少無慢忽塞責底意其在兩邑也多有澤民革弊之政而辛卯建儲之疏見得自別癸巳陳弊之疏慮思周詳若使栗翁南臺之議不爲宋應漑之沮却而得以周旋於獻替之地則其言議謀猷之發於誠意見於事爲者豈但已乎平生不求聞達不事交遊故其不知者則不過以爲一鄉之善士而其知之者

則溪知而傾慕無不心誠好之如安楓崖敏學洪拙齋聖民鄭相國芝衍
李鳴谷山甫金牧使悌甲數三公最相知心有逐年所記幾許冊而多散
失今見存十數卷而已居家行事也在官職務也朋儕過從也遠近出行
也靡不隨事隨記蓋自溫公無不可對人言之意今於二百年後遺錄之
編成者莫非此記中考據而當初所記出於自筆故略略說去太沒其實
此則觀之者自可以推測矣配蔚珍張氏世憲女禮曹判書續六代孫仙
槎府院君稱悌后事府君克盡柔順之道壺範備具先府君十年卒于辛
卯十二月八日翌年春葬于同原與府君爲雙墓焉

五代孫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光宇 謹書

증이 조판서남촌공행장(贈吏曹判書南村公行狀)

부군(府君)의 휘(諱)는 적복(積福)이요 자(字)는 성증(誠
中)이요 자호(自號)를 추원당(追遠堂)으로 하였다가 늦게 남
촌(南村)으로 고치셨다. 공은 고려의종조(高麗毅宗朝)에 문하
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이신 휘(諱) 담운(覃胤)의 십오세
손(十五世孫)이며 순천군(順天君) 휘(諱) 원미(元美)의 十三
世孫이시다. 휘(諱) 소종(紹宗)께서는 지극(至極)한 효행(孝
行)이 있으셨으나 이십육세(二十六歲)에 조졸(早卒)하셨으며,
그 후(後)에 나라에서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증직(贈職)하
셨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선고(先考)이시며, 비(妣)는 용인
이씨(龍仁李氏) 장사랑(將仕郎)(종구품(從九品)) 무(茂)의 따
님이며 공조전서(工曹典書)(종일품(從一品) 관직) 언(彦)의
증손녀(曾孫女)이니 공께서는 정덕(正德) 신사(辛巳)(西紀一
五二一年)에 연안성외서부(延安城外西部)의 종가(宗家)에서
출생(出生)하시니 어려서부터 아버이를 사랑하는 성의(盛意)
가 천성(天性)에서 근본(根本)하시어 을유년(乙酉年)에 선고

상(先考喪)을 당(當)하시니 이 때에 겨우 다섯 살이셨다.

그 애모(哀慕)하시는 표정(表情)이 마음속에서 자연적(自然的)으로 우러나오시며 점점 크시며 모친(母親)을 섬기시는 충정(哀情)이 더욱 지극(至極)하시어 봉양(奉養)하시는 절차(節次)와 봉양(奉養)하시려고 노력(努力)하시는 것이 역시(亦是)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솟아나와 시종(始終) 똑같으시어 세상(世上)사람들은 하늘이 낸 효자(孝子)라고 하였으며 연령(年齡) 십오세(十五歲)에 도(道)를 구(求)하려는 뜻이 있어서 자신(自身)이 기약(期約)하는 목적(目的)이 일반(一般) 선비가 속학(俗學)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남은 시간(時間)에 깊은 성리학(性理學)을 연구(研究)하고 경례학(經禮學)을 강구(講究)하는데 힘쓰시고 노력(努力)하였으며,

공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위로 삼세(三世)가 일찍이 별세(別世)하시어 가운(家運)이 날로 막혀 감을 통탄(痛歎)하시니 구차하게 벼슬을 하여 이름을 세상(世上)에 떨쳐 부모(父母)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윗대(代)에서 하시던 세업(世業)에 더욱 힘을 모아 시(詩)와 부(賦)등 각방면(各方面)에 걸쳐 익혀서 힘으로 일찌기 과거(科擧)하여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고 가업(家業)이며 글 공부(工夫)에 열중(熱中)하시던 차(次)에 그 모친상(母親喪)을 당(當)하시게 되니 슬피 우시는 소리와 슬퍼하시는 얼굴빛이 조상(弔喪)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感動)케 하였으며, 장례후(葬禮後)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묘소(墓所) 옆에 여막(廬幕)을 지으시고 이어 그 곳에서 사시며 묘(墓)를 수직(守直)하시는 동시(同時) 조석(朝夕)으로 호곡(號哭)하시는

소리에 행인(行人)들이 감동(監董)치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할 때에는 반드시 몸소 밥을 지으시고, 또한 산(山)고랑 물에 목욕(沐浴)하시고 정성(精誠)을 다하셨으니 동리(洞里) 사람들은 이 개울 이름을 치재(致齋)(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목욕하는 것)천(川)이라 하였다.

이 때에 도백(道伯)(지금의 도지사(道知事))이 공의 효행(孝行)을 듣고 친(親)히 찾아와서 문상(問喪)하고 예(禮)를 갖추어 치사(致辭)하였으며, 을곡(栗谷) 이선생(李先生)(휘 이(諱珥))이 또한 해주(海州) 오고가는 길에 찾아 오셔서 대화(對話)하심으로서 도의(道義)로 교분(交分)을 맺으셨으니 이후(以後)로부터 효행(孝行)과 경학(經學)이 장(壯)하시다는 명성(名聲)이 지역사회(地域社會)에 자자(藉藉)하여 유림(儒林)들이 다 같이 추중(推重)하였으며,

경신(庚申)(西紀一五二四年)년에 서울에 들어가시어 성균관(成均館)에 수개월(數個月) 동안 체류시(滯留時) 대학동서재(大學東西齋)(지금의 대학(大學))의 유생(儒生)과 사학(四學)(지금의 초중고대학교(初中高大學校))의 유생(儒生)들이 서로 찾아 와서 경례(敬禮)하고 증의(衆議)를 모아 정부(政府)에 공천(公薦)하니 생원(生員)(보통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나 진사(進士)(위와 같음)가 아닌데 입재천(入齋薦)에 뽑히는 것은 고래(古來)로부터 없었던 일을 이 처럼 공천(公薦)하였으니 공의 명성(名聲)과 덕망(德望)이 증인(衆人)에 뛰어났음을 가(可)히 알 것이다. 임술년(壬戌年)(西紀一五四四年)겨울에 조정중신(朝廷重臣)들이 지극(至極)하신 효성(孝誠)을 포상(褒賞)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王)에게 주달(奏達)하니 왕

(王)께서는 예관(禮官)을 특파(特派)하시어 공이 사시는 동리(洞里)에 정려(旌閭)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세상(世上)에 널리 빛나는 특수(特殊)한 영광(靈光)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 해 七月에 광릉(光陵)(세종대왕(世宗大王)의 릉(陵)) 참봉(參奉)(종구품(從九品))으로 천(薦)하였으나 규정(規定)에 어긋나서 참여(參與)치 못하시고 잠시후(暫時後)에 공릉(恭陵)(장순왕후(章順王后)의 릉(陵))참봉(參奉)으로 제수(除授)되시니 이름을 팔아 벼슬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시고 그 날 바로 상경(上京)하시어 관례(貫例)에 따라 입직(入直)하시어 관복(官服)을 정제(整齊)하시고 능소(陵所)에 올라 순찰(巡察)하시되 비·눈·바람을 가리지 않고 매일(每日) 한결같이 하셨으며, 겸하여 산직(山直)과 약속(約束)하시고 삼일(三日)마다 친(親)히 순산(巡山)하시어 수목(樹木)을 보호(保護)하셨으며 우물을 깨끗이 청소(清掃)하시고 사청(祀廳)을 정돈(整頓)하는 절차(節次)를 마련하시어 매일(每日) 결(缺)함이 없이 이행(履行)하심으로 잠시(暫時)도 재사(齋舍)를 떠나시는 일이 없으시고 혹시(或是) 여가(餘暇)가 있으면 정좌(靜坐)하시고 독서(讀書)하시는 것을 일과(日課)로 하셨던 것이 칠년(七年)동안을 하루와 같이 하셨습니다.

을해(乙亥)(西紀一五五六年)年 봄에 평양(平壤) 영승전직(永崇殿直)(종칠품(從七品))으로 차출(差出)되었으며 이 해 겨울에 풍저창봉사(豐儲倉奉事)(종팔품(從八品) 나라창고)로 전임(轉任)하시고, 또한 무인(戊寅)(西紀一五五九年)年 겨울에 상의원(尙衣院)(관복(官服)을 만드는 곳) 직장(直長)(종칠

품(從七品))으로 천임(遷任)하셨으니 이 전후(前後)의 두 직위(職位)가 다 공께서 승진(昇進)하시어 배회(徘徊)하시게 되신 것인데 공의 정성(精誠)과 근면(勤勉)으로 얻으신 결정(結晶)이라 하겠으며 상관(上官)이나 동료(同僚)라도 공이 하시는 일에 정의(正義)가 아니면 감(敢)히 간섭(干涉)함이 없었도다.

경진(庚辰)(서기(西紀)一五六一年)年 여름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종육품상(從六品上))로 오르셨으며 이 해 가을에 하양현감(河陽縣監)(정육품(正六品))으로 전임(轉任)되시어 정사(政事)를 맡아 하시는데 청렴(清廉)하시고 간근(簡勤)하시고 근신(謹慎)하셨으며 더욱 백성(百姓)들을 친(親)히 구휼(救恤)하시고 유학(儒學)을 숭상(崇尚)함을 근본(根本)으로 하여 별도(別途)로 학사(學舍)를 설립(設立)하고 작성재(作成齋)라 명명(命名)하시어 매월(每月) 십수인(十數人)씩 선발(選拔)하시되 기소요경비(其所要經費)는 국고(國庫)에서 지출(支出)하시니 오년(五年)만에 문화(文化)가 율흥(蔚興)하였다.

갑신(甲申)(西紀一五六五年)年 겨울에 잠시(暫時) 휴직(休職)하셨다가 기축(己丑)(西紀一五七〇年)年 봄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정육품(正六品))로 복직(復職)하셨다가 다시 경인(庚寅)(서기(西紀)一五七一年)年 봄에 은산현감(殷山縣監)으로 나아가시어 그 행정(行政)을 하양시절(河陽時節)과 똑같이 하시고 특별(特別)하신 것은 무사(武事)를 숭상(崇尚)하셨으므로 승유(崇儒)와 승무(崇武)하는 정사(政事)가 배(倍)로 더 하여졌으니 그 고을 인사(人士)들은 장학(獎學)하는 방향(方向)을 점점 알게 되었으며 또한 신묘(辛卯)(서기(西

紀)一五七二年)年 봄에 성왕(聖王)께서 재앙(災殃)을 만나시자 그 충언(忠言)을 구(求)하시니 부군(府君)이 성상(聖上)의 뜻에 맞추어 소장(疏章)을 진개(陳開)하시되 깊이 수신(修身)하고 성찰(省察)하는 실행(實行)을 부지런히 해서 「경(敬)」자(字) 일자(一字)로써 일심(一心)의 주장(主張)으로 하고 공정(公正)하게 처리(處理)하는 공자(公字)로 정치(政治)의 표본(標本)으로 현명(賢明)하고 덕망(德望)있는 사람을 널리 찾기를 부지런히 하고 덕업(德業)을 숭상(崇尚)하는 학문(學問)을 넓히고 내 몸은 비록 구중궁궐(九重宮闕)에 있어도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는 백성(百姓)들을 염려(念慮)하며 고량진미의 음식(飮食)을 대(對)할 때도 강미(糠粃)(거친 음식)도 부족(不足)한 백성(百姓)들을 생각하고 좋은 비단 옷을 입을 때에도 역시(亦是) 길쌈하는 부인(婦人)이 적신(赤身)이라는 것을 염려(念慮)치 않을 수 없으며 잔치에 임(臨)하였을 때에는 농사(農事)를 하는 농부(農夫)들의 노고(勞苦)가 얼마나 많았을까 항상(恒常) 걱정스럽고 왕(王)의 방(房)에는 애첩(愛妾)이 없어야 하며, 만백성(萬百姓)들에게는 균등(均等)하게 은혜(恩惠)를 베풀어야 하며 왕자(王子)와 공주(公州)와 옹주(翁主)의 저택(邸宅)은 그 법제(法制)를 어져가면서 호화(豪華)스럽게 하여 민폐(民弊)가 안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세자(世子)를 속(速)히 책봉(冊封)하여 국가(國家)의 근본(根本)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국가(國家)의 대업(大業)인데 조정 중신(朝廷重臣)들 중에 이같이 건의(建議)하는 사람이 없으니 개탄(慨嘆)하는 바이다.

말석(末席)에 있는 사람으로 도민(道民)이 폐(弊)가 되는 몇 가지를 들어 그 폐단(弊端)을 구제(救濟)할 수 있는 대책

(對策)을 붙여 서두(序頭)부터 끝까지 간절(懇切)한 말로써 임금께 간언(諫言)하여 헌책(獻策)할 수 있는 근본방침(根本方針)을 얻고자 하는 상소장(上疏狀)을 급기야(及其也) 봉정(奉呈)할 때 정원(政院)에서는 세자책봉(世子冊封)하자는 한 가지 일로 건의(建議)하게 되면 임금께서 듣기 싫어하실 터이니 이것을 퇴각(退却)하여 임금이 못 듣도록 하였다. 잠시 후(暫時後)에 송강(松江) 정정승(鄭政丞) 철(澈)이 단독(單獨)으로 세자(世子)를 책봉(冊封)하자는 소장(疏狀)을 올리자 임금이 전책(譴責)을 하신 후(後)에야 비로소 충신(忠臣)들이 나라를 위(爲)하여 깊은 우려(憂慮)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공의 상소문(上疏文)이나 정송강(鄭松江) 상소문(上疏文)이 상부(相符)된 것을 보게 된 까닭이다.

이 해 겨울에 벼슬을 사양하시고 고향(故鄉)으로 돌아가시자 평소(平素)의 병환(病患)이 악화(惡化)되시어 향년(享年) 八十一歲로 四月二十四日에 손관(損館)(사대부(士大夫)가 사망(死亡)한 것)하시어 봉옹산임좌원(鳳鳴山壬坐原)에 장례(葬禮)하였다. 아! 슬프도다. 부군(府君)의 체구(體軀)가 석대(碩大)하시니 기질(氣質)이 순각(淳慤)하시고 충효(忠孝)가 지극(至極)하시니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신 자연(自然)이며 배움을 좋아하셔서 그 지조(志操)를 지키시며 예(禮)를 좋아하심으로써 세상(世上)에 이름을 떨치신 거유(巨儒)로 울연(蔚然)하시고 배움에 있어서 스승이나 벗에 의지(依支)하지 않으시고 한갓 마음가짐에 힘써 얻으시며,

또한 입이나 귀로만 전력(專力)하지 않으시고 다만 몸소 궁행실천(躬行實踐)하시고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항상 지성(至誠)으로써 남을 속이지 않음을 근본(根本)으로 하시고 그

실천(實薦)에 있어서는 충신(忠臣)으로 기본(基本)하시고 집에 거(居)하실 때에는 부모(父母)님을 섬기시는데 전념(專念)하시고, 관직(官職)에 제실 때에는 임금을 섬기시는 도리(道理)를 다하시어 오직 착하게 하는데 정성(精誠)을 쏟으시고 예(禮)를 행(行)하시는데 있어서는 옛 것을 참작(參酌)하시고 현재(現在)를 통(通)하심을 원칙(原則)으로 하시어 인정(仁情)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근본(根本)으로 하여 정(情)으로는 꼭 하여야 할 예(禮)이오나 고서(古書)에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의(義)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행(行)하시고 예서(禮書)에 있는 것이라도 인정(仁情)에 비록 불안(不安)한 일이라면 또한 행(行)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으셨다.

가례(家禮)의 사당조례(祠堂條例)를 저술(著述)하신 바를 보면 신성혼정(晨省昏定)은 자식(子息)된 도리(道理)로 되어 있으나 저녁에 보이는 절차(節次)가 없는 것은 예(禮)에 미비(未備)한 점이다. 매일(每日) 새벽에 머리를 빗고 세수(洗手)하고 가묘(家廟)에 나아가 재배(再拜)하고 저녁에도 아침과 같이 재배(再拜)하고 출필곡(出必告) 반필면(反必面)은 사람된 도리(道理)이니 부모(父母) 생전(生前)에 봉양(奉養)하는 예(禮)에 의(依)하는 것이 당연(當然)한 일인데 사람이 출입(出入)하는데 있어서 원근(遠近)과 구속(久速)의 절차(節次)를 두는 것이 의당(宜當)할 것이다.

매일(每日) 침알(瞻謁)하는 이외(以外)에 하루 밤만 쉬고 돌아온 즉시(則時) 분향재배(焚香再拜)만 하고, 열흘 이상(以上) 경과(經過)하고 돌아오면 분향(焚香)한 연후(然後)에 그 이유(理由)를 고(告)하고 출배(出拜)하며 한 달을 경과(經過)한 후(後)에 귀가(歸家)한 즉(則) 먼저 뜰 아래에서 재배(再

拜)하고 다시 뜰에 올라가서 분향후(焚香後) 그 이유(怡愉)를 고(告)한 다음에 재배(再拜)한다.

이러한 절차(節次)를 마련하여 항상(恒常) 이같이 행(行)한다. 부군(府君)은 지손(支孫)이라 조부이상(祖父以上)은 제사(祭祀)하지 않으시고 부모양위(父母兩位)만 받으시는데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하는 예(禮)를 종신(終身)토록 하셨으며, 또한 부모(父母)의 생신시(生辰時)에는 생전(生前)에 모시는 것과 똑같이 하여 특별(特別)히 제사(祭祀)하시고 자기(自己)의 생일(生日)이면 나를 낳으신 은혜(恩惠)를 추모(追慕)하여 별도(別途)로 차례(茶禮)를 행(行)하시니 이 몇가지는 고례(古禮)에 없는 일이나 의(義)에서 행(行)하신 것이다.

그 가례책(家禮冊) 끝에 자서(自叙)하신 글을 보면 상례(喪禮)는 사람의 종말(終末)이라 옛 성현(聖賢)께서 저술(著述)하신 것에는 상세(詳細)하고 또 구비(具備)하지만 그 중(中)에는 반함(飯舍)(죽은 사람 입에 쌀을 넣는 것) 명기(明器)(무덤 속에 생활(生活)하는 도구(道具)를 넣은 것)이 두가지의 일은 비록 옛 사람으로부터 시작(始作)되었으나 그 입이 비었다고 차마 못할 일이며 또한 명기(明器)도 하여야 이치(理致)에 부합(符合)되지 않은 일이니 이상(以上) 두가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라 공의 마음으로는 차마 못하는 일이므로 항상(恒常) 불안(不安)한 바이다. 다음에 공께서 사망(死亡)하여도 이 예(禮)를 쓰지 말라 유언(遺言)하였던 바 기후(其後) 신축(辛丑)(西紀一五八二年)년에 서거(逝去)하였을 때 여러 상인(喪人)들은 그 유지(遺志)에 따라 드디어 폐지(廢止)하고 행(行)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비록 고례(古

禮)에 있는 일이지만 행(行)하지 않는 한 예(例)이다.

요컨대 부군(府君)의 연세(年歲) 七十에 힘과 정성(精誠)을 다하여 봉행(奉行)하는데 있어 고금(古今)을 통(通)하여 다른 가정(家庭)에서는 행(行)하지 않은 가묘(家廟)의 상식(上食)을 한결같이 봉행(奉行)하고 있으며 부모(父母)의 기제(忌祭)이면 한 달 전(前)부터 소식(素食)(고기 없는 밥)을 하고 조부모(祖父母) 증조모(曾祖母) 이상(以上) 원대(遠大)의 제사(祭祀)이면 삼일(三日)을 소식(素食)하고 八十歲가 지나서도 제례(祭禮)에 필(必)히 참사(參祀)하셨으며, 회재(晦齋)(이언적(李彦迪))의 봉선(奉先) 잡의(雜儀)와 점필재(佔畢齋)(김종직(金宗直) 선생(先生))의 이준록(彝遵錄)(제례를 엮은 책)과 율곡(栗谷)(이이(李珥) 선생(先生))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참작(參酌)하여 일가(一家)의 법례(法例)로 정(定)하니 이 때에는 김사계(金沙溪)(김장생(金長生) 선생(先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아직 나오지 않아 사람마다 예(禮)가 다르고 가정(家庭)마다 규례(規例)가 다르더라.

부군(府君)께서 이것을 우려(憂慮)하여 주문공(朱文公)과 구경산(丘瓊山)(중국(中國)의 현인(賢人)들)의 가례(家禮)에 의(依)하여 그 때의 풍속(風俗)에 맞도록 모든 선비들과 같이 책(冊)을 편찬(編纂)하여 연구(研究)하고 현실(現實)에 맞춰 일부(一部)의 가례(家禮)를 성책(成冊)하고 이 책(冊)을 인쇄(印刷)하여 세상(世上)에 내 놓아 여러 사람들이 이에 의(依)하여 행(行)하는 자(者)가 많이 있더라. 이 비요(備要)를 보면 강령(綱領)과 절일(節日)이 크게 다른 바 없으나 여막(廬幕)에 거(居)하는 일절(一節)은 기재(記載)되지 않았다. 예학(禮學)을 깊이 연구(研究)하고 보고 아는 것이 다 경험

(經驗)한 바이다.

해마다 쓰신 일기장(日記帳)을 보면 임진(壬辰) 제사년(癸巳年)에 기록(記錄)하신 것은 일기(日記) 머리에 임금께서는 어디 계시며 국가(國家)에는 아무 연고(緣故)가 없는지를 쓰신 후에 당신(當身)의 사사(私事)를 쓰셨다. 이것이 주부자(朱夫子)께서 제왕(帝王)이 방주(房州)에 계시실 때에 근심하신 뜻과 같으니 공께서도 국가(國家)에 대(對)한 걱정을 하신 것을 이를 보아도 알 것이다.

임금의 기일(忌日)을 기록(記錄)한 책(冊)끝에 공께서 쓰신 것을 보면 소시(少時)로부터 국기일(國忌日)을 당(當)하시면 반드시 소식(素食)을 하시다가 七十이후(以後)에는 기력(氣力)이 소모(消耗)되시어 고기가 아니면 건강(健康)을 유지(維持)하기가 어려워서 당신(當身)이 직접(直接) 모시던 중종(中宗) 인조(仁祖) 명종(明宗)임금의 제사(祭祀) 때는 소식(素食)을 하시고 다른 임금 제사(祭祀)때에는 다 행(行)하지 못하셨으니 다만 늙은 탓이었다.

삼종기일(三宗忌日)에 일기장(日記帳)에 쓰시기를 백발(白髮)된 소신(小臣)은 서해(西海)의 야민(野民)으로 일찌기 세 임금을 모신 때에 그 복(服)을 입었으므로 일기장(日記帳)에 별도(別途)로 승하(昇遐)하신 일월(日月)을 기록(記錄)하여 정성을 드린 것을 슬픔을 표(表)한 뜻이니 옛 사람이 근폭(芹曝)(정성을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과 같도다. 슬프도다. 벼슬자리가 낮고 직책(職責)이 무능(無能)하여 국민(國民)에게 혜택(惠澤)을 베풀지 못하였으나 내외(內外) 二十四년간(年間) 관직생활(官職生活)에 있어 조금도 직무(職務)에 소루(疏漏)히 함이 없어 양심(良心)에 꺼리는 바 없으며, 두 고을

책임자(責任者)로 있을 당시(當時)에는 군민(郡民)들에게 혜택(惠澤)을 베풀고 민폐(民弊)도 많이 없애는 정사(政事)를 한 바 있으시며 신묘년(辛卯年)에 세자(世子)를 책봉(冊封)하자는 소장(疏狀)에 스스로 자별(自別)하여야 된다는 것을 자각(自覺)하고 제사년(癸巳年)에 건의(建議)한 민폐(民弊)를 막자는 소장(疏狀)은周公(周公)의 상세(詳細)하고 주밀(周密)한 것을 생각하여 율옹남대(栗翁南臺)(간관(諫官))의 소장(疏狀)이 송응개(宋應漑)가 퇴각(退却)을 당(當)한 것처럼 하지 않고 헌책(獻策)하도록 주선(周旋)을 얻어 그 소장(疏狀)을 꼭 들어주게 된 것은 공의 성의(誠意)에서 발로(發露)된 것이니 어찌 말로만 하고 말으리오.

평생(平生)에 자기(自己)의 영달(榮達)을 구(求)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아첨하는 교제(交際)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을 모르는 사람은 한 일향(一鄉)의 선비에 불과(不過)하다고 하며 공을 아는 사람들은 깊이 알아서 경모(敬慕)하여 진심(真心)으로 좋아하니 안풍애(安楓崖) 민학(敏學) 홍졸재(洪拙齋) 성민(聖民)과 정상국(鄭相國)(정승) 지연(芝衍)과 이명곡(李鳴谷) 산보(山甫)와 김목사(金牧使)(군수(郡守)) 제갑(悌甲) 등(等) 수삼공(數三公)과 같은 분들은 서로 그 마음을 잘 알아 해마다 청유(請遊)하시며 기록(記錄)한 책(冊)이 여러 권(卷)이었으나 지금(至今)에는 없어져서 십수권(十數卷) 밖에 안된다.

집에서 하는 일이나 재직중(在職中)에 하시던 일이나 붕우(朋友)와 같이 하시던 일이나 원근(遠近)에 나아가 하시던 일을 일일이 다 기록(記錄)하시어 항상 스스로 당신(當身)을 아껴서 행(行)하였으니 사람과 대화(對話)한 것도 가(可)히

이와 같도다. 이백년 후(二百年後)인 지금(至今)에 와서 유고(遺稿)를 편성(編成)한 것이 이 기록중(記錄中)에 있는 것을 상고(詳考)하여 기록(記錄)한 것이로다.

이 책(冊)을 보는 사람들은 공의 비범(非凡)하신 것을 추측(推測)할 것이다. 배(配)는 을진장씨(蔚珍張氏) 세헌(世憲)의 따님이요 예조판서(禮曹判書) 연(演)의 육대손(六代孫)이요 선차부원군칭제(仙槎府院君稱悌)의 후손(後孫)이라. 부군(府君)을 유순(柔順)한 도(道)로써 극진히 모셨으며 호범(壺範)(부녀자(婦女子)의 규범(規範))을 구비(具備)하셨다. 신묘(辛卯)(서기(西紀)一六〇一年)年十二月八日에 별세(別世)하시어 다음해 봄에 부군(府君)과 같이 쌍묘(雙墓)로 모시었다.

오대손(五代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광우(光宇)는 근서(謹書)한다.

46. 白庵先生行狀

公諱以規字自強號白庵玄氏系延州高麗門下侍郎平章事諱覃胤卽始祖也入 太祖朝判尹諱用富錄開國功臣其六代孫諱仲萬坐豪右流明川後六世徙于吉州子孫因居焉祖諱演考諱太虛公幼而嶷然有巨人氣度及長聰明絕倫淹穿經史年十八讀尚書之暮三百璣衡註默契其理患初學難曉別爲補註以發其奧又削竹作渾天之制晷刻節候無毫髮差者如醫藥卜筮筭數之書亦皆旁通而不屑爲也其事父母常愉色婉容務悅其心父母或怒他人輒屏氣起敬俟怒弛而後始敢舒顏色婢僕有過以父母所使不敢罪子弟有失亦必溫言誨喻或語及人長短得失則必痛禁之仲兄嘗邁瘍有子在傍公猶親執藥不去從娣患疽往救之疾瘳乃歸期功之喪食素不飲酒以終其月內行之美如此早專意禮學以書質於二宋先生凡累十條尤庵之謫德源也晉謁而叩其疑

又退而記其答問自是廢舉杜門讀書沉潛於義理於近思錄得力最深家甚貧終身無戚戚容篤志爲己不求人知言行相顧動靜有度尤嚴於在色之戒飲酒終日無失儀常以忿思難三字爲處身之要又嘗語學者曰懲忿窒欲可以存心養性然當以一箇敬爲主徐相國宗泰奉命至州聞其名請見辭以疾不往御史薦聞于朝不果用而丙戌十一月七日卒年六十六翌年三月葬于本州刀山艮向之原州人咸驚嗟相告曰賢士亡矣各出米幾石石灰幾石賻之娶陽川許氏育二男三女男益章得章女金泌崔萬重許業也公起於遐陬倡明禮學冠婚喪祭一遵古禮遠近人士以爲模範蓋北方豪傑之士惜乎其沉淪不見用於世也記余少時以評事之北歿已數載矣恨不及見之李君璵以其門人呂尚賢之言來請狀德之文余既慕公德又嘉呂生之志就所示行錄叙其大略以歸之後之君子或有以考焉

三州 李緯 狀

백암선생행장(白庵先生行狀)

公의 휘(諱)는 이규(以規)요 자(字)는 자강(自強)이며 호(號)는 백암(白庵)이니 현씨(玄氏)의 본관(本貫)은 연주(延州)이니 고려문하시랑평장사(高麗門下侍郎平章事) 휘(諱) 담윤(覃胤)이 그의 시조(始祖)요, 이태조(李太祖) 때 판윤(判尹) 휘(諱) 용부(用富)는 개국공신록(開國功臣錄)에 기록(記錄)되고, 육대손(六代孫) 증만(仲萬)은 명천(明川)에서 살다가 또 그 후 육세손(六世孫)이 다시 길주(吉州)로 이거(移居)하였다. 조(祖)의 휘(諱)는 연(演)이요, 고(考)의 휘(諱)는 태허(太虛)라, 公 어릴 때부터 거인(巨人)의 기품(氣稟)이 있고 자라며 총명(聰明)하기가 뛰어나서 십팔세(十八歲)에 서전(書傳)의 기삼백(稽三百)(서전의 편(篇)이름)과 기형편(琦衡篇)

(서전의 편(篇)이름)을 일거 그 이치(理致)를 능통(能通)하여
별도(別途)로 그 책(冊)의 해석하기 어려움을 알기 쉽게 주
해(註解)하여 초학자(初學者)라도 해득(解得)하기 쉽게 하였
으며 또한 대나무를 깎아서 천기(天氣)를 볼 수 있는 기구
(器具)를 만들어 시간(時間)과 절후(節候)가 착오(錯誤)없이
맞도록 연구(研究)하셨으며 의약(醫藥) 복서(卜筮) 산수(算
數)에 대(對)한 글을 저술(著述)하여 세상(世上)에 널리 보급
(普及)하셨으나 행술(行術)은 하지 아니하셨다.

부모(父母)를 모시는데도 항상(恒常) 웃는 얼굴로 부모(父
母)의 마음을 편안(便安)하게 하고 부모(父母)가 타인(他人)
을 꾸짖으면 공경(恭敬)을 다하여 노여움이 풀리도록 하여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데 힘쓰시고 혹자(或者)에 노복
(奴僕)이 잘못이 있어도 부모(父母)께서 부리시든 사람이면
허물치 않으시고 자녀제(子女弟)가 과실(過失)이 있으면 반
드시 좋은 말로 가르치어 남의 장단점(長短点)을 절대(絶對)
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증형(仲兄)이 여질(癘疾)을 만나 신음(呻吟)하는데 그 아
들이 곁에 있어도 공이 친(親)히 약(藥)을 다려 꼭 부호(扶
護)하셨으며 증제(從弟)가 증기를 앓고 있는데 가보시고 병
(病)이 완쾌(完快)토록 보살피 주신 후(後)에 돌아 오셨다.
기공(期功)의 상(喪)(백중(伯仲) 계부(季父)의 상(喪) 즉 일년
복(一年服))에도 소식(素食)을 하시며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달이 지난 후(後)에야 전(前)과 같이 하시었다.

일찍 예학(禮學)을 전공(專攻)하여 글로 이송(二宋)(宋우
암 宋동춘)선생(先生)에게 질의한 것이 수십장(數十章)이나
되고 우암(尤庵)께서 덕원(德源)으로 귀양 갔을 적에 찾아가

의문(疑問)나는 것을 묻고 돌아와 문답(問答)한 것을 기록(記錄)하셨다. 이후(爾後)도 과거(科擧) 볼 것을 단념(斷念)하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글을 읽으며 의리(義理)를 탐구하고 근사록(近思錄)(송(宋)나라때 주자(朱子)가 저술(著述)한 성리학(性理學) 책자(冊子))에 더욱 정심(精深)하고 집이 가난하되 구차한 모양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뜻을 도탑게 하시어 몸을 위(爲)하고 언행(言行)이 일치(一致)하며 동정(動靜)에 법도(法度)를 지켜 더욱 주색(酒色)을 엄제(嚴戒)하고 항상(恒常) 분(忿) 사(思) 난(難) 삼자(三字)를 생각하면서 처신(處身)하는 것을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고 또한 학자(學者)를 가르치시되 분(忿)한 것을 징제(懲戒)하고 지나친 욕심(慾心)을 막으면 가히 심성(心性)을 수양(修養)하는 것이니 마땅히 공경(恭敬)하는 것을 주장(主張)한다고 하셨다.

서상국(徐相國)(나라의 정승 지금 국무총리) 종래(宗泰)가 본군(本郡)에 왔다가 공의 명성(名聲)을 듣고 뵈옵기를 청(請)하니 병(病)들었다고 하여 가시지 않으시고 또 어사(御史)가 조정(朝廷)에 천거(薦擧)하였어도 나가시지 않으셨다. 병술(丙戌)(西紀一七〇六年)十一月七日에 졸(卒)하니 향년(享年)六十六歲이셨다. 이듬해 三月에 본군 도산 간좌산록(本郡刀山艮坐山麓)에 장례(葬禮)하였다. 이 때에 고을 사람들이 다 경탄(驚歎)하여 말하기를 어질고 덕(德)이 있는 선비가 돌아가셨다 하고 쌀이며 석탄(石炭)을 몇 섬씩 부의(賻儀)하였다. 양천허씨(陽川許氏)에 장가드시어 아들 형제(兄弟)와 딸 삼형제(三兄弟)를 낳으시니 장(長)은 익장(益章) 차(次)는 득장(得章)이요, 장녀(長女)는 김필중(金必重) 차녀(次女)는 최만중(崔萬重) 삼녀(三女)는 허 업(許業)이다.

公이 먼 변방(邊方)에 남으시어 예학(禮學)을 밝게 인도(引導)하시므로 관혼상제(冠婚喪祭)를 한결같이 고례(古禮)에 쫓으시니 원근(遠近)의 인사(人士)가 다 같이 모범(模範)으로 하였으며, 그 당시(當時)의 선비들이 세상(世上)에 크게 쓰이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평사(評事)(정육품(正六品)으로 지방관(地方官))의 몸으로 북(北)쪽에 가보니 공이 돌아가신지 수년(數年)이 지나서 뵈옵지 못한 것을 한(恨)하였더니 이균여(李君瑱)가 그 문인(門人) 여상현(呂尙賢)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나에게 찾아와서 공의 장덕(狀德)의 글을 청(請)하므로 공이 덕(德)을 사모(思慕)하고, 또 여생(呂生)의 뜻을 아름답게 여기어 그 행록(行錄)을 보고 대략(大略)써서 돌려 보내니 뒤에 군자(君子)가 참고(參考)로 하기를 바란다.

삼주(三州) 이 재(李緯)는 장(狀)이라

47.冠峯先生記事

嗚呼古之君子學貫天人道合內外而不遇於時者何恨雖生無布施沒則其子孫者撰狀德而走謁當世立言之人汲汲焉謀所以不朽者藏諸家而表諸墓非溢美也尊顯之也其所嘗講劇切偲及其經承薰陶培養以考德質疑者切切然爲之俎豆而尸祝之至或私相爲諡非阿好也闡揚之也吾先祖冠峯先生世所稱湖右八學士之一也若李巍巖(東)尹泉西(焜)韓鳳巖(曄)崔梅峯(徵厚)尹屏溪(鳳九)蔡鳳巖(之洪)韓南塘(元震)先生與此七賢者友也其造詣之精深文辭之鋸麗性命之昭晰淵源之嫡正優爲江門之高足而慨世道之莫淳守林樊而泊如屢徵不起官止 世子洗馬家貧無以自養繼以子孫不率不能盡述先生之萬一及門之徒零悴益甚凡於所謂尊顯而闡揚者蔑如也只有巾衍

遺墨寥寥數編登梓而傳於世嗚呼吾祖之不偶視古之君子爲忒甚可
勝歎惜哉今於醴泉郡修譜之役遠近宗族蓋誦先生之風而悅之者爲
虛譜牒首局一紙命昌奎俾記先生生平大槩以填之此亦尊賢衛道之
一端秉彝好德之良心烏可已也烏可已也義不敢辭遂書此以腹焉

甲子仲秋月上澣

七代孫 昌奎 謹書

관봉선생기사(冠峯先生記事)

아! 슬프도다. 옛적에 군자(君子)가 배우는 것은 하늘과
사람 사이에 통(通)하도록 하고 도(道)는 안팎으로 합(合)하
게 하는 것이니 때에 맞지 않는다고 어찌 한(恨)하리오. 비
록 살아서 베푸는 것은 없으나 죽은 후(後) 그 자손(子孫)들이
덕행(德行)을 글로 지어 그 당시(當時)의 글 잘하는 훌륭한
선비의 찬(撰)을 얻어 끝끝내 없어지지 않도록 집에 잘 보관
(保管)하는 것이며, 또 묘소(墓所)에 표(表)하는 것은 그 자
손(子孫)과 묘소(墓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조상
(祖上)을 높이 현양(顯揚)하고자 함이로다.

그의 훌륭한 학문(學問)을 사모(思慕)하고 덕업(德業)으로
사람들을 감화(感化)시킨 일을 이어받아 그 덕(德)을 배양(培
養)하고 후배(後輩)가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하며 추
모(追慕)하고 혹(或) 서로 찬송(讚頌)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
이 아니라 훈업(勳業)을 밝혀드리는 일이니 우리의 선조관봉
선생(先祖冠峯先生)은 세상(世上)에서 호우팔학사중(湖右八學
士中)의 한 분으로 이외암(李巍巖) 동(東)과 윤천서(尹泉西)
혼(焜)과 한봉암(韓鳳巖) 엽(曄)과 최매봉(崔梅峰) 징후(徵
厚)와 윤병계(尹屏溪) 봉구(鳳九)와 채봉암(蔡鳳巖) 지흥(之

洪)과 한남당(韓南塘) 원진(元震)과 같은 거유칠현(巨儒七賢)이 선생(先生)과 한 때에 깊은 학문(學問)을 강론(講論)하시고 화려(華麗)한 문사(文辭)와 인생(人生)과 천명(天命)의 확실(確實)한 구분(區分)과 학문(學問)의 근본(根本)이 정확(正確)하여 강문(江門)(호남지방(湖南地方))의 선비로 훌륭하였는데 세상(世上)이 순박하지 못함을 개탄하시고 초야(草野)에 묻혀 사시어 청백(清白)하게 제심으로 여러 번에 걸쳐 조정(朝廷)에서 부르셨으나 벼슬에 응(應)하지 않으시어 벼슬이 겨우 세자세마(世子洗馬)(임금의 아들을 보호하는 벼슬 정구품(正九品))에 그치셨으며 집이 가난하였어도 남에게 의탁(依托)하시지 않으셨으며 또한 자손(子孫)들도 변변치 못하여 선생(先生)께서 평생(平生)에 하신 일을 만분(萬分)의 일도 기록(記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인(門人)들도 영세(零細)하고 쇠퇴하여 높이 천양하여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초기(抄記)하신 유묵(遺墨)(남기고 죽은 글과 글씨) 오편(五篇)만이 적막하고 쓸쓸하게 있는 것을 인쇄(印刷)하여 후세(後世)에 전(傳)하셨을 뿐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불우(不遇)하심을 옛날 군자(君子)와 비교(比較)하여 보면 더욱 심(甚)하였으니 참으로 애석(哀惜)한 일이다. 이제 예천(醴泉)에서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는데 원근간(遠近間)의 일가 어른들이 선생(先生)의 유풍서적(遺風書籍)을 송독(誦讀)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창규(昌奎)에게 명(命)하여 족보책(族譜冊) 머리에 선생(先生)의 행적(行蹟)을 기록(記錄)하게 하니 이것이 또한 현인(賢人)을 존모(尊慕)하고 도의(道義)를 숭상(崇尚)하는 한 예(例)가 되는

것이며 덕(德)을 베푸는 양심(良心)이니 어찌 가(可)히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의리(義理)로 보아 감(敢)히 사양할 수 없어 드디어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갑자(甲子)(서기(西紀)一九二四年) 중추상순(中秋上旬)
칠대손(七代孫) 창규(昌奎) 근서(謹書)

48.灘翁公實記

公諱鳳漸字儀甫號灘翁姓玄氏延州人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諱覃胤寔公之鼻祖而本朝 太祖朝禮儀判書諱玉亮於公爲十二代祖也考諱禹範妣蔚珍張氏以 英廟癸亥月日生公于龍宮縣枝村里第公生而資稟敏穎儀表端重年未弱冠文辭大進以大人命執贊于大山李先生之門學問造詣日益精深先生屢加獎詔承其嫡傳爲師門高弟又性篤於忠孝遭 國恤晨昏拜哭 因山後常廢燕飲親有疽患勢甚危欲吮膿嘗糞雜試湯劑靡不用其極而至有冰鯉自躍飛雉自墜人謂之孝感之致也 純祖辛酉十一月十三日啓手足于寢享年五十九翌年正月某甲禮葬于判書公墓下乾坐之原噫公講劄性理之學旣如是高明故爲世所推詡殫竭忠孝之誠又如是精篤故爲人所敬服而生無展布於當世沒無闡揚於後日至今爲學士大夫所慨惜嗚呼天之賦於公者何豐其始而嗇其終也鄉道士林以尊賢衛道之心咸以爲如公可立祠而俎豆之抱章叫 閭非一再而竟未蒙褒彰之典其或期數月待而然歟今撫其家狀所載略識其槩以俟後日立言之君子有所取焉

歲甲子中秋下浣

傍裔 錫龜 謹識

탄옹공실기(灘翁公實記)

公의 휘(諱)는 봉점(鳳漸)이요 자(字)는 의보(儀甫)며 호(號)는 탄옹(灘翁)이요 성(姓)은 현씨(玄氏)니 연주인(延州人)이라. 고려문하시랑평장사(高麗門下侍郎平章事) 연산군(燕山君) 휘(諱) 경헌(景憲)이시며 휘(諱)는 담윤(覃胤)이 곧 公의 시조(始祖)이시요 이조태조(李朝太祖)때에 예의판서(禮儀判書)이신 휘(諱) 옥량(玉亮)이 公의 십이대조(十二代祖)이시다. 고(考)의 휘(諱)는 우범(禹範)이요 비(妣)는 을진장씨(蔚珍張氏)니 영조(英祖) 계해(癸亥)(서기(西紀)一七四三年)에 용궁지촌리(龍宮枝村里)에서 나오시니 公이 나서부터 자품(姿稟)이 영민(英敏)하고 의표(儀表)가 단정(端正)하여 약관(弱冠)(二十歲) 전(前)에 문사(文辭)가 크게 뛰어나 부친(父親)의 명령(命令)으로 대산(大山) 이선생(李先生)의 문인(門人)이 되어 학문(學問)이 날로 진취(進就)하니 선생(先生)께서 여러번 포장(褒獎)하고 그 정통(正統)을 이어 사문(師門)에 높은 제자(弟子)가 되시고 또한 성품이 충심(忠心)과 효심(孝心)이 돈독(敦篤)하여 국恤(國恤)(임금이 사망(死亡)한 것)을 만나면 주야(晝夜)로 배곡(拜哭)하고 인산(因山)(임금 내외(內外)분이 죽어 장사하는 것) 후(後)로부터는 음주(飲酒)를 전폐(全廢)하였으며 어버이께서 종기를 앓으시어 대단(大端)히 위급하실 때에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인분(人糞)을 맛보아 그 병(病)이 위급(危急)하고 앓고를 시험하여 탕제(湯劑)를 드리는데 정성을 극진히 하였으며, 겨울에 잉어가 스스로 뛰어 들어오며 또한 꿩이 스스로 날아들어 와서 봉양(奉養)하였으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미물도 公의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한 소치(所致)라고 하였다.

순조(純祖)신유(辛酉)(西紀一八〇一年)十一月十三日에 돌
 아가시니 향년(享年)이 五十九歲이시며, 이듬해 정월(正月)에
 판서공묘하건좌(判書公墓下乾坐)에 장사(葬事)하였으니 슬프
 도다. 公이 성리학(性理學)을 강구(講究)하여 이미 세상(世
 上)에서 알게 되니 세인(世人)이 서로 추존(推尊)하였으며 충
 효(忠孝)가 이같이 정독(精篤)하였으므로 세상(世上)사람들이
 공경(恭敬)하고 추앙(推仰)하였으나 생전(生前)에 세상(世上)
 에 알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死後)에도 천양(闡揚)
 하지 못하니 지금(至今)의 학사(學士)와 대부(大夫)들이 슬퍼
 하는 바이다.

아! 원망스럽도다. 하늘이 어찌 公에게 처음에는 풍요(豐
 饒)롭게 하고 그 말년(末年)에는 이같이 비색하게 하였을까.
 이 지방사림(地方士林)들이 현인(賢人)을 존경(尊敬)하는 마
 음으로 公의 사우(祠宇)를 세워 달라고 글을 지어 조정(朝
 廷)에 올리었으나 끝내 포창(褒彰)하는 허락(許諾)을 얻지 못
 하였으니 혹(或) 때를 기다림이 아닌가 한다. 그 가장(家狀)
 에 실린 글을 가리어 대략(大略) 그 줄거리만 기록(記錄)하
 여 후일(後日)에 군자(君子)가 취(取)하여 성사(成事)하여 주
 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세재갑자(歲在甲子)(西紀一九二四年)

중추하완(中秋下浣)에(월말(月末)경)

방손(傍孫) 석구(錫龜)는 삼가 기록하노라.

49.成均進士行 光陵叅奉竹林亭公墓誌銘并序

湖南古稱山水樓臺之勝靈巖鳩林號爲樂土而玄氏竹林之亭爲最叅
 奉諱徵字士休之居也公之仲父裕後亦叅奉不仕有亭名就陰者後承

衰替不能保有公傷之歸其直於人而移構之以復舊觀文谷金相國聞而歎曰士林之篤於親如是夫遂取阮家父子契許之義以名之文谷之胤農巖三淵諸公相與詠歌其事公未老謝官而歸居間數十年以終士大夫多高其風致玄自高麗兵部尚書諱德秀籍星州高祖縣監諱球曾祖將仕郎諱德亨祖諱健官主簿不就仕諱振後妣坡平尹氏府院君之任之後公七歲而孤哀毀如成人仲父憂之挈歸之鞠養且授以書文辭夙就既而歸奉母夫人經理成家雖生事旁落而甘旨不乏戊子隨計赴京見星而奔終身以爲痛恨既吉遂欲廢舉而爲仲父所強中庚子進士後屢發解竟不第庚申新化除 光陵叅奉嘗於直所遇喪餘日有詩自叙如不祭之懷仍卽謝歸問其故則曰病未能也文谷欲爲公取近使侍殿郎之闕而猶不肯乃追寄書曰歸袂浩然不可復挽云公嘗曰吾鮮民也追養之節惟祭祀耳非甚病未嘗一廢沐浴臨祭膳羞或不備則傷歎却食脫躄脚疾而祭日猶俯伏致哀已祭而出號哭不止哀動隣里公爲人敦慤身不設情容家不置戲具處鄉黨和遜不言人過惡少而劬書至老不釋卷舊有鄉塾而中廢改建而增大之令村秀日肄業其間每朔望會于亭中考試而賞罰之蔚然有作成之功暇日又與諸長老擊鮮置酒吟哦酣暢以永終夕至今傳以爲勝事嘗聞吾叔祖冢宰公當己巳禍謫冠山公往拜之燕語從容笑曰吾與公同年生月日亦同窮達懸殊豈所謂命歟曰吾雖致仕卿相子則一生享有湖山清福反復勝耶公年七十四壬午正月十六日卒葬在郡北立石山辛坐之原配竹山朴氏祔公無嗣取從子若昊子之若昊生四男一女守初守中守範守愚女適林尙夏曾孫曰命直命益進士命德命直從余遊來乞幽誌余聞竹林之名欲一登斯亭而未能也且慕公清操遂爲之銘銘曰故家肯構匪亭爲高小阮清真脫屣塵囂所友不俗眼底兒曹忠厚孝悌寔神攸勞湖海風流亦足自豪觴詠娛賓絃誦造髦拘茲奇氣老死蓬蒿銘以誌之厥德載昭

崇禎甲子九月

資憲大夫議政府左贊成兼 世子右賓客 李緯 撰

성균진사행(成均進士行) 광릉참봉(光陵叅奉)

죽림정공(竹林亭公) 묘지명명서(墓誌銘并序)

호남(湖南)은 옛 부터 산수(山水)와 누대(樓臺)가 좋기로 그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암(靈岩)의 구림(鳩林)은 살기 좋은 낙토(樂土)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그곳의 현씨(玄氏) 죽림정(竹林亭)이 가장 좋은 정자(亭子)이다. 참봉(叅奉)이신 휘(諱) 징(徵) 자(字) 사휴(士休)께서 지으신 별장(別莊)으로 사용(使用)하시던 곳이다.

公이 중부(仲父) 휘(諱) 유후(裕後)께서도 역시(亦是) 참봉(叅奉)이셨으나 벼슬은 더 하지 않으시고 또한 정자(亭子)를 짓고 취음정(就陰亭)이라 명명(命名)하시고 여생(餘生)을 즐기시더니 후손(後孫)들이 형세(形勢)가 빈약(貧弱)해져 그 보존(保存)을 못하게 되자 공이 상심(傷心)하신 끝에 사람을 시켜 옮겨 개축(改築)하시니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때에 문곡(文谷) 김상국(金相國)(당시의 거유(巨儒))이 이 사실(事實)을 듣고 감탄하며 하는 말이 사림(士林)이 어버이의 뜻을 이와 같이 도탑게 이어받아야 한다고 칭찬하고 앞으로 완가부자(阮家父子)의 정의(情義)를 가져 지내도록 하라고 명명(命名)하시고 문곡선생(文谷先生)의 아들 농암(農巖) 삼연(三淵)(당시의 거유(巨儒))등(等) 여러 선비와 더불어 이 일을 자주 말하였다.

公이 벼슬을 사양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수십년(數十年)동안을 한가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니 사대부(士大夫)들이 부러워하며 말하기를 고결(高潔)하신 풍치(風致)라고 하였다. 현

씨(玄氏)는 고려병부상서(高麗兵部尙書) 휘(諱) 덕수(德秀)로부터 본관(本貫)을 성주(星州)로 하였다. 고조(高祖)는 현감(縣監) 휘(諱)는 구(球)요 증조(曾祖)는 장사랑(將仕郎) 휘(諱)는 덕형(德亨)이요 조고(祖考)의 휘(諱)는 건(健)이며 관(官)은 주부(主簿)이었으나 취임(就任)하지 않으시고 고(考)의 휘(諱)는 진후(振後)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 부원군지임(府院君之任)의 후손(後孫)이다.

公이 칠세(七歲)에 아버지를 여임에 슬퍼하시는 것이 어른과 같으시니 그 증부(仲父)가 병(病)이나 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데려다가 기르시며 또한 공부(工夫)를 시키시니 문사(文辭)가 속달(速達)하였다. 몇년 후(後) 편모(偏母)를 극진히 봉양(奉養)하며 치가(治家)하는 데는 모든 것을 이치(理致)에 맞도록 절약(節約)하여 성가(成家)하고 그 어머니를 봉양(奉養)하는데 있어 비록 가세(家勢)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식성(食性)에 맞는 음식(飮食)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무자(戊子)(西紀一六四八年)年에 계획(計劃)한 바 있어 서울에 가서 보니 바쁘기가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또 별을 보고 들어오게 되니 참으로 분주(奔走)한 처지(處地)가 되어 한탄(恨歎)스럽기만 하였다. 그 익일(翌日)에 행구(行具)를 차려 과거(科擧)보는 것은 단념(斷念)하고자 하였으나 증부(仲父)의 간곡(懇曲)한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경자(庚子)(西紀一六六〇年)年에 진사시험(進士試驗)에 합격(合格)하였다.

그러나 그 후(後) 여러 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경신(庚申)(西紀一六八〇年)年 봄에 광릉참봉(光陵叅奉)으로 임명(任命)되어 부임(赴任)하시자 얼마 후(後) 상

(喪)을 당(當)하게 되어 벼슬을 사퇴(謝退)하고 집에 돌아가니 문곡선생(文谷先生)께서 공을 위(爲)하여 전랑(殿郎)을 권(勸)하였으나 오히려 이에도 응(應)하지 아니하니 이어 기서(寄書)에 하였는데 공의 지조(志操)가 높아 메별(袂別)할 때는 호연(浩然)하니 다시 만류(挽留)할 수 없다고云위(云謂)한 즉

공이 말하되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 돌아가신 부모(父母)를 추모(追慕)하는 길은 오직 제사(祭祀)뿐이라」 하고 증병(重病)이 아니면 일찌기 한번도 절사(闕祀)하지 않고 목욕(沐浴)을 하고 제사(祭祀)에 임(臨)하였으며 제사일(祭祀日)에 제수(祭需)(제사음식)가 고루 갖춰지지 못하였으면 상심(傷心)하시어 탄식(歎息)만 하시고 제일(祭日)이면 부복(俯伏)하고 슬피 호곡(號哭)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까지 감동(感動)하였으며 공은 정의(情誼)가 도타와서 게으른 모양을 보이지 않으시며 집에 장난감 또는 오락기구(娛樂器具)를 갖추지 않았으며 처세(處世)함에 있어서 항상(恒常) 겸손하시며 다른 사람의 장단점(長短点)이나 과오(過誤)된 일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독서(讀書)하는데 힘쓰시고 늙어서도 손에서 책(冊)을 놓지 않으시고 마을에 있던 서당(書堂)이 없어져서 다시 크게 서당(書堂)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학업(學業)에 열중(熱中)하도록 하여 매월(每月) 一日・十五日에는 이 정자(亭子)에 모여서 강론(講論)하고 또 시험(試驗)을 하여 상벌(賞罰)을 주어 문학(文學)을 율흥(蔚興)하게 하였으며, 여가(餘暇)가 있으면 여러 노인(老人)을 모시고 생선(生鮮)과 좋은 술로 시(詩)를 읊으시고, 또 정담(情談)을

나누며 종일(終日) 즐기시어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고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지고 있다.

일찌기 내가 들으니 나의 숙조(叔祖) 총재공(冢宰公)께서 기사사화(己巳士禍)(기사년(己巳年)에 있던 정치사건(政治事件))를 만나서 관산(冠山)으로 귀양가 제실 때에 공이 가서 뵈오니 부드러운 말씀으로 나는 공과 동년생(同年生)이며 생일(生日)도 다 같이 동월동일(同月同日)인데 궁달(窮達)이 다르니 이 어찌 운명(運命)이 아니겠소. 나는 비록 벼슬이 경상(卿相)에 이르렀으나 공의 일생(一生)은 호산(湖山)에서 청복(淸福)을 누리고 있으니 나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하였다. 공은 향년(享年)七十四歲를 일기(一期)로 임오(壬午)(西紀一七〇二年)年正月十六日에 서거(逝去)하시어 동군북입석산신좌산록(同郡北立石山辛坐山麓)에 장사(葬事)하고 공의 부인(夫人)은 죽산박씨(竹山朴氏)로 공과 같이 합장(合葬)하였으며 불행(不幸)하게도 아들이 없으셨으므로 종자(從子) 약호(若昊)를 제자(系子)로 하고 약호(若昊)는 사남일녀(四男一女)를 낳으니 남(男)은 수초(守初) 수중(守中) 수범(守範) 수우(守愚)요, 여(女)는 임상하(林尙夏)에게로 출가(出嫁)하고, 증손(曾孫)은 명직(命直) 명익(命益)은 다 진사(進士)이며, 명덕(命德)이와 명직(命直)이 나를 따라 놀기에 와서 묘지(墓誌)를 청(請)하니 죽림(竹林)의 이름은 들었으나 그 정자(亭子)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하였지만 공의 맑으신 지조(志操)를 사모(思慕)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서(序)를 하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고가(故家)에 건축(建築)한 정자(亭子)가 높으니 숙질간(叔姪間)의 청직(淸直)(곧은 절개)한 상징(象徵)으로 세상(世

上)의 근심 걱정을 버렸도다. 저속(低俗)한 친구를 사귀지 않았으며, 어린 아이를 충후(忠厚)하고 효제(孝悌)하도록 가르치는데 노력(努力)하셨고 호남(湖南)의 풍류(風流)가 또한 호화(豪華)롭도다. 술과 시(詩)로 귀한 손님을 즐겁게 하고 거문고와 글소리로 선비를 양성(養成)하셨다. 이러한 좋은 기풍(氣風)을 내포(內抱)하고 늙으신 후(後)에 이 고장(故場)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명(銘)을 기록(記錄)하여 공의 덕(德)을 더욱 밝히고자 한다.

승정갑자(崇禎甲子) 九月에

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세자우빈객(資憲大夫議政府左叅贊兼世子右賓客) 이재(李縉)는 찬(撰)하노라.

50.松巖公記事

公諱太素字道光號松巖生于 崇禎丁丑六月十一日天姿謹厚而明粹孝友純至兄弟三人共被一衾敦睦成風持身誠敬世稱善士餘事文章人推宗丈連登鄉解早擅芳名屢入澤宮數奇不中心存師道志切聖學訓迪羣蒙不論尊卑未嘗無誨伯氏既唱仲氏又酬牖導來學提撕勸勉名卿達官鴻匠碩儒多出門下簞瓢空講論不懈樂育人才有功斯文天不假年奮之斯速門生學徒失其依附褒獎之牒行于世而已卒于丁亥七月二十九日享年七十一葬于清道之松洞案山西坐原配金海金氏盆城君之後也生于壬午五月二十一日卒於丙寅五月二十二日享年四十五先公而歿葬于愚谷曲城洞子坐之原男長曰禹瑞以詩鳴於國次曰禹璋以筆鳴於世聯璧才名亦襲家業其後門生文郡守鄭以規進士朴尚古武郡守鄭以雲進士孫萬泰等有尊師祭祠之文而亦未果焉可勝惜哉今於玄氏譜成日不可無公蹟於其譜故略記之

崇禎紀元後丁卯

密陽後人 朴重述 謹識

송암공기사(松巖公記事)

공의 휘(諱)는 태소(太素)요 자(字)는 도광(道光)이며 호(號)는 송암(松巖)이니 승정(崇禎) 정축(丁丑)(西紀一六三七年)六月十一일에 나시다. 천품(天稟)이 근면(勤勉)하시고 명량(明朗)하시며 순수(純粹)하시다. 효우(孝友)가 돈독(敦篤)하시어 삼형제(三兄弟)가 한 이불을 덮고 지냈으니 이 얼마나 화목(和睦)한 일이었으며, 몸 갖기를 항상 조심(操心)스럽게 하시어 세상(世上)사람들이 어질고 착한 선비라고 칭송(稱頌)하였다.

문장(文章)이 뛰어나서 향시(鄉試)에 입시(入試)하여 그 방명(芳名)을 날리었다. 기후(其後) 여러 번 궁(宮)에 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음은 사도(師道)에 두시고 뜻은 성학(聖學)에 간절하여 여러 학동(學童)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천하고 귀(貴)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시는 데만 힘쓰시었다. 백씨(伯氏)와 중씨(仲氏)와 힘을 합(合)쳐 배우러 오는 학동(鶴洞)들을 교도(敎導)하는데 근면(勤勉)하고 그 문하(門下)에서 큰 벼슬아치를 많이 배출(輩出)하셨다.

빈한(貧寒)한 가정(家庭)에서도 글 강론(講論)함을 게을리 않으시어 인재(人材)를 양성(養成)하는 것을 낙(樂)으로 삼아 글을 숭상(崇尚)하는데 큰 공(功)이 있으셨으나 하늘이 빨리 부르게 되어 문하생(門下生) 학도(學徒)가 의지(依支)할 곳을 잃어버렸으며 공의 유고(遺稿)만 세상(世上)에 전(傳)하셨을 따름이다.

아! 슬프도다. 정해(丁亥)(西紀一七〇六年)七月二十九일에

서거(逝去)하시니 향년(享年)七十一이요 청도(淸道)의 송동안산(松洞案山) 유좌(酉坐)에 장사(葬事)하였다. 배(配)는 김해김씨(金海金氏) 분성군(盆城君)의 후손(後孫)이니 임오(壬午)(西紀一六四二年)에 태어나 병인(丙寅)(西紀一六八六年)五月二十二일에 사망(死亡)하였으니 향년(享年) 四十五歲요 우곡(愚谷) 곡성동(曲城洞) 자좌원(子坐原)에 장사(葬事)하였다. 장남(長男)은 우서(禹瑞)이니 시율(詩律)로 국내(國內)에 이름이 높으며, 차남(次男)의 휘(諱)는 우장(禹璋)이니 필법(筆法)으로 세상(世上)에 그 이름을 떨치니 연벽(聯璧)의 재명(才名)으로 가업(家業)을 이어 받고 문생중(門生中)에 군수(郡守) 정이규(鄭以規)와 진사(進士) 박상고(朴尙告)와 군수(郡守) 정이운(鄭以雲)과 진사(進士) 손만태(孫萬泰) 등(等)이 스승을 높이어 사당(祠堂)을 짓고 제사(祭祀)를 지내자는 글을 지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한(限)이 없는 일이다.

이제 현씨족보(玄氏族譜)를 편찬(編纂)함에 있어서 公의 행적(行蹟)을 빼 놓을 수 없기에 대강 기록(記錄)한다.

승정후(崇禎後) 정묘(丁卯)(西紀一七四七年)

밀양후인(密陽後人) 박중술(朴重述)은 삼가 기록(記錄)한다.

51. 孝子玄公墓表

孝子姓玄氏諱希詰墓于宜成西道宗里廣井山庚坐原自幼以孝名至今二百餘年過者式焉孝子有至性親病欲喫雉湯孝子冒雪誠求有雉自來入廚供進之而効災夏又欲食柿紅孝子又露禱忽有柿紅墮地人謂孝感病幾危孝子以指血注口得延數年之命鄉里歎誦至于道薦載郡誌嗚呼其不朽矣孝子字重明延州人忠臣全州公后曰震圭曰履元

曰尙龜生員曾祖禰三世文化柳沉外祖也孝子以 純祖甲戌十二月二十九日卒壽五十五配居昌慎無若女壬午己未生卒墓祔曰載東載弘載憲載承孫曾蕃不盡記噫父子三綱之首天哀民彝之攸在自世教衰人鮮能盡哀彝允矣而況今日乎況今世乎痛矣悲夫今於後孫之請不辭而書之如此俾表其塋以戒後人云

隆熙庚戌後己丑陽月上澣

嘉善大夫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宣城 李貞烈 述

효자현 공묘표(孝子玄公墓表)

효자(孝子)의 성(姓)은 현씨(玄氏)요 휘(諱)는 희철(希喆)이시니 묘(墓)는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광정산경좌원(廣井山庚坐原)에 있으시다. 公은 어려서부터 효행(孝行)이 지극(至極)하신 까닭에 서거(逝去)하신지 이백여년(二百餘年)이 지난 오늘에도 公의 묘소(墓所)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공경(恭敬)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효행(孝行)의 실례(實例)로 아버지의 병환(病患)이 있을 때에 꿩(雉)고기를 잡수시고자 하시니 公께서는 많이 쌓인 눈(雪)을 무릅쓰고 산야(山野)로 다니시며 지성(至誠)껏 구(求)하시니 꿩이 스스로 부엌으로 날아 들어와 공양(供養)하게 되어 병환(病患)이 낫게 되고, 또 찌는듯한 여름에 홍시(紅柿)를 찾으시니 公께서는 할 수 없이 천지(天地)시명께 지성(至誠)껏 축원(祝願)하시니 홀연(忽然)히 붉은 감(柿)이 땅에 떨어져 있어 이것을 봉양(奉養)하시니 보는 사람들은 公의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하였으며 기후(其後)에 또 병환(病患)이 위증하시어 公은 손가락의 피를 흘려 입에 넣으심으로 병환(病患)이 차차 나으시어 몇 해 동안을 더 사시게 하여 향리(鄉

里) 사람들은 이 효성(孝誠)에 감복(感服)하여 칭송(稱頌)이 자자(藉藉)하였으며 도백(道伯)(지금의 도지사)에게 이 사실(事實)을 진정(陳情)하고 군지(郡誌)에 기록(記錄)하니 公의 이 아름다운 행적(行蹟)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公의 자(字)는 증명(重明)이니 연주(延州)가 그 본관(本貫)이오 충신(忠臣) 전주공(全州公)의 후손(後孫)이라. 휘(諱) 진규(震圭)와 이원(履元)과 생원(生員) 상구(尙龜)가 고(考)조(祖) 증조(曾祖) 삼세(三世)요, 문화유씨(文化柳氏) 휘(諱) 침(沉)은 公의 외조(外祖)이시다. 순조(純祖) 갑술(甲戌)(西紀一八一四年)十二月二十九日에 서거(逝去)하시니 수(壽)가 겨우 五十五歲이시며, 배(配)는 거창신씨(居昌愼氏) 휘(諱) 무약(無若)의 따님이시니 임오(壬午)(西紀一七六二年)年에 출생(出生)하시어 기미(己未)(西紀一七九九年)年에 사망(死亡)하셨으니 묘(墓)는 부군(夫君)과 합봉(合封)하셨다.

아들은 재동(載東) 재홍(載弘) 재헌(載憲) 재승(載承) 등(等) 사형제(四兄弟)를 두시고 손(孫) 증손(曾孫)은 번연(繁衍)하여 다 기록(記錄)하지 못한다. 아! 부자간(父子間)은 삼강중(三綱中)에 으뜸이요, 천륜(天倫)으로 모임이니 사람이 잘 지켜 실천함이 적거늘 이 세상(世上)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제 후손(後孫)이 公의 행적문(行蹟文)을 청(請)하므로 사양하지 못하고 이갈이 써서 그 무덤 앞에 표(表)하여 후인(後人)에게 규범(閏範)이 되도록 하노라.

음희경술후(隆熙庚戌後) 기축(己丑)

(西紀一九四九年)양월(陽月)(九月)상한(上澣)(상순(上旬))에

가선대부시강원(嘉善大夫侍講院) 겸보덕원임(兼輔德原任)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선성(宣城) 이정렬(李貞

烈)은 삼가 쓴다.

52.撫松玄齋郎行狀

夫士入而廟堂輔弼出而山野遺逸苟有可稱之德可書之行則均之有狀而表章之此乃史置義傳之法也是以必就當世之有道謁文而狀之其規甚謹嚴約而不遺一事盈而不溢一辭狀之道憂憂乎其亦難矣哉玄君撫松德美而行善固已著聞於前亦將不朽於後常理也其家人欲及時而狀其德抱遺錄屬余而狀雖甚衰癯終不可辭謹按俊鎬其諱也撫松其號也玄氏高麗平章事諱覃胤爲肇祖諱德秀兵部尙書封星山君後世因其封而籍焉逮本朝亦有名宦忠勳及要職清秩字牧之官燁然照世至諱允明以司直除郡守解印賦歸卽其南來之祖也自是世守隱德藏修山林逍遙江湖詩禮相承孝友相勉恬視青雲猶有以遺逸九登剡薦而不就然世有蔭仕監令郎官司馬等品帙相禪不絕又多抱贅師門托交名宰考其星山世帖百許卷足以想見古家儒業之有所受來而能世其德也考諱基奉號鶴坡成均生員孝友根性陽和噓氣恤貧分財遭亂活命休休容物咸稱長者妣南平文氏有女士風男龍鎬出爲伯父基東後以 高宗己丑八月二十九日生君頭角岐嶷聲音雄亮不喜啼笑稍長從群兒遊帝自導率或相鬪鬪者必誚罵而解之或相詬辱者必曉諭而止之群兒相與告戒雖以血氣致爭端輒相罷休不欲被其知也及就傳受學同窓諸伴或有不瞻學用諸具者必從容分與之使不乏用或書聲低微帶得氣餒者每持果脯而啖之且携而及時還家必共飯之塾長長老皆許其將爲遠器也先妣見背方以冲年哭踊號泣奉筵祭奠儼若成人逮事繼母海美郭氏起敬起孝要在承歡伺候晨昏動問寒煖未嘗或懈旅行若見珍味時物則必懷歸而遺之母常感悅語宗族曰孝哉此兒吾雖生育烏可必其有此也 高麗丙午除肇慶廟叅奉鶴坡公平素好氣義廣交遊其致養也必觀其志便體之具適口之味常備不

乏怡心之事致悅之物常設無缺信乎志體俱養者也嘗遊學外國憫定省久曠必月三上書以問候若彌旬阡信必皇皇如也一日忽肉顫心動驚懼不堪意謂家中有警卽日治裝星夜馳還則鶴坡公果淹疾委牀褥矣在右咸歎異之曰病報未通心驚先返求之古人庾黔屢未能獨多也半載侍湯訪醫問藥罔不致極而其進藥進膳雖扶侍足人必躬執而先嘗乃進夜必稽首北辰號泣默禱如此篤孝其多乎哉大限有定竟考終其襲歛殯奠一依家禮及葬非止數郡畢至便成人海輓誄祭奠纏連於柩車前後輦夫不得鑽進移晷淹留此可以見孝思之感人能如此也越數年移奉于瑞石下仙觀之原雖從形家之言兼爲展省之取適也其居宅之去山不一里而近每日展拜未嘗或廢有旅行則出告返謁亦無或怠洵是事死如生也路傍店叟酒媪皆慣見而稔知之每其來往皆頂手而嘖嘖稱頌之及幹家業折數百頃田先自同堂昆弟及宗族姻戚取次分與之必視其家庭之繁簡叅以情誼之淺深權衡其多寡焉早孤而冠笄失時者有不知知必優助而嫁娶之當喪憾而以歛葬爲慮者有不聞聞必厚賻而卒喪之有才有志而家貧失學者必損資就學往往成器不止於范六丈之於索遊秀才也其駕到故鄉鄉中父老必遍訪之或云裘材或云藥價或云饌需或云糧料隨其地而異其名傾橐而餉之賓客時萃有老衰人必挽而留之連日欸待之其餞席必厚賑之此皆仁孝中得來而乃老吾老及人老之義也是以賢聲遠聞黃童白叟初不見其眉貌者傳相告語曰某氏慈惠家德行人其不刊之口碑皆一辭也平居賓朋滿座談古論今賦詩彈棋傾樽相勸酣歌逸豫自有孔北海高風也客去簾垂夜靜燈煌微醺助興輒擊節浪誦武侯出師表數遍寓其感慨可伍胡致堂逸氣也時島酋狂嗥八表被吞萬姓被嚙恒自咄咄憤膽倒吞最憂民生之爲其肉剝血嘍無以聊生遂謀于同志勑立一社曰湖南銀行使農商工者相貸而做業不多年其賴而恢業者指不勝數朗州有西湖吞吐潮汐一碧萬頃遂聚丁起工將遮斷海心換作沃野費得五六畧大

堤如虹海若退廳巨浸忽爲平野視古蘇公堤陳公堤等之仗國威傾州力成就者不其多乎性耽山水妙香金剛智異漢拏等名山柳京松都鷄林白馬之古都遍到而周觀東而扶桑北而遼蘇之外國名所亦領略殆盡是以眼孔恢恢胃次浩浩凡事物之來不以宴安微小而忽之不以急促重大而動之徑權適用無事後之悔吝也噫西風驟起東夷捲走以吾人建吾國係是常理奈之何一線南北分而二之一朝北軍南侵勢如驟雨人民奔竄里落荒涼其將敗退肆意刼掠濫行殺傷粗有令名者視同仇讎輒加殘害者滔滔皆是耳以撫松而亦被勒竟不病而終卽庚寅八月十七日也昔石季倫以私嫌遭害孔文舉無辜被禍是皆盛名爲因也亂世名聞果古今通患歟以同月二十一日葬于仙觀里負庚原從先祖也配慶州金氏德信女生三男三女男永翊永植永源女白完基金仁龍朴洪奎墓仙觀里戌坐原二配平山申氏詰坤女舉三男三女男永國永瑞永晚女吳達三餘皆幼竊念撫松挺魁梧之姿稟豪邁之氣不恃強而凌弱不挾勢而輕人施惠而無矜伐好義而無驕吝設銀行開工場防海拓野其敏於心計者智也其敢於邁進者勇也智以揣事勇以遂事其智勇儘有過人者也蓋作善降祥作惡降厲天理之固然今何反之以若行善畜德之人而不得令終歟人事變處亦不能無惑於天理也古人有云天之殺恒在善人是雖激射之言以今觀之不可全以爲妄也遂以余所始終聞觀者叅其遺錄旁採其知舊之所說道直據其宗族之所稱謂叅互而撰次之以竣立言君子之有以攷證而採入於史編也夫

撫松齋郎沒後四年癸巳冬

冠山 高光烈 撰

무송재랑행장(茂松齋郎行狀)

선비가 벼슬을 하면 왕(王)을 보필(輔弼)하고 퇴직(退職)후(後)에는 산야(山野)에 한가히 은거(隱居)하여도 덕망(德

望)과 선행(善行)한 사실(事實)이 있으면 글로써 기록(記錄)하여 발천(發薦)하는 것이 역사창조(歷史創造)에 큰 의의(意義)가 되며 따라서 후세(後世)에 전(傳)하는 방법(方法)이로다. 이로써 당세(當世)에 도학(道學)이 높은 분을 찾아 생전(生前)에 언행일체(言行一切)를 유실(遺失)하지 않도록 하기 위(爲)하여 글로 행장(行狀)을 짓는 뜻이니 그 또한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현군(玄君) 무송(撫松)은 아름다운 덕(德)과 행적(行蹟)이 가상(嘉尚)하여 이미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져 장차(將次) 후세(後世)에 잘 전(傳)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족(家族)이 공의 유록(遺錄)을 싸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 행장(行狀)을 지어달라고 부탁(付託)하므로 비록 노쇠(老衰)하였으나 사양할 수가 없어 보첩(譜牒)을 삼가 상고(詳考)하여 보니 준호(俊鎬)는 휘(諱)요 무송(撫松)은 호(號)이며 성(姓)은 현씨(玄氏)이니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 휘(諱) 담운(覃胤)이 시조(始祖)가 되시고 휘(諱) 덕수(德秀)는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封)해지고 후세(後世)에 그 봉호(封號)로 인(因)하여 본관(本貫)이 쓰여졌다.

이씨조선(李氏朝鮮)에 들어와서 높은 벼슬과 공훈(功勳)이 뛰어난 충신(忠臣)들이 세상(世上)에 빛나고 휘(諱) 윤명(允明)은 사직(司直)과 군수(郡守)를 지내시다가 사퇴(辭退)하시고 영암(靈巖)으로 남래(南來)하신 선조(先祖)이시다. 그 후(後)로 감령(監令) 낭관(郎官) 사마(司馬) 등(等) 청관(淸官)이 계승(繼承)하여 그치지 않고 또 큰 사문(師門)에 집지(執贊)하여 이름 높은 재상(宰相)들과 교유(交遊)하였으니 그 성산(星山) 세첩(世帖) 백여권(百餘卷)을 보면 능(能)히 고가

(故家)의 유업(儒業)으로 덕망(德望)이 전(傳)하여 내려온 것을 잘 알 수 있다.

公의 아버지의 휘(諱)는 기봉(基奉)이요 호(號)는 학파(鶴坡)요 성균생원(成均生員)이시다. 천성(天性)이 효우(孝友)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救濟)하여 난중(亂中)에 명(命)을 보존(保存)하시니 다 장자(長者)라 칭송(稱頌)하였다. 비(妣)는 남평문씨(南平文氏)이니 부덕(婦德)과 규범(閨範)을 갖추분으로 이남(二男)을 낳으시어 장남(長男) 휘(諱) 용호(龍鎬)는 백부(伯父)의 후(後)로 출계(出系)하고 군(君)이 고종(高宗) 기축(己丑)(西紀一八八九年)八月二十九일에 나시니 두각(頭角)이 높고 성음(聲音)이 크고 제소(啼笑)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아이들이 혹(或) 싸우면 꾸짖어 풀어 놓고 효유하여 마치 앓으셨다.

서당(書堂)에 나아가 공부(工夫)를 할 때에 동창생(同窓生)들이 학용품(學用品)이 없으면 조용히 나눠주고 배고파하는 자(者)에게는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니 공의 인자(仁慈)하심을 가(可)히 알지로다. 어머니께서 일지기 돌아가 심에 어린 나이로 구슬피 울어 제사(祭祀)를 받들었으니 성인(成人)과 같도다. 계모(繼母) 해미곽씨(海美郭氏)를 섬기는데 친모(親母)와 같이 효(孝)로 받들어 봉양(奉養)하되 출타(出他)하였다가 진미(珍味)를 얻으면 가져다가 드리니 어머니가 종족(宗族)에게 칭찬(稱讚)하되 효자(孝子)는 이 아이니 비록 내가 낳아도 이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고종(高宗)병오(丙午)(西紀一九〇六年)에 조정묘(肇慶廟)(나라의 사랑)의 참봉(叅奉)이 되시며 선고(先考) 학파공(鶴坡公)을 정성껏 모시였다. 외국(外國)에 유학(遊學)할 때에

한 달이면 세 번씩 편지(便紙)를 올리어 문후(問候)하고 만일(萬一)에 열흘이 지나도록 답신(答信)이 없으면 조심(操心)스럽게 지나더니 하루는 홀연(忽然)히 수족(手足)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不安)하여 혹시(或是) 친환(親患)이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전딜 수가 없어서 곧 행장(行裝)을 차려 밤에 달려 집에 돌아가 보니 과연(果然) 학파공(鶴坡公)의 병환(病患)이 위독(危篤)한지라 반년(半年)을 시탕(侍湯)하였으며, 또한 좋은 약(藥)을 널리 구(求)하여 극진(極盡)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몸소 먼저 약(藥)을 맛본 연후(然後)에 복용(服用)토록 하고 밤이면 반드시 북두칠성(北斗七星)께 쾌유(快癒)를 묵도(默禱)하였으니 이 같은 효도(孝道)가 어찌 많으리오.

또한 옛날 유검루(庾黔屨)가 어찌 이에 더 하리오. 인명(人命)은 한정(限定)이 있어서 그 부친(父親)께서 마침내 서거(逝去)하시니 염습지례(歛襲之禮)와 상장지례(喪葬之禮)를 가례(家禮)에 의(依)하여 엄수(嚴修)하였으니 이 장례시(葬禮時)에 여러 군민(郡民)이 다 모여 조객(弔客)으로 바다를 이뤘으며 만장(輓章)과 제전(祭奠)이 상여 앞뒤를 연(連)하였으니 공의 효성(孝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感動)토록 하였다.

몇 년(年)이 지난 후(後) 서석하선관(瑞石下仙觀)의 원(原)에 이장(移葬)하였으니 이것은 조석(朝夕)으로 성묘(省墓)하기에 가까운 곳으로 이봉(移奉)하고 매일(每日) 성묘(省墓)하였으며 혹시(或是) 출행(出行)하게 되면 반드시 묘소(墓所)에 가서 사유(事由)를 고(告)하고 출타(出他)하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생시(生時)와 똑같이 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직

접(直接)보고 또는 듣는 사람들이 책책(嘖嘖)하게 칭송(稱頌)하더라.

형제간(兄弟間)은 물론(勿論) 종족(宗族) 인척(姻戚)에게도 빈곤(貧困)한 사람에게는 자기(自己)의 땅을 그 가세(家勢)에 따라 균형(均衡)있게 나눠 주었으며 때 늦도록 가취(嫁娶)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보조(補助)하여 성취(成娶)하도록 하였으며, 재조(才操)는 있으나 빈곤(貧困)하여 공부(工夫)를 못하게 되는 사람은 학비(學費)를 부담(負擔)하여 취학(就學)시켜 성인(成人)을 만들었으며 가빈(家貧)한 사람이 상(喪)을 당(當)하여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 일지라도 감동(感動)하여 반드시 그 장례(葬禮)를 후(厚)히 치르도록 한 사례(事例) 등(等)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으며 또한 고향(故鄉)에 돌아가게 되면 향리(鄉里)에 선고(先考)의 친구 되시는 노인(老人)을 두루 예방(禮訪)하였을 때에 혹(或) 옷이 없어 헐벗었거나 혹 약(藥)값이 없어 병 치료(病治療)를 못하는 것을 보거나 반찬값이 없어 소식(素食)하는 것을 보거나 혹(或) 식량(食糧)이 없어 보이는 처지(處地)를 보게 되면 그 경우(境遇)에 따라 후(厚)히 접대(接待)하되 그 이름을 달리하여 대(對)하였으며 빈객(賓客)이 때에 모여들면 노쇠(老衰)한 노인(老人)이면 반드시 만류(挽留)하여 연일(連日) 유숙(留宿)하게 하고 작별(作別)할 때에는 반드시 노자(路資)까지 후(厚)히 주었으니 이것이 다 인자(仁慈)하고 효성(孝誠)스러운 심중(心中)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다른 노인(老人)이라도 친부모처럼 섬기는 의리(義理)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이 가특한 처사(處事)가 널리 퍼져

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백발노인(白髮老人)이나 황동(黃童)들도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모씨(某氏)는 인자(仁慈)한 자선가(慈善家)요 덕인(德人)이라 하니 돌에 새겨 세운 비석(碑石)이 이에 어찌 당(當)하리오.

평소(平素)에 빈객(賓客)이 내림(來臨)하여 서로 옛 일이나 현재(現在)의 일을 담론(談論)하며 또는 글을 짓고 바둑을 두시며 서로 술을 취(醉)하도록 권하여 청유(淸遊)하였으니 실(實)로 고상(高尚)한 풍경(風景)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오신 빈객(賓客)이 떠나간 후(後)에 비로소 당면(當面)한 사업연구(事業研究)를 하고 또한 고사(古事)를 강구(講究)하니 가(可)히 선비의 기풍(氣風)이로다.

당시(當時)에 왜구(倭寇)가 침입(侵入)하여 팔도강산(八道江山)을 빼앗겨 모든 국민(國民)의 골혈(骨血)을 발리고 있는 참상(慘狀)에 있으므로 백성(百姓)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事業)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유통(資金融通)이 안되어 말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實情)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공께서는 동지(同志)와 모의(謀議)하여 호남은행(湖南銀行)을 설립(設立)하고 농사(農事)하는 사람, 상업(商業) 및 공업(工業)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 자금(資金)을 상대(相貸)하여 사업(事業)을 확대(擴大)하는 자(者)가 몇 년(年)이 안되어 수(數)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程度)로 늘어났으며 낭주(朗州)에 조석(朝夕)으로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큰 서호(西湖) 만항(萬項)의 벽해(碧海)를 가로질러 제방(堤坊)을 구축(構築)하기 시작(始作)한지 五・六년이 불과(不過)하여 제방(堤坊)의 크기가 무지개(虹)처럼 되어 바다가 물러나도록 수십만 두락(數十萬斗落)의 옥야(沃野)로 환작(換作)하였으니 옛적에 소공(蘇

公)과 진공(陳公)의 제방(堤坊) 등(等)은 무색(無色)할 지경(至境)이니 국위(國威)에 기대하고 주력(州力)(지금의 도력(道力))에 의지(依支)하여 일하는 자(者)로서 성취(成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公의 성품(性稟)은 널리 산수(山水)를 요람(要覽)하는 것을 좋아하여 묘향(妙香) 금강(金剛) 지리(智異) 한라(漢拏) 등(等) 명산(名山)과 유경(柳京)(평양(平壤)) 송도(松都) 제림(鷄林) 백마(白馬)의古道(古道) 등(等)을 두루 다니시며 고루 견학(見學)하고 또한 동(東)쪽으로는 해다 뜨는 곳, 서(西)쪽으로는 중국(中國) 요동(遼東) 소련(蘇聯) 등(等) 명소(名所)를 대략(大略) 살펴보아서 안목(眼目)이 넓어지셨고, 도량이 커져서 사물(事物)이 왕래(往來)하는 것이 안일(安逸)하고 미소(微小)하다고 해서 경솔히 여기지 아니했으며 일이 급(急)하다고 재촉하고 중대(重大)하다고 해서 경솔하게 권리(權利)를 이용(利用)하여 적당(適當)히 처리(處理)함으로서 사후(事後)에 한탄(恨歎)하는 일이 없이 하였다.

서풍(西風)이 갑자기 불어 오랑캐가 남침(南侵)하니 우리 손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는 상리(常理)이어늘 이 한 나라가 남북한(南北韓)으로 분단(分斷)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북군(北軍)이 남침(南侵)하여 그 세력(勢力)이 소나기와 같으니 갑자기 당(當)하는 남한국민(南漢國民)들은 피난(避難)에 피난(避難)을 거듭하여 동리(洞里)가 황락(荒落)되고 괴뢰군(軍)들은 살상(殺傷)을 일삼고 영명(命名)있는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여겨 살해(殺害)하니 무송(撫松)도 이 화(禍)를 면(免)치 못하고 돌아가시니 즉(卽) 경인(庚寅)八月十七日이라.

옛날 석계륜(石季倫)도 사사로운 혐의로써 살해(殺害)를

당(當)하고 또한 공문거(孔文舉)도 연고(緣故)없이 화(禍)를 입은 것도 이것이다. 그 이름이 높아졌던 까닭이라 난세(亂世)에 명망(名望)이 높으면 과연古今(古今)을 통(通)하여 환(患)을 당(當)하게 된다. 八月二十一日에 선관리(仙觀里) 뒷산(山) 경좌원(庚坐原)에 장사(葬事)하니 선조(先祖)의 묘소(墓所)에 따라 감이다. 배(配)는 경주김씨(慶州金氏) 덕신(德信)의 따님이시니 삼남삼녀(三男三女)를 두시고 별세(別世)하니 장(長)은 영익(永翊)이요 차(次)는 영직(永植) 삼은 영원(永源)이요 장녀(長女)는 백완기(白完基) 차녀(次女)는 김인용(金仁龍) 삼녀(三女)는 박홍규(朴洪奎)요, 묘(墓)는 선관리(仙觀里) 뒷산(山) 부군(夫君)의 묘소(墓所) 근처 슬좌원(近處戌坐原)에 모시었다. 후배(后配)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철곤(喆坤)의 따님으로 또한 삼남삼녀(三男三女)을 낳으시니 영국(永國) 영서(永瑞) 영만(永晩), 녀(女)는 오달삼(吳達三)이요 그 아래는 다 어리니라.

생각하건대 무송(撫松)은 쏙 빠진 오동(梧桐)과 같이 훌륭한 바탕에 호매(豪邁)의 기상(氣像)이셨다. 약(弱)한 사람을 능멸히 여기지 않고 은혜(恩惠)를 베풀어도 자랑하지 않으며, 은행(銀行)을 설립(設立)하여 산업공장(産業工場)을 시설(施設)하고 조수(潮水)를 막아 옥야(沃野)를 개척(開拓)하여 난민(難民)들을 구제(救濟)하는 등(等) 민첩(敏捷)한 것은 슬기이며, 또한 그 공사(工事)를 추진(推進)한 것은 그 용맹(勇猛)이 출중(出衆)하였던 연유(緣由)이니 지용(智勇)이 모두 탁월(卓越)하심이라. 착한 일을 하면 마땅히 상서를 내리는 것이 천리(天理)이거늘 착한 덕(德)을 쌓았어도 그와 반대(反對)로 화(禍)를 당(當)하였으니 인사(人事)의 변천(變

遷)에 천리(天理)를 의심(疑心)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것은 내가 무송(撫松)의 시종(始終)을 보고 들은 바와
그 유고(遺稿)를 참고(參考)하고 옛 친구(親舊)의 말을 인용
(引用)하고 종족(宗族)의 말을 바탕으로 대략(大略) 위와 같
이 기록(記錄)하여 후일(後日)에 입언군자(立言君子)의 채택
(採擇)한 고증(考証)으로 역사편찬(歷史編纂)하는데 수록(蒐
錄)되기를 바라노라.

무송재랑몰후(撫松齋郎沒後) 四年

(서기(西紀)一九五三年)계사동(癸巳冬)에

관산(冠山) 고광렬(高光烈)은 찬(撰)하노라

53. 僉知中樞府事玄公行蹟

公諱海迪改諱德采字汝安生于康熙辛酉八月初二日卒于乾隆壬午
五月十一日墓大丘府東上龍德里享年八十有二噫公早背所怙家且
貧窶備經險囂而雅性儉素安分自守治家敦睦待人勤厚世所稱焉素
患心痛積年沈痼百藥罔效謝絕人世六旬之後子枝長成承順奉養甘
溫之奉供庶幾盡心而又幸宿疾勿藥自瘳數十年來心安體康精力益
健優遊田舍傲樂自適歲在乙亥以年老道臣抄 啓得除 天爵古所謂
齒也德也爵也公於是焉備矣豈不休哉及夫今年正月猝患喉痛涉月
彌留轉成痰喘子弟欲進蓼劑則公曰吾以弱質致耄髦之壽命乃在天
豈藥餌所可益哉遂不使進但用緩疾之劑及其疾革命子弟等修正寢
席似睡而逝噫古所謂曰壽曰富曰康寧曰攸好德曰考終命公於是焉
兼之往古來今罕見其儔猗歟休歟塙₁於公有姻婭之分而慕公之德
源源往古來於公家深知公之平舊矣略述其始終之萬一茲敢忘拙以
記

歲在壬午八月三日

坡平後人 尹道恒 謹記

첨지증추부사헌공행적(僉知中樞府事玄公行蹟)

공의 휘(諱)는 해적(海迪)이었는데 또 다시 휘(諱)를 덕채(德采)로 개명(改名)하시고, 자(字)는 여안(汝安)이시니 강희(康熙)신유(辛酉)(西紀一七四一年)八月二일에 출생(出生)하시어 건륭(乾隆)임오(西紀一八二二年)에 졸(卒)하니 향년(享年)八十二歲로 생(生)을 마치시었다. 묘(墓)는 대구부(大丘府) 동상면(東上面) 용덕리(龍德里)에 있으시다. 희(噫)라 공이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하나 성품이 검소하고 분수(分數)를 지키어 집안의 화목에 힘쓰며 남을 대할 때에는 근후(謹厚)하여 세상(世上)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라 칭찬(稱讚)을 마지않았으나 항상(恒常) 신병(身病)으로 고통(苦痛)을 받으시다가 노후(怒吼)에 자손(子孫)들이 장성(長成)하여 승순(承順)하는 마음으로 봉양(奉養)하므로 평생(平生)토록 마음이 편하시고 신체(身體)가 강녕(康寧)하시며 정력(精力)이 건장(健壯)하시어 전원(田園)에 우유(優遊)하시고 희락(喜樂)을 자유(自由)롭게 하시게 되니 을해년(乙亥年)에 도신(道臣)이 정부(政府)에 품의(稟議)하여 첨지증추부사(僉知中樞府事)라는 높은 벼슬에 임명(任命)되시어 장수(長壽)와 덕(德)과 벼슬을 다 갖추셨으니 어찌 아릅답지 않으리오.

이 해 정월(正月)에 후통(喉痛)(목병)이 있어 오래동안 고통중(苦痛中) 담천(痰喘)(천식)이 되자 자제(子弟)들이 삼제(蔘劑)(인삼약)을 드리고자 한즉 공은 「내가 약질(弱質)로 八十의 수(壽)를 하였으니 천명(天命)이로다. 이 어찌 약(藥)으로 고치리오」 하고 자제(子弟)에게 정침(正寢)에 자리를

잘게 하라고 명(命)하여 자는 듯 서거(逝去)하시니 공께서는 오복(五福)을 수(壽)와 부(富)와 강녕(康寧)과 호덕(好德)과 고종명(考終命)을 겸비하시니古今(古今)을 통(通)하여 따른 사람이 드물었다.

아! 아름답도다. 내가 공과 인아(姻婭)(처당(妻堂))의 친분(親分)이 있어 공의 덕행(德行)을 사모(思慕)하므로 공의 집으로 자주 찾아뵈어 공의 평소(平素)에 하시던 일을 잘 알게 되어 그 시종(始終)의 만일(萬一)을 살피어 감(敢)히 망졸(妄拙)함을 무릅쓰고 이에 기록(記錄)하노라.

임오(壬午)八月三日(西紀一九四二年)에
파평후인(坡平後人) 윤도항(尹道恒) 근기(謹記)

54.증랑장공파 사적(中郎將公派事蹟)

8修譜(수보)인 庚辰譜(경진보)를 編修(편수)한지 16餘年(여년), 9修譜(수보)를 編修(편수)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歲月(세월)이 갈수록 한낱 冊幀(책장)속 裝飾品(장식품)으로 轉落(전락)해가는 族譜(족보)를 한글세대들에게도 쉽게 接(접)할 수 있는 方案(방안)으로 한글 併記(병기) 및 學歷(학력), 經歷(경력), 褒賞(포상)등을 補完(보완)하고 곧 渡來(도래)할 인터넷 族譜時代(족보시대)를 對備(대비)한 9修譜(수보)인 電子族譜(전자족보)를 DVD化(화)하여 編纂(편찬)하는 收單(수단)에 參與(참여)하면서, 中郎將公派(증랑장공파) 事蹟(사적)의 撰文(찬문)을 請(청)하기에 先驅者(선구자)의 길을 가신 先祖(선조)님들의 발자취를 採錄(채록) 記述(기술)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族譜(족보)를 編纂(편찬)하는 意義(의의)는 內部(내부)로는 一族(일족)의 血統(혈통)과 家系(가계)를 網羅(망라)하여 先祖(선조)님의 閱歷(열역)과 個人(개인)의 來歷(내력)을 昭詳(소상)하게 記錄(기록)하고 뛰어난 先祖(선조)님의 功德(공덕)을 後孫(후손)들에게 傳(전)하므로서 偉大(위대)한 祖上(조상)의 後裔(후예)임을 矜持(금지)로 後孫(후손)들 間(간)에 團結(단결)하고, 相扶相助(상부상조)하는 한편 祖上(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는 出藍(출람)의 子孫(자손)이 되도록 銘心(명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고, 外部(외부)로는 歷史學界(역사학계)에서 朝鮮(조선) 轉換期(전환기)에 先導的(선도적)이고 肯定的(긍정적)인 活動(활동)으로 韓國近代化(한국근대화)에 貢獻(공헌)했던 人物(인물)들에 對(대)한 論題(논제)의 中心(중심)에 川寧玄氏(천녕현씨) 後孫(후손)들 상당수가 包含(포함)된 것에 注目(주목)하여 1705년에 編纂(편찬)된 川寧派譜(천녕파보)와 셋말 先塋(선영)내 碑文(비문) 京畿道(경기도) 地方文化歷史記錄書(지방문화역사기록서)등을 研究(연구) 分析(분석)한 論文集(논문집)(1998년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발간)에서 보듯이 한 집안의 族譜(족보)도 實錄(실록)에 比肩(비견)되는 文化遺產(문화유산)으로 評價(평가)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文化遺產(문화유산)인 延州玄氏(연주현씨) 大同譜(대동보)도 1747년에 編纂(편찬)한 丁卯譜(정묘보)가 1修譜(수보)입니다만, 이보다 42년 앞선 1705년에 編纂(편찬)된 川寧派譜(천녕파보)가 玄門(현문)의 最古(최고)의 族譜(족보)인 것은 進取的(진취적)이었던 先祖(선조)님들의 앞선 記錄文化(기록문화)가 오늘에 傳家之寶(전가지보)임을 立證(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延州玄氏(연주현씨)의 始祖(시조)이신 門下侍郎平章事(문화

시랑평장사) 諱(휘)覃胤(담윤)公(공)은 延山君(연산군) 封君地(봉군지)인 延州(연주)를 本貫(본관)으로 定(정)하고 世系(세계)가 始作(시작)되었지만, 後孫(후손)들이 벼슬길을 따라 移住(이주)한 世居地名(세거지명)을 借名(차명), 16餘(여) 本(본)으로 分籍(분적)된 것을 玄氏(현씨)는 諱(휘)覃胤(담윤)公(공)을 始祖(시조)로 모시는 同祖同根(동조동근)의 後孫(후손)임을 共知(공지)하면서 本貫(본관)을 延州(연주)로 統一(통일)하여 延州玄氏大同譜(연주현씨대동보)가 8修譜(수보)인 庚辰譜(경진보)까지 編纂(편찬)되었으나, 우리門中(문중)에서는 6-7修譜(수보)에 一部(일부) 家系(가계)에서 收單(수단)에 參與(참여)하였을 뿐, 全体門中(전체문중)이 參與(참여)한 것은 8修譜(수보)인 庚辰譜(경진보)가 唯一(유일)하다.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의 中始祖(중시조)는 驪州牧使(여주목사) 退任(퇴임) 後(후) 川寧縣(천녕현)에 定住(정주) 하시면서 本貫(본관)을 川寧(천녕)이라 定(정)하고 川寧玄氏(천녕현씨)의 始祖(시조)가 되신 9世(세)諱(휘)守(수)公(공)이시나 墓所(묘소)가 失傳(실전)되었고 餘他(여타) 記錄(기록)도 滅失(멸실)되다 보니 後孫(후손)들이 千枝一根(천지일근)으로 蕃盛(번성)의 母胎(모태)가 된 掌隸院判決事(장례원판결사) 14世(세)諱(휘)壽謙(수겸)公(공)을 實在(실재) 中始祖(중시조)로 모시는게 妥當(타당)하다고 思料(사료)됩니다. 公(공)은 配位(배위)이신 淑夫人(숙부인) 安東金氏(안동김씨)슬하에 5兄弟(형제)(諱(휘)武(무), 諱(휘)龍(용), 諱(휘)雀(작), 諱(휘)虎(호), 諱(휘)黃(황))을 두셨다.

長男(장남)이신 光國原從功臣(광국원종공신) 15世(세)諱(휘)

武(무)公(공)의 家系(가계)에서는 初期(초기)에는 醫科(의과)및 算員(산원)에서 中後期(중후기)엔 譯科(역과)에서 國家(국가)의 棟樑才(동량재)가 輩出(배출)되어 官僚(관료), 譯官(역관), 地方 守令(지방수령)으로 成長(성장)하였고, 諱(휘)武(무)公(공)의 3男(남) 16世(세)諱(휘)夢祥(몽상)公(공)系(계)에서는 20世(세)諱(휘)悌綱(제강)公(공)이 御醫(어의)로 임금(英祖6년)을 診療(진료)했다는 記錄(기록)과 22世(세)諱(휘)必采(필채)公(공)은 內醫(내의)로 임금(정조24년)을 診察(진찰) 및 處方(처방)했다는 記錄(기록)이 있다. 諱(휘)武(무)公(공)의 4男(남) 16世(세)諱(휘)得洪(득홍)公(공)系(계)에서는 23世(세)諱(휘)錫聞(석문)(세례명: 錫文카롤로)公(공)이 韓國天主教(한국천주교) 初期(초기) 信者(신자)이자 殉教者(순교자)로서 1839년 己亥敎難(기해교난)에 朝鮮敎區(조선교구) 2代(대) 앵베로主教(주교)와 宣敎師(선교사)및 敎友(교우) 公(공)의 家族(가족)등이 殉教(순교)하는 渦中(와중)에, 生前(생전)에 主教(주교)께서 당부하신 朝鮮天主教(조선천주교)의 運命(운명)과 당신이 記錄(기록)하시던 己亥日記(기해일기)의 完成(완성)을 遂行(수행)키 위해 산속에 3年餘(년여) 隱居(은거)하면서 敎友(교우)들을 추스르고 己亥日記(기해일기)도 完成(완성)하였으나, 公(공)도 1846년 丙午敎難(병오교난)에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와 함께 새남터에서 軍門梟首刑(군문효수형)으로 殉教(순교)하였다. 己亥日記(기해일기)는 1925년 로마敎皇廳(교황청)이 殉教者(순교자) 諡福(시복) 審査(심사)時(시) 韓國天主教(한국천주교) 敎人(교인)79位(위) 福者(복자)의 諡福(시복) 節次(절차)에 決定的(결정적) 證據資料(증거자료)가 되었고, 公(공)도 1984년 5월 聖人品(성인품)에 올랐다.

次男(차남)이신 參判(참판)15世(세)諱(휘)龍(용)公(공)의 家系(가계)에서는 公(공)의 長男(장남)인 計士別堤(계사별제) 16世(세)諱(휘)仁祥(인상)公(공)의 子(자) 17世諱(휘)琢(탁), 諱(휘)璫(찬), 諱(휘)頊(옥), 3兄弟(형제)가 譯科(역과)에 入格(입격)한 以來(이래) 100餘名(여명)의 譯官(역관)이 輩出(배출)되면서 朝鮮朝(조선조)에 代表的(대표적)인 譯官(역관)집안으로 長安(장안)에 膾炙(회자)되었고, 特(특)히 22世(세)諱(휘)啓根(계근), 23世(세)諱(휘)厚(후), 24世(세)諱(휘)在明(재명), 25世(세)諱(휘)鎰(일), 4代(대)가 堂上譯官(당상역관)인 從1品(종일품)崇祿大夫(승록대부)에 올라 諱(휘)啓根(계근)公(공)의 祖父(조부)이신 20世(세)諱(휘)尙夏(상하)公(공)이 工曹參尉(공조참위)에, 父親(부친)이신 21世(세)諱(휘)深(심)公(공)은 漢城府左尹(한성부좌윤)兼(겸)五衛都總管(오위도총관)에 追贈(추증) 되었다, 또한 4代(대)가 145년 동안 써 내려온 22世(세)諱(휘)啓根(계근)公(공)의 東巖日記(동암일기:1744-1798), 23世(세)諱(휘)厚(후)公(공)의 喜高日記(희설일기:1798-1818), 24世(세)諱(휘)在德(재덕)公(공)의 弇山日記(엄산일기:1819-1833), 25世(세)諱(휘)鐸(탁)公(공)의 石樊日記(석번일기:1833-1887)는 한갓 民草(민초)들의 記錄物(기록물)로 貶毀(편취) 할 수도 있겠지만, 當時(당시) 4代(대)의 地位(지위)가 堂上譯官(당상역관)과 內醫正(내의정)인 高位官僚(고위관료) 身分(신분)임을 勘案(감안) 할 때 後孫(후손)된 慇心(욕심)에 國家(국가)의 文化財級(문화재급) 遺物(유물)로 評價(평가) 받아야 된다고 所望(소망)하지만, 哀惜(애석)하게도 後孫(후손)들이 管理不實(관리부실)로 因(인)하여 石樊日記(석번일기)만 傳來(전래)되고 있다.

延州玄氏(연주현씨)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濟州入鄉祖(제

주입향조)이신 明月萬戶(명월만호) 17世(세)諱(휘)禹成(우성)公(공)은 15世(세)諱(휘)龍(용)公(공)의 3男(남)이신 都事(도사)16世(세)諱(휘)文祥(문상)公(공)의 次男(차남)으로 1618년 京畿道別內面(경기도별내면)샛말에서 誕生(탄생), 1660년(顯宗(현종)1년)에 入鄉(입향)하셨고, 1696년5월8일 逝去(서거)하신 후 自經農場(자경농장)인 巨牛臺(거우대: 濟州市二徒洞(제주시이도동)에 安葬(안장)하였다. 그後(후) 寶城郡守(보성군수)를 歷任(역임)한 公(공)의子(자) 18世(세)諱(휘)石喆(석철)公(공)을 비롯하여 後孫(후손)들 墳墓(분묘) 30餘基(여기)가 들어서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濟州先塋(제주선영)으로 300餘年(여년)을 이어왔으나, 2008년 住宅開發地區(주택개발지구)로 收用(수용)되자 “명당머루”(제주시조천읍대흘리1327번지)로 移裝(이장)하면서 散在(산재)되었던 後孫(후손)의 墳墓(분묘)를 包含(포함) 100餘基(여기)의 先塋(선영)을 造成(조성)하였으며, 後孫(후손)들은 歷代(역대) 世居地(세거지)인 濟州市朝天邑咸德里(제주시조천읍함덕리)에 居住(거주)하고 있다.

參男(삼남)이신 右尹(우윤)15世(세)諱(휘)雀(작)公(공)은 世居地(세거지)인 天安(천안)의 先塋(선영)에 安葬(안장)되었고, 後孫(후손)들도 現地(현지)에 居住(거주)하면서 延州玄氏(연주현씨) 壬戌譜(임슬보) 收單(수단)에도 參與(참여)하였으나 生業(생업)따라 大部分(대부분) 出鄉(출향)하면서 庚辰譜(경진보) 編修(편수)에는 天安(천안) 判官公(판관공)系(계)로 吸收(흡수) 編纂(편찬)된 것으로 傳(전)해지고 있다.

四男(사남)이신 副司直(부사직) 15世(세)諱(휘)虎(호)公(공)系(계)에서는 1705년 譯科嘉善(역과가선) 18世(세)諱(휘)德潤(덕

윤)公(공)이 倭學譯科(왜학역과)에 入格(입격)한 以來(이래) 倭學(왜학) 堂上譯官(당상역관) 40餘名(여명)이 輩出(배출)되었고, 日本國(일본국) 對馬島(대마도)行(행) 譯官使(역관사)에 諱(휘)德潤(덕윤)公(공)이 派遣(파견)된 후 9回(회) 朝鮮通信使(조선통신사)行(행)에 5回(회)에 걸쳐 堂上譯官(당상역관)인 後孫(후손)들이 派遣(파견)된 것으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諱(휘)虎(호)公(공)의 世系(세계)에서는 倭政當時(왜정당시) 漆原郡守(칠원군수)이시던 24世(세)諱(휘)暎運(영운)公(공)이 失傳(실전)되었던 延州玄氏(연주현씨) 贊成公派(찬성공파) 中始祖(중시조)이자 孝寧大君(효령대군)의 孫胥(손서)이신 9世(세)贊成公(찬성공)諱(휘)碩圭(석규)公(공)의 墳墓(분묘)를 찾은 後(후) 贊成公(찬성공)系(계) 後孫(후손)들과의 緣通(연통)이 어렵다는 事由(사유)로 墳墓(분묘)의 整備(정비), 伐草(벌초), 歲祀(세사) 등(등)을 公(공)의 兄弟(형제)들이 主導(주도)하여 奉祀(봉사)하게 되면서, 1924년(倭政(왜정)15년) 延州玄氏(연주현씨) 甲子譜(갑자보) 編修(편수)時(시) 贊成公(찬성공)系(계) 14世(세)洙(수)公(공)이 无後(무후)인 것에 着眼(착안),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15世(세)諱(휘)虎(호)公(공)을 神主養子(신주양자)로 入籍(입적) 編修(편수)하여 90餘年(여년)이 지난 後孫(후손)代(대)까지 贊成公派(찬성공파)의 系譜(계보)를 이어온 合法的(합법적)인 奉祀孫(봉사손)임을 標榜(표방)하였다.

歲月(세월)이 흘러 壬戌譜(임슬보:1982년)와 庚辰譜(경진보:2000년) 編修(편수)時(시) 贊成公派(찬성공파) 宗孫(종손)系(계)와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諱(휘)虎(호)公(공)의 直系孫(직계손)들이 收單(수단)에 參與(참여) 하면서 甲子譜(갑자보:1924년5수보)와, 丁酉譜(정유보:1957년6수보)의 系譜(계보) 誤記(오

기)에 對(대)한 訂正(정정) 請願(청원)을 하였으나, 大宗會(대종회) 族譜編纂委員會(족보편찬위원회)의 名分(명분) 없는 放任(방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9修譜(수보)인 電子族譜(전자족보) 收單(수단)이 系譜(계보) 誤記(오기) 訂正(정정) 機會(기회)의 臨界點(임계점)이라는 覺悟(각오)로 贊成公派(찬성공파) 宗孫(종손)系(계)와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諱(휘)虎(호)公(공)系(계) 小門中(소문중)(서울, 홍천, 밀양)에서 提出(제출) 한 系譜誤記訂正(계보오기정정) 請願書(청원서)가 大宗會(대종회) 族譜編纂委員會(족보편찬위원회) 第5次(차) 會議(회의)(2015년10월22일)에 議題(의제)로 上程(상정), 滿場一致(만장일치)로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諱(휘)虎(호)公(공)系(계)는 贊成公派(찬성공파)系譜(계보)에서 分離(분리)할 것을 議決(의결)하였고, 理事會(이사회)와 定期總會(정기총회)에 上程(상정), 追認(추인)을 받고 終決(종결)하였다.

一連(일련)의 過程(과정)에서 諱(휘)虎(호)公(공)系(계) 後孫(후손)들이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로의 復籍(복적) 請願(청원)을 받고 大宗會(대종회) 仲裁下(중재하)에 兩(양)宗親會(종친회) 代表會議(대표회의)에서 當宗親會(당종친회)가 復籍(복적) 收用條件(수용조건)으로 첫째, 別內面(별내면) 先塋(선영)에서 破舊墳(파구분)한 29基(기)를 松界里(송계리) 先塋(선영)으로 移葬(이장) 復元(복원)하고 둘째, 宗財(종재)도 當宗親會(당종친회) 保有(보유) 基準(기준)에 맞춰 出捐(출연) 合算(합산)할 것을 提議(제의)하였으나, 諸般事由(제반사유)로 受用(수용)이 어려우니 復籍(복적)案(안)을 撤回(철회)하고, 宗員(종원)들이 聚畧(취합)한 意見(의견)대로 中郎將副司直公派(중랑장부사직공파)로 獨立系派(독립계파) 構成(구성)을 闡明(천명)한 바 있

다,

五男(오남)이신 諱(휘)黃(황)公(공)은 夭折(요절)한 것으로 傳(전)해지고 있다.

收單(수단)을 聚畧(취합) 하면서 壬戌譜(임술보:1982년), 庚辰譜(경진보:2000년), 編修(편수)에 參與(참여)했던 京鄉各地(경향 각지)의 宗員(종원)님들과의 疏通路(소통로)가 斷絕(단절)된 어려움과, 在美(재미) 宗員(종원)들인 27世(세)諱(휘)杓(수)牧師(목사) 後孫(후손)들과의 不通(불통)의 아쉬움, 限定(한정)된 紙面(지면)으로 中樞(중추)25世(세)諱(휘)鐸(탁)公(공)의 石樊日記(석번일기) 解說書(해설서)를 紹介(소개)치 못하는 哀惜(애석)함이 있고, 비록 派(파)는 分離(분리) 됐지만 同根(동근)의 子孫(자손)들인 15世(세)諱(휘)虎(호)公(공)의 後孫(후손)인 譯科嘉善(역과가선) 18世(세)諱(휘)德潤(덕윤)公(공)의 韓日(한일) 間(간)에 外交(외교), 貿易(무역), 通信使(통신사)行(행)에서 남기신 業績(업적), 小說家(소설가)이자 東亞日報社(동아일보사) 社會部長(사회부장)이셨던 25世(세)諱(휘)鎮健(진건)公(공)이 連累(연루)된 日章旗抹殺事件(일장기말살사건)의 陳狀(진상), 韓國(한국)大衆藝術界(대중예술계)의 巨木(거목)이셨던 27世(세)諱(휘)東柱(동주)(예명:玄仁(현인))公(공)의 演藝界(연예계) 祕話(비화) 等(등) 險難(험난)한 世波(세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로지 忠(충), 孝(효), 節(절), 義(의)의 길을 가셨던 先代(선대)의 삶을 經驗(경험)이 日淺(일천)한 短智(단지)의 筆舌(필설)로 담아내려 했던 것이 過慾(과욕)의 所致(소치)였음을 認知(인지)하면서, 至難(지난)했던 朝鮮朝(조선조) 外交史(외교사)에서 實務(실무)의 主軸(주축)으로 榮辱(영욕)의 國家大事

(국가대사)에 獻身(헌신)하셨던 譯官(역관)들의 哀歡(애환)의 記錄(기록)들과, 歷史(역사)의 轉換期(전환기)인 韓國近代化(한국근대화)에 先導的(선도적)으로 參與(참여)했던 先祖(선조)님들의 功績(공적)들을 採錄(채록), 補完(보완)하여 玄門(현문)의 자랑스러운 事蹟(사적)으로 完成(완성)시키는 것도 後孫(후손)들의 몫임을 素望(소망)하면서, 不備(불비)의 事蹟(사적)을 마칩니다.

丁酉年(정유년) 正月(정월)

中郎將公派(중랑장공파) 28世孫(세손)

丞燦(승찬) 謹書(근서)

55. 연 주현 씨 제 팔 수대 동보 발문

(延州玄氏第八修大同譜 跋文)

지문각 발행(知文閣發行)의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에 의하면 족보(族譜)라 함은 한 종족(宗族)의 계보(系譜)를 말한다. 부계(父系)를 중심(中心)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도표식(圖表式)으로 나타낸 책이다. 국가(國家)에 있어서의 사승(史乘)과 같은 것이요 조상(祖上)을 존경(尊敬)하고 종족(宗族)의 단결(團結)을 뜻하며 후손(後孫)으로 하여금 원근(遠近)을 불문(不問)하고 화목(和睦)의 풍(風)을 이루는데 그 목적(目的)을 둔다.

이는 성족(姓族) 파별(派別) 문벌(門閥) 가승(家乘)을 분명(分明)히 하고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별(別)을 명백(明白)히 하고 있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는 고려사(高麗史)에赫赫(赫赫)한 공훈(功勳)이 기록(記錄)된 경헌공(景憲公)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있으며 그 분의 후손중(後孫中)에는 그 분의 충절(忠節)의 정신(精神)을 이어받아 국사(國史)와 가승(家乘)에 찬연(燦然)히 빛나는 업적(業績)을 남기신 분이 허다(許多)함은 매거(枚舉)의 겨를이 없다 하겠다.

이는 우리 가족(家族)의 긍지(矜持)요 이를 본받아 선조(先祖)에 뒤지지 않는 후예(後裔)가 되고자 분발(奮發)하며 상호격려(相互激勵)하는 가운데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고 있음은 우리의 큰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의 계보(系譜)를 밝히고 자랑을 소상(昭詳)히 알리고자 일찍이 조선조(朝鮮朝) 영조(英祖)二十三年(西紀一七四七年)에 정묘보(丁卯譜)를 편찬(編纂)한 이래(以來) 수차(數次)에 걸쳐 개수증보(改修增補)를 거듭해 왔으며 근자(近者)에는 서기(西紀)一九八二年에 임술보(壬戌譜)를 발간(發刊)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근이십년(近二十年)의 세월(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기세(棄世)한 분이 많은 동시(同時)에 새로 출생(出生)한 자손(子孫)도 많아 변동(變動)이 불소(不少)할뿐 아니라 교통통신(交通通信)을 비롯한 과학(科學)의 발달(發達)로 임술보(壬戌譜)에는 미처 수록(修錄)되지 못하였던 종원(宗員)이 많이 발굴(發掘)되어 임술보(壬戌譜) 개수(改修)의 필요성(必要性)이 절실(切實)하게 되었다. 북한(北韓)에 거주(居住)하는 종원(宗員)은 아직 미궁(迷宮)속에 있지만 그래도 일부(一部)나마 탐지(探知)할 수 있었으며 또 중국(中國)을 비롯한 해외(海外) 종원(宗員)들도 아직 완벽

(完璧)하지는 못하지만 상당수(相當數)를 찾아낼 수 있었음은 그 필요성(必要性)을 더하게 만들었다.

이제 연주현씨팔수대동보(延州玄氏八修大同譜)(경진보(庚辰譜))를 편찬(編纂)함에 있어서는 많은 종친(宗親) 여러분의 적극적(積極的)인 협조(協助)와 봉사(奉仕)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원래(元來)는 우리 대종회(大宗會)의 회장(會長)이요 대동보편찬위원회(大同譜編纂委員會) 위원장(委員長)인 본인(本人)이 주관(主管)하는 것이 당연(當然)한 일이지만 사정(事情)이 여의(如意)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우선(于先) 종원(宗員) 여러분에게 심(甚)히 죄송(罪悚)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명예회장(名譽會長)이신 이복씨(履福氏)가 자초지종(自初至終) 사실상(事實上)의 위원장직(委員長職)을 수행(遂行)하여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희생적(犧牲的)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깊이 감사(感謝)드리는 바이며, 우리 종원(宗員) 모두가 그 분의 공로(功勞)를 높이 경하(敬賀)함이 마땅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팔수대동보(八修大同譜)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 부위원장(副委員長) 종혁씨(宗赫氏)를 위시(爲始)하여 운영분과위원회(運營分科委員會)의 진규(鎭奎) 위원장(委員長)과 편수분과위원회(編修分科委員會)의 병룡(炳龍) 위원장(委員長), 재무분과위원회(財務分科委員會)의 상철(相喆) 위원장(委員長), 증균(仲均) 사무국(事務局)장, 순건(淳健) 편수간사(編修幹事) 등(等) 여러분과 그리고 각(各) 지역(地域)의 수단위원(收單委員)의 헌신적(獻身的)인 노고(勞苦)를 높이 표창(表彰)하여 마지않는다.

아울러 경진보(庚辰譜)의 편찬(編纂)을 위(爲)하여 후원성

금(後援誠金)을 출연(出捐)하여 주신 여러분의 성의(誠意)에 깊이 감사(感謝)의 뜻을 표(表)하여 마지않는다. 이제 종원 제위(宗員諸位)의 정성(精誠)으로 드디어 경진보(庚辰譜)가 세상(世上)에 빛을 내게 되었으니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일대경사(一大慶事)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자기술(電子技術)이 발달(發達)됨에 따라 앞으로 책자(冊子)로 된 족보(族譜)의 편찬(編纂)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斟酌)됨을 감안(勘案)할진대 경진보(庚辰譜)가 지니는 의미(意味)는 더욱 중차대(重且大)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차제(此際)에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의 모든 가정(家庭)은 경진보(庚辰譜)를 일질(一帙)씩 비치(備置)하여 항상(恒常) 우리 조상(祖上)님들의 거룩한 인품(人品)과 탁월(卓越)한 치적(治績)을 명심(銘心)하고 부끄러운 후손(後孫)이 되지 않도록 노력(努力)하면서 상호화목(相互和睦)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영광(榮光)을 만대(萬代)에 알릴 것을 당부(當付)하는 것으로 발문(跋文)에 대(代)하고저 한다.

서기(西紀)二〇〇〇年(경진년(庚辰年)) 초동(初冬)
이십사세손(二十四世孫) 전국무총리(前國務總理) 승중(勝鍾)
근발(謹跋)

56.補遺

玄氏 玄都古諸侯國子孫以國爲氏
周 玄鐸一 武王克商封箕子于朝鮮以左賓客來
 주(周)나라 때 헌탁일(玄鐸一)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征伐)한 후,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할 때

에 정이품(正二品)벼슬로써 기자와 함께 조선에 왔다.

玄裕 河間人見列仙傳

현유(玄裕) :서북성(西北省) 하한(河間)사람이라고 해서 열선전(列仙傳)에 기록되어 있다.

漢 玄賀 宕渠人顯宗(明帝)時爲卿佐宕渠令第五倫薦于朝爲九江沛二郡太守以清勤著聞終大司農

후한(後漢)때 현하(玄賀) :사천성(四川省) 거현(渠縣) 동쪽에 있는 탕거(宕渠)사람으로서 후한 명제(明帝)때 집정(執政)을 보좌하는 신하 탕거령(宕渠令)과 장릉(長陵)사람 제오륜(第五倫)이가 조정(朝廷)에 추천했으므로 안휘성(安徽省) 수현(壽縣)에 있는 구강군(九江郡)과 안휘성 숙현(宿縣) 서북쪽에 있는 패군(沛郡)의 태수(太守)가 되었다. 청렴결백하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조정(朝廷)에 알려져서 곡식을 맡아보는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였다.

南 玄氏 後魏文成帝夫人

남조(南朝)때 현씨 :북위(北魏) 문성제(文成帝)의 부인이다.

北 玄覽 與東陽陳敦公孫度俱對策爲治中

북조(北朝)때 현람(玄覽) :산둥성 비현(山東省 費縣) 서남쪽에 살고 있는 진돈(陳敦)과 양평(襄平)사람 공손도(公孫度)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내무(內務)를 담당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晉 玄安 大中四年爲侍中尹

서진(西晉)때 현안(玄安) :대중(大中) 四年에
임금 곁에서 여러가지의 일을 받들고 고문(顧問)에 응하는
벼슬을 하였다.

宋 玄滋 紹興十一年知廣州郡事

남송(南宋)때 현자(玄滋) :고종 소흥(紹興) 十
一年에 광주군(廣州郡)에 대한 모든 일을 맡게 되었다.

明 玄端 遷安人天順中貢士任知縣

명(明)나라때 현단(玄端) :천안현(遷安縣) 사람
으로서 명나라 영종(英宗)때 제후(諸侯)로 부터 중앙정부에
천거(薦舉)되었으므로 현지사(縣知事)가 되었다.

玄寧 順天人嘉靖間江西金谿縣丞(以上并見萬姓譜)

현녕(玄寧):명나라 영락초(永樂初)에 세운 순
천부(順天府) 즉, 북경(北京)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통치되어
태평한 시대에 양자강(揚子江) 중류 남쪽 금계현령(金溪縣
令)의 보좌관이 되었다. 이상은 모두 만성보(萬姓譜)에 기록
되어 있다.

行列字豫定表

行列字를 一世에 두 字式 豫定하였으니 後孫이 변경하여 그 이름이 서로 같거나 先祖의 諱字에 犯觸되거나 五行에 相生字를 가리어 定하되 堂内에는 可及의 行列字를 一致하게 遵守하기 바람。

○根	○植	三十三世	○周	○基	二十五世
容○	熙○	三十四世	錫○	鍾○	二十六世
○起	○培	三十五世	○淳	○涉	二十七世
鎰○	鎭○	三十六世	相○	柄○	二十八世
○泰	○求	三十七世	○烈	○煥	二十九世
柱○	榮○	三十八世	圭○	在○	三十世
○燮	○輝	三十九世	○善	○鎔	三十一世
珖○	堧○	四十世	海○	泳○	三十二世

延州玄氏大宗會

職位	姓 名 (팔호안은) 地域
會長	勝鍾
顧問	泰鎮 永源 平孝 敬大 勝一 拱洙 (日本東京)
名譽會長	履福
常任副會長	宗燦
副會長	鎮奎 炳龍 相喆 昭煥 光承 基壹 大寬 彰淳 鍾顥 (釜山) 光世 (大邱)
指導委員	致邦 (濟州) 八龍 (仁川) 基奉 (日本東京)
監事	直東 亨植 壽昌 淵穆 健殷 斗京 台鎮 商洽 化珍 祥琮 (日本東京) 鍾鎬 龍洙 昌基
事務局長	仲均
當然職理事	定基 (青松) 壽根 (堤川) 仁涉 (醴泉) 光必 (豐歲) 銀周 (天安) 永錄 (光州) 秀一 (楊州) 鍾球 (忠南西部) 永煥 (大田) 喆洙 (公州) 明根 (錦山) 洛祐 (聞慶) 柄恒 (星州) 光錫 (梅山) 彩麟 (咸興) 明周 (平澤玄村) 淳健 (价川) 炳貞 (博川) 相烈 (議政府) 泰述 (鬱陵島) 炳徽 (定州) 相佑 (尚州) 應廉 (서늘) 完健 (贊成서늘) 承鎬 (昌平) 鍾寬 (幕錦) 相基 (槐山) 基得 (山清) 沅澤 (密陽) 台出 (金泉) 鍾錫 (洪城) 文壽 (漣川) 鍾春 (豐壤) 元鍾 (鐵原) 鎬潤 (面牧) 昌培 (論山) 哲男 (中國延吉) 鎮德 (中國龍井)
委囑理事	鎮烈 鎮浩 鎮寬 鎮浩 周容 璟基 (青松) 雄基 錫伍 錫俊 載基 (醴泉)
〃	光彦 (서늘) 炳周 (仁川) 承勳 (釜山) 龍熙 (玄風) 秉植 永殷 義松 永松
〃	萬鎬 (靈岩) 建柱 正熙 英善 (楊州) 得龍 (서늘) 學漬 旭 (咸興)

職位	姓	名 (팔호안은)	地域
委囑理事	龍周 (玄村)	信鍾 仁鍾 昌植 (价川)	大羽 南植 東晉 英植 (博川) 清根
〃	清浩	榮浩 柄權 三植 (議政府)	宅模 在善 (定州) 博烈 (淮陽) 正元 河陽
〃	天燮 千弘 (서울)	林鍾 (濟州)	炳武 海天 昌秀 炳成 俊甲 駿吉 運吉
〃	在吉 傅涉 鎬燮 武松 (贊成)	炳哲 生得 鍾國 (漣川)	任鍾 淳範 (서울)

延州玄氏大同譜編纂委員會

職位	姓	名 (팔호안은)	地域
顧問	泰鎮 永源 直東 平孝 敬大 勝一 拱洙 (日本東京)		
委員長	勝鍾		
監修	履福		
副委員長	宗懋		
指導委員	昭煥 光承 基壹 大寬 彰淳 鍾顥 海鳳 仁圭 正澤 光世 致邦 八龍		
〃	祥琮 基奉 (日本東京)		
監事	龍洙 昌基		
事務局長	仲均		

○運營分科委員會

委員長	鎮奎
幹事	仲均

委員	鎮烈 光彥 昌鎬 義松 暨 駿吉 鎬燮 大羽 鍾國 炳成 龍周 鎮浩
〃	仁涉 炳周 晴

○編修分科委員會

委員長	炳龍
幹事	淳健
委員	得龍 相烈 鎬潤 秉植 德男 英植 光必 炳貞 相台 完健 林鍾 信鍾
〃	銀周 學漬

○財政分科委員會

委員長	相喆
幹事	仲均
委員	千弘 柄權 点錫 博烈 淳範 承勳 生得 炳哲 旭 正元 任鍾 鎮寬

○特別委員會

委員長	勝鍾
委員	履福 泰鎮 宗熾 鎮奎 炳龍 相喆 昭煥 鍾顥 海鳳 壽根 致邦 光世
〃	文壽 永錄 炳武 炳貞 仲均

○收單委員

姓名	地域	姓名	地域	姓名	地域	姓名	地域	姓名	地域	姓名	地域	姓名	地域
星州牧使公派		全州判官公派		進士公派		僉正公派		保功將軍公派		星州牧使公派		星州牧使公派	
定基	青松	昌老	高敞	鍾敦	泰安	心鍾	价川	在善	定州	定基	青松	定基	青松
慶和	〃	鼎鎬	〃	鍾泰	錦山	濟鵬	〃	宅模	〃	慶和	〃	慶和	〃
珞基	大邱	鍾哲	大田	司評公派		德男	〃	炳學	〃	珞基	大邱	珞基	大邱
鎮奎	서울	詰洙	公州	司評公派		昌煥	〃	兵使公派		鎮奎	서울	鎮奎	서울
壽根	堤川	建柱	楊州	洧鎬	慶山	義良公派		成煥	釜山	壽根	堤川	壽根	堤川
南海縣令公派		正澤	大邱	龍基	大田	世珍	大田	成烈	淮陽	南海縣令公派		南海縣令公派	
光運	醴泉	鍾球	扶餘	詰錫	大邱	義州府尹公派		炳喆	大邱	光運	醴泉	光運	醴泉
錫俊	〃	星泳	林川	基元	聞慶	義州府尹公派		炳奎	〃	錫俊	〃	錫俊	〃
靈三	〃	台奎	保寧	光錫	梅山	義州府尹公派		靈植	慶州	靈三	〃	靈三	〃
靈澤	〃	柄泰	居昌	判尹公派		義州府尹公派		左承宣公派	尚州	靈澤	〃	靈澤	〃
昌基	〃	昌國	〃	君涉	咸興	義州府尹公派		左承宣公派		昌基	〃	昌基	〃
政涉	大田	龍熙	玄風	海龍	〃	東晉	〃	相佑	河陽	政涉	大田	政涉	大田
寅杓	全州	泳導	靈岩	學瀆	〃	相詰	議政府	承旨公派	仁川	寅杓	全州	寅杓	全州
靈春	清州	光鎬	〃	昭威將軍公派		清根	〃	承旨公派		靈春	清州	靈春	清州
義煥	大邱	泳翰	〃	明周	玄村	炳權	〃	元煥	仁川	義煥	大邱	義煥	大邱
		大奎	牙山	鍾旭	〃	泰述	을릉도						

鍾秀	石喜	昌煥	完涉	樂周	文吉	琴同	元鍾	鍾顥
槐山	楊州	烏山	〃	서울	昌平	서울	鐵原	釜山
海龍	鳳哲	寅奎	容淳	仲完	弘均	錫熙	奇涉	哲周
〃	中國龍井	牙山	靈岩	光州	서울	天安	禮山	泰安
哲男	鍾秀	鍾寬	相熙	永錫	正煥	昌煥	基奉	榮燮
中國延吉	洪城	平澤	報恩	日本大阪	英陽	原州	全州	盆唐
東春	萬俊	博烈	碩根	鍾國	柄恒	炳成	東五	在德
中國琿春	中國汪清	서울	安城	서울	星州	禮山	서울	昌平
承規	龍吉	鍾甲	洛佑	鳳鎬	光錫	正鎬	元煥	鎬燮
中國安圖	中國和龍	豐壤	聞慶	〃	서울	大邱	仁川	서울

其他地域

致邦	商洽	濟州牧使公派	光基	鍾玉	榮德	中郎將公派	姓名	地域
〃	濟州		〃	加平	楊平			
炳國	平章事公派	在奎	在元	承鎬	泳善	司諫公派	姓名	地域
禮山		求禮	光州	〃	昌平			
熙斗	萬涉	根洙	基得	在鶴	海天	贊成公派	姓名	地域
金泉	洪城	平澤	山清	春川	서울	洪川	安城	
昌洙	典客令公派	洙南	鍾喆	相基	泰吉	沅澤	台出	鍾文
豐壤	旌善	忠州	槐山	서울	密陽	金泉	洪城	地域
玉煥	錫煥	載弘	勳澤	中書舍人公派	錫源	文壽	鍾運	鍾聲
〃	論山	서울	軍威	〃	連川	〃	豐壤	地域

後援誠金 出捐 名單

姓名	金額	地域	姓名	金額	地域
勝鍾	壹佰萬圓正	价川	浩鍾	五拾萬圓正	价川
履福	壹仟萬圓正	鐵山	棕夏	五拾萬圓正	高敞
鎮奎	五佰萬圓正	青松	大羽	五拾萬圓正	博川
淳範	六佰五拾萬圓正	鎮南浦	鍾玉	五拾萬圓正	加平
光承	五佰萬圓正	天安	千赫	五拾萬圓正	軍威
基壹	參佰五拾萬圓正	聞慶	英福	五拾萬圓正	楊州
大寬	參佰五拾萬圓正	金陵	千弘	五拾萬圓正	서울
晴	參佰萬圓正	明川	勝一	四拾三萬圓正	大邱
正元	貳佰五拾萬圓正	河陽	德	參拾七萬圓正	서울
拱洙	貳佰萬圓正	在日本	健殷	參拾萬圓正	龍川
斗京	貳佰萬圓正	博川	淵穆	參拾萬圓正	价川
鎮浩	貳佰萬圓正	青松	鎮浩	參拾萬圓正	青松
祥琮	壹佰萬圓正	在日本	鎮寬	參拾萬圓正	青松
昭煥	壹佰萬圓正	大邱	壽德	參拾萬圓正	天安
鍾顯	壹佰萬圓正	釜山	相喆	參拾萬圓正	議政府
錫文	壹佰萬圓正	天安	成煥	參拾萬圓正	釜山
範燮	壹佰萬圓正	서울	鎬彦	參拾萬圓正	서울
榮德	壹佰萬圓正	楊平	傅涉	參拾萬圓正	安山
壽昌	五拾萬圓正	서울	直東	貳拾四萬圓正	天安

炳龍	東先	根永	榮豐	哲洙	永敏	起鎬	松榮	貴周	명철	在福	先甲	台出	錫煥	光春	奎鍾	在善	贊榮	森俊	義松	다윗	姓名
壹拾萬원정	壹拾壹萬원정	壹拾五萬원정	壹拾五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萬원정	貳拾參萬六仟원정	金額
醴泉	咸興	高城	松禾	井邑	井邑	井邑	城南	天安	太白	서울	富平	金泉	大田	定州	价川	定州	서울	定州	靈岩	在美國	地域
宅燮	東烈	正德	昌甲	海天	榮珠	鼎鎬	永基	昌老	光珠	淳健	元根	炳基	泰鎬	仁寬	裕洙	龍洙	官鎭	秉植	斗熙	光世	姓名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壹拾萬원정	金額
定州	서울	漣川	城南	서울	서울	高敞	高敞	高敞	禮山	价川	清州	서울	平壤	定州	豐壤	平澤	价川	靈岩	醴泉	醴泉	地域

基昌	壹拾萬원정	价川	廣浩	壹拾萬원정	舒川
哲周	壹拾萬원정	泰安	元圭	壹拾萬원정	서울
完涉	壹拾萬원정	서울	德秀	壹拾萬원정	天安
慶相	壹拾萬원정	价川	炳善	壹拾萬원정	安城
泰述	壹拾萬원정	을릉도	元泰	壹拾萬원정	洪川
明淳	壹拾萬원정	博川	元根	壹拾萬원정	洪川
眞承	壹拾萬원정	博川	元哲	壹拾萬원정	洪川
昌植	壹拾萬원정	博川	宗勳	壹拾萬원정	濟州
南植	壹拾萬원정	博川	秉喆	壹拾萬원정	光明
光植	壹拾萬원정	博川	完健	壹拾萬원정	서울
炳貞	壹拾萬원정	博川	濟五	壹拾萬원정	平壤
仲均	壹拾萬원정	博川	承萬	壹拾萬원정	麟蹄
玉煥	壹拾萬원정	大田	武松	壹拾萬원정	鐵原
鍾文	壹拾萬원정	洪川	先鎬	壹拾萬원정	大田
祥弼	壹拾萬원정	水原	大午	壹拾萬원정	尚州
在南	壹拾萬원정	水原	宗學	壹拾萬원정	英陽
漢石	壹拾萬원정	水原	章煥	壹拾萬원정	英陽
容淳	壹拾萬원정	靈岩	道煥	壹拾萬원정	英陽
心鍾	壹拾萬원정	价川	鳳煥	壹拾萬원정	英陽
瓏煥	壹拾萬원정	春山	正煥	壹拾萬원정	英陽
姓名	金額	地域	姓名	金額	地域

禮賢	應廉	鎮烈	在慶	相基	昌伯	德柱	鎮澤	俊甲	文基	光洙	鍾釧	宗夏	錫泰	炳武	成哲	熙男	壽根	彰基	壽萬	姓名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八萬圓正	八萬圓正	八萬五仟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壹拾萬圓正	金 額
百嶺	서울	靑松	定州	槐山	서울	仁川	鎮川	洪川	서울	光州	大田	瑞山	原州	서울	서울	서울	堤川	釜山	서울	地 域
熙錫	淳哲	德煥	炳宰	鍾夏	旻奎	昌鎬	在恩	正植	昌遇	炳綱	鍾順	駿吉	允浩	致淵	元基	廷石	春植	宅模	東涉	姓名
五萬圓正	壹萬圓正	貳萬圓正	貳萬圓正	貳萬圓正	貳萬圓正	三萬圓正	三萬圓正	四萬圓正	四萬五千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五萬圓正	金 額
大邱	仁川		서울	서울	咸興	大田		서울	서울	成川	서울	서울	龍川	龍川	서울	尙州	襄陽	定州	서울	地 域

宗親會別	金 額	宗親會別	金 額
平澤玄村宗親會	壹佰萬원정	大田宗親會	參拾萬원정
博川宗親會	壹佰萬원정	定州宗親會	貳拾萬원정
議政府宗親會	壹佰萬원정	忠南西部宗親會	壹拾五萬원정
尚州宗親會	六拾萬원정	青松宗親會	壹拾萬원정
价川宗親會	五拾萬원정	梅山宗親會	壹拾萬원정
金泉宗親會	參拾萬원정	錦山宗親會	壹拾萬원정
軍威宗親會	參拾萬원정	咸興宗親會	壹拾萬원정
靈岩宗親會	參拾萬원정	密陽宗親會	五萬원정

58.구수보(九修譜) 大宗會 任員 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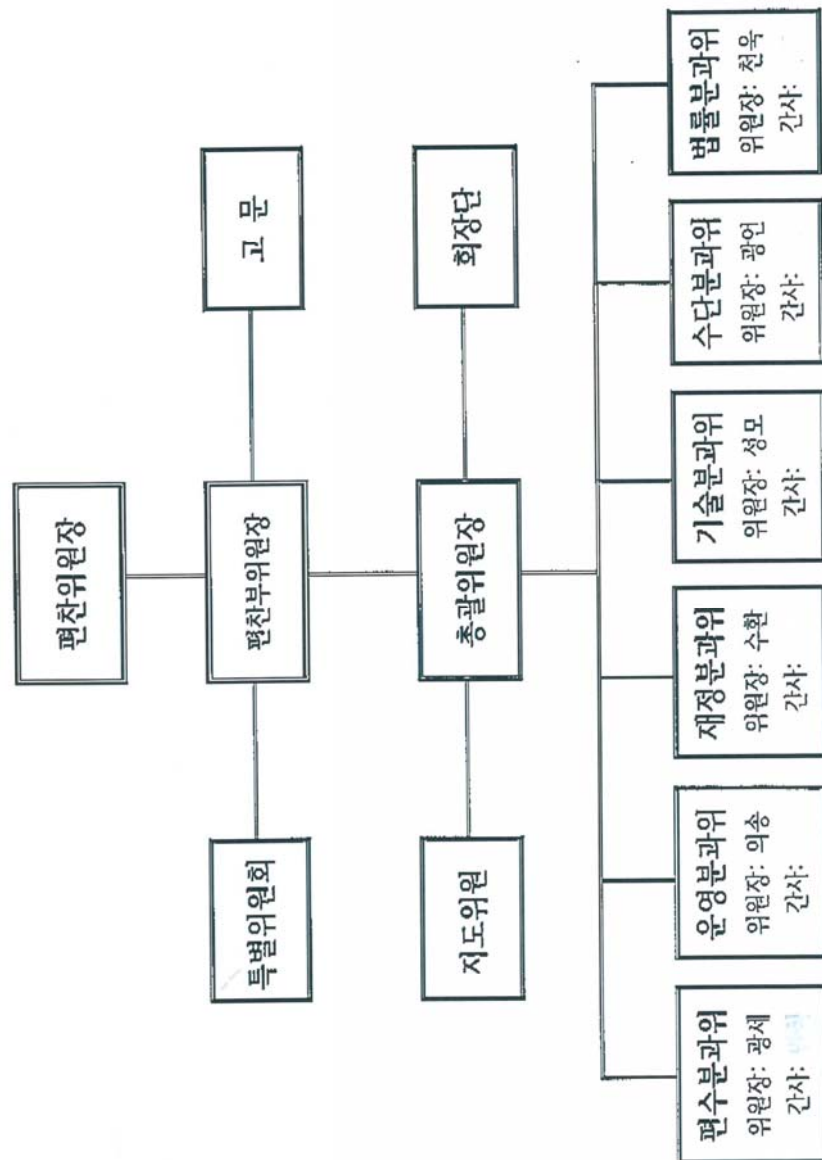
명예회장	승 종(勝 鍾)			
상임고문	진 규(鎭 奎)			
회 장	유 수(裕 洙)			
고 문	경대(敬大)	경병(鏡柄)	광세(光世)	
	광필(光必)	기환(伎煥)	명관(明官)	
	병구(炳九)	병무(炳武)	병철(炳哲)	
	성모(聖模)	소환(昭煥)	승일(勝一)	
	승훈(承勳)	연목(淵穆)	영국(永國)	
	영은(永殷)	용수(龍洙)	위헌(威憲)	
	임종(林鐘)	인택(仁澤)	창기(昌基)	
	춘하(春河)	치방(致邦)	홍주(鴻柱)	
	화진(化珍)			
지도위원	광승(光承)	귀남(貴男)	기득(基得)	동옥(東玉)
	민식(玟植)	병규(炳奎)	병정(炳貞)	봉수(奉洙)
	선학(善鶴)	석두(錫斗)	생득(生得)	성락(聖洛)
	성택(聖澤)	성환(成煥)	순건(淳健)	영관(永官)
	영균(永均)	영록(永錄)	용진(用珍)	영식(英植)
	영환(永煥)	원택(沅澤)	준갑(俊甲)	재호(再鎬)
	정택(正澤)	중균(仲均)	채린(彩麟)	천섭(天燮)
	천홍(天弘)	학권(學權)	호섭(鎬燮)	태섭(兌涉)
부회장	광언(光彦)	기일(基壹)	학수(鶴洙)	근식(根植)
	낙준(洛準)	동관(東官)	대열(大烈)	병은(秉殷)
	상집(商集)	소일(昭一)	승찬(丞燦)	성익(聖翊)
	식(植)	송영(松榮)	상덕(相德)	상부(相富)
	세욱(世旭)	순복(順福)	이성(利成)	의송(義松)

연섭(輦涉) 일선(日仙) 영두(榮斗) 정주(淨柱)
 진수(辰洙) 진호(鎭浩) 재원(在元) 창하(昌廈)
 창익(昌翊) 창호(唱鎬) 창훈(昌勳) 천욱(天旭)
 채문(采門) 철수(哲壽) 태식(泰植) 태주(台珠)
 희주(喜周) 한근(漢根) 해천(海天)

부산종친회장 계식(啓植) 광주종친회장 상호(相鎬)
 제주종친회장 후길(厚吉) 대구종친회장 수환(壽煥)
 대전종친회장 환옥(煥玉) 사무처장 진동(

59. 大同譜 編纂委員會

전자족보 편찬위원회 구성도



60.後援誠金 出捐 名單

전자족보 찬조금 내역

(2016. 현재)

금 액	고 문	지도 위원	부회장	이 사	총친회 (종중,문중)	종 원	소 계
3천 만			수환 (대구.경북회장)				30,000,000
1천 만	승훈 (와송그룹)						10,000,000
8백6십 4만원					남해 종친회		8,640,000
6백 만					막금 종친회		6,000,000
5백 만 (2)	진규				창원 종친회		10,000,000
3백 만	기환						3,000,000
3백 2십 만					중랑장공종친회		3,200,000
2백7십 3만					예산 종친회		2,730,000
2백 만 (4)	성모		진호		제주 친족회	왕수(제주)	8,000,000
1백 만 (39)	홍주 병구 광세 치방 화진 창기 인택 임종	민식 학권 태섭	정주 동만 창훈 소환 유수 상집 광식 길성 근식 태식 후길 연섭	두륜 화영 승진 상완 승일 왕식 영송 (재정담당회장) 만식	양주 종친회 청송 종친회	병국(제주) 학철(제주) 동식(제주) 병찬(제주) 대오(상주) 창돈(제주)	39,000,000
8십 2만 3천원					의정부종친회		823,000
50만 (4)	승일		이성 광언		제천 종친회		2,000,000
30만 (2)	영은				아산 종친회		600,000
20만				철주(태안)			200,000
10만				병철(한성공)		문옥(완주) 재종(사간공)	300,000
9만 5천						중섭(박천)	95,000
총 계							124,588,000
							124,588,000

61.전자대동보 편집후기 (電子大同譜 編輯後記)

서기 2000년 경진 8수 대동보를 편수, 보급한 때로부터 16년이 지나 병신년에 아홉 번째 대동보를 편수하게 되어 너무 빠르지 않은가를 하는 의의를 제기하는 여론도 없지않았으나, 종래의 족보는 漢字로 만들어져서 한글 전용 및 컴퓨터 시대에 성장한 한글세대는 영어보다 어려운 漢字문헌을 20-30년 마다 인쇄하는 읽지 못하는 책, 즉, 장서용(藏書用)책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나름대로 컴퓨터 세대와 노장층 한문세대를 연결할 사람들이 남아 있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전자족보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IT)에 따라 조상의 역사도 한글화 작업을 병행하며 동영상 등 최첨단의 기능들이 보강시켜 나감으로서 후손들이 조상의 이력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래의 족보는 생몰년대의 기록이지만 전자족보는 종원들의 이력관리(생몰, 학력, 경력, 포상, 이장 등)가 행정전산망 같이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며, 언제나 검색관리가 쉽게 그러나 안전 관리하에 정리 운영될 것입니다.

전자족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 즉,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르게 고치는 자세로 근 현대사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뿌리 찾기와 수년간 문중 사이의 정리가 안된 쟁점의 원인을 조정하여 수정보완을 통하여 혈맥을 찾은 보람을 느끼게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경진

8수보 편찬 당시 이미 정보화 시대를 예견 하였으며, 물질문명의 급속한 변혁에 따라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인하여 전통적이며 집단적인 씨족개념이 핵가족으로 분화되어 감으로 윤리의 부재와 배타적인 사고에서 “우리함께”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고려사에 나타난 시조 할아버지와 아들 3형제분의 강직함과 당당함 그리고 온유함과 청류함이 깃든 혈통을 자손대대 굳세게 지켜 나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9수보 편찬계획안을 상정, 결의한 후 회장단협의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추진 받은 후 외주용역사 선정 등 절차를 거쳐 동년 8월부터 편찬위원회 조직구성과 기초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중의 가장 큰 어른이신 승종 명예회장,과 편찬 부위원장을 맡아 사업전반에 앞장 선 진규고문 및 총괄위원장을 맡은 광세고문, 수보 편찬위원회 임원 여러분과 기획단체부터 기술부분을 담당 하였던 충훈이사의 노고와 각 지역 종친회 회장 및 임원 및 수단위원,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헌신을 다해주신 승찬 부회장과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